

統一教育 教授指針書

(政治思想教育)

1973



國 土 統 一 院

國民教育憲章

우리는 民族 中興의 歷史的 使命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祖上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自主獨立의 姿勢를 確立하고, 밖으로 人類 共榮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教育의 指標로 삼는다.

誠實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學問과 技術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所質을 啓發하고, 우리의 處地를 躍進의 발판으로 삼아, 創造의 힘과 開拓의 精神을 기른다. 公益과 秩序를 앞세우며 能率과 實質을 崇尚하고, 敬愛와 信義에 뿌리박은 相扶 相助의 傳統을 이어받아, 明朗하고 따듯한 協同 精神을 복돋운다. 우리의 創意와 協力을 바탕으로 나라가 發展하며, 나라의 隆盛이 나의 發展의 根本임을 깨달아,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다하며, 스스로 國家 建設에 參與하고 奉仕하는 國民 精神을 드높인다.

反共 民主 精神에 透徹한 愛國 愛族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自由 世界의 理想을 實現하는 基盤이다. 길이 後孫에 물려줄 榮光된 統一 祖國의 앞날을 내다보며, 信念과 矜持를 지닌 勤勉한 國民으로서, 民族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努力으로, 새 歷史를 創造하자.

1968年 12月 5日

머 리 말

교육의 모든 領域이 다 그러하겠지만, 國內外 情勢의 急激한 變化는 政治思想教育의 目標과 內容에 變化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더욱이 우리가 當面하는 國內外 情勢變化와 이에 對應하는 課題는 새로운 方向의 政治思想教育을 要請하고 있으며, 그 方向으로의 國民總和 形成을 더욱 踏實히 要請하고 있다. 이러한 國家的 時代的 要請에 呼應하는 教育의 課題는 短時日內에 少數人의 智慧와 努力만으로 完成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寸刻의 斷絶이나 空白狀態가 있을 수도 없는 莫重하고 時急을 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領域의 學界와 言論界의 著名人士들의 協助를 얻어 政治思想教育의 方向과 目標 및 內容을 設定하고 이를 土臺로 本 統一教育 教授 指針書를 作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本指針書는 모든 水準의 政治思想教育에 臨하는 教育者에게 도움이 되도록 構成하였기 때문에 專門家에게는 未洽한 點도 發見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것이 널리 活用되면서 계속 修正 補完되어 보다 完全한 指針書로 다듬어지기를 希望하고 時急한 要請에 도움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本指針書가 完成되기 까지 많은 激勵과 高見을 준 여러 諮問委員과 最終 完成段階에 까지 手苦해 준 專門委員, 그리고 關係官 여러분들께 심심한 謝意를 드리는 바이다.

1973. . .

國土統一院 長官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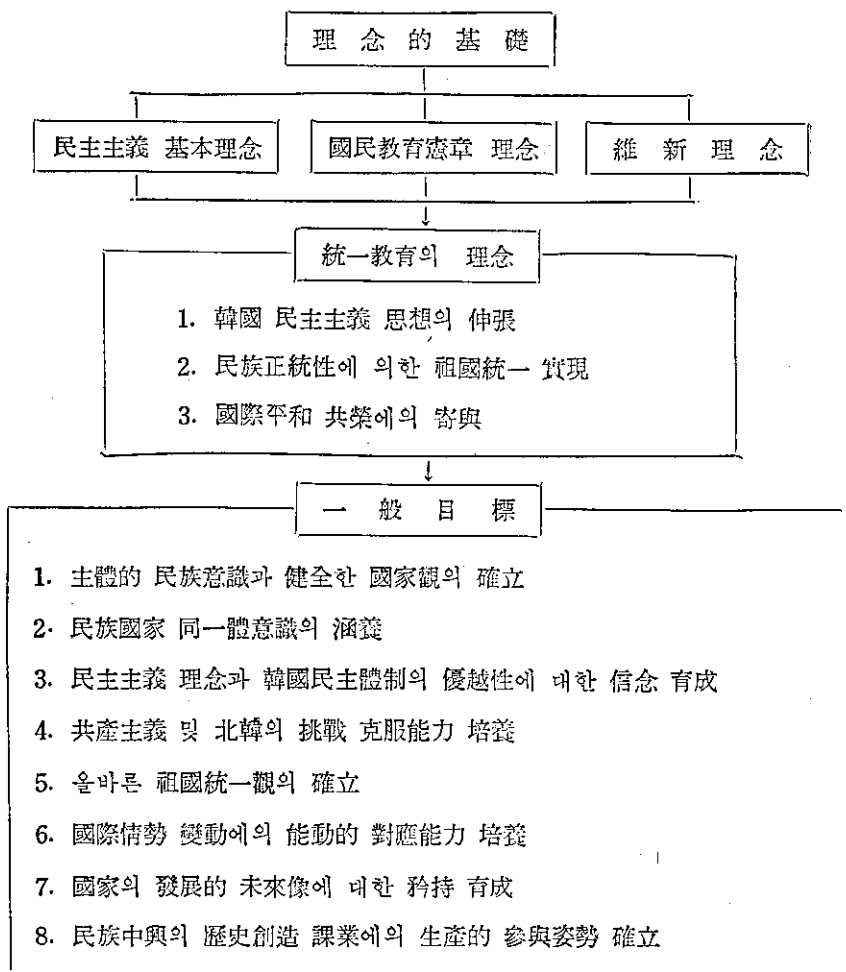
머리말

| | |
|---------------------------|-----|
| 全體概要 | 5 |
| 第 1 部 民族意識과 國家觀 | 9 |
| 第 1 章 民族史의 展開와 民族意識의 成長過程 | 15 |
| 第 2 章 文化傳統의 繼承發展 | 32 |
| 第 3 章 韓國의 正統性 | 44 |
| 第 2 部 民主主義 政治理念과 體制 | 51 |
| 第 1 章 民主主義 政治理念 | 57 |
| 第 2 章 民主主義의 成長過程과 政治體制 | 75 |
| 第 3 章 韓國 民主主義의 成長過程 | 94 |
| 第 4 章 民主的 生活樣式과 態度 | 106 |
| 第 3 部 共產主義의 理論과 實際 | 113 |
| 第 1 章 共產主義 理論과 그 批判 | 119 |
| 第 2 章 北韓의 現實 | 147 |
| 第 3 章 共產主義의 戰略・戰術 | 175 |
| 第 4 部 南北關係와 統一問題 | 183 |
| 第 1 章 祖國의 分斷과 南北關係의 變遷 | 189 |
| 第 2 章 祖國統一의 要請과 要件 | 203 |
| 第 3 章 政府의 統一原則과 南北의 統一政策 | 210 |
| 第 4 章 南北關係 發展의 方向과 展望 | 232 |

| | | |
|-------|-------------------|-----|
| 第 5 部 | 國際社會와 韓國 | 271 |
| 第 1 章 | 國際關係의 本質과 最近 趨勢 | 277 |
| 第 2 章 | 世界속의 韓國 | 298 |
| 第 3 章 | 國際社會와 南北關係 | 315 |
| 第 6 部 | 國家發展의 未來像과 國民의 使命 | 329 |
| 第 1 章 | 國家發展의 要請 | 335 |
| 第 2 章 | 國家의 當面課題 | 350 |
| 第 3 章 | 國民의 使命 | 358 |

全體概要

I. 統一教育(政治思想教育)의 理念和目標



II. 統一教育의 內容組織

| 題 目 | 主 題 | 內 容 組 織 | 強 調 點 |
|---------------------|-------------------|--|---|
| I. 民族意識과 國家觀 | 저레와 나, 나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主體的 民族意識의 成立 過程 民主的 文化傳統의 繼承과 發展 民族正統性에 立脚한 國家觀 定立 |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主體的 民族史觀의 確立으로 總和의 바탕과 우리의 民主的 基盤을 強調 |
| II. 民主主義 政治理念과 體制 | 우리의 바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民主主義 基本理念과 條件 民主主義 理念定立 過程과 體制定立 過程 韓國民主主義의 成長過程 民主的 生活樣式 | <ul style="list-style-type: none"> 民主主義가 現存하는 모든 理念과 體制中 最善의 것임을 強調 韓國民主主義의 優越性 強調 |
| III. 共產主義 理論과 實際 | 우리의 위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共產主義理論의 矛盾性 北韓의 實情 共產主義 및 北韓의 挑戰 樣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共產主義 矛盾을 批判하고 北韓의 挑戰을 克服을 強調 |
| IV. 南北關係와 統一 問題 | 우리의 갈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祖國分斷과 南北關係의 變遷 祖國統一의 要請과 要件 統一原則과 南北의 統一 政策 南北關係의 方向과 展望 | <ul style="list-style-type: none"> 祖國分斷의 由來와 南北間의 對立關係를 正確히 理解하고 우리가 試圖하는 統一 課業의 意義를 理解함에 強調 |
| V. 國際社會와 韓國 | 世界속의 우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國際關係의 本質과 秩序 韓國의 國際的 地位 國際平和 共榮과 韓國의 役割 南北關係의 國際性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國際關係의 力動的 本質을 理解하고 우리의 國際的 地位向上을 위한 國際外交의 重要性을 強調 |
| VI. 國家發展의 像과 國民의 使命 | 우리의 보람 있는 앞날과 할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國家發展의 方向과 要件 統一과 發展을 위한 課題 우리의 發展의 未來像 民族中興의 新 歷史 創造를 위한 使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의 發展의 未來像에 대한 理念과 自負心을 갖게하고 國家의 課業遂行에 歷史的 使命感으로 積極 參與하는 姿勢 確立을 強調 |

Ⅲ. 統一教育을 위한 一般指針

一 般 指 針

1. 政治思想教育是 自主, 團結, 繁榮, 平和統一의 精神을 具現하는 國家的 要請을 充足해야 한다.
2. 政治思想教育是 個人的 健全한 發達의 要求를 充足해야 한다.
3. 政治思想教育是 知的, 情意的, 行動的 特性을 均衡있게 開發해야 한다.
4. 政治思想教育是 眞實을 바탕으로 理念과 體制 및 現實에 充實할 수 있어야 한다.
5. 政治思想教育是 學校를 비롯하여 家庭 및 社會 모든 生活領域에서 調和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6. 政治思想教育是 全體的인 一般教育和 有機的인 體系下에 이루어져야 한다.

第 1 部

民族意識과 國家觀

目 標

1. 主體的 民族意識 涵養
2. 民族正統性에 대한 信念과 矜持 培養
3. 民族國家 同一體 意識 涵養
4. 發展을 위한 올바른 國家觀 確立

內 容 概 要

| 題 目 | 內 容 | 強 調 點 |
|---|---|--|
| <p>I. 民族意識의 成長</p> <p>1. 民族的 自主性의 確立 過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國家의 形成 過程 • 國難克服 • 民族思想의 成長 • 近代民族主義의 展開 <p>2. 民族進歩의 過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權運動 • 社會運動의 展開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羅의 統一, 高麗의 北進政策, 李朝의 女眞征伐 • 麗隋, 麗唐戰爭, 三別抄亂, 壬辰倭亂 • 高麗의 民族史 定立, 訓民正音, 儒學과 實學의 民族思想 • 東學思想, 獨立協會 運動, 斥邪運動, 3·1運動, 反託運動 • 高麗身分制에 대한 反抗運動, 李朝의 晉州民亂, 東學亂 • 日帝時의 農村運動, 새마을 運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總和에 의한 歷史 發展過程을 인식시키 으로서 民族主體意識 形成을 強調 • 民主的 要素로서 歷史 發展을 위한 民衆의 役割 強調 |
| <p>II. 文化傳統의 繼承 發展</p> <p>1. 韓國人의 民族性</p> <p>2. 民本政治 傳統</p> <p>3. 文化의 繼承과 創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間尊重思想, 平和思想 • 會議制: 和白制, 南堂, 都堂, 重房, 談政府 • 權力의 牽制: 大司諫, 春秋官, 實錄 編纂 • 民衆과 意思疎通制: 申聞鼓, 上疏 文制 • 權力規制制: 暗行御使制 • 文化의 創意性(自主), 自然性(人道), 實用性(進歩) • 外來 文化의 自主的 受容過程(儒, 佛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主的 人間像의 基礎로서 人本, 平和思想 強調 • 民主政治의 基盤으로서 民本政治의 傳統 強調 • 文化傳統의 自主性, 人道性, 進取性 強調 • 民族文化에 대한 自負 心과 矜持 強調 |
| <p>III. 韓國의 正統性</p> <p>1. 韓國의 正統性</p> <p>2. 國家觀의 定立</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化: 平和, 人本思想, 美風良俗의 正統性 • 政治: 民本政治의 正統性 • 主權在民思想, 民族共同體, 個人과 國家의 責任義務關係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의 正統性과 相對的으로 北韓의 傳統文化에 대한 批判성 強調 • 올바른 國家觀 強調, 國家共同體意識 強調 |

序 說

民族文化속의 자기를 發見하는 일은 자기를 아는 첫걸음이다. 解放 이후 이것을 疎忽히 하고 民主主義 發達을 西洋近世史를 통하여 가르쳤고 政治哲學의 內容을 증거로 共鳴을 얻고자 하였다. 젊은이들은 그 중에서 자기에게 便利한 價値만을 擇하였고 成人들은 이를 방종한 生活이라고 나무랐다. 이는 世代葛藤이란 이름으로 不可避한 現象이라고 한 때 諦念되는 듯 하였다.

한 때 民族意識이나 民族史觀을 主張하던 國粹主義者의 취급을 받았고 懷古主義 哲學이라고 保守派 대접도 받았다. 물론 그 責任의 半은 民族意識을 誤解한 學者나 政治人에게 있지만 解放後 無意識中에 이 傾向性에 휩쓸려 들어간 多數의 國民들을 생각한다면 적지않은 問題點이었다.

60年代 後半期는 自主性을 主張하여 成果를 거두기 시작하는 歷史의 새 創造였으며 이것이 急速度로 成長한 經濟的 條件과도 때를 같이 한다는 점을 看過할 수 없다. 學界뿐 아니라 政治界, 言論界에서도 從前의 고적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積極的이고 合理的인 研究와 啓蒙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어떤 個人이기보다는 國力에 대한 自信이 形成되어가고 있는 證據이며 國際情勢의 변화에 따른 옳은 反應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政治思想教育의 方向을 옳게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反共教育이 幅을 넓혀 第1部에 民族意識과 國家觀을 강조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는 廣義의 政治思想教育안에서의 反共教育을 보다 體系적으로 強化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여 單一民族이라는 점을 너무 放心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他國에 비하여 民族史 教育이 疎忽한 것이 事實이다.

一種의 應用史學이라고 볼 수 있는 本部의 目的은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는 韓國史의 知識을 모두 活用하여 韓國과 韓國人的 全體를 把握하고 올바른 史眼을 길러 줌으로써 民族의 展望을 밝히는 能力을 길러 주는데 있다.

歷史가 證據主義이어야 하는 同時에, 國史는 感性的 交叉가 있는 것이 特徵이다. 歷史와 自己와의 對話는 國民의 政治意識과 直結된다. 政治는 現在의 社會現象을 解決하는데 重點을 두지만 政治意識은 解決하려는 方向을 提示하는 것이기에 政治의 母體 구실을 할 때가 많다.

이것을 때로는 價値觀이라고도 한다. 政治觀은 民主主義나 社會主義나 兩者擇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民主主義를 택하고 난 다음에 自己와 自己나라와를 同一視

14 民族意識과 國家觀

하는 過程에서 그 民主主義를 土着化 시키는데 없어서는 안될 要素이기 때문에, 敎育의 努力結果로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에 略述한 취지에 따라 本部가 의도하는 目標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였다.

첫째, 階級史觀이나 他律史觀을 排除하는 理由를 歷史的 證據를 통하여 이해시키며 民族文化에 대한 自負心을 바탕으로 하는 民族意識이라야 眞正하고 強한 것임을 알게 한다.

둘째, 歷史의 흐름을 통하여 볼 때 大韓民國이 民族의 繼承者임을 알고 韓國의 正統性에 대한 認識을 높인다.

셋째, 國家와 個人과의 關係에 대한 새로운 認識을 통하여 바른 國家觀을 갖도록 한다.

이 部에서는 위와 같은 趣旨와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內容 領域을 첫째, 民族的 自主性의 確立 過程 둘째, 文化 傳統의 繼承 發展 셋째, 韓國의 正統性으로 區分하여 章을 設定하고 各章 末尾에는 指導上 특히 強調 또는 留意할 點을 記述하여 指導 敎師나 敎材 編纂者에게 參考가 되도록 하였다.

第 1 章 民族史의 展開와 民族意識의 成長過程

民族史를 인식함에 있어 事件中心의 年代的 配列을 중요시하였던 종래의 歷史教育의 缺憾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미의 歷史의 재경험이 어려웠던 기성세대에게 우리 民族의 걸어온 過程을 概念的으로 把握시켜 그 意味를 부여하여 주는 일은 매우 重要하다.

歷史의 主體가 人間이기애 民衆의 總和가 곧 歷史이어야 하지만 大衆은 疎外당하고 制度나 外形上의 文化만이 歷史속에 남는 경우가 많다. 民族的 團結의 樣式이 時代에 따라 다르고 客觀的 情勢나 歷史的 環境이 變化하여가는 대로 民族의 意識構造도 달라진다. 民族史에 대하여 悲觀적이거나 否定的인 認識態度는 과거의 植民史觀과 日人 御用學者들에게서 얻은 것이었다. 歷史를 美化시켜서는 안되는 것과 같이 歷史를 否定하거나 傳統을 無視하려 드는 것은 眞正한 意味의 歷史的 態度가 아니다.

오늘이 있기 위한 過去와 過去속의 過去가 相互交叉되는 데서 歷史敘述이 可能하며 그로 인하여 過去와 現在와의 꾸준한 對話가 생긴다. 특히 近世史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解釋이 加하여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對話의 結果이다. 近來에 와서 言論界가 묻혀 있던 民族文化를 發掘하는데 많은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歷史研究이기 보다는 自我發見의 발돋움이다.

韓國民族이 他民族에 비하여 特別히 優越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또 劣等한 것도 아니다. 中國에 事大하였다가 日本에게 國恥를 당하고 현재는 美國에게 從屬되어 있는 듯한 錯覺에 사로잡힌 사람이 없어야겠기에 民族史의 展開過程으로 이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固有文化의 卓越性을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渴求하는 사람은 反面에 또한 外來文化에 대한 劣等意識도 생기게 마련이다. 眞正한 民族史는 美醜나 善惡을 넘어 그것만이 가질 수 있는 歷史의 意味가 있는 법이다. 民主主義가 西洋에서 온 것이기는 하지만 받아들일 만한 素地가 있었기에 들어온 것임은 佛敎가 外來宗敎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精神生活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高麗의 佛敎가 印度나 中國의 그것과 같아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같을 수도 없었음을 歷史는 說明하여 주고 있다.

民族史의 自主的인 展開過程은 歷史의 主體를 民族에서 찾는데 意義가 있다. 民族意識은 누구에게나 있고 언제나 있는 것이지만 歷史는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것이 우리의 關心事이고 敎訓이다. 祖上들의 行爲는 現在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示唆를 주는 것이다.

I. 民族的 自主性的 確立 過程

I-1. 民族國家의 形成過程

-1) 民族의 概念:

① 民族이라는 概念은 人種 또는 國民과는 別개의 의미를 갖고 있다. 民族은 生物學이나 行政上의 區分과 달리, 歷史와 文化上의 共同體意識을 基盤으로 成立된다. 우리 民族이 單一民族임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歷史와 文化뿐만이 아니라 人種적으로나 行政적으로 合致된 稀少한 民族國家라는데 意義가 있다. 특히 世界의 新生國家들이 民族意識을 造成하는데 腐心하고 있는 現실을 볼 때 우리 나라가 이들에 비해 얼마나 有利한 歷史的 展開過程을 거쳐왔는가를 比較結果로 알 수가 있다.

② 單一民族으로 構成된 民族國家는 民族意識을 바탕으로 해서 結束力이 강하고 發展의 速度가 빠를 수 있다.

-2) 民族形成의 基盤:

① 韓民族의 歷史時代는 研究結果에 따라 매우 오랜 것이 밝혀지고 있으나 民族形成의 母體가 되는 氏族社會의 構成相은 新石器時代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당시 우리 民族이 비록 여러 氏族으로 갈라져 살았다 하여도 「토텐」 信仰이나 生産樣式 그밖의 法俗關係를 살펴볼 때 이미 同一 文化圈에 들어 있는 生活相임을 알 수 있다.

② 古朝鮮은 農業定着生活에 들어선 社會로 강력한 族長을 중심으로 뭉친 최초의 政治組織이었다. 支石墓에 나타난 意味는 그들의 族長이 代表者의 位에서 統治者의 역할로 옮겨왔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檀君神話型의 部族社會는 「토텐」信仰, 太陽崇拜, 巫俗信仰, 天君思想, 政教一致 등의 類似한 樣相을 띄우고 滿州一帶와 韓半島에 펼쳐 있었다.

③ 鐵器文化의 流入은 政治體制를 聯盟體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 檀君神話型의 社會에서 三國의 建國神話型의 社會로의 移行은 生産力의 增大에 따른 統治樣式 變化이다. A.D. 1世紀를 기점으로 하여 高句麗,

百濟, 新羅의 古代國家 建設은 이러한 部族聯盟體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④ 古代國家의 特徵은 家父長制의 族長들의 貴族化, 私有財産制의 登場, 下層의 選舉權 喪失 등에 나타난 血緣共同體의 崩괴에 따른 身分制의 分化에서 찾을 수 있다. 三國은 서로 다투어가며 統一의 盟主가 되기 위한 경쟁을 벌였으나 그 接近方法은 佛敎의 도입, 國史冊의 편찬, 敎育의 강화, 農業의 장려등 서로 비슷하였다.

-3) 民族形成 第一期:

① 花郎(新羅), 扁堂(高句麗)등의 敎育機關에서는 忠孝思想이란 새 價値觀을 基幹으로 國家意識을 넣어 주었다. 이러한 國民의 敎養은 貴族을 對象으로 이루어졌고 貴族들의 利益追求는 民族觀念에서 벗어난 것이라기 보다는 民族統一에의 促進劑가 되었다.

② 三國의 境界가 近接하여 가면서 7世紀의 衝突 開始는 民族統一에의 烽火였으며 三國의 싸움은 覇者의 다툼이었을 뿐 屈服을 위한 征服은 아니었다. 新羅가 統一한 후 高句麗와 百濟에 대한 禮遇나 統一新羅의 地方行政區劃 그리고 軍制를 볼 때, 다른 外侵을 받았을 때와 比較하면, 그것은 統一事業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③ 三國의 軍隊가 合同하여 唐軍을 몰아내는데 長期間을 보냈다는 사실은 단순히 三國貴族의 領土慾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立證하여 주는 것이다. 新羅의 三國統一은 血緣關係와 同一文化圈에서의 오랜 歷史가 가져다 준 民族統一의 成果이다.

-4) 民族形成 第二期(民族意識의 擡頭):

① 統一新羅는 領土의 安定을 얻은 다음 꾸준히 三國文化를 融合하여 民族文化를 創造하여 나갔다. 鄉歌, 音樂, 佛敎, 美術 등이 크게 發達한 것도 三國의 共同關心事의 集約이었기 때문이다. 新羅下代는 部族國家의 殘滓의 要素를 解體시키고 새 時代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시기였다.

② 高麗王室에 의한 再統一은 新羅를 계승하는 동시에 自己能力을 自覺하면서 歷史的 課題를 수행하여 나가는 時代이다. 高麗는 王室의 「이데올로기」와 國家의 「이데올로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文化水準이 높은 基盤 위에

형성된 것이다. 高麗時代를 一貫한 北進政策은 自主的인 民族防禦心이 새로운 國家意識과 結付되었을 때 일어난 現象이다. 이 國家意識이 民族意識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증거는 中期에 內的 葛藤을 解消시키기 위해 思想的 支柱로 檀君神話를 부각시켰다는 데서 볼 수 있다.

-5) 民族形成 第三期(民族文化의 結實):

① 高麗말기에서 朝鮮초기에 이르는 시기는 民族形成의 內的 充實을 매듭짓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朝鮮王朝는 政治的 版圖와 種族의 混合에 있어서 最終的인 線을 그어 地緣關係를 完成하고 다시 歷史的으로나 文化的으로 오늘날의 韓民族의 原型을 이루어 놓았다.

② 表面上으로는 專制君主制를 내세웠으나 이것은 西洋의 絕對君主制와는 다른 것이며 傳統的인 合座의 理念을 살려 合議制, 下意上達의 機構를 갖추는 데 노력하였다. 世宗朝에 꽃핀 民族文化는 한글의 創製를 필두로 科學技術의 發達에 이르기까지 民族形成의 結實을 보려는 諸政策으로 一般化시킬 수 있다. 法典과 國史의 編纂이나 儒教的 社會 規範의 適用 등은 單一民族을 바탕으로 하는 國家建設의 기틀을 잡기 위한 事業이었다.

③ 倭亂과 胡亂이라는 外侵에서 보여준 民族意識과 實學派들의 思想은 民族史의 過程에서 배운 것이다. 三國의 國史編纂, 高麗의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李朝의 東國史略, 東國通鑑, 東史綱目 등은 自國史의 認識이 民族意識으로서 바탕이 된다는 것을 일찌기 알았던 증거이다.

I-2. 舉族的인 國難克服

① 高句麗는 民族의 居住地域을 防禦하기 위한 防波堤의 구실을 하였다. 漢四郡의 마지막 勢力을 몰아내기 위하여 遼東으로 進出하여 樂浪을 고립시키더니 드디어 中國勢力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이때도 東部 部族들의 協助가 奏効하였다.

② 附와의 싸움에서 快勝한 것과 隋唐交替의 原因을 이루었던 것은 高句麗人의 기상이요, 民族의 魂불이다. 對唐戰에 있어서 中國側 史料에만 依存한다면가 또는 소위 正史 記錄만을 信憑하는 習性이 安市城의 楊萬春을 오

랫동안 잊게 했던 사실을 反省하여야 할 것이다.

③ 高麗時代에 이르러 北方의 遼, 女眞, 蒙古의 계속적인 侵入을 받았으나 北進政策을 固守하여 祖國을 守護하였다. 즉 對 契丹戰에서 功을 세운 徐熙, 姜邯贊, 康兆 등은 한결같이 國家와 民族을 意識하는 사관들이었고 가히 花郎의 後裔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④ 尹瓘의 女眞征伐의 成功은 그가 騎馬戰에 대한 理論을 익히고 女眞族의 虛點을 연구한 作戰과 訓練의 結果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別武班은 또한 國民의 總動員體制라는데 뜻이 있다. 女眞의 세력이 커지자 이들과 和合하자는 李資謙과 같은 貴族들은 자기의 安定勢力의 長期유지를 위한 賣國의 行動이었음을 認識하여야 한다.

⑤ 13世紀의 蒙古侵入은 당시 世界最強을 자랑하던 근대임으로 崇文思想에 들들여가는 高麗로서는 力不足의 상태였으나 高麗武人 三別抄들이 줄기차게 繼續 抗爭하였다는 점은 王室보다 國家를 위하는 忠誠에서 나온 것이다. 또 蒙古의 政治의 干涉속에서도 公민왕의 自主的 內政改革과 双城總管府나 東寧府의 收復은 國際情勢를 속히 판단하는 統治者의 眼目과 勇氣에서 발효된 것이다.

⑥ 倭寇의 약탈행위는 戰爭은 아니더라도 國民生活을 오랫동안 몹시 괴롭혀 왔다. 이것은 日本의 國民性과도 關係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⑦ 朝鮮時代의 事大交隣主義는 일종의 外交戰略이었을 뿐, 國家의 自主性을 喪失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中國에 대한 禮遇와 士大夫들의 儒學崇尙으로 인하여 中國 依存으로 바꾸어가는 歷史展開를 보였다.

그러나 事大交隣政策의 成果는 四郡六鎮의 開拓이나 倭寇의 근거지인 對馬島 征伐을 成功의으로 끝내고 領土의 擴張을 可能케 하였다.

⑧ 壬辰倭亂은 民族文化가 꽃피는 春節에의 暴風雨였다. 이에 대항할 수 있던 것은 武力이 아니라 民族魂 뿐이었다. 幸州山城의 권율이나 海戰의 이순신도 軍인이기는 하지만 義兵들과 꼭같은 民族精神이 있었다는 점이 다른 軍인과 달랐다. 義兵, 僉兵 그리고 女性들의 활동도 국가 有事時에 일어나는 民族意識의 表出이다. 倭亂이 崇文, 事大라는 과오에서 온 것이라면 胡

亂은 黨派때문에 일어난 外交政策의 貧困때문에 겪은 고통이다.

孝宗의 北伐計劃은 三學士의 굳은 절개와 相通하는 것으로 外勢의 자극을 敎訓으로 받아들인 例이며 國土守護의 主體는 權力에 寄生하던 貴族層이나 支配層이 아니라 大衆과 兵士들의 自發的 參與에 있었음을 말해 준다.

I-3. 民族思想의 成長

-1) 高麗時代 民族意識 :

① 統一新羅時代에는 共同體意識이 強化되고 血緣과 文化의 交叉를 이루어 가고 있었으나 民族思想이 政治意識으로 昇華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高麗의 光宗은 太祖의 遺訓을 받들어 北方族에 대한 自主外交를 내세우고 唐勢力이 무너진 中國의 空白期를 이용하여 民族意識을 政治的 次元으로 이끌었다.

② 崔承老의 政策은 中國 官制의 適用이나 王權의 牽制, 北方警備 強化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는 단순한 儒學者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高麗의 諸制度가 高麗의 特有한 性格을 지니고 있어 여기에서 徐熙, 姜邯贊과 相通되는 점을 찾을 수 있다.

③ 高麗朝의 檀君神話 내지는 部族國家의 建國神話는 民族意識을 기르는데 必要한 教材였다. 斷片的인 建國神話들이 高麗末에 이르러 檀君一夫餘一高句麗一百濟로 系列性을 갖게 된 것도 民族形成과 相關이 깊다고 할 것이다.

-2) 儒學의 民族思想 :

① 世宗朝에 편찬된 여러가지 書籍들 중에는 民族生活를 알아내려는 내용이 많았다는 것은 統治手段이기에 앞서 民族國家의 安定을 위한 知的 探究였다. 한글, 古典, 地理誌, 法典, 科學 등에 관한 연구는 儒學과는 無關한 것이지만 民族과 國家의 同一視를 위한 過程에 필요한 작업이다.

② 朝鮮時代에 朱子學이 크게 환영받은 것은 宋代에 遼, 金과의 對決에서 강력한 專制王權을 力說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이다. 三綱五倫은 中國 儒學이 아니라 三綱領, 八條目과는 전혀 다른 韓國의인 規範이었다.

李朝 儒學은 朱子學의 正統論, 大義名分論의 政治的 性格에서 차차 벗어나서 理氣論의 形而上學만을 주로 연구하였으나 初期는 그렇지 아니했다. 權

近, 金宗直, 趙光祖 등은 孝悌 忠信을 信條로 삼는 國家意識을 내세우고 있다. 性理學보다는 至治主義 儒學이 政治에 寄與한 바 있으나 性理學도 民本主義 思想을 통하여 政治意識을 높이고 忠誠과 義理의 一致와 忠孝의 同一視를 力說하였다.

-3) 實學의 民族思想 :

① 實學은 어떤 의미에서 李朝初의 復活이기도 하다. 朱子學의 形而上學의 關心에 反旗를 들고 自國의 安定과 繁榮을 위하여 改革을 주장하였다는 그 자체가 이미 民族과 國家의 課題를 對象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實學思想을 實事求是 또는 利用厚生이라고 보는 것은 그 一面에 불과하고 自我의 覺醒, 自我의 再樹立의 概念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이가 많다.

② 實學者들의 知的 探究는 原理나 本質論에서 벗어나 現象學에 關心을 두었기 때문에 民族生活이나 國家制度에 관한 내용으로 변질하였다.

③ 國史研究는 中國史의 隸屬을 벗어나서 三韓正統論을 中心으로 東史綱目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 實學은 政府에서도 奎章閣등을 통하여 새 學風을 지원하였다는 점 외에도 經濟政策에 관한 業績, 새로운 價値觀의 定立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庶民文學, 白磁, 風俗畫 등의 大衆과의 連結性이나 自我意識은 民衆들이 大學 民族文化에의 參與를 권장하는 結果를 가져왔다.

④ 實學의 民族思想이 儒學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丁若鏞의 時間意識(歷史的 認識)이나 技術爲主的 進步觀은 새로운 近代 民族主義의 基盤을 이루고 있었다.

I-4. 近代 民族主義의 展開

-1) 開國과 近代化 :

① 우리 나라의 近代史는 마치 外來文物에 의하여 전혀 새롭게 展開된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은 18世紀의 開港(開國)을 마치 西歐化의 시초인 것 같이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7世紀 以來 斷片的이나마 中國을 통한 접촉이나 漂流民들의 영향이 西歐에 대한 無知를 減少시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民族意識이 國家主義와 連結되기 시작한 징후를 實學에서 볼 수 있으며 초기 開化運動者들은 實學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開化思想이 곧 近代 民族主義는 아니며 近代 民族主義는 첫 段階에 開國과 海外知識을 넓히고 다음 段階로 技術的 進歩를 주장하는 시기를 거쳐 1890年代의 國家獨立과 民權思想의 主張에서 나타났다.

② 急進的인 開化派가 甲申政變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은 改革을 서두르는 나머지 大衆의 呼應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과 外國勢力을 이용하려 하였다는데 있다. 東學思想도 近代로의 轉換을 이룬 對照的인 潮流이다. 그들이 開化派에 비하여 더 大衆의 呼應을 얻었기에 舊秩序에 果敢하게 對항할 수 있었다. 이는 外勢를 배격하겠다는 主體性이 그 原動力이었다. 東學思想은 「르네상스」의 人間復歸와 啓蒙主義의 「양상레짐」을 연상하는 傳統否定面이 강하나 甲申政變이 制度改革인데 비하여 東學思想은 다분히 社會改革에 重點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東學은 一部 兩班層의 知識人들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政局의 혼란을 의식하는 民衆속에서 솟아난 일종의 國家主義였다고 볼 수 있다.

③ 東學革命軍은 그들의 要求條件 第1條에서 그들의 敵이 政府가 아니라 外夷들임을 내세웠고 포고문에서도 “民本”을 서두에 提示하고 있다. 또 獨立協會는 西洋의 自由主義 思想을 배운 知識人들이 主動이 되어 民權運動을 전개하였다. 특히 최초의 근대식 政治集團의 성격을 갖춘 獨立協會는 大衆의 政治啓蒙을 위하여 구체적인 生活의 範圍에서부터 素材를 잡았고 차차 政治的 次元으로 끌어올렸다. 결과적으로 民權思想이 1890年代에 民衆運動으로 번진 것으로 미루어보면 西洋이나 日本에 비하여 약 半世紀의 時差에 過不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近代化 過程은 日本서 開化를 배우고, 中國에서 自強을 배우고, 西歐의 民權을 받아들여 傳統의 民族意識 위에 近代 民族主義를 形成하려 하였다. 獨立協會는 親美的 要素가 있다하여 淸·日·露 등의 간섭으로 탄압을 받았는데, 日本의 對淸露戰의 勝利와 그로 인한 韓末의 國恥는 이 近代化 課業을 中斷시켰으나 새로운 反植民地 民族主義로 면모를 바꾸게 되었다.

-2) 斥邪運動과 自主改革 :

① 開港과 外夷의 出入을 反對하던 儒生들은 閔妃事件과 斷髮令등에서 일

제히 봉기하여 國內輿論을 代表하는 勢力을 形成하였다.

② 倭亂때 佛徒가 活躍하고, 舊韓末에 儒生이 憂國活動을 展開하며, 3·1運動에 東學의 精神이 基盤이 된 것등은 國內思想의 向背와 「에네르기」의 蓄積이 民族意識으로 나타난 現象이다.

③ 開化에 대한 반발로 外見上 保守勢力을 形成한 것 같이 보이나 儒生들은 當時의 知識人을 代表하는 集團이기도 하며, 開化와 事大의 어느 쪽에도 加擔하지 않았던 純粹한 民族思想의 所有者들이었다. 斥邪運動은 國民의 總和로서 日本의 植民地化 策略에 對항하던 指導者들의 활동으로 보아야 하며 大院君과 閔妃가 淸·日·露의 사이를 往來하며 派爭을 벌이던 그런 爲政者들의 混迷함과는 달리 主體性을 지닌 集團에 의해 이끌어져 나갔다. 여기에서 開化의 方向이 斥邪論者들의 意見과 相反되는 것이 아님은 東學黨의 改革案이 反動的이 아니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斥邪論은 開化를 贊成하면서 洋夷를 배척하고 그대신 自主的 開化를 主張하였는데 그 意義가 있다.

-3) 對日抗爭 :

① 乙巳條約 이후의 義兵運動은 乙未義兵 보다는 훨씬 發展的 意味를 갖고 있다. 乙未義兵은 侵略勢力과 結付된 國內의 官人 「그들」을 對象으로 한테 비하여 乙巳이후의 義兵運動은 日本이라는 確認된 敵을 對象으로 한 對外的 抗爭이다. 또한 乙未에는 士林層만이 參加한 部分的 參與였으나 乙巳이후는 舉族의 動員이었다.

② 義兵運動의 中心思想인 排他, 自存은 天主教의 전파로 인한 文化的 危機意識과 연이은 通商修好條約에서 洋物禁斷의 기치가 나타나 일종의 經濟的 危機意識을 겸하고 있다.

③ 儒學的 價値體系는 “忠君如父, 憂國如家”의 一次 社會的 倫理體系가 捨身取義, 殺身成仁과 같은 春秋學의 名分論과 結合되어 나타났다.

④ 20世紀初 韓民族이 맞이하였던 西歐秩序를 전제로 한 近代 民族國家 理念의 形成은 결코 西歐의 變數로서 이루어진 西歐化의 結果가 아니라 西歐化를 受容해야 할 새로운 歷史段階에서 韓民族이 스스로 이룩한 民族 自主意識의 發展의 展開의 形式이다. 3·1運動은 傳統과 近代化의 統合이라는 責

任을 저야했던 民族이 가야할 方向이었다.

⑤ 開港(1876)이후 30年間은 抵抗 民族意識이요, 乙巳(1905) 이후는 傳統이라는 自己保存 時期였고, 3·1運動(1919)은 바로 近代의 創造力의 發揮였다. 3·1民族主義는 抵抗이라는 消極의 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近代國家의 實踐이라는 民族運動이었기 때문에 이에 참가한 民衆들은 憲法制度 權力의 全國民의 行事라는 參政의 性格을 지닌다. 33人은 準政府의 性格이고 臨政의 秩序는 勤王復辟이 아닌 自由와 民主라는 近代秩序로 나타났다.

⑥ 日帝下에서도 政治的 自主性이 中斷된 것은 아니고 義兵運動, 3·1運動, 臨政으로 이어왔으며, 解放 후 反託運動은 民族의 危機에 나타난 第2의 3·1運動이었으며 그 以後에 나타난 철저한 反共思想도 共產主義가 傳統과의 調和를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취해진 價値選擇이었다.

II. 民族의 進步의 過程

II-1. 民衆의 役割 增大

① 政治意識은 近代에 이르러 急速度로 民衆에 擴大된 것이 아니라 古代以來 서서히 進展되어 왔다. 新羅時代의 和白制는 氏族社會의 遺制인 滿場一致制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그 本質은 氏族會議로서가 아니라 古代國家의 共通의 政治制度인 合座機關인 것이다.

② 三國時代 政治의 큰 特徵인 合座制는 高句麗의 大對盧, 百濟의 政事殿 등과 같은 宰相을 貴族의 互選으로 하도록 했다. 이것은 氏族長들의 貴族化로 인한 統治體制로의 전환이다. 合座機關의 주요 機能은 王位繼承, 對外戰爭, 佛敎의 受容 등 國家의 大事를 論議하는 것으로 全國의 靈地를 택하여 會議場所로 택하는 貴族聯合 성격を 띄우는 것으로 滿場一致制는 여기까지 계승되었다.

③ 기원 3世紀頃에는 南堂(또는 都堂)이라는 官廳이 생겼다. 部族社會의 性格의 政治機構에서 官吏의 位階가 分化하기 시작하자 王의 政事가 복잡하여져서 一種의 官廳이 생겼다. 高麗時代의 都兵馬使는 이 都堂의 후신으로

宰臣과 樞臣이 함께 國家의 重大事를 議論하는 合座機關이며 이것이 다시 李朝의 議政府나 備邊司에 계승되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 나라의 政治組織의 基本姿勢는 이 合座制度의 運營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合座機關은 高麗時代의 武臣政權下에서도 重房이라는 이름으로 存立하였으리만큼 合座의 傳統은 強한 것이다.

朝鮮朝의 議政府는 3政丞의 合座機關으로 이곳에서 決定되는 것이 根本이었다. 차차 官僚化되어가는 朝鮮時代에는 合座의 精神을 돕기 위한 王의 直屬機關을 두었다.

近代의 內閣制度에 이르기까지 民衆의 政治參與의 기회는 차차 增加되어 갔고 政治意識도 차차 높아져 갔다.

II-2. 民權運動

-1) 高麗時代 :

① 統治階層에 대한 被支配層의 對抗意識은 高麗 中期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 原因은 流民의 發生, 政治權力圈에서 떨어진 遠隔地, 部曲과 같은 賤民集團, 身分制의 變動등이었다. 즉 地方勢力과 결탁한 叛亂民들은 高麗의 身分制의 秩序에 反旗를 들었고 京都의 萬積은 首都의 奴婢가 團結하여 身分制에 反抗한 것이다.

② 高麗時代의 民權意識은 身分制의 秩序의 變化를 促求하는 古代的 遺産의 清算過程이라 할 수 있다.

-2) 李朝時代 :

① 李朝의 兩班政治가 그 矛盾點을 들어내기 시작하자 小作農으로 밖에는 存續할 수 없었던 農民들이 反抗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良民인 農民이 사실상 奴婢보다 낮은 대우를 받게 되는 矛盾에 대한 反발이다. 이러한 民亂은 流民火賊의 양상을 띠우다가 普州民亂과 같이 規模가 크고 組織的인 것으로 발전하였다. 民亂은 兩班體制에 대한 反抗意識과 手工業 발달에 따르는 產業構造의 변화와 탐관오리들에 대한 불평 등이 얽혀서 폭력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② 東學革命은 이러한 전통적인 民權意識이 近代의 感覺과 結合되어 일어난 歷史的 契機였었다.

東學의 主張은 韓國型 民權意識의 原型이었고 國家나 王에 대한 革命이기 보다는 社會改革을 앞세우는 主張들이었다.

甲午更張은 近代式 改革이기는 하였으나 다분히 政治制度에 기울어진 制度의 改編이었고 그것도 外國의 干涉下에 이루어진 自主性を 잃은 改革이기에 形式에 치우쳤다. 그러나 獨立協會가 보여준 民權運動은 新知識層을 중심으로 近代式 政治團體를 만들고 自由와 獨立思想을 고취하는 啓蒙을 전개시켰다.

③ 國民의 政治參與라는 近代式 民主主義의 도입은 이미 19世紀末부터 한국에 뿌리 박았고 이것은 自由와 自主를 同時에 부르짖은 것으로 東學과 共通된 理念을 갖는 것이다. 舊韓末부터 3·1運動에 이르기까지의 꾸준한 抗日鬪爭은 民族國家의 近代化를 위한 理念具現이 國權恢復의 要求와 병행한 民權運動이기도 하며 이로 인한 民族意識과 政治意識의 고취는 歷史推進의 主體가 되었다.

II-3. 社會運動의 展開

① 社會運動은 爲政者나 貴族들에 의한 恤民政策에서 學者들에 의한 倫理的 主張을 거쳐 知識人들의 運動으로 發展되어 왔다. 高麗時代의 長生庫나 寶는 그 目的에 있어서 貴族들의 社會運動이기는 하였으나 漸次 利殖事業으로 기울어지는 階단이 생겼다. 그러나 學寶, 廣學寶, 濟危寶 등은 事業目的이 뚜렷하였으나 厚生福祉를 위한 濟危寶, 大悲院, 惠民局, 常平倉, 普通院 같은 것은 政府와 貴族層의 協力으로 이루어진 機關들이었다.

④ 李朝의 歷代 君主의 가장 큰 關心事는 租稅의 能率의인 行政處理였다. 農業國家에서 田租가 財政의 基本이며 農民이 國民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租稅와 王의 善政과는 거의 正比例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通常의 秩序下에서도 鄉約과 같은 制度의 도입으로 傳統的인 相互扶助의 정신을 살려보려는 努力이 있었다. 士大夫的인 內容規制로 一般化하기는 어려웠으나 곳에 따라서는 成果도 있었다.

⑥ 庶民層에는 契와 같은 經濟行爲로 民衆의 厚生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

였으니 이것은 비단 經濟的 要求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다.

⑦ 그중에 成功的인 例가 世宗大王때의 農業政策이다. 技術的 向上과 租稅 徵收의 合理化로 農民生活을 도와주었고 그 精神은 實學時代에 다시 한번 復活한다.

⑧ 李朝末의 民亂은 身分制度化와 稅制의 紊亂으로 일어난 것이며 그의 代辯者로서의 東學의 主張이 나왔다. 東學에서 내세운 平等思想이나 그밖의 近代的 理念은 民衆의 要請에 의하여 일어난 社會運動이다.

⑨ 日帝時代에 나타난 農村振興 運動은 3·1運動 이후 民族의 自覺을 바탕으로 植民政策에 저항하는 社會運動이며 總督府의 政策인 自力更生을 逆利用한 것이다.

⑩ 새마을 運動은 國際社會와의 경쟁을 意識한 現在的 要求에 對應하는 일종의 社會運動으로 昇華시키고 있으며 民族總和에 의한 發展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II-4. 生産力과 技術의 進歩

① 韓國社會가 農業中心으로 이어내려온 것은 事實이나 經濟政策이 商工業에 대하여 放置狀態였다고 說明함으로써 韓日合併 當時의 經濟的 不振을 내세우려는 植民地 史觀은 바로잡을 必要가 있다.

② 이미 古代國家에서 보이는 水利事業의 進展은 強力한 統治者의 出現과 때를 같이한다는 것은 여러 學者들의 理論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現存하는 여러 貯水池의 規模나 그 利用은 新羅의 國力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③ 高麗時代의 農業生産 技術의 양상이 어떠한가는 分明치 않으나 開城王室의 收租區域이 넓었던 것 같지는 않고 주로 私田主가 收租權者였을뿐 農業經營은 農民에게 맡겼던 것이다.

④ 貨幣의 발달이 미숙한 高麗는 手工業 生産에 있어 部曲이라는 賤民集團을 利用하였으며 여기서 生産되는 特殊 產物은 外國과의 貿易을 활발하게 하여주는 原動力이었다.

⑤ 技術者와 勞動力을 많이 가진 集團으로서의 寺院은 經濟에 대한 영향과 手工業 發達에 貢獻한 바 크다.

⑥ 李朝時代に 이르러 적극적인 勸農政策을 써서 農業書의 刊行, 曆學의 發達, 天文器의 發明 등 모두가 農業生産과 直結되는 政策이다.

⑦ 農業技術은 品種, 地耕, 備穀, 二毛制, 輪作, 水利, 果樹, 蔬菜, 病虫 防止 등 多彩로운 것이었으며 倭亂때 日人이 다량의 서적을 얻어가서 日本의 農業을 크게 發展시켰다.

⑧ 生産技術의 上昇은 印刷術의 發達에서 얻어진 것이며 大藏經版, 金屬活字의 發明 등이 빠른 속도로 새 技術을 傳播시켜 衆智를 모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⑨ 倭亂과 胡亂을 겪은 후 荒廢된 農村을 위하여 知識層이 이를 問題삼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큰 意義가 있고 大同法이나 防穀(代納制), 均役法 등 稅制改革뿐 아니라 農業技術에 대한 知識의 普及과 研究를 知識人 스스로 하였다는 사실은 歷史的 變換이었다.

⑩ 李栗谷이 農具에 關心을 갖고 柳磻溪가 農土利用의 理論을 펴게 됨으로서 선비들이 技術社會의 先鋒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態度로 바뀌었다.

⑪ 감자, 고구마와 같은 食物을 導入하여 凶作에 대비하고 特殊作인 호박, 고추, 「토마토」, 사과, 담배 등의 재배가 활발하여 지면서 日常生活에 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⑫ 實學者 중에서도 朴齊家, 朴趾源등 北學派들은 양반의 農耕 獎勵, 農村 教導, 農具 改良, 種子 改良으로 科學化를 주장하였고 丁若鏞은 이를 集大成하여 果樹, 養蠶, 養蜂, 藥草, 紡績에 이르기까지 多角農業을 권장하고 月令歌까지 만들었다.

⑬ 李朝後期에 手工業의 發達로 인하여 商業資本이 善積되어가고 納粟 등으로 身分制의 變動이 일어나자 生産의 增大가 近代社會로 이끄는 힘이 強하여졌다.

⑭ 士農工商의 階層的 意識構造 때문에 生産과 技術의 進歩를 阻害하는 경 우도 많았으나 이러한 中世의 思考方式이 비단 韓國史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⑮ 日帝의 植民地下에서의 停滯狀態는 우리가 想像한 以上の 것으로서 그 안에서 民族의 力量을 培養한다는 것은 主權國家에 比하여 몇 배의 努力이

必要하였던 것이다.

⑬ 政治的 安定과 產業經濟의 發達의 相關度는 1910年代와 1960年代의 上昇率을 比較하면 알 수 있다.

⑭ 民族의 進步는 國民의 總和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民族史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III. 指導上的 留意點

① 政治思想教育을 民族史의 理解를 바탕으로 해야겠다는 試圖은 근래의 일이다. 특히 政治史의 考察이 年代史의 接近에 그치지 않고 民族史의 展開를 貫通할 수 있는 史眼을 길러야 한다.

② 民族國家의 形成過程은 既成學習을 土台로 하면 理解하기 容易하다. 全體 國史의 흐름속에서 民族意識의 形成過程을 中心으로 考察하여도 結局 歷史全體를 對象으로 하는 것이므로 分析和 綜合의 兼備라는 條件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國難克服史는 連續된 歷史로써 가르치기 보다는 事例中心으로 가르치는 편이 効果的이며 人物中心의 接近도 좋다. 지나치게 國際情勢와 같은 周邊的 史實을 상세히 다루면 核心을 잃는다. 이런 內容에는 參考書籍이나 歷史小說 등이 많아서 學習者들의 既得知識도 상당량 있을 것임을 豫想하는 教授計劃을 세워야 할 것이다.

④ 民族的 「이데올로기」의 形成이 19世紀에 와서야 이루어진다는 見解는 西洋政治史의 Nationalism과 同義語로 해석하는 데서 나온 理論이다. 우리가 말하는 民族은 歷史와 血緣의 交叉로서 이루어진 文化共同體, 運命共同體 意識을 말하는 것이므로 民族意識과 政治意識 내지 國家意識과의 相關關係는 時代마다 同一하지 않다. 더구나 佛敎, 儒敎, 天道敎, 基督敎가 준 民族意識은 時代의 背景에 따라 전혀 다른 角度에서 別個의 樣相을 띠우고 있다. 西洋史 中心의 用語와 概念을 잘못 適用할 때 民族史의 說明이 後進性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⑤ 近代 民族主義를 論할 때 비로소 世界的 潮流와 合流하는 것을 본다.

더구나 日帝와의 抗爭이 民族意識을 자극하고 있다. 日帝植民地로서 民族史가 中斷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36年間 歷史發展의 速度가 鈍化되었다는 事實을 冷徹하게 洞察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社會發展이나 民衆의 參與度의 擴大는 民族史가 停滯的이거나 惡循環이 아니라 發展的이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斷片的으로 歷史의 美談으로 흘러 내려오는 史實들을 論理的으로 正문한다는 것이 史學界의 任務이기도 하다.

⑦ 民族史 안에 있는 소위 歷史惡도 同時에 이 안에 收錄하여 民族的 過誤를 지적하는데 주저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그것을 攻擊하는 것이 아니라 그 原因을 糾明하는 일이 곧 學問的 態度임을 알려주는데 意義가 있다. 派黨性, 勞動輕視, 技術貧困, 依他性 등은 누구나가 指摘하는 民族의 短點이지만 그것들이 生成된 過程이 分明치 않아 治療가 不可能하였다는 사실이 우리의 關心事인 것이다.

第2章 文化傳統의 繼承發展

文化傳統에서 包含시킬 것은 人間性, 文化樣相, 文化的 特徵이라고 할 것이다. 民族文化에 대하여서는 從來 國粹의 傾向과 自虐的 態度的 兩 極端이 對立되거나 또는 二重的으로 共存하고 있던 混迷가 계속되어 왔다.

그 첫째 理由는, 文化에 대한 概念이 正確하지 못한 데 있다. 文化를 狹意로 생각하거나 文化에서 人性이나 生活習性和 같은 감추어진 文化(Covert)는 잃어버리고 外見的이고 顯在的인 文化만을 對象으로 하였을 때에는 金屬活字나 거북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둘째로는, 文化理論이 빈약하여 文化的 傳播나 創造過程에서 恣意的인 해석을 加하거나 善惡判斷으로 直行하는 까닭에 일어나는 단점도 큰 문제이다. 固有文化만을 쫓다가 民族文化의 深層을 놓친다거나 周邊의 價値에서 배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固有한 것도 찾기 어렵지만 모든 文化를 外來文化와의 關聯에서 說明하려는 것도 不可能하다. 그것보다는 土着化 過程에서 民族的 傳統과 外來的 要素와의 合流를 考察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다.

세째로는, 文化的 차량거리를 나열하는 立場에서 그 特性이 무엇인가를 찾는 態度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農耕민이기 때문에 또는 半島이기 때문에 생긴 文化도 많고 單一民族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도 많다. 文化的 樣相은 하나 하나가 意味를 갖는 것이므로 科學的인 分析和 綜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I. 韓國의 民族性

I-1. 人間性的 尊重

① 韓國의 教育制度는 全人的 教養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小學에 나타난 生涯의 學習過程이나 學習의 內容이 人間의 修養을 前提로 한 綜合教育이었다. 技術教育은 疎忽하게 실시한 감이 있으나 階層間的 職業的 分別이 있던 前近代의 社會에서 指導層에만 특히 人間性을 尊重하였던 것이다.

② 強靱한 大家族制의 持續은 依他性을 높이고 固定된 身分制의 世襲으로 個性의 伸長이나 自我發見의 機會가 위축 당했다. 특히 人間關係에 있어서 直接的인 關係를 重視하였으므로 門閥中心, 學閥中心, 地方色 등의 階단이 생겼다.

③ 各時代를 통하여 宗教思想이 思考方式이나 生活樣式을 支配하였던 것은 人間性 優位의 民族性이 있었기 때문이다. 韓國人의 思考나 價値觀은 本來的으로 唯物論的이 아니고 人間的이었다. 佛敎만 하더라도 來世觀은 아니라 護國佛敎로 現實도 중시하였고 淨土敎와 같이 貴族이 아니라 民衆을 對象으로 布敎하였다. 이는 人間性을 중시한 결과이다. 儒學의 人間性 尊重은 民本思想에 나타난다. 賢君을 기대하는 政치는 國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기다린다. 韓國人은 垂直的 人間關係에 더 익숙하고 近代 西歐人은 水平的 關係를 가르쳤다. 이 兩者의 調和는 앞으로의 課題이다.

④ 孝의 概念은 家族內의 人間秩序 維持의 基本德目이다. 이것은 다시 忠의 概念으로 擴大되었으며, 이는 처음에는 政治的이기 보다는 社會規範이었다. 최초의 社會規範은 世俗五戒이다. 花郎의 忠·孝·信·勇·佛心의 다섯 가지는 忠과 孝의 順位를 바꾸어 놓은 것에 不過한 傳統的 價値觀의 繼承이다. 朝鮮時代의 五倫은 君臣, 父子, 夫婦, 長幼, 朋友의 人間關係를 다룬 것이며, 李元龜의 九道에 이르러 父道慈, 子道孝, 兄道友, 弟道恭, 友道心, 妻道順, 夫道和, 臣道忠, 君道仁으로 上下秩序가 分明하게 確立되어 왔다.

⑤ 朝鮮時代의 人間關係의 發展은 兩班層에서 平民으로, 下位者에 대한

要求에서 上位者에게로 변화되었으며, 儒敎에서 말하는 理念의 人間型은 君子이었다. 德을 앞세우고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人間の이다. 그러나 儀禮와 形式에 흐르는 폐단도 있고 誤導되어 無能力者를 만들기도 하였다.

⑥ 栗谷은 「民은 以食爲天이니 無食無民이요 無民即無國」이라 하여 民本主義를 내세우고 있다. 儒學이 治者를 위한 學問인데 比하여 實學은 더 民衆의 問題를 深刻하게 다루려는 意圖가 經世劑民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구나 中國學問에서 國學으로 옮겨온 自主性은 地理, 歷史, 經濟, 農業, 自然科學 등의 實생활에 접근된 研究를 하게 하였다. 이 시기에 <春香傳>, <沈清傳> 등의 庶民文學이 流行하였고 白磁가 大衆의 人氣속에 널리 普及되었으며 繪畵 등의 風俗畫가 나온 것이다.

韓國史속에서 人間性의 尊重은 非物質的이었다는 것과 차차 大衆의 人間性 描寫로 擴大하여 갔다는 特徵 그리고 西歐와 같이 宗教改革이나 「프랑스」革命과 같은 血戰이 없이 歷史的 進展을 이루었다는데 意義를 發見할 수 있다.

1-2. 平和愛護思想

① 韓民族이 平和를 사랑하는 民族이라는 것은 古代로부터 外國을 侵略한 일이 없다는 것을 그 첫째 증거로 삼는다. 反對로 이것은 平和愛護이기보다는 武力이 弱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이도 많은 것이다.

② 平和라는 것은 싸움의 勝負나 原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狀態를 平和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認識의 方法에 달려 있다. 대체로 農耕爲主의 定居民族이 갖는 特性과 半島라는 地政의 要因이 韓國民에게 他國과의 戰爭이나 侵略意慾을 鈍化시킨 것도 사실이다.

高句麗는 滿洲一帶에서 敵에 包圍되어 있었기에 積極的으로 外敵과 싸웠고 그들의 氣像은 山間地帶의 遊牧民의 特性이 있었다. 新羅의 花郎은 戰士이기에 앞서 健實한 中堅指導者들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 精神은 姜邯贊, 妙清, 崔瑩, 李舜臣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 高句麗는 戰爭에 이기고 政治에 敗北한 例라고 할 수 있다.

高麗時代의 李資謙과 관련된 故事는 平和愛護가 아니고 政權慾을 維持하기 위한 外勢에의 屈服이며 이것은 李完用의 경우와 相通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妙淸의 建元稱帝論은 外勢에 대항하는 積極論이고, 政府에 反抗하였지만 그가 平和의 破壞者는 아니었다. 平和의 維持는 民族의 總和와 國論의 統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民族의 分裂에는 平和가 있을 수 없다. 越南派兵은 이런 意味에서 侵略이 아니라 破壞者에 대한 共同守護라는 의미에서의 十字軍이며 征服事業이 아니라 防禦態勢이다.

④ 朝鮮의 事大外交는 平和守護의 한 政策이었다. 明의 自尊心을 滿足시켜주는 代價로 世宗, 世祖에 民族文化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壬辰, 丙子의 兩亂은 國論이 分裂된 狀態에서 일어난 悲劇이다. 蒙古의 侵入때와 또 다른 狀況에서 겪은 苦難이었다. 土禍는 韓民族의 派黨性을 나타내는 첫 번째 事件이다. 즉 高麗時代의 宮廷內의 對立은 寄生貴族사이의 分규가 아니라 在野士林을 包含하는 것으로 공공연한 派黨의 論爭이며 敗者는 反역자로 地位 剝奪을 당하는 싸움이었다.

⑤ 政治制度의 모순은 官僚의 수효와 兩班人口와의 不均衡에서 온 것으로 儒學은 이를 政黨政治로 昇華시키지 못하고 派爭을 學閥, 地方色으로 擴大시키고 말았다. 특히 朱子學의 空理空論은 黨派의 論爭點을 禮學으로 이끌어 가서 非政治的 對立을 政治現像化하였기 때문에 近代化過程을 찾지 못하였다.

⑥ 東洋的 平和主義는 佛敎의 影響도 컸지만 非暴力主義였기 때문에 反正이라는 이름 밑의 「구테타」가 있었을 뿐 王에 대한 忠誠이 前提가 되는 싸움이었다. 李成桂의 易姓革命, 東學革命, 3·1運動의 三大事件도 平和主義의 인 性格에는 共通點이 있으며 中世社會에 있어서도 西洋의 治者級에 比하면 刑具나 處罰에 있어 매우 寬大한 편이다. 人乃天思想은 古來부터 내려오는 民心이 天心이라는 人間本位의 思考方式을 宗教理念化시킨 것이다.

II. 民本主義的 政治傳統

① 民本主義는 西洋의 民主主義의 意味와 相通하는 用語이며 民主主義가

政治制度인데 比하여 民本主義는 일종의 政治哲學이라 할 수 있다. 韓國의 政治文化的 傳統과 政治意識은 民本主義에 基本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傳統은 共產主義와는 容納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史를 階級鬭爭史로 叙述하려는 사람들이 부닥치는 隘路는 西洋社會와 같은 階級意識이 民衆들 사이에 없다는 점이다. 中世와 같은 階層構造가 없고 「부르조아지」가 없어 革命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② 西洋史의 發展段階가 典型的인 것이고 東洋史는 特殊한 事例라는 생각이 없어져야 民主制度를 借用文化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나라 民主制의 시초를 和尙에다 두고 있으나 「그리스」나 新羅의 萬場一致制는 民族社會의 遺制이고 다만 그 이름을 빌려다 「데모크라시」라 하였을 뿐이다. 韓國의 政治制의 근본정신은 合座制에 있다. 南堂, 都堂, 重房, 議政府, 備邊司로 이어온 合座制는 韓國政治가 專制政治이면서 그것의 短點을 克服하려는 制度를 가지고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③ 國王에 대한 牽制機關은 大司諫, 春秋官, 實錄編纂 등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들 앞에서는 國王이 언제나 자중하였으며 每事는 重臣會議에서 決定한다.

④ 民族과의 意思疏通을 위한 制度를 마련하는 것도 政治參與의 기회를 擴大시킨 것이다. 申聞鼓, 上疏文制度는 地方의 知識層이나 一般大衆에게 意見을 널리 듣고자 하는 意圖이다. 자칫하면 權威意識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儒敎의 社會規範에서 意思疏通을 위한 기구가 必要하였다. 널리 意見을 모아 政策에 反映시킨 例도 많다. 世宗의 農事直說이나 田分六等, 年等九分法은 地方의 實情이나 官吏들의 知慧와 創意的 事例들을 集成한데서 이루어진 業績이다.

⑤ 官吏任用制에 있어 科擧制의 合理的 運營이나 實力主義의 行使 그리고 署經制로서 身元을 確認하는 것 등은 專制政治의 短點을 補完하는 制度이다. 특히 交通 通信이 發達하지 못한 地方을 統治하는데 暗行御史制는 權力을 規制하고 民生을 保護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또 歸屬性이 강한 政治文化에 대한 牽制策으로 歸鄉制는 일종의 처벌과 같은 것이었으나 中央集權을 유지하기 위한 制度이다.

이러한 制度들이 모두 長點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歸鄉制가 賜田이 私田化하여 農莊을 形成하고, 科擧制가 「에리트」意識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上疏文이 投書의 習慣을 길러주기도 하였다.

⑥ 民衆의 抗拒도 時代發展에 공헌하였다. 哀奴 萬積의 亂은 史書가 전하여준 最初의 것이지만 洪景來, 晉州民亂 등도 그 例이다. 東學亂은 이러한 政治的 傳統 위에서 솟아나온 民衆의 부르짖음이었다. 이는 또한 3·1運動과 6·25動亂으로 繼承되었다.

爲政者에 대한 直言의 기회가 賦與되었다는 사실은 韓國人의 政治意識이 비단 一部 貴族이나 特殊層에게만 局限되었던 것이 아님을 證明한다.

Ⅲ. 文化의 繼承과 創造

Ⅲ-1. 藝術文化의 傳統

① 民族文化의 傳統 自體에 대한 理解와 態度를 바르게 가져야 한다. 正確하게 判斷할 수 있는 能力은 가장 本質的인 것이다. 國粹主義者처럼 자기 歷史를 덮어놓고 美化하거나 神聖視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 보다도 「정교이즘」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자기 歷史에 대한 自虐에서 病的인 慰安을 찾는 妥性도 옳지 않다.

② 文化의 固有性을 지나치게 追求하면 文化全體가 視野에 들어오지 않아 그릇 해석하기 쉬우며 情意的 主觀的 判斷이 되어 버린다.

傳播論者의 노예가 되면 民族文化는 모두가 中國이나 美國에서 借用한 것으로 해석하고 日本은 모두 韓半島를 거쳐갔다는 結論을 내리기 쉽다.

③ 民族文化는 모두가 金, 銀이 아닌 것처럼 汚物이나 廢品도 아니며 그 안에 남겨져 있는 多樣한 祖上들의 思想이다. 그 안에는 美와 醜, 善과 惡, 創造와 模倣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共存한다. 民族文化의 연구는 그것을 가려내어 歷史的 作品이 가진 意味를 제대로 찾아내는데 있다. 그러므로 韓國文化의 理解없이 韓國을 알 수 없듯이 民族文化에 대한 理解는 곧 未來形成과 直結되게 되는 것이다.

④ 歷史속에서 찾아 본 民族文化는 創造的 價値도 있으며, 外來文化와의 接觸에서 오는 葛藤도 있었다. 韓國人의 意識構造를 이루어 나가는데 영향을 준 要因은 自然環境이나 宗教와 같은 具體的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民族史 그 自體도 중요함을 알 必要가 있다. 韓國人의 習性중에서 默從, 被虐性, 體面尊重 등은 儒敎의 遺産으로 보는 것보다는 傳統性和 儒敎的 要素와의 接觸過程에서 分析하는 것이 더 正確할 것이다.

⑤ 單一民族으로서의 오랜 歷史展開가 가져오는 여러가지 特徵이 있다. 그러나 儒敎의 힘에 눌려 그 本性이 짓눌리고 있다는 것은 學界의 研究不足에 起因된다.

⑥ 韓國文化는 農業的 性格과 「몬순」地帶의 特性을 가지고 있어 樂天的이고 自然的이며 人間的인 기풍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韓國文化의 單純性和 劃一性은 民族構成과 관계가 있다. 즉 地方差가 심하지 않고 階層間的 文化的 隔差가 적다. 佛敎에서 禪宗과 教宗이 다르고 李朝에서 漢文學과 國文學의 差가 上下階層을 代表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階級文化를 이룬 것은 아니다. 外國의 政治的 干涉을 심하게 받던 蒙古의 影響(13세기)과 日帝時代에 있어서도 民族文化의 方向을 바꿀 수는 없었고 오히려 한글 普及은 日帝時代에 더 進展되었다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⑦ 韓國文化에 階級性이 없다는 것은 治者級이 文化創造者가 아니며 知識階層에 의한 文化創造와 大衆의 追從으로 이루어졌다는데 原因이 있다. 各時代마다 文化의 主動者는 僧侶, 花郎, 儒者, 學者 등으로 달라지지만 民衆生活에 흡수되어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選擇過程과 時間이 있어야 했다.

抗蒙鬭爭은 佛敎徒이기보다 花郎의 後孫인 三別抄들이고, 倭亂때의 義兵에는 儒學時節이었음에도 佛敎徒가 많았고, 開化期의 義兵에는 儒生들이 많았으며, 3·1 運動의 主動은 東學의 後裔인 天道敎徒들이었음은 文化의 大衆化까지의 時間的 距離를 말해주는 것이다.

⑧ 韓國美의 創造性은 衣裳, 建築, 工藝, 彫刻 등 우리 生活周邊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지붕의 線과 塔婆의 均衡美는 代表的인 것이며 高麗磁器의 색채, 모양, 실용성, 무늬의 多樣性은 自主的 發明品들이다.

韓民族은 古代로부터 歌舞를 즐겼고 宗教와 娛樂 등은 배농을 수 없는 行事였다. 그 중에도 춤은 表現의 積極性과 흥겨운 舞法이 민족의 感情을 表象하는 獨創性을 지니고 오래 持續되어 왔다. 假面舞나 劇은 內容도 豊富하지만 感情의 表現이 특수하여 他民族과 전혀 다른 民衆藝術로 발달하여 왔다.

兩班文化뿐 아니라 大衆性있는 庶民文化에 대한 關心을 높여야겠다. 李朝 白磁나 風俗畫는 上流階層에 限定된 것이 아니라 民族全體로 擴大普及된 民族文化로서 그 素朴함과 清楚함을 자랑할 수 있으며 直線의이고 單調로운 特性이 있다. 四君子, 墨畫 또한 美를 創造하는데 독특한 術法이었다.

⑨ 韓國의 美는 自然的이라는데서 特徵을 찾을 수 있다. 金弘道의 그것은 자기 주변의 自然에 눈을 들었을 뿐 아니라 生活周邊 社會에 대해서도 깊은 흥미를 기울이고 종래 畫家들이 경시했던 人物의 動作寫生에 新局面을 개척하였다. 中國書藝의 形式만을 뒤따르던 李朝의 병폐를 통감하고 배격한 金正喜는 이른바 秋史體를 만들어 내었다. 線의 太細, 線의 曲直, 墨의 濃淡 등으로 하나 하나의 글자를 構成하고 力學的인 調和의 美를 이루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書藝는 非具象繪畫요 抽象藝術이라고 할 수 있다. 韓國藝術의 調和의 美는 工藝, 書藝 기타에 거의 適用되는 것으로 獨創的인 곳에는 自然美와 調和(綜合)의 美가 반드시 깃들여 있다.

高麗時代와 新羅時代에 활발하였던 藝術活動이 李朝時代에 들어서 沈滯한 것은 비단 儒學의 영향뿐 아니라 소위 兩班層만이 文化를 獨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李朝 美術에 前時代에 없던 韓國의 特性이 나타났고 模倣性을 버리게 된 까닭은 佛敎에 의한 美的 制約이 없어졌기 때문이며, 藝術이 兩班보다는 常民에 의하여 自發적이었기 때문이다. 李朝 文化에 實用性이 더 많은 것은 이상의 이유에 起因한다. 李朝時代의 美術이 가장 韓國的인 것은 自然의 美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글 創製로 보아도 뚜렷하다. 即前代의 傳統 위에 韓國的인 類型을 形成하였고 宗教(外來)의 영향없는 純粹性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⑩ 三國時代부터 내려오는 自然主義는 紋樣에 있어서 되도록 人工의 흔적

을 줄이려는 경향이 많다. 白色의 崇尚은 人工의 排除이고 自然에 대한 황홀의 表現이다. 日本의 美는 庭園과 같이 人工의 自然, 第二의 自然이며 中國은 技術과 技巧가 宋, 淸의 磁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完璧에 가까운 技術의 極致를 자랑한다. 時調文學과 稗官文學은 李朝文學의 創意性이 人間生活에서 素材를 찾았고, 4·4調의 別曲體는 <春香傳>에까지 影響을 주었다.

Ⅲ-2. 外來文化의 受容

① 造形美術에 있어서는 中國의 影響을 받은 바 크고 그것이 佛敎文化의 作品이었을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이 곧 中國文化는 아니며 範本이 外國에서 왔다하나 역시 民族文化임에는 틀림없다.

② 文化의 受容은 接變, 傳播 등이 있어 내용에 따라서는 所要時間의 長短狀態가 심하다. 外來文化의 導入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도 偏見이고, 外國文化가 언제나 우세한 것이라고 보는 것도 옳은 생각은 아니다. 文化受容은 必要한 者에 의하여 選擇된 것이기 때문에 受容過程에 強制性이 있을 수 없다.

③ 固有文化를 고집하고 固有性단을 찾으면 原始時代의 衣·食·住의 生活文化에서 風土의 樣式을 볼 수 없다. 그러나 獨自의인 言語, 風習이나 建築, 衣裳 등에 固有한 獨創性이 또한 많이 있다. 韓國의 창살무늬는 獨創的인 것이지만 窓은 어느 建築에나 있는 것과 같다.

④ 佛敎는 外來宗敎이다. 그러나 佛敎는 우리에게 最初로 具體的인 倫理의 基準을 준 思想이다. 韓國文化가 佛敎를 알고 난 후부터 그 眞理의 實現과 理解의 過程에서 文化的 創造의 努力이 활발해졌다. 韓國佛敎는 民族文化의 傳統을 形成하여 오는 過程에서 深奧하게 도달된 世界性和 더불어 風土性을 들어내게 하였다. 土俗宗敎와 쉽게 融合하는 佛敎의 歷史야말로 韓國人의 文化受容의 態度를 잘 表現하여 준 것이다. 現世的이며 政治的이고 文化的인 性格은 三國時代 佛敎의 特性이다.

⑤ <九雲夢>이라는 小說이나 <금오신화>가 中國小說의 「모티브」를 모방하였다지만 <春香傳>이나 <興夫傳>은 韓國의인 諧謔과 孝와 民生과 價値觀을 豊富히 나타내는 土着化 作業으로 이루어졌다. 이 土着化는 高麗磁器에 있

어서나 繪畫, 書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結果를 가져왔으며 民族의 特性이 나타난 李朝의 美術은 白磁와 繪畫가 그 代表的이다.

⑥ 新羅의 鄉歌는 中國文字를 導入하여 民衆의 歌謠를 읊겨놓은 文化創造의 業績이며 吏讀文에서 다시 한글로, 鄉歌는 長歌別曲體로 大衆化 하였다.

⑦ 樂器에 있어서도 中國音樂이나 東北亞의 影響이 컸으나 이미 新羅의 가야금과 玄樂琴이 나왔으니 이는 晉의 七絃琴을 改良한 것이다.

⑧ <東國通鑑>은 <資治通鑑>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면서도 韓國史를 정리한 것은 <三國史記>의 模倣型에 比하여 훨씬 獨創性이 강하다.

⑨ 外來文化와의 접촉은 놀다움과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新文學의 경우에도 新小說이 在來文學에 대한 恣意的인 蔑시와 卑下感에서 西歐文學의 思潮나 手法에 더 影響을 받았지만 이 時期의 교량적인 役割은 어느 時期나 어느 分野를 막론하고 거처야 할 過渡期이다. 특히 文化의 研究에서 外來文化와의 접촉에서부터 民族文化로 融解되기까지의 時間的 거리와 融解劑가 된 傳統的 要素를 찾아내야 한다.

⑩ 民主主義가 西歐의인 것이기는 하나 民族的 價値가 어떤 形態로든지 受容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機械文明에 있어서도 取捨選擇에 優先順位를 決定하는 것이 價値觀이다. 外來文化는 傳統文化로 昇華될 수 있고 民族文化發展에 促進이 될 수 있으나 잘못 導入할 때는 破壞, 混亂을 일으켜 創造를 沮害할 수도 있다.

⑪ 韓國文化는 「시베리아」文化에서 요람기를 보내고 漢文化圈에서 배우고 印度文化圈에서 成就되어 李朝社會에서 民族化하고 20世紀에 世界潮流와 합쳐 나갔다. 佛敎와 土俗信仰이 合致된 要素는 無限 模想力의 神秘的 性格이 共通하였기 때문이다. 儒敎의 主知主義의 政治文化는 政治制度, 形式教育, 文字를 통한 疏通 등의 精神文化이기 보다는 知性文化(倫理的, 規範的)로서 받아들여졌다.

⑫ 高麗는 佛敎, 李朝는 新羅 이후 當時까지의 佛敎와 儒敎가 共存하여 왔으며 다만 받아들이는 態勢에 있어 比重이 달랐을 뿐이다.

⑬ 「시베리아」文化(北方文化)는 주로 生存에 影響을 주어 民衆生活 속에

潛在海 들어갔으며 食器, 衣裳, 木刻工藝, 家屋構造 등에 깃들여 있다. 東洋文化의 2大主流과 「시베리아」文化와의 融合이 이루어진 李朝의 文化위에 海洋文化가 들어왔다. 淸과 日本을 통하여 西洋의 物質文明을 받아들여, 經濟面에 着眼하려는 때 日帝侵略을 당한 것이다.

西歐文化의 빠르고 강한 영향력은 傳統文化와의 葛藤이 심한 것 같으나 儒學이 新羅 이후에 서서히 들어와서 李朝에 土着化한 것에 比하면, 이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며 李朝 中期부터 접촉이 시작되어 舊韓末에 강하여졌다가 다시 解放 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西歐文明이 日帝 以後 日本의 濾過作用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假단이다. 日本이 選擇한 西歐文化를 배운 舊世代가 그것이 마치 우리의 傳統社會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⑭ 西歐文明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儒教式일 때 倫理的, 規範的 새 價値로 받아들이려고 하며, 基督教을 잘못 받아들이면 佛敎나 儒敎까지도 迷信으로 돌려버리지만 巫俗의 本質도 迷信은 아니라는 점과 西洋文化를 技術文化로 斷定하여 버리고 東洋文化를 精神文化로 규정하는데서 오는 오해도 없어야 한다. 利用厚生이나 實事求是는 東洋의 傳統에도 있으며 合理的 思考는 西歐가 近代化의 武器로 사용한 한 樣式에 지나지 않았음을 이해할 必要가 있다.

⑮ 日本은 韓國統治에서 自國의 固有한 것을 強要할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西歐文明을 강요한 것에 不過하다. 現在도 日本文化가 西歐의 탈을 쓰고 스며들어오는 것을 防禦해야 할 必要는 아직 남아 있다.

⑯ 韓國文化가 家族倫理를 바탕으로 精神史를 전개시켜 왔다는데는 異論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大家族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依存度나 座食層의 發生, 門閥意識 등을 들어 大家族制를 나쁜 習性이라고 斷罪할 수는 없다. 韓國의 老人들이 他民族에 比하여 얼마나 幸福한가도 중요한 일이며 大家族안의 人間關係 訓練이 일종의 政治訓練이나 教育機能이었음도 지나칠 수 없는 일의 하나이다. 韓國의 家族制度는 中國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었는데 日本이 자기의 民法를 적용하게 되면서 傳統에 혼선이 왔으며 同姓同本의 不婚이나 女性이 結婚 後에도 實家姓을 유지하는 風習이 없어지지 않는 것 등

現今까지 남아있는 文化受容의 態度 중에 두드러진 例이다.

IV. 指導上的 留意點

① 文化理論에 대한 基礎知識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 文化的 定義, 概念, 內容에서부터 接變, 創造에 관한 抽象的 理論이 있어야 民族文化의 具體的 事實을 說明할 수 있다.

② 지나친 國粹主義나 反對로 自己卑下를 막기 위하여도 科學的인 說明과 더불어 많은 資料를 수집하여야 하며 年代順이나 分類史的 接近보다는 文化價値의 要因別로 分析, 綜合, 評價하는 方法을 취해야 할 것이다.

③ 되도록 많은 視覺的, 聽覺的 資料를 준비하는 한편, 既刊書籍을 分類하여 읽기 資料를 제공하여 주는 計劃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④ 文化속에서 人間性을 除外하고 造形文化 위주로 다루는 方法은 不當하다. 心理學的, 社會學的인 協助를 얻어 民族文化의 本性을 探究하는데 隣接學問이 가능한 한 많이 動員되어야 할 것이다.

⑤ 精神文化的 發掘은 哲學者나 宗教家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民衆의 日常生活속에 숨겨진 思考方式에 더 많이 있음을 인식하고 言語, 風習 등에 關心을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民族文化에 대한 善惡判斷은 政治史의 경우와 같이 排除시켜야 한다. 韓國民이 依存도가 높다는데 대한 原因과 結果는 있을 수 있어도 惡으로만 斷定하기 어렵고 核家族이 無視되어 가는 것도 大家族制에 모든 責任을 전가시킬 수도 없음을 알아야겠다.

⑦ 外來文化를 溶解시키는 能力이 他民族에 비해 우세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도 우리 民族에 特有的 것은 아니며, 多角度인 面에서 이 傳統을 더 살리자는 意圖에서 내세운 것이다.

⑧ 外來文化를 無條件 崇尚하는 習性은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 있다. 自主的인 文化導入을 위한 訓練은 당분간 注力하여야 할 課題이며 그 教材는 傳統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第3章 韓國의 正統性

國家觀의 올바른 育成은 傳統文化의 認識과 國際社會속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國家觀은 하나의 政治意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個人과 共同體로서의 國家와의 一致感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것을 近代 民主主義的인 社會에서만 成立하는 意識構造가 아니라 過去의 歷史를 통하여 國家危機에 나타났던 民族의 試鍊克服 過程에서 여러가지 形態의 例를 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일은 韓國의 傳統이 社會主義 選好型이 아니며 民主指向型이라는 認識이다. 政治的이나 文化的으로 北韓의 政治集團은 傳統을 繼承한 社會도 아니며 그들의 政治的 目的도 民族文化와는 상치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反共의 隊列은 武器를 들고 싸우는 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精神的 姿勢와 民族의 正統性이 大韓民國에 있다는 自信을 知識을 통하여 確固하게 갖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國際的 位置는 國際聯合을 비롯하여 自由陣營은 물론 中立國까지도 우리의 正統性을 인정하였다. 근래에 와서 北韓集團의 선전공세로 인하여 이러한 國際的 正統性에 대한 동요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大韓民國의 主權을 지키는 길은 韓國의 正統性을 理解함과 同時에 이를 內外에 전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것만이 國家觀을 바로잡는 길임을 명심하도록 가르쳐야겠다.

I. 文化的 正統性

① 傳統文化를 繼承한 것은 大韓民國이지 北韓集團들이 아니다. 北韓에서는 우리의 美風良俗을 破壞하고 全體主義的 統治方法을 使用하기에 편리하도록 꾸몄다. 뿐만 아니라 個人的 神格化나 唯物論을 위하여 우리들의 祖上 崇拜思想을 파괴하였다. 특히 固有한 信仰의 기반위에 外來宗教를 받아들여 土着化시키는 民族文化의 特性에 비해 一部 共產圈의 制度를 直輸入하여 그대로 適用하는 것은 傳統에 위배되는 일이다.

② 孝의 思想이 倫理의 기본이 되어 있는 民族文化를 否定하고 社會構成員으로서의 役割만을 강조하는 것은 既存秩序나 道德規範을 무시하는 일이다. 家族制度의 좋은 점이나 家庭의 愛情이 서양에 比하여 優越한 것임에도 不拘하고 集團農場, 幼兒의 集團收容과 같은 施設의 強要는 勞動力을 利用하는 手段으로서 지나치게 人間性을 無視하는 일이다.

③ 胎教로부터 父母의 教育을 시작하라는 傳統文化를 저버리고 幼兒 때부터 全體主義 思想을 注入하는 것은 人間機械를 만드는 政策이다. 韓國의 文化는 精神文化에 있어서나 藝術에 있어서 民族文化를 繼承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民俗舞踊, 宗教의 自由, 祭祀 등 美風良俗을 걸러가고 있으나 北韓에서는 民族文化보다는 政治理念을 注入시키는 文化政策을 쓰고 있다.

④ 平和를 사랑하는 民族에게 戰爭을 위한 準備에 모든 희생을 강요하는 北韓은 民族性을 바꾸어 놓으려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

II. 政治的 正統性

① 韓民族은 社會主義化의 可能性이 적은 文化傳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歷史속에서 찾을 수 있다. 歷代의 政治理念이 民本主義로 一貫하였고 福祉 社會를 위하여 각 時代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다. 寶, 倉, 院, 局 등의 이름이 붙은 여러 제도는 恤民政策을 위한 機關들이다.

② 王室의 權限을 견제하는 機關을 적절하게 設置하여 專制政治를 예방하

였고 理想的 政治는 德治主義이었다. 民衆의 輿論을 듣고자 하는 制度와 좋은 人材를 登用하려는 方法의 摸索에서 各時代가 노력한 흔적이 많다. 專制 政治에 대한 民衆의 反抗意識도 높았고 民亂이나 義擧는 곧 政治에 반영되었다. 不義에 대한 信念은 死六臣과 같은 古事로 상징될 것이다. 이러한 例들은 韓國의 政治史가 階級鬭爭史가 아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며 사랑으로 和親하며 不義에 용감하였다는 民族性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③ 韓國의 政治의 正統性은 民主主義 指向性이었다는데서 北韓이 民族의 繼承者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 民族이 超階級的 民族國家를 건설하여 왔음은 對漢, 對唐, 對女眞, 對蒙古, 倭亂, 胡亂, 斥邪運動, 抗日運動 등 對外鬭爭史를 통하여 超階級性 抗爭으로 나타났다.

III. 國際的 正統性

① 우리 나라가 國際社會에 등장한 것은 民族統一 國家를 세운 新羅統一 때의 對唐外交에서 부터이며 唐勢力 構築으로 政治的 獨立을 確保하였다. 高麗時代의 國際的 地位는 宋, 女眞, 金과의 外交關係가 순조로웠으나 蒙古 勢力에 강한 干涉을 한때 받았으며 恭민왕의 政척이 自主性을 회복시켰다. 朝鮮의 事大外交는 屈辱의인 것이기 보다는 平和維持策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時間이 흐름에 따라 中國依存의 態度로 변한 것은 잘못이다. 事大外交의 效果는 四郡六鎮의 回復, 民族文化의 成熟等 初期를 장식하였으나 儒學과 黨爭이 심하여지면서 民族精神에 龜裂이 가기 시작하였다. 對明外交가 事大主義로 흐르자 國際的 眼目이 不足하여 對外政策이 不充分하였으나 高麗朝와 李朝初에 比하여 國際社會속의 자기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對淸外交에 있어서도 事大主義를 계속 維持하여 나갔으나 이것은 外交政策이었지 宗主國의 關係는 아니었던 것이다.

② 19世紀에 들어와서 日本과의 開港부터 歐美諸國과의 通商條約에서 國家的 目標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행동하였던 점을 볼 수 있다. 國際情勢에 어두웠던 原因은 對淸一邊倒의 文化導入이었다는데 있으며 淸에 대한 週信도 作用하였다. 또 大院君의 鎖國政策에만 그 責任을 돌릴 것이 아니라 國

丙의 權力싸움이 日, 淸, 露 三國과의 外交와 더불어 展開되었음을 批判하여야 한다.

③ 韓日合併에 國際政治史의 解釋을 加함으로써 淸, 露와 그 背後에 있던 英, 佛, 美의 態度도 같이 생각함으로써 自主性 教育을 강화시켜야 한다. 어떤 努力이 不足하여 乙巳條約이 체결되었던가를 생각할 때 歸着되는 것은 政治指導者들의 國際의 眼目과 自主精神이다. 특히 海牙密使의 파견은 國際社會에 韓國의 主權을 呼訴하는 方法이었다. 3·1運動 이후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樹立은 近代式 共和政治를 亡命政府로서 實施한 의미를 갖는다. 「파리」講和會議에 金奎植을 派遣한 것은 國際的 地位를 確保하려는 方法이었다. 1944년에 「프랑스」는 大韓民國 臨時政府를 승인하고 이듬해 2월에 臨時政府는 獨逸과 日本에 新진포고를 하였다는 것은 光復軍의 抗日鬪爭과 더불어 外交活動이 있었기에 우리가 解放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④ 8·15解放은 聯合軍이 勝利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民族文化와 民族精神을 간직하여 온 國民들과 國際舞臺에서 활약한 지도자들의 功勞가 있었기 때문이다. 38線으로 南北이 갈리고 北韓이 共產勢力下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大韓民國을 國際聯合이 1948年 12月 唯一合法政府로 승인하였다는 것은 外交의 勝利이며 韓國의 正統性을 인정한 것이다.

1948年 5月10日의 制憲國會에서 以北을 위한 議席을 남겨두고 以北 五道廳을 두고 있는 것도 韓國의 主權下에 統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IV. 國家觀의 定立

① 新羅가 三國을 統一하였을 당시에서부터 國家意識이 成立할 때까지는 상당한 時日이 걸렸고 그 變化過程이 다양하였다.

우리 나라의 國家意識은 單一民族이라는 共同體意識이 속히 形成될 수 있었던 有利한 점이었다. 血緣共同體 意識에서 文化共同體 意識으로 進展하는 과정을 歷史속에서 찾아야 한다.

② 統一新羅의 官制나 身分制속에는 政治組織을 갖추므로써 國家形態를 정비하여 나가는 民族의 固有性이 있다.

貴族의 共同支配體制의 性格이 강하였던 高麗時代는 王의 專制權力을 견제하기 보다는 統治方法에 더 노력하였다.

花郎과 같은 身分이나 花郎精神은 國家를 意識하고 孝보다 忠을 앞세우는 價值觀을 갖게 되었고 이 정신이 高麗 때까지 계승되었다.

高麗時代에 建國神話를 새롭게 인식하여 民話나 說話를 體系化시켜 民族意識을 形成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檀君神話와 三國의 建國神話가 연관성을 갖게 된 것은 金, 蒙古와 같은 外勢의 侵入에 대한 民族意識이 國家觀을 定立치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朝鮮時代에도 <東國通鑑>과 같은 책이 本國史를 더 중히 여기자는 의도에서 나왔으며 內容에 檀君神話를 기재하고 <童蒙先習>이라는 教材에도 수록하였다. 특히 國家觀의 定立을 위한 努力이 初期에는 흔적이 보이지만 泰平時가 지속되면 國家觀이 解弛하여지고 社會規範의 形式化로 기울어졌다.

朱子學에도 國家意識이 없는 것이 아니다. 朱子學 자체가 宋이 漢外民族에 시달림을 받을 때 大義名分과 王道를 연구하는 學問이었기에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한 것이 趙光祖이다. 朱子學 理論속에 있는 排佛論을 이용한 건근, 정도전이 있는가 하면 宇宙論에 기울어진 學風이 있었으며 後期에 禮學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國家主義에 대한 貢獻度가 弱化되었다.

③ 實學은 國家意識이 政治學的으로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朱子學의 낡은 것을 버리고 經濟뿐 아니라 地理, 歷史, 科學, 產業 등 거의 모든 方面에 關心을 가졌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특히 朝鮮時代의 <經國大典> 以來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의 法典編纂은 法治國家로의 면모를 갖추는데 대한 爲政者들의 노력이었다.

④ 近代의 國家主義는 國際舞臺에 등장하면서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急激한 變化에 대처하는 國民의 態度가 어떠하여야겠는가를 배울 教材가 19世紀史이다. 이에 대한 처음 反應은 鎖國主義로 나타났다. 大院君의 정책에 대한 可否는 고사하고 全國民이 이에 呼應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다음은 開化主義者의 出現이다. 外國의 文物을 受容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政權慾과 결부된 사람과 國家的 立場에 선 사람과를 區分할 수 있다. 그 중 특히 斥邪

派들의 主張은 단순히 保守主義者로만 볼 것이 아니라 政權慾이 적고 傳統의이면서도 改革에는 反對하지 않는 立場이었다.

⑤ 東學思想은 民衆들의 呼應을 받은 運動이다. 兩班出身의 開化는 斥邪와는 달리, 社會改革을 부르짖는 部類들이 固有한 宗教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상의 三者는 모두가 새 時代를 느끼고는 있지만 見解와 立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對立 또는 反目狀態에 있었다. 즉 이들은 外勢에 迎合한 것이 아니라 外勢가 이 變化를 利用하려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다. 그러나 獨立協會는 西歐式 近代國家를 꿈꾸던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近代化 方法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自主性을 강조하는 立場은 開化나 事大의 派黨보다 강하다는 점이 東學과 비슷하다.

⑥ 日帝는 半世紀쯤 앞서 近代化 作業을 시작하였음에도 不拘하고 韓國을 殖民地化할 수 있을 정도로 國力을 길렀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깊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그들이 敗戰國이면서 美國과 經濟競爭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와도 비교할 수 있어야겠다.

⑦ 日帝時代를 통하여 國家意識이 조금도 減少한 것이 아니라는 自負와 平준한 抗爭 그리고 臨時政府의 樹立 등은 他民族에 비해 우수하다.

⑧ 個人이 共同體(民族, 國家)속에 살고 있지 않으면 그 保護를 잃게 된다는 사실은 곧 生命을 잃는 것과 같다. 個人의 權利와 義務는 國家社會와의 調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個人과 國家와의 正當한 關係를 理解하여야 한다.

V. 指導上の 留意點

① 北韓보다 우리가 歷史의 繼承者라는 正統性을 인식시키기 위하여서는 知識에만 依存하지 말고 知識의 內面化를 서두르는 方法을 찾아야 한다.

② 民主主義의 優越性은 알고 있지만 民主主義가 우리의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民主主義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③ 歷史를 美化하지 않고 過去의 缺陷도 솔직히 引用하는 태도가 오히려 被教育者들에게 說得力이 있다.

④ 대부분의 피교육자들은 共產社會를 嫌惡하는 體質이 形成되어 있기 때문에 教師는 이에 放心하지 말고 家庭教育에서의 反共教育和 學校에서의 反共이 어떻게 方法上 달라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여야 한다.

⑤ 韓國의 正統性은 政治, 文化뿐 아니라 人間性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⑥ 이미 다른 教科에서 배운 知識을 여기서 應用할 수 있는 指導計劃을 짜야 한다. 學習形態도 생각하고 判斷할 여유를 주며 問答, 討論이 더 많아져야겠다.

⑦ 피교육자들의 이야기나 發表內容이 아무리 유치하거나 잘못된 것이라도 진지하게 문제삼아 주어야만 教育的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知識의 注入을 위한 講演調의 學習은 극력 피해야 한다.

⑧ 教師가 信念이 없이 授業技術에만 의존하는 것도 옳치 않다. 선생님의 所信이 어디에 있는가를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어린이들의 感性에 호소하는 것도 좋은 方法의 하나이다.

⑨ 教科書이외의 內容을 미리 준비하여 두어서 어떤 質問이라도 즉각 응답할 수 있는 對策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第 2 部

民主主義 政治理念과 體制

目 標

1. 民主主義 基本理念의 優越性에 대한 信念 培養
2. 民主理念 具現過程 및 體制의 多樣性에 대한 理解
3. 우리 民族正統性에 의한 民主的 成長過程 理解
4.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建設的, 創造的 生活能力 培養

內 容 概 要

| 題 目 | 內 容 | 強 調 點 |
|--|---|--|
| I. 民主主義 政治理念 1. 基本原理 2. 基本條件 3. 民主政治 原理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間의 尊嚴性과 個人의 最善我實現에 最高價値 賦與. • 自由, 平等, 個性 尊重, 社會的 責任과 協同의 調和 • 個人의 自決의 能力, 國家權力의 國民歸屬, 國民에 의한 政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存하는 理念 體制 中 民主主義가 最善의 것 임을 強調 • 理念具現을 위한 條件 과의 명확한 區分 |
| II. 民主主義의 成長過程과 政治體制 1. 成長過程 2. 政治體制와 그 運營 3. 多黨性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메네」의 代議的 統治體制, 「로마」法, 自然法, 英國 大憲章, 近世 人權運動, 美國의 獨立, 불란서 革命, 「유엔」人權宣言 • 代議制度, 立憲制度, 三權分立, 選舉制度, 複數政黨 • 英國의 議員內閣制, 美國의 大統領 中心制, 佛蘭西의 大統領優位制 • 專門化, 權限의 集中化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理念具現을 위한 民主主義는 恒시 努力過程 이고 未完成 • 理念具現을 위한 體制, 制度의 多樣性 |
| III. 韓國民主主義의 成長過程 1. 政治文化的 背景 2. 成長沮害 要素 3. 發展을 위한 課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種族評議會, 和白制度, 群公會議, 國相制度, 都堂制, 議政府, 開化期 民權運動 • 形式置重, 初期 政治的 混亂, 主體性 欠如, 制度的 欠陷 • 새로운 政治體制 摸索: 10월維新, 民族主體性 確立, 國民總和, 經濟發展, 國力培養, 能動的 參與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 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個人的, 組織的 努力의 必要性 |
| IV. 民主的 生活樣式과 態度 1. 生活樣式으로서의 民主主義 2. 民主的 人間型 3. 現實的 問題의 建設的 解決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道主義, 個性尊重, 公開社會, 多元的 社會, 合理性과 集團知優位 社會 • 自律性, 創意性, 協同性, 科學的 實驗的 態度, 社會的 責任感 • 異論認定, 妥協, 合理的, 科學的 解決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主的 生活樣式의 意義와 그 實踐의 重要性 |



序 說

第2部 “民主主義 政治理念과 體制”에서 의도하는 教育的 目的은 우리 나라의 理念의 바탕인 民主主義가 現存하는 모든 政治理念과 體制 중 最善의 것이라는 信念을 갖게 하고 理念 具現을 위한 우리의 現實의 努力過程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建設的이고 創意的으로 參與할 수 있는 能力과 姿勢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것을 모르고 남의 것을 批判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의 것의 자랑스러운 점을 모르고 남의 矛盾을 올바르게 批判할 수는 없을 것이다. 共產主義의 矛盾과 北韓 實情의 矛盾을 批判할 수 있는 能力과 對共 내지 對北韓 警戒心を 배양하기에 앞서 우리의 理念의 바탕과 現實 그리고 未來像을 이해하고 이에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部가 의도하는 目標을 보다 具體적으로 진술하던 다음과 같다.

첫째, 現存하는 모든 政治理念과 體制 중 民主主義가 最善의 것임을 理解시키고 둘째, 民主主義 理念 具現을 위한 여러 나라들의 努力過程과 理念 具現을 위한 다양한 制度的 形態의 意味를 理解하며

세째, 우리 나라의 民主主義 成長過程에 나타난 試行錯誤를 파악하여 民主主義 理念 具現을 위한 우리의 現實의 努力過程의 意義와 重要性을 理解하도록 하며

네째, 이 같은 우리의 現實의 努力過程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建設的이고 創意的으로 參與할 수 있는 能力과 姿勢를 갖게 하며

다섯째, 우리의 理念과 體制 그리고 우리의 努力을 阻害하고 威脅하는 共產主義와 北韓을 비판할 수 있는 能力의 기반을 굳게 한다.

이러한 本部가 의도하는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選定되어야 할 教育內容은 먼저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理念具現을 위한 基本條件 등을 포함하는 民主主義의 政治理念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民主主義 理念 具現을 위한 西歐社會에 있어서의 努力過程을 이해하기 위하여 西洋史에 나타난 重要 運動의 意味를 時代別로 간략히 취급하고 民主主義 理念 具現을 위한 最善의 政治體制와 制度들을 소개하면서 이들 體制와 制度의 意味를 부각시키는 內容들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強調되어야 할 것은 여러 自由, 民主國家들이 자기 그들의 實情에 맞도록 採擇되고 運營되는 다양한 形態의 政治制度를 소개하면서 理念 具現을 위한 方法과 手段은 다양할 수 있다는 事實을 이

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서는 理念과 그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條件과 方法을 구분하여 提示하고 理念 具現을 위한 方法으로서 構案된 다양한 制度는 그 나라의 文化的, 社會的 그리고 經濟的 與件에 따라 다른 制度의 形態를 택할 수 있다는 점에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民主主義 政治理念과 그 理念 具現을 위한 努力過程과 그리고 理念 具現을 위한 다양한 制度의 形態 등을 이해한 다음 韓國에 있어서의 民主主義 理念 具現을 위한 努力過程을 이해하는 問題를 취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政治文化的 背景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여기서 第1부에 취급된 內容의 重要 골자를 다시 간추려 提示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의 傳統이 西歐의인 意味의 民主主義와는 다르지만 民主主義를 受容하고 調和를 이룰 수 있는 可能性은 크나 共產主義를 受容할 수 있는 政治文化 傳統은 아니었다는 事實을 實證의인 例를 제시하면서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政治文化的 傳統이 共產主義의 要素보다는 民主的 要素가 더 많았다 하더라도 西歐의 民主主義를 受容하고 더욱 발전시킴에 있어 적지 않은 阻害要素가 있었음을 建國以來 시도한 民主主義의 試行錯誤 過程에 나타난 事例를 통하여 상기시키고, 우리 나라에서의 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課題와 現實的 條件을 이해시켜 새로이 시도하는 國民的 努力의 意義와 重要性을 이해하도록 하는 일에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民主主義는 비단 政治理念 내지 政治體制로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社會生活 내지 個人生活의 한 樣式으로서도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는 점을 이해시켜 生活樣式과 生活態度에 있어서 個人的 責任을 다하는 能力과 態度를 육성하는 教育的 課題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民主主義는 完全無缺하게 만들어진 既成品이 아니며 계속 가꾸어 키워가는 未來 完成的인 理念임을 이해시켜 당면하는 問題와 矛盾 그리고 葛藤을 建設的이고 科學的이고 創意的으로 해결해가는 努力의 重要性을 인식시키면서 우리가 志向하는 民主主義 理念 具現과 당면한 民族的, 國家的 目標를 달성하려는 努力過程에 能動的이고 建設的이며 創意的으로 참여할 수 있는 能力과 態度를 갖도록 하는 教育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以上에 略述한 目標와 強調點을 토대로 內容이 選定되고 4個章으로 나누어 組織되었다.

第 1 章 民主主義 政治理念

첫째 章인 本章은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그 理念 具現을 위한 基本條件을 이해하여 現存하는 모든 理念과 體制 중 民主主義가 最善의 것이라는 信念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한 本章의 目標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人間的 尊嚴성과 最善我의 實現에 最高의 價値를 부여하는 民主主義의 基本 理念을 이해한다.

둘째, 民主主義 理念 具現을 위한 必要不可缺한 基本要件으로서의 自由, 平等, 人權 및 個性의 尊重의 意味를 이해하고 이들 條件의 調和를 위한 制度的 措處의 必要性을 이해한다.

셋째, 民主政治制度的 수립을 위한 理念的 바탕을 이해하고 共產主義 本質과의 비교와 검토를 통하여 民主主義의 優越性에 대한 信念을 갖게 한다.

이러한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급되어야 할 內容은 첫째, 人間的 尊嚴성과 最善我實現에 最高의 價値를 부여하는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둘째, 民主主義 基本理念의 具現을 위한 必要不可缺한 基本條件들인 自由, 平等, 人權, 個性尊重, 協同, 責任 등의 概念과 이들 基本條件을 調和롭게 形成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的 措處 셋째, 民主政治의 理念的 想定인 個人的 自決의 能力, 國家權力的 國民歸屬, 法治主義, 政府의 爲民의 良心에 의한 制度的 運營權力을 위임받은 公務員의 責任과 義務 등이다. 여기에 제시한 內容들을 설명함에 있어 共產主義의 특성인 眞理의 絕對性, 平等의 絕對性과 個人的 自由와 個性의 無視, 國家權力的 絕對性들을 비교하면서 民主主義의 優越性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內容에 포함되는 概念들을 간결히 규정지어 주어야 할 것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概念들이 갖는 意義를 多角度로 밝혀 주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具體的인 實例를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前提下에 本章의 內容이 定立될 것이며, 선정된 內容들의 보충설명에 가해

질 것이다. 그리고 먼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民主主義의 本質이 무엇으로 규정되고 있느냐는 점이다. 그 말은 民主主義의 本質을 규정하는 것은 本章의 內容만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음 章들에서 취급되고 있는 內容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民主主義의 本質을 규정하는 範圍를 미리 지적해두는 것은 혼돈을 피하고 그리고 本章에서 취급되는 內容의 위치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된다. 이에 제시한 바와 같이 本章에서 취급될 內容들은 3個의 節로 나누어 설명될 것이며 各節에 포함되는 內容을 다시 細分化하여 內容의 提示 順序에 따라 번호를 붙이게 될 것이다.

I. 民主主義의 基本理念

I-1. 民主主義의 本質

民主主義의 本質은 民主主義의 理念的 바탕이 되고 있는 人間의 尊嚴性和 個人의 最善我實現에 대한 基本信念과 그 信念을 具現하기 위한 統治體制와 의 結合으로 規定된다.

따라서 民主主義의 全 輪廓을 밝히기 위해서는 本章에서 취급되는 모든 內容과 다음 章에서 취급되는 모든 內容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現實의 理想을 具現하기 위하여 만든 統治體制는 다음 章에서 취급하기로 하고 本章에서는 民主主義의 理念的 本質을 究明하기로 한다는 要旨을 여기서 強調해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具現하기 위하여 만든 統治體制 내지 모든 制度의 正當性和 妥當性 與否는 民主主義의 理想을 가장 잘 具現시킬 수 있는 것이나로 규정되는 것임을 밝히고 理想과 體制와의 關係성을 분명히 하고 具體的인 內容을 뒤에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民主主義의 基本的인 理念的 바탕과 그 理想을 具現하기 위한 手段 내지 條件과의 區分을 분명히 하고 그 關係를 명확히 理解하는 것이 民主主義의 理念的 本質과 諸 形態를 體系있게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民主主義는 西歐 文化史 全體를 통하여 여러가지 意味와 形態로 나타나게 되었으나 (民主主義 成長過程의 發達史의 考察은 뒤에 따로 취급할 것임을 지적해 두어야 할 것임) 변함없이 흘러온 理念的 바탕은 人間의 價値를 向上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理念的 바탕은 변함이 없었으나 理想이 갖는 뜻의 變化와 그 理想의 具現을 위한 條件의 改善을 위해서 지속적인 努力을 傾注해 왔기 때문에 民主主義는 다양한 意味의 價値, 概念, 理論, 體制, 制度 등으로 해석되어 民主主義의 本質을 간결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民主主義의 理念的 本質 내지 基本理念을 이해하고 다양하게 설명되는 民主主義와 관련된 모든 下位價値, 概念, 理論, 體制, 制度 등이 基本理

念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體系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2. 民主主義의 定義

<I-1>과 관계있는 문제로서 “民主主義”라는 概念을 定義지우는 것은 民主主義의 本質을 규정하는 것과 같은 問題가 된다. 그러나 民主主義를 어떻게 定義하는 것인지를 의문은 흔히 갖는 問題이기 때문에 民主主義의 全輪廓을 밝히는 問題를 취급하기 전에 定義를 간결히 밝히는 것도 體系있는 이해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民主主義의 本質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民主主義라는 概念의 定義도 民主主義의 理念과 그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統治體制와의 종합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인용되는 귀결로서 “國民을 위한, 國民에 의한, 國民의 政府形態”를 民主主義라고 定義한다. 이같은 定義를 인용하여 民主主義의 概念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나 民主主義의 本質을 밝히기에는 부족한 定義이다.

「메이요」(Henry B. Mayo)는 그의 著書<An Introduction to Democratic Theory>(N.Y.: Oxford Univ., Press, 1960, pp. 260—263)에서 여러 定義를 종합하여 民主主義는 “人間的 尊嚴성에 대한 信念을 具現하기 위한 社會生活의 原理 내지 政府形態”라고 定義를 내리고 있다.

이 定義를 해석함에 유의해야 할 점은 民主主義의 理念的 바탕과 그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條件과의 區分이다. 民主主義의 理念的 本質은 人間的 尊嚴성을 믿는 信念이며 나아가 民主主義가 指向하는 理念 내지 中核의 目的은 人間的 價値와 尊嚴성에 대한 信念을 具現하고, 人間 各自의 固有의 自我를 最大限으로 實現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定義에서 명시하고 있는 社會生活의 原理와 政府形態는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手段 내지 條件이다.

이렇게 理念과 理念 具現을 위한 條件과의 종합으로 民主主義의 本質은 규정되며 “民主主義”라는 概念의 定義도 규정된다.

이렇게 民主主義의 本質은 그 바탕되는 理念과 그 理念具現을 위한 條件

과의 結合으로 규정되는 것임을 이해시켜 理念 具現을 위한 條件으로서의 政治形態나 經濟體制등의 制度는 時代에 따라 혹은 文化的 傳統과 社會的 與件을 달리하는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事實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形態의 政治體制가 가장 좋을 것이냐의 問題는 의문으로 남긴채 먼저 民主主義의 理念的 本質을 규명하는 問題로 옮겨가게 된다.

I-3. 人間의 尊嚴性과 最善我實現에 대한 信念

民主主義의 理念的 本質은 人間 個人的 尊嚴性을 믿는 信念에 있음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들 概念들의 뜻을 밝혀 둔다.

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信念의 가장 核心的인 要旨은 個人的 存在價値를 무엇보다 가장 귀중하게 여기며 個人的 最善我實現과 福祉를 最高의 目標로 여기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民主主義는 人間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하여 있고 사람을 위하여 使用되는 手段으로 취급된다.

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信念이란 人間을 모든 것의 優位에 두고 目的으로 대접을 받으며 다른 어떠한 目的을 위해 人間을 手段으로 使用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人間이 目的으로 대접을 받고 人間의 尊嚴性을 最高의 價値로 소중히 여기는다는 뜻은 人間을 神主처럼 단상에 모시고 무슨 보물처럼 창고나 금고속에 잘 간수하여 두어야 한다는 意味는 아니다. 그 眞意는 人間이 갖는 固有의 個性을 尊重히 여기고 그가 가진 能力과 成長 可能性을 最大限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밖으로 부더의 무리한 拘束이나 抑壓 그리고 制裁를 가함이 없는 自由로운 風土와 機會를 提供하여 各個人으로 하여금 그에게 가장 만족스럽고 價値있는 活動과 生活을 통해 各者의 最善我 實現을 可能하도록 모든 與件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I-4.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그 下位價値

民主主義는 人間의 尊嚴性과 最善我實現에 最高의 價値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그 最高價値들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려 했다. 여기에서는 이 最高價値를 토대로 여러가지 下位價値들이 定立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民主主義가 갖는 下位價値들을 이해하는 것은 人間의 尊嚴性과 最善我實現에 最高價値를 부여하는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體系的이고 包括的으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民主主義가 갖는 下位價値들의 개별적인 해석과 아울러 이들 下位價値들과 最高價値와의 관련성을 지워주는 일도 중요하다.

民主主義가 부여하는 最高價値를 토대로 定立되는 下位價値란 人間의 目的性, 人間本質의 性善說, 眞理의 相對性, 自由와 平等 그리고 人間의 基本權利, 個性尊重, 最善我現實을 위한 自決的 能力에 대한 信念, 成長可能性에 대한 信念, 知性優位와 合理性 그리고 集團知優位에 대한 信念, 人道主義와 道義의 責任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 모든 價値는 民主主義의 理念의 本質을 규정하는 概念들이기도 하나 이들 價値를 下位價値라고 하는 까닭은 民主主義의 基本的이고 最高價値인 “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信念”에서 파생되는 價値이기 때문이다. 이들 모든 下位價値는 人間의 尊嚴性과 最善我實現이라는 基本價値를 보다 具體的으로 표현한 概念들이기 때문에 이들 下位價値의 概念을 설명하는 것으로 民主主義가 最高의 價値를 부여하는 人間의 尊嚴性과 最善我實現의 意味를 具體的으로 설명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1) 人間의 目的性

人間의 尊嚴性과 最善我實現에 最高의 價値를 부여하는 民主主義 基本理念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重要 概念의 하나가 人間의 目的性이다. 民主主義는 人間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은 人間을 위한 手段으로 취급한다.

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信念이란 바로 人間을 모든 것의 優位에 두고 目的으로 대접을 받으며 다른 어떠한 目的을 위해 人間을 手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다.

-2)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本質과의 比較 :

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信念과 人間의 目的性 如何로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本質을 比較할 수 있다.

民主主義는 人間을 目的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反面, 共產主義는 人間을 手

段으로 취급한다. 그들이 指向하는 「이데올로기」를 달성하기 위하여 人間을 手段으로 사용한다. 共產國家에서의 個人은 國家라는 큰 機械에 따라 마치 못해 돌아가는 部分品에 지나지 않으며, 黨이나 獨制者의 내키는 생각에 따라 죽고 사는 附屬物에 지나지 않는다. 少數人으로 구성된 黨이나 혹은 몇몇 執權者들이 흔히 내세우는 目的은 國家的, 全體的 利益이라고 하지만 기실 그것은 내세우는 名分에 지나지 않으며, 그 國家的 利益 내지 全體的 利益이란 少數 執權者들이 원하는 利益이며 그들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全國民을 手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共產國家에서 國民 個人은 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종의 구실만을 담당하는 것이고 人間 個人이 主人으로서의 대접과 존경을 받기를 원할 수 없으며, 따라서 自我實現을 위한 자기 價値에 따른 幸福을 追求할 自由나 個人 스스로의 判斷에 의한 活動을 할 수 있는 自由란 전혀 허용되지 못한다.

-3) 自由와 平等 :

自由와 平等이라는 概念으로 人間の 尊嚴性을 설명하면 自由로운 思考와 活動이 허용되지 못하는 곳에 人間の 尊嚴性이 인정될 수 없고 個人의 最善 自我實現을 위한 努力이 장려될 수 없다. 人間の 尊嚴性은 어느 特定人에게만 인정될 수 없다. 모든 人間은 同等하게 태어났고 同等하게 대우를 받을 權利를 갖는 것이며 그 權利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믿는다. 人間の 尊嚴性은 人種, 文化背景, 社會階層, 經濟的地位, 容貌, 性別, 宗教, 性格, 能力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平等한 價値를 지닌 存在者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이며, 각 個人은 그의 본분대로 그리고 그의 원하는 바에 의하여 最大限의 自己實現을 성취하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가 속하는 社會와 國家의 發展을 위하여 각자의 독특한 방법과 능력으로 貢獻하고 參與하는데 기쁨과 보람을 느낄 權利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인 것이다.

-4) 成長可能性에 대한 信念 :

人間尊重의 概念을 心理學的인 觀點으로도 중요시 해야할 것이다. 人間行動에 관한 現代科學은 人間尊重이 한 個人의 成長에 얼마나 중대한 意味를

주는 것이며, 그것이 社會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事實을 보여 주고 있다. 人間 個人은 無限한 成長可能性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며 이러한 可能性의 最大限의 發達은 外部로부터의 구속이 가해지지 않을 때 가능한 것으로 믿는 것이 民主教育의 基本理念이기도 하다.

個人的 無限한 成長可能性을 믿는 것은 人間の 尊嚴性和 人間 本性的 善을 믿는 信念에서 도출된 것이며 이러한 信念을 具現하기 위해서는 個人 나름의 最善의 成長을 위해 自由로운 活動이 보장되고 권장되어야 한다는 條件은 필수적이 된다. 最大限의 自我實現을 위해서는 人間の 基本的인 慾求의 적절한 充足과 表現이 필요하며, 그리고 慾求充足을 위한 自由로운 活動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慾求充足을 위한 活動을 가로막는 부당한 억압이나 구속은 個人的 잠재능력의 開發可能性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社會의 發展을 저해하는 결과가 된다.

-5) 要 約:

以上에 제시한 內容을 歷史的 혹은 現實的 問題에 결부시켜 다양한 각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나 強調되어야 할 要點을 제시할 겸 이미 제시한 內容들을 要約해 둔다.

① 民主主義는 人間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믿으며 目的으로서의 人間の 價値와 尊嚴性에 最高의 價値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② 모든 人間은 獨立된 個人으로서 인정되고, 個性이 존중되며, 個人은 스스로의 福祉追求를 위한 能力과 最善我實現을 위한 能力을 所持한 者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③ 모든 人間은 동등한 權利와 自由를 가지고 있으며 동등한 待遇와 尊敬을 받아야 한다는 점.

④ 個人的 自由와 權利, 他人의 自由와 權利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장되고 장려된다는 점.

⑤ 個人 내지 集團의 活動은 公的 福祉와 國家의 安全을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점.

⑥ 民主主義가 갖는 下位價値, 즉 人間の 目的性, 人間本質의 性善說, 眞

理의 相對性, 自由와 平等, 個性尊重, 知性優位와 集團知 優位에 대한 信念, 進步發達에 대한 信念,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의 能力에 대한 信念, 科學的 創意的·實驗的·問題解決에 대한 信念, 人道主義的·道義的 責任등은 民主主義의 理念的 本質을 보다 具體的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概念들이나 이들은 民主主義의 基本價値인 “人間의 尊嚴性과 最善我實現에 대한 信念”을 토대로 도출되는 下位價値라는 점.

⑦ 共產主義는 人間의 尊嚴性을 무시하고 그들 소수인의 目的達成을 위해 人間을 手段으로 취급하며 희생시키는 점에서 民主主義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

⑧ 共產主義는 그들의 目的을 絕對視하기 때문에 眞理의 절대성을 주장하며 個人의 知的 活動과 理性的 批判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들의 主張에 명종만이 허용된다는 점.

⑨ 共產主義는 人間의 尊嚴性을 무시하기 때문에 個性을 무시하고 個人의 행복추구를 위한 自律의 努力이나 活動을 허용하지 않으며, 個人의 自由 또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⑩ 民主主義 理念은 共產主義에 비해 優越한 것이나 그 理念具現을 위한 現實的인 問題는 있으며 이들 問題를 實情에 맞게 해결 해가는 過程에 있다는 점.

II. 理念 具現을 위한 基本條件

II-1.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그 理念 具現을 위한 基本條件과의 區分

-1) 人間의 尊嚴性과 最善我實現에 最高의 價値를 부여하는 民主主義 理念과 그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基本條件과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혼히 理念과 條件을 혼돈하게 되며 條件을 絕對視할 우려마저 있다. 理念과 條件과를 혼돈하게 되면 혼히 볼 수 있는바와 같은 現實樂觀論이나 過激한 極端的 改革論에 빠지기 쉽다는 前提로 理念具現을 위한 條件을 理念과 구분하여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

-2) 理念具現을 위한 基本條件으로 自由와 平等, 人權과 個性尊重 그리고 社會的 責任과 協同 또한 이들 條件의 調和를 위한 制度的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理念具現을 위한 條件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絕對視할 수 없고 均衡과 調和를 이룰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그 調和를 위한 制度的 措置가 필요하게 된다. 먼저 이들 概念을 설명하면서 이들 條件들의 조화를 위한 制度的 措置의 필요성과의 상호관련성을 밝히기로 한다.

II-2. 基本條件들의 概念

-1) 自 由 :

人間이 自己 個人의 尊嚴性을 인정받고 自己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만족스러운 生活을 하면서 最善我를 實現하려면 健康, 教育, 經濟的 安定등도 필요한 條件일 것이나 가장 重要的 條件은 自由이다. “自由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친 소리는 自由없는 종과 奴隸 혹은 짐승과 같은 生活에서 탈피하여 人間으로서의 待接과 尊敬을 받고 自我實現을 可能하게 하는 條件을 부여받기를 원한 生命的 表現이라 할 수 있다. 밖으로부터 不當한 拘束이나 制裁를 받음이 없이 自己의 意思를 표시하고 行動으로 옮기고 個人이 원하는 生活과 幸福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이 民主主義 理念을 구현하는 基本條件이며 生活原理인 것이다. 실상 自由없이 人間의 尊嚴性이 인정되거나 保障될 수 없고 個人의 最善我實現도 不可能하다.

① 自由의 消極的 意味와 積極的 意味: 自由의 消極的 意味란 外部로부터의 不當한 拘束이나 統制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自由의 積極的 意味란 여러가지 可能性에서 自意에 따라 선택하는 思考와 行動을 뜻한다. 眞正한 意味의 自由는 外部로부터 받을 수 있는 不當한 抑壓과 拘束을 排除하는 消極的 自由보다 個人이 行하고자 하는 行동을 意識하면서 決定하고 선택하는 積極的 自由를 뜻한다. 그러나 社會生活에서 實際的 意味를 갖는 自由의 問題는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不當한 拘束과 抑壓을 排除하는 問題이며 이러한 消極的 意味의 自由의 保障없이 積極的 意味의 自由의 行事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積極的 自由를 권장하면서 消極的 自由를 保障하려는

의도가 制度에 反映되어 있는 것이 民主國家의 특징이다.

② 自由와 責任 그리고 自由의 制限: 積極的 意味의 自由에는 責任이 수반된다. 自己가 선택하고 행한 일에는 그 結果 如何를 막론하고 自己가 責任적이어야 한다는 뜻이 積極的 意味의 自由에서 강조된다. 또한 無制限의 自由는 共同生活을 하는 社會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無制限의 自由는 남의 自由를 拘束 내지 侵害하는 結果가 되며 이러한 無制限의 自由는 無秩序한 無政府狀態를 초래할 것이며 弱肉強食의 極限의 事態를 야기시킬 우려마저 있게 된다.

따라서 民主社會에서도 他人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私的인 思考나 行動에는 無制限의 自由가 허용될 것이나 他人에게 영향을 미치는 社會的 意味를 갖는 行動에는 無制限의 自由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自由의 分類와 種類: 社會的 意味를 갖는 行動의 自由도 보는 觀點에 따라 여러가지로 分類할 수 있겠으나 흔히 市民的 自由, 政治的 自由 그리고 經濟的 自由의 셋으로 區分하고 있다.

이러한 分類는 社會生活의 重要한 領域을 大別한 分類라 할 수 있다. 市民的 自由란 主權의 主體者로서의 國民 個人이 누리는 基本權의 自由를 意味하는 것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셋으로 분리하여 설명되고 있다. 즉 身體的 自由, 精神的 自由, 財產權의 自由등이며 身體的 自由란 生命, 健康, 移動에 대한 威脅이나 損傷으로부터의 自由와 부당한 拘束, 審問, 處罰, 體刑으로부터의 自由를 意味하며, 精神的 自由란 良心, 信仰, 思想, 言論, 出版, 結社등의 自由를 뜻하며, 財產權의 自由란 個人의 財產을 保護하고 契約行爲나 財產處分을 自由로이 할 수 있는 것을 意味한다.

自由를 어떻게 分類하는 自由라는 概念에서 重要한 것은 個人 自身の 最善을 이룩할 수 있는 自由 즉 自由로이 成長하고 生活할 수 있는 自由이다. 즉 人間의 尊嚴性을 保障하고 個人의 最善我實現을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現代 民主國家들은 人間의 基本的인 自由를 규정하고 이것을 國家權力의 侵害로부터 保護하고 나아가 人間의 基本權을 國家權力으로서 積極的으로 보장해야 하는 두 觀點의 調和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 前者를

自由權의 基本權이라 하고 後者를 生活權의 基本權이라 따로 규정하고 있다. 現代의 民主國家들이 法으로서 보호하고 권장하는 自由 내지 基本權을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基本權의 自由 :

- ① 自由로운 私生活을 할 수 있는 權利
- ② 信仰을 自意로 選擇할 수 있는 權利(信仰 및 宗教의 自由)
- ③ 自由롭게 居住할 수 있는 權利(居住 및 移轉의 自由)
- ④ 自由로운 意思表示와 出版을 할 수 있는 權利(言論 및 出版의 自由)
- ⑤ 平和로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權利(集會 및 結社의 自由)
- ⑥ 職業을 自由로이 選擇할 수 있는 權利(職業選擇의 自由)
- ⑦ 私有財産을 所有할 수 있는 權利(財産權의 自由)

나) 生活權의 基本權 :

- ① 教育을 받을 수 있는 權利
- ② 自由로이 勞動할 수 있는 權利와 勞動者의 團結權, 團體交涉權, 團體行動權
- ③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다) 政治的 自由 :

- ① 自由選舉와 秘密投票를 行使할 수 있는 權利
- ② 公務員選舉權과 公務擔任權

라) 經濟的 自由 :

- ① 自由競爭을 통하여 利益을 追求할 수 있는 權利
- ② 契約을 自由로이 締結할 수 있는 權利
- ③ 勞使間에 相當한 調整을 할 수 있는 權利

마) 基本權 보장을 위한 基本權

- ① 不當한 壓迫에 대한 呼訴를 할 수 있는 權利(請願權)
- ② 犯法者의 正當한 法的 節次를 받을 수 있는 權利
- ③ 政府로부터 相當한 保護와 審判을 요구할 수 있는 權利

-2) 平 等 :

平等은 自由와 마찬가지로 人間의 價値를 높이고 個人의 最善我實現을 통해 各자의 행복한 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民主主義의 理念의 目標을 實現함에 必要不可缺한 條件이다. 自由라는 條件의 부여만으로 民主主義 理念이 具現될 수 없다. 平等이라는 條件이 自由와 더불어 부여되어야 한다.

平等이란 個人이 차지하는 社會的, 經濟的 地位 그리고 人種, 文化的, 教育的 背景, 性別의 差異없이 同等한 人間으로서의 價値와 尊嚴性을 인정 받고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制度的인 조치로서는 萬人은 法앞에 平等하며 教育을 받을 수 있는 機會의 均等과 앞서 지적한 自由의 同等한 享有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自由 역시 萬人에게 같은 정도로 허용하고 장려해야 할 것이 平等의 概念에 포함된다. 그러나 自由와 平等은 서로 相衡하는 면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無制限의 自由는 서로의 自由를 침해하는 無秩序한 弱肉強食의 競爭의 混亂을 초래할 것이고 이러한 곳에 平等이 보장될 수 없다. 이렇게 自由를 絕對化하면 平等이 무시되고 반면에 平等을 絕對視하여 個人差와 個性을 무시하고 外部의 強壓의인 힘으로 모든 個人의 生活과 活動을 똑 같이 規定한다면 個人의 自由를 抑壓하는 결과가 된다. 이와같은 自由와 平等의 相衡의 現象은 그것을 자기 絕對視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民主主義는 自由와 平等을 最高理念을 實現하기 위한 手段 내지 條件으로 생각하며 어느 하나를 絕對視하지 않고 萬人이 다 各者의 天賦의 能力과 人權에 따라 最善을 이룩하고 各자의 自由로운 선택에 의한 보람있는 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自由와 平等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調和와 均衡을 이룰 수 있도록 國家權力이 介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 國家權力의 介入의 限界와 程度를 규정하는 등 現代 民主國家에서는 이 問題를 조심스럽게 취급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3) 社會的 責任과 協同 :

自由와 平等의 調和를 통하여 民主主義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國家的 努

力的 의미를 이해시킴과 동시에 個人이 져야할 義務와 責任을 분명히 하여 건전한 社會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制度的 措置의 意義를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自由를 制限하는 까닭은 萬人的 自由를 보장하고 國家社會의 安全과 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自由가 지나쳐 他人의 尊嚴性을 損傷한다든가, 社會의 安全과 秩序를 紊亂케 한다든가, 社會의 美風을 해친다든가 또는 民主主義의 理念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民主主義의 社會制度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를 法으로서 統制하고 있다.

經濟的 自由 역시 단순히 個人의 利益을 보호하는 目的 이외에 萬인이 人間으로서의 完成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物質的 諸 條件을 보장하기 위하여 計劃에 의한 經濟活動의 統制는 불가피한 조치로 國家權力이 개입하고 있다.

個人이 져야할 社會的 責任과 協同을 個人의 良心에 호소하는 한편 法的인 措置로서는 두 가지 方法을 國家에서 사용한다. 그 하나는 自由를 事前에 制限하는 法的 規制이며 다른 하나는 法的 制限을 위반한 사람이나 集團에게 가하는 法的 制裁이다. 이렇게 事前 統制와 事後 統制의 두 方法을 사용하고 있으나 前者의 方法이 自由를 부당하게 抑壓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해석하여 政府에 그 統制의 限界를 엄격히 규정해 주도록 現代 民主國家에서는 措處하고 있다.

國家權力으로 萬人的 自由와 平等 그리고 人權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制限과 統制를 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外部的 規制에 의한 統制를 民主主義 理想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民主主義가 理想으로 여기는 것은 個人 스스로의 內的 規制에 의한 自律的 統制이다. 여기에 個人이 실천해야 할 社會的 責任의 예를 제시해 둔다.

① 個人은 尊嚴性과 價値를 지닌 人間으로서의 自己 自身에 充實하고 最善我實現을 위해 努力해야 한다.

② 社會의 道義的 規範에 벗어나는 行動을 삼가 해야 한다.

- ③ 個人이 지닌 潛在能力을 최대한으로 발전시켜 그 個人的 행복한 生活을 追求함은 물론 그의 모든 才能을 社會的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여 社會福祉 增進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④ 個人은 自己의 自由와 權利를 행사함에 있어 他人의 정당한 自由와 權利를 침해하지 않고 社會의 秩序와 福祉를 손상함이 없고 또한 國家의 安全을 위협하지 않도록 自制하는 能力을 가져야 한다.
- ⑤ 國家의 非常時에 國家의 安全을 위해 個人에게 부과되는 責任과 義務를 수행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⑥ 民主主義 實現過程에 있어 個人間 혹은 集團間에 協同과 競爭은 불가피한 것이나 정당한 方法에 의한 善意의 競爭을 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⑦ 社會事情에 精通하고 社會正義의 實現에 공헌할 義務와 責任에 충실해야 한다.

III. 民主政治의 原理

Ⅰ-1. 民主政治의 理念的 基礎

民主政治의 理念的 바탕은 말할 것도 없이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인 人間의 尊嚴性과 個人的 最善我實現을 가능케 함에 있다. 모든 유형的 政治制度는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구현하기 위하여 만든 統治制度인 것이나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은 비단 政治制度에서 뿐 아니라 社會의 모든 制度와 生活樣式에서 具現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바탕인 것이다. 따라서 政治制度를 樹立함에 있어, 혹은 民主政治制度의 本質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기반이 되는 民主政治의 原理를 이해할 것이 필요하다.

Ⅰ-2. 民主政治의 原理

-1) 個人的 自決的 能力에 대한 信念 :

民主主義는 個人的 價値와 尊嚴性을 믿고 이를 더욱 신장시켜 國民 個人的

72 民主主義 政治理念과 體制

最善我實現을 可能하게 하려는 것이 그 理念的 目的임을 앞서 여러번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부합되는 統治體制인 政府는 國民 스스로에 의한 政府라야 할 것이다. 國民에 의한 政府의 수립은 國民 個人의 自治的 能力을 믿기 때문이다. 國民 個人은 그의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的 能力을 가진 것으로 믿는 것이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一致하는 下位價值 중의 하나임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信念을 基礎로 個人의 自治的 能力을 믿는 信念이 도출된 것이며 이러한 信念을 基礎로 民主政治의 原理로서 國民에 의한 政府의 樹立과 運營을 理想視하는 것이다. 國民 個人의 自治的 能力을 믿기 때문에 國民 스스로의 힘과 努力에 의하여 수립 운영되는 政治形態를 國民을 위한 가장 좋은 政治가 될 것으로 믿고 또 바라는 것이 民主政治의 理念的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國民의, 國民에 의한 그리고 國民을 위한 政治”라는 民主政治의 定義중 民主主義의 政治的 理念的 核心을 표현한 關鍵은 “國民에 의한 政治”인 것이다. 政治의 形態가 形式上 “國民의 政治”이고 表面上 “國民을 위한 政治”라도 그 것이 “國民에 의한 政治”가 아니면 民主政治의 “國民의 自治的 能力을 믿는 信念”에 맞지 않으며 따라서 國民에 의한 政治가 아니면 民主政治라고 할 수 없게 된다.

-2) 國家權力的 國民歸屬에 대한 信念 :

民主政治는 모든 政治的 權力 내지 國家權力이 國民에게 있음을 믿는다. 즉 主權在民과 國家權力的 國民歸屬에 대한 信念이 民主政治의 理念的 原理인 것이다. 그 말은 모든 政治的 權力은 國民에 의하여 결정되며, 國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國民의 意思에 의하여 政府를 수립하고 또한 國民의 必要에 따라 正當한 法的 節次에 의해서 既存의 政府를 改革하고 變化시킬 수 있는 權限을 國民이 갖는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原理와 이에 대한 다른 原理들을 간략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① 人間은 自己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自治的 能力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
- ② 國家의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오며 國民에게 歸屬된다.
- ③ 公務員은 國民公僕으로서의 責任을 갖는다.

④ 國民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正當한 法的 節次에 의하여 政府를 改編 내지 變化시킬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⑤ 政府는 社會福祉를 증진시켜야 할 義務와 責任을 진다.

⑥ 政府는 爲民의 良心을 가지고 國民의 最善我實現을 가능하도록 하는 責任을 진다.

⑦ 政府는 사람의 恣意에 의해서가 아니라 法에 의하여 運營된다.

國民의 自治의 能力을 믿기 때문에 國民의 自治의 政府가 民主主義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理想的 政府形態일 것이나 實際에 있어서 國民 모두가 政府를 運營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따라서 現代의 民主國家들은 政府를 運營할 사람을 國民이 選출하여 國民의 權限을 委任케 하는 代議制度를 택하고 있으며 國民의 權限을 委任받은 代表가 그 權力을 恣行할 危險性을 排除하기 위하여 그 運營을 法에 의하도록 하는 法治主義를 擇하고 있다. 이들 民主政治의 理念的 바탕과 制度 및 그 運營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뒤에 따로 설명될 것임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3) 共產主義 特性과의 比較 :

共產主義 政治는 다음의 點에서 民主政治와 크게 다르다 할 수 있다.

- ① 眞理의 絕對性
- ② 物質의 必然的 決定論
- ③ 人間의 尊嚴性 否認
- ④ 個性의 無視
- ⑤ 平等의 絕對視와 自由의 抑壓
- ⑥ 國家權力의 絕對性
- ⑦ 暴力의 必須性

여기에 제시한 共產主義의 特性 이외에도 많은 特性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別個의 部에서 상세한 問題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民主主義의 理念과 民主政治의 原理와를 비교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제시하는 共產主義의 特性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제시하면서 共產主義의 特性과도 비교를 했으나

여기서 몇 가지를 더 첨가하여 비교하는 것은 民主政治의 理念的 바탕의 優越性을 더욱 부각하기 위해 의미가 있을 것이다.

共產主義는 人間의 尊嚴性을 인정하지 않으며 個性 또한 무시한다. 그것은 物質이 만물을 결정한다는 物質의 必然的 決定論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르크스-레닌」 등이 제시한 空想的 理想國家論과 「프롤레타리아」 獨裁論·暴力革命論·階級國家論 등에 의한 政治理論(이들 概念들에 대해서는 다음 部에서 설명되고 있어 參考하기 바람) 등을 絕對的 眞理라고 믿고 있어 여하한 知的·合理的 批判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特性이다. 이에 反하여 民主主義는 眞理의 相對性을 믿어 계속적인 發展을 위한 知的 活動을 허용하고 장려한다. 共產主義는 理想으로서는 平等을 絕對視하나 實際에 있어서는 平等 없는 階級을 형성하고 있으며 平等을 絕對視하는 名分으로 個人의 自由를 억압하며 일체의 自由를 허용하지 않는다. 앞서 지적한 民主社會에서 존중되는 私生活의 自由, 居住의 自由, 信仰의 自由, 言論의 自由 등의 基本權의 自由도 일체 不許한다. 그리고 그들 소수인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國家權力을 絕對視하여 主權在民과 國家權力의 國民歸屬과 같은 民主政治의 原理는 共產國家에서는 完全 무시된다. 또한 그들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暴力革命을 美化하며 이를 必須要件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個人을 手段으로 희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個人의 尊嚴性和 個性은 完全 무시되며 이러한 곳에 個人의 自決의 能力이나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의 能力같은 것은 조금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政治도 國民을 위한 國民의 政治라고 形式上 그리고 表面上으로 내세우지만 기실 國民에 의한 政治는 아니다. 國民의 自治의 能力을 믿지 않기 때문에 國民에 의한 政治를 할 까닭이 없다. 國民은 政府를 수립할 權限도 政府를 변화시킬 權限도 없으며 그들 獨裁者의 命令에 따를 뿐이다.

第2章 民主主義의 成長過程과 政治體制

民主主義의 理念과 價値 그리고 이와 관련이 있는 重要 概念들과 理念具現을 위한 모든 體制, 制度 등이 短時日內에 그리고 소수인의 努力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랜 歷史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努力과 鬪爭으로 이루어지고 키워진 것이다.

그리고 또한 理念具現을 위한 手段과 方法으로 만들어진 統治體制인 政治體制도 수 많은 試行錯誤 過程과 試練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다양한 體制들이 만들어져 자기 그 나라의 實情에 부합되는 體制와 制度를 택하여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本章은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위한 努力過程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理解하고 理念具現을 위한 多樣한 制度的 形態의 意味와 그 重要性을 理解하게 함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具體的 目標을 달성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西歐社會에 있어서의 民主主義의 成長過程을 理解한다.

둘째, 理念具現을 위한 政治體制의 多樣한 形態와 그 運營過程의 重要性을 理解한다.

셋째, 現代의 自由 民主國家들이 택하고 있는 政治體制를 이해하고 各國의 文化傳統과 社會的 實情과 政治體制와의 關係를 이해한다.

네째, 民主政治體制의 多樣한 形態와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위한 基本條件과의 關係를 이해한다.

以上の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西歐史에 나타난 民主主義의 成長過程을 概觀해야 할 것이나 지나친 詳論은 필요치 않을 것이며 時代別로 나타난 重要한 事件의 意義를 부각시키면서 民主主義의 理念具現을 위한 努力過程이 험난했으면서도 끈질기게 계속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史的 考察을 통하여 第1章에서 제시한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民主政治 理念이 어느 소수인의 創案이나 어느 特定時期와 어느 特定の 國家에서 創案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理念의 定立過程과 理念具現을 위한 政治體制의 樹立過程이 얼마나 오랜 時間과 많은 努力이 소요되면서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 점, 그리고 아직도 未完成된 諸條件들을 改善해가면서 民主主義 理念을 具現하기에 努力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76 民主主義 政治理念과 體制

以上에 제시한 本章의 目標과 強調點을 토대로 本장에서 취급될 內容들을 셋으로 나누었다. 즉 ① 民主主義의 成長過程 ② 民主政治體制와 그 運營 ③ 民主政治體制의 多樣性 등이다.

I. 民主主義의 成長過程

I-1. 民主主義의 概念

民主主義(Democracy)라는 原語는 희랍어의 國民을 뜻하는 Demos와 支配를 뜻하는 Kratein을 합친 것으로 紀元前 5世紀에 희랍의 歷史家「헤로도토스」(Herodotus)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民主主義라는 原語는 “國民의 支配”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I-2. 古代「아테네」의 代議的 統治體制

國民에 의한 統治體制를 처음으로 갖춘 것으로 記錄上에 알려진 나라는 古代 희랍의 都市國家 중의 하나인 「아테네」이다. 이 나라는 희랍에서도 가장 불리한 地理的 條件을 가진 都市國家 중의 하나였으나 몇몇의 思想的 政治的 指導者(Pericles Solon, Herodotus Cleisthenes 등)의 先導와 大衆의 호응으로 그 당시의 支配的 統治體制인 君主制와 貴族制를 타파하고 市民 大多數의 參政을 허용하는 代議的 統治體制를 수립했던 것이다. 市民多數가 野外廣場에 모여 行政權을 담당할 代表를 선출하고, 法을 정하는 民會를 구성하고, 犯法者에 대한 刑을 선고하는 등 國家意思의 決定과 그 行使에 市民의 多數가 직접 參與했던 것으로 보아 그의 統治體制는 國民에 의한 直接民主制였고 또한 民主主義 理念과 그 具現을 위한 統治體制의 樹立의 可能性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크게 貢獻한 것으로 評價된다.

I-3. 古代「로마」법의 制定

古代 희랍時代 以後 人間尊重 思想의 發達에 크게 貢獻한 事件은 紀元初에 있었던 「로마」법의 制定이다. 이 法에서 善과 公正을 기한다는 法의 精神을 確立하게 된 점도 중요하지만 國家權力을 制限하고 拘束하는 法的 規定과 市民의 權利를 明白히 하고 奴隸의 救濟策을 法에 插入한 점은 人間尊重 思想의 發達에 크게 影響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I-4. 自然法の 制定

「로마」法の 制定에 이어 「키케로」(Cicero)에 의하여 完成된 것으로 알려진 自然法の 制定은 民主主義 發達史에 크게 貢獻한 契機를 마련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人爲的으로 制定되는 모든 實定法の 理念的 法源으로 간주된 自然法은 時間과 空間을 초월하는 普遍妥當한 規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人間에게 부여되는 自然權을 최초로 밝혀 이 天賦의 自然權은 누구에 의해서도 부인될 수 없으며 모든 人爲的 實定法은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當爲性을 宣言했던 것이다.

I-5. 自然法 思想의 發展

「키케로」에 의하여 제시된 自然法 思想은 中世에도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계속 발전되었다. 中世의 代表的인 神學者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에 의하여 基督敎的 自然法 思想이 발전되었으며 뒤이어 17世紀에 이르러 「그로티우스」(Hugo Grotius), 「홉스」(Hobbs), 「로크」(Locke) 그리고 「루소」(Rousseau) 등의 思想家에 의하여 人間の 本能을 自然으로 규정하는 經驗的 自然法을 토대로 社會契約說이 제창되었던 것이며 나아가 人間の 理性을 自然의 概念으로 설명하는 理性的 自然法을 「칸트」(Immanuel Kant)가 完成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思想的 背景은 人間尊重 思想과 民主主義 理念을 定立하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I-6. 民主主義 受難期：中世 暗黒時代

人間尊重 思想이 여러 思想家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되었으나, 中世紀는 대체로 民主主義 思想이 자랄 수 있는 風土는 되지 못했다. 이 시기동안에는 強力한 힘으로 統治體制를 갖춘 封建制度下에 일부 貴族내지 王族이 모든 權限을 독점하고 있어, 大衆은 그들의 종노릇을 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點火된 民主主義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계속되어 간혹 큰 불길로 번져 世界人類의 耳目을 끌기도 했다.

I-7. 英國의 大憲章(Magna Carta)

点火된 民主主義의 불길인 큰 불길로 번지게 된 예 중의 하나가 바로 英國에 있어서의 大憲章의 制定이다. 이 大憲章의 制定으로 인하여 英國에 있어서는 물론 美國의 權利가 크게 신장되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人權思想과 自由思想이 크게 발달될 수 있었던 刺戟劑가 되었던 것이다.

이 大憲章에서 人間의 양도할 수 없는 權利를 규정한 점이라던지 人間이 나면서 부터 自由롭고 平等하다는 基本權의 自由에 대한 言及은 없었지만 많은 部門의 權利를 國民에게 인정하게 되어 이로부터 英國國民의 權利가 점차 확대되었던 것은 사실이며 위하여 1295년에는 소위 “模範國會”라는 機構가 구성되어 國民들이 國政에 參與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I-8. 近世의 各種 人權運動

中世 暗黑時代에는 民主主義의 受離期로서 人間尊重 思想이 끈질기게 계속되기는 하였으나 크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늘려 있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事件을 치루게 된 中世末葉에 다시 人間尊重과 自由를 追求하는 불길이 14世紀 伊太利를 中心으로 일어난 「르네상스」(Renaissance) 運動을 통하여 크게 번지기 시작했다. 이에 힘입어 여러 나라에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人權運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14世紀 伊太利를 中心으로 일어난 文藝復興 運動 ② 16世紀 獨逸을 中心으로 일어난 宗教改革 運動 ③ 17世紀 英國의 民權運動 ④ 18世紀의 啓蒙主義 運動 ⑤ 18世紀 美國의 獨立運動 ⑥ 1789년의 佛蘭西 革命 등이다.

「르네상스」運動은 그 당시 支配의이던 封建制度和 基督敎會가 가진 모든 權利를 否定하고 人間性을 되찾으려는 運動이었고 묵은 傳統과 굳어진 權威에 反抗하여 사람의 價値를 높이려는 努力에서 시작된 運動이 있으며 이 運動에 자극되어 文藝部門에는 물론 科學의 知識 技術의 발달이 크게 촉진되었다. 科學의 思考의 발달은 過去에 믿었던 眞理를 재검토하게 되어 새로운 知識의 보급이 촉진 되면서 自由思想과 人間尊重 思想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여 위에 지적한 각종의 人權運動이 폭발되어 막을 수 없는 勢力으로 확장되게 되었다. 이러한 努力의 結晶體로서 1948年 12월에 48個國이 「유엔」 總會에 모여 世界人權宣言을 採擇 公表하기에 이르러진 것이다. 이 世界人權宣言에 명시된 人間의 基本權利의 要旨는 앞장에 소개된 內容과 거의 같은 것이다.

I-9. 民主主義 理念 具現을 위한 계속적 努力

人間의 價値를 높이고자 시작된 民主主義의 成長過程은 험난한 길을 걸어 오면서 수 많은 희생과 혼란을 거치 그 理念定立과 理念具現을 위한 體制들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課題는 아직도 수 없이 많이 남아 있다. 人間의 價値를 높인다는 것이 끝이 있을 수 없는 바와 같이 民主主義는 어느 限界線까지를 理想的인 狀態로 假定하지 않는다.

따라서 民主主義는 언제나 未完成的인 것이며 오늘보다 더 나은 狀態로 志向하기 위하여 努力하는 過程을 중요시한다.

II. 民主政治體制와 그 運營

II-1. 民主政治體制의 重要性

民主主義의 本質은 人間의 價値와 尊嚴性을 더 높이고 個人의 最善我 實現을 가능케 하는 理念과 그 理念 具現을 위하여 만든 統治體制와의 兩側面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점을 전장의 첫부분에서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民主主義는 理念을 중요시할 뿐 아니라 그 理念을 實現하기 위한 方法과 手段을 理念못지 않게 중요시 한다. 實察에 있어서 民主主義의 死活的인 問題는 理念을 具現하기 위하여 만든 統治體制와 그 體制의 運營過程 如何에 달려있다.

II-2. 古典的 民主政治體制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가장 理想的인 政治制度는 國民에 의한

自治의 政府形態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國民 모두가 政府의 樹立과 그 運營에 직접 참여하는 形態를 直接民主主義라고 하며 이러한 形態의 民主政治는 古代「아테네」의 都市國家에서 시도한 예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古代「아테네」와 같은 작은 규모의 國家社會를 예상할 수 없는 現代에서는 實際에 있어 그러한 直接民主主義 政治形態는 不可能하다.

그러나 民主主義는 國民의 自治의 能力을 믿기 때문에 「國民에 의한 政治」라야 한다는 信念을 저버리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信念에 입각한 그리고 現實적으로 實現 가능한 政治體制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國民 모두가 政府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政府를 운영할 사람을 選出하여 그들 代表에게 國民의 權限을 委任하고 있으며 또한 國民이 選出한 代表에게 立法의 權限을 委任하는 形態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形態를 間接民主政治 내지 代議政治라고 한다.

II-3. 民主政治體制

民主主義 理念을 具現할 수 있는 民主政治體制는 國民의 意思를 존중하여 國民의 意思가 可能한 限 잘 反映되도록 하려는 制度로 具體化되고 있다. 立憲制度, 代議制度, 權力的 牽制과 均衡을 위한 三權分立制度, 選舉制度, 複數政黨制度 등이 現代 民主國家들이 채택하고 운영하는 政治制度의 예다.

-1) 立憲政治制度 :

憲法에 따른 統治體制를 수립하는 것이 立憲政治이며 立憲政治制度는 民主政治體制의 본질적 특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시 되는 制度이다.

그 까닭은 종전의 少數 特殊層의 “人間에 의한 政府”를 “法에 의한 政府”로 代置함으로써 國家를 統治함에 있어 人間的 恣意의 남용을 방지하고 國民 모두가 意思를 충분히 反映하려는 것이 立憲政治의 기본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憲法の 有無로 民主的 혹은 非民主的 統治體制를 판가름 할 수는 없다. 先進民主國家의 하나인 英國의 경우 成文化된 憲法은 없으며 共產獨裁國인 蘇聯은 成文化된 憲法을 가지고 있다.

英國의 경우 成文化된 憲法은 없으나 憲法の 구실(各種 法令, 司法判例,

慣例등)을 하는 法을 가지고 있어 立憲民主政府로서 손색이 없으나 成文化된 憲法을 가진 蘇聯의 경우에는 그 憲法이 政府의 權力을 制限하는 制度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立憲制度의 民主性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民主主義 理念을 토대로 國民의 基本權利를 규정하고 政府의 權力을 制限하고 그 밖에 모든 節次와 制度를 규정한 憲法의 內容에 따라 政府가 수립되고 운영될 때 이를 立憲民主政治體制라고 할 수 있다.

-2) 代議制度 :

代議制度란 國民이 選舉를 통한 그들의 代表를 선출하고 代表로 하여금 國家意思를 決定 집행하게 하는 政治制度를 뜻한다. 따라서 代議政治의 中核은 國會인 것이다. 行政府의 首班인 大統領도 역시 國民의 選舉에 의하여 선출된 代表者이기 때문에 政府도 代議的 性格을 갖는다. 國民의 意思를 가장 잘 反映케하는 制度로서는 立法의 權限을 위임받은 國會이다.

-3) 三權分立制 :

民主政治體制는 實質적으로 國家의 權力을 制限하기 위하여 제정된 制度로서 三權分立의 근본적인 의미 역시 權力의 集中을 피하기 위한 方法으로 採擇된 制度이다. 君主나 獨裁者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와 같이 權力을 장악한 자는 그것을 濫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國家의 權力을 立法權, 行政權 그리고 司法權의 셋으로 分立시켜 이를 각기 獨立機關에 부여하여 서로 牽制케 함으로서 權力의 濫用을 방지하고 權力의 均衡을 유지하도록 하는 制度가 三權分立制度인 것이다.

II-4. 民主政治體制的 特徵

民主政治體制的 特徵은 少數人의 恣意에 따른 權力의 濫用을 방지하기 위한 立憲制度和 國民의 意思를 效果的으로 반영할 수 있게하는 代議制度 그리고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보장하고 代表에게 委任한 權力을 서로 牽制하고 補完하기 위한 三權分立制度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制度의 기본적인 特徵은 앞장에서 제시한 民主主義 基本理念을 具現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意義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理

念 具現을 위한 方法으로서의 政治制度와 그 運營技術에는 나라의 特殊事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立法權이 주어진 立法院에서도 單院制를 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兩院制를 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行政府 역시 나라마다 다른 形態의 制度를 택하고 있다. 大統領制와 議員內閣制가 그 代表的인 例이다. 오랜 歷史를 통하여 다듬어진 이들 制度는 民主主義 理念을 效果的으로 具現할 수 있는 現存하는 모든 制度 중 最善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修正과 補完이 必要치 않는 絕對的인 것으로는 믿지 않으며 나라의 實情과 必要에 따라 多樣한 形態의 制度와 政治技術의 活用이 필요하고 계속 修正과 補完이 필요한 것으로 믿는 것이 民主政治의 特性이다.

II-5. 民主政治體制的 運營

民主政治의 成敗는 民主主義 理念을 效果的으로 具現할 수 있는 制度의 樹立과 그 制度의 運營過程 如何에 달려 있다. 制度의 樹立에 있어서도 民主主義 理念을 가장 效果的으로 實現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核心的 要旨일 것이며 制度의 運營過程에도 항상 그 制度의 樹立 趣旨에 맞는 運營의 妙味가 요청된다. 制度의 運營如何에 따라 그 制度의 設立趣旨을 效果的으로 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게 되며 나아가 民主主義 理念이 實現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制度의 運營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要素는 選舉, 國家意思의 形成過程으로서의 輿論, 政黨, 多數決의 原理, 各種 利益團體의 參政過程, 國民의 權限을 委任받은 代表들의 爲民的 良心에 의한 制度의 運營, 國民 個人 및 集團의 參政에의 責任등을 들 수 있다.

-1) 選 舉 :

國民의 意思와 權力을 委任하게 될 代表를 選출하는 方法이 곧 選舉인 것이다. 그러나 選舉의 意義는 國民이 選출한 代表에게 國民의 自治의 權利를 委任하는 것이기 때문에 選舉制度의 存在有無보다는 國民의 多樣的 意思를 가장 效果的으로 集約 表示하여 좋은 代表를 選출하느냐의 選舉過程과 國民의

權력을 委任받은 立法府의 議員이나 行政府의 首班이 國民의 意思를 어느정도 反映하게 되느냐에 의하여 규정된다. 民主國家들이 택하고 있는 國民의 權利行使 方法은 國民의 直接的 行使가 아니라 權력을 代表에게 委任하는 것이기 때문에 代議政治制度의 成敗는 選舉過程의 公正과 國民의 權력을 위임받은 代表들의 爲民의 良心에 의한 權력의 代行過程 如何로 결정된다.

-2) 政黨과 複數政黨制:

選舉를 除外하고는 國民의 意思를 개별적으로 政府에 反映시키기란 어렵고 개개 國民의 意思가 組織化될 때 가장 效果있게 政府에 反映될 수 있게 된다. 國民의 意思를 組織化하여 政府에 反映케하는 役割을 담당하는 단체가 政黨인 것이다. 따라서 政黨은 代議政治制度의 실제 運營過程에 있어서 核心的 役割을 담당하는 것이다.

國民의 意思는 多様하고 또 그 多様性을 民主主義는 권장하기 때문에 그 多様한 選民의 意思를 多様하게 반영시킬 수 있으려면 選舉때 國民의 選擇 範圍가 넓어야 한다.

이렇게 多様한 國民의 意思를 多様하게 반영시킬 수 있게하고 選舉에서 選擇의 範圍를 넓히기 위하여 民主國家들은 複數政黨制度를 채택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政黨 以外的 社會 各種의 利益團體도 國民의 다양한 意思와 利益을 政府에 反映하는 機能的 役割을 담당하고 있음을 부연해 둔다.

-3) 代表의 原理와 多數決의 原理:

代議政治制度를 운영하는 基本原理는 國民의 意思를 代辯하고 國民의 權利를 代行할 代表를 選출하는 代表의 原理와 國民의 意思를 통합하여 國家意思를 決定하는 多數決의 原理가 그 주축을 이룬다. 代表의 原理란 다양한 國民의 意思를 代表하고 統合하여 國家意思로 決定하는 過程을 의미하는 것이며, 多數決의 原理는 相異한 國民의 意思와 主張을 통합하여 國家意思로 결정하는 過程을 의미하는 것이다. 國民의 意思와 主張이 多様하고 서로 相異할 수 있기 때문에 多様한 意思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많은 代表를 選출하고 서로 相異한 意見과 主張을 調節 統合하기 위하여서는 결국 多數의 意見과 主張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少數의 意

見도 尊重되는 것이 民主社會의 特色이다.

-4) 輿論과 討論 :

國民의 多樣하고 相異한 意思가 多數의 意思로 造成되기 위해서는 討論을 통한 輿論의 形成過程이 必要하게 된다. 討論을 통하여 서로의 相異한 意見과 主張이 交換되고 說得과 妥協 理解와 諒解가 이루어져 合意에 도달되고 나아가 全體의 意思를 綜合하게 된다.

따라서 討論은 民主的 政治過程에 必要不可缺한 要件이 되며 또한 중요한 教育的 過程이기도 한 것이다. 討論은 國民 서로의 意見을 교환하여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教育的 過程인 동시에 多數의 意見 내지 國家意思를 形成해가는 民主的 過程인 것이다. 共產國家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討論의 自由가 없는 多數決은 도리어 獨裁나 少數支配를 僞裝하는 節次에 不過한 것이다.

-5)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가 갖는 意味 :

民主政治體制의 운영에 있어 國民의 意思를 존중하며 이들 多樣하고 相異한 意思를 統合하여 國家意思로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상당한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가 保障되고 確保되어야 한다.

-6) 個人 및 集團의 責任 :

① 國民은 社會的 問題와 그 問題解決을 위해 취해지는 政策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보다 精確한 理解를 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責任을 갖는다. 制度的으로 國民의 意思가 反映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하더라도 國民이 이를 積極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올바른 理解와 自己 意思를 表明하지 않으려 들면 그 制度도 의미를 갖지 못한다.

② 國民은 各자의 意見과 主張을 正當한 方法으로 표현하고 그 意見들을 集約하여 國民의 權利를 委任한 代表들에게 전달하고 그들 代表들을 통하여 國民의 要求가 政策에 反映되도록 할 責任을 진다.

③ 個人的 意見을 제시하고 集團的인 意思로 集約하기 위하여 民主的인 合意의 過程이 重視되고 個人은 合意된 多數의 意思에 따라야 하며 多數는 少數의 意見을 所重히 여기는 責任을 진다.

④ 國民은 政治的 權力을 위임한 代表를 선출하는 選舉에 적극 참여할 責任을 진다.

⑤ 國民은 國家的인 非常時에 政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國民의 義務를 充實히 履行하고 協調하는 責任을 진다.

⑥ 個人과 集團은 法을 준수하고 不合理함을 是正할 必要가 있을 때는 法이 規定한 正當한 節次와 方法에 따라야 할 責任을 진다.

II-6. 民主政治와 經濟體制

-1) 資本主義 經濟體制 :

民主主義의 經濟體制는 흔히 資本主義 經濟體制로 알려져 있다.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基本原理는 自由經濟에 두고 있다. 自由經濟의 基本精神은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個人의 幸福追求를 最大限으로 보장하고 장려하는 經濟活動의 基本原理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2) 自由經濟의 基本理念 :

民主政治制度의 基本原理는 個人의 自治의 能力을 믿는 信念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바와 같이 自由經濟의 基本原理는 個人이 자기의 幸福追求를 위한 能力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이를 最大限으로 보장하고 장려하려는 理念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個人의 幸福은 自意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 幸福追求를 위한 個人의 能力을 믿는 것은 民主主義 基本理念과 일치하는 것이다. 個人으로 하여금 自由스러운 經濟活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려하여 經濟活動에의 意欲을 고취하고 個人의 幸福追求를 위해 個人이 갖는 能力과 努力을 최대한으로 동원케 함으로서 個人의 幸福과 發展은 물론 國家의 經濟的 成長도 촉진될 것이라고 民主主義는 믿는 것이다.

-3) 自由經濟의 長點 :

人間은 外部的 強要에 의하여 일에 임할 때와 스스로의 幸福追求를 위하여 일에 임할 때 意慾과 努力에도 큰 差異가 있게 된다. 個人의 幸福追求를 위한 能力과 努力을 믿어 個人에게 自由로운 經濟活動을 허용하는 民主國家와 勞動을 強要하는 共產獨裁國家와의 經濟成長에서의 差異는 長期的으

로 볼 때 크다. 그 예로 自然資源이 豊富치 못한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民主的 自由經濟體制的 採擇과 그 効果적인 운영으로 經濟成長이 촉진된 나라의 예이며 2次 世界大戰 以後 西獨과 日本의 경우도 좋은 예라 볼 수 있다.

-4) 經濟的 自由 :

앞장에서 市民的 自由, 政治的 自由를 설명하면서 經濟的 自由의 의미를 설명한 바 있다. 좀 더 부연하면 經濟的 自由란 모든 個人이 自己의 願에 따라 일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所得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權利에 속하며 그 財產을 自己의 意思에 따라 處分할 수 있는 自由를 의미한다. 우리의 憲法이 保障하고 있는 經濟活動의 自由와 私有財產權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正當한 法的 節次없이 個人의 私有財產을 침해할 수 없다.
- ② 犯罪에 대한 處罰의 경우 이외에는 個人을 強制勞動시킬 수 없다.
- ③ 正當한 補償없이 個人의 財產을 共有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國民의 合意없이 稅金을 부여할 수 없다.
- ⑤ 個人은 土地 家屋 財產 貨幣를 自由로이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 ⑥ 個人은 自然資源과 生産手段을 自由로이 所有할 수 있다.
- ⑦ 個人이 自己의 財產을 그가 自由로이 택한 他人에게 讓渡할 수 있다.
- ⑧ 個人은 公衆衛生, 安全, 秩序, 公益등 公共福祉를 침해하는 일에 그의 財產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등이 그 主要 內容으로 되어 있다.

Ⅲ. 民主政治 體制的 多樣性

Ⅲ-1. 政治體制的 多樣성이 要求되는 理由

統治體制는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手段 내지 方法에 불과하다. 따라서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方法과 手段은 唯一한 것일 수는 없고 多樣할 수 있으며, 時代에 따라 文化的 背景과 社會的 與件을 달리하는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더욱이 前節에서 밝힌 바와 같이 統治體制的 制度的 形態와 그 制度의 運營의 요리에 따라 理念이 具現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制度 自體도 그럴 수 있겠으나 그 制度의 運營過程에서는 더욱 그 나라의 政治文化的 傳統과 社會的 與件의 여러 要因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國

민에 의한 政治를 理想으로 여기고 國民의 參政을 間接的이기는 하나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이 民主政治의 특징이기 때문에 國民의 教育水準과 自治의 能力 그리고 文化的 要素가 支配的인 國民의 生活樣式과 意識構造, 政治意識 등이 그 政治制度의 運營過程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要素가 反映되는 制度와 그 制度의 運營過程이 文化와 社會的 與件을 달리하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게 되며 나아가 그 多樣性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이 民主政治에서 所望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더욱이 20世紀에 들어와서 各國이 多樣한 形態의 民主政治制度를 택하고 運營하게 된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간결히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各國의 社會的 與件이 크게 달라진 이유 : 民主政治制度를 비교적 빨리 받아들인 나라들은 주로 「유럽」에 있는 國家들이고 이들의 文化的 背景은 비교적 유사했다. 그러나 20世紀에 들어서면서 「유럽」 各國의 社會的 經濟的 與件은 큰 差異를 갖게되어 그들의 實情에 맞는 制度의 改革과 運營을 하게 된 것이다.

② 各國이 당면하는 심각한 社會的 問題가 각기 다른 양태를 보이며 그 問題解決을 위한 방법도 다양하게 된 이유

③ 社會의 組織과 機能이 分化되고 복잡해져서 이들 복잡한 社會의 諸機能을 통합하는 統治體制도 다양하게 된 이유

④ 各國의 民族主義의 傾向이 外國의 文物을 받아 들임에 있어 그들 나름대로의 創意的 受容을 강조하게 된 이유 등이다.

Ⅲ-2. 先進 民主國家의 政治制度와 그 特徵

-1) 英國의 政治傳統과 議院內閣制 :

英國은 議會制度를 최초로 채택한 나라로 議會制度의 母國으로 알려져 있다. 英國에 있어서의 議院內閣制의 起源은 古代 樞密院(Privy Council)에 由來한다. 7, 8世紀의 「색슨」(Saxon) 時代의 賢人會議, 「노르만」(Norman) 時代의 大會議 그 밖에 小會議, 常設評議會 등 여러名稱으로 불려진 이 樞密院은 初期에 소수인의 代表들로 구성되었고 계속 그 代表數가 늘어났으며 그

를 대표들은 國王과 國事를 密議하여 決定하는 時代的 意味의 立法權, 司法權, 行政權을 겸하여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國王의 大權은 絕對的이어서 初期에는 國王의 諮問機關의 구실 정도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였으나 1215年 John 王에 의한 大憲章에의 날인, 「Henry 3世」와 「Edward 1世」때 「시몬·드·몬포트」(Simon de Monfort)가 이끈 貴族指導者들의 승리로 인한 庶民代表를 포함한 大會議의 創設, 模範會議의 創設 「Edward 3世」(1327~1377)때의 貴族院과 庶民院의 兩院制 實施, 「Charles 2世」때의 政黨(Whigs黨과 Tories黨) 勢力的 확대등을 거쳐 議會의 權限이 차츰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진통기를 거쳐 英國에서 議院內閣制가 확립된 것은 대체로 1688年의 소위 各譽革命 이후라고 할 수 있다. 革命의 결과로 탄생한 權利章典(Bill of Rights)에 의하여 王權神授說은 完全히 부인되고 議會의 權威가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國王의 大權이 하루 밤사이에 完全히 무너질 수는 없었고 뒤이어 1832年 中產階級에게 選舉權을 부여하는 選舉法의 개정으로 오랫동안 지배적이던 貴族寡頭政治로부터 民主的 政治에로 전환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國王은 選舉의 결과 下院에서 多數를 차지한 政黨의 黨首를 首相으로 任命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內閣은 上下院의 議員들로 구성되며 行政府의 最高權威는 樞密院의 中核인 內閣에 주어지고 있어 議院內閣制를 中心으로 하는 民主政治體制를 수립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대충 살펴본 이러한 英國의 政治傳統은 어느 다른 先進 民主國家의 政治體制와는 다른 형태의 制度의 수립과 그 制度의 운영을 기하게 한 것이라 설명될 수 있다.

2) 美國의 大統領 中心制:

美國의 大統領 中心制를 이해하려면 먼저 美合衆國의 成立과 國家聯合의 성격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18世紀 中葉부터 「아메리카」大陸은 英國의 支配下에 있어 植民地 政策을 받아들였다. 英國의 一方의인 立法措置로 美國의 여러 地方에 課稅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등 植民地 政策이 強行되자 여러 地域에서 反對의 運動이 전개되고 1765年 10월에 9個의 植民地 代表들이 모여 “美國에 있어서의 植民地 人의 權利와 不滿에 관한 宣言”을 의결하여 정식 항의까지 한 바 있고, 1774

년에는 12個 植民地 代表들이 모여 大陸會議을 개최 1776年 7月 4日에는 13個州의 代表들이 모여 獨立宣言을 초안 공포하고 各州는 主權을 가진 獨立國임을 선언했던 것이다. 이 獨立宣言에는 ① 自然權 ② 契約權 ③ 革命權 등 기본적인 政治의 原理를 명시하였다. 그 다음해 大陸會議에서 聯合同盟規約을 의결한 바 있고 1781년에는 13個州가 法律上 聯合國家의 형식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中央政府의 組織을 뜻한 것은 아니며 英國에 反抗하기 위한 힘의 규합에 불과했던 것으로 그후 1787年 憲法會議를 통해 憲法이 制定되고 이에 同意한 13個州로 聯邦政府가 형성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各州는 英國의 植民地 政策下에서도 自治的 統治體制를 갖추고 있어 植民地 自治의 中心은 植民地 議會였고 그 議會의 中心은 代議院에 있었다. 이러한 自治의 性格을 띤 各州가 聯合政府를 구성함에 있어 強力한 中央政府의 組織이 必要했을 것이다.

그러나 大統領 選舉過程이나 聯合政府의 權限의 범위에도 自治的 州政府의 性格을 살리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大統領制를 택하고 있는 美國의 政治體制에 있어서 政治的 指導權은 大統領에게 부여되어 있다. 大統領은 行政府의 首班으로서의 地位뿐 아니라 合衆國의 元首로서, 最高의 外交指導者로서, 軍의 總司令官으로서, 主要한 立法政策 形成者로서, 政黨의 指導者로서 그리고 輿論의 指導者로서 모든 制度的 또는 實質的으로 중요한 指導的 地位와 權限을 갖는다.

따라서 美國에 있어서의 大統領의 地位는 政治體制 全裝置의 主軸의 地位이며 政治指導의 焦點의 地位를 갖는다. 그러나 州單位로 하는 地方自治制의 性格은 살려서 上·下院의 聯合議會의 議員構成이며 그 選舉樣式은 州單位로 되어 있는 것이 또한 특징이다.

-3) 佛蘭西의 議會 絕對優位制에서 大統領 優位制로의 轉換 :

現在의 佛蘭西의 統治體制는 傳統的 議會政治와 美國式 大統領制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佛蘭西의 傳統的 議會政治란 1848年의 2月革命으로 오래 지속된 王政을

廢止하고 共和主義者와 社會主義者들의 主導權 아래 普通選舉를 통하여 선출된 議員 900名으로 國民議會를 구성하여 여기서 共和制 憲法을 제정, 새로운 共和國 成立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후 많은 시련을 거쳐 1875年 2月 25日에 國民議會에서 第三共和國 憲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이른바 第3共和國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 憲法의 골자는 英國의 議會를 모방한 것으로 議院內閣制의 統治體制를 갖추는 制變의 基本原則을 제시한 것이다.

불란서에는 英國이나 美國에서 볼 수 있는 二大政黨制가 발달되지 못하여 불란서의 議會는 多數의 群小政黨으로 分裂되어 있었으므로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더욱이 大統領은 首相을 지명하는 정도의 權限만이 주어져 있었고 首相과 內閣은 異質의 諸政黨을 배경으로 한 異質의 聯立內閣으로 政治的一體를 형성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政策執行에 있어 統一성과 權威를 잃고 있었다.

요약하면 政府에 대한 議會의 萬能, 議會에 대한 政府의 無力, 政局의 극도의 不安定 등이 第三共和國의 政治의 行態이었다.

世界 第2次 大戰의 종말과 더불어 「드골」(De Gaulle)이 불란서의 臨時政府의 수반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政治의 行態는 계승되어 그 당시의 制憲議會는 國民議會에 強力한 權力을 집중시켜 行政府를 立法府의 지배하에 두려 했다. 이에 「드골」은 反對하여 強力한 行政權力을 갖는 大統領制를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드골」의 政治生命은 짧았으며 그뒤 몇번의 制憲過程을 거쳐 1946年 10月에 第二의 憲法草案이 國民投票의 찬성을 얻어 채택되어 第四共和國이 탄생되었다.

第四共和國 역시 10年동안 20餘回나 內閣이 바뀌는 등 政局의 不安이 계속되었다가 1958年 「드골」이 政界에 복귀하여 혼란한 政局을 수습하는 방안으로 10年前 주장했던 강력한 大統領制의 樹立을 위한 改憲을 주장하여 그의 주장이 國民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第五共和國 憲法이 채택되었다.

이로 인하여 行政府가 強化되고 議會의 地位는 低下되었으며 行政府 內에서도 大統領의 權限이 확대되었다. 중전의 大統領은 하나의 象徴의 儀式的

대표에 불과했으나 이제 實質의 權限을 갖게되어 美國의 大統領制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大統領은 行政府의 首班으로 統治權을 갖게 되었고 安全政府를 構築하는 기반을 만들게 된 것이다.

-4) 英國의 議院內閣制과 불란서의 議院內閣制의 比較 :

英國의 議院內閣制는 多數 與黨의 政府에 대한 信賴, 政府와 議會를 맺는 강력한 紐帶, 統治作用과 野黨 作用과의 명확한 區分 등으로 內閣의 優位性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는 兩黨制와 小選舉區制 등의 制度에 기인된 바 크며 이러한 制度의 수립은 그 運營에 건전한 英國의 政治傳統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英國의 議院內閣制는 建在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불란서에서는 議會의 無秩序, 內閣과 議會의 不調和, 行政府의 停頓狀態, 無氣力 등은 內閣의 弱化和 行政府의 議會에의 依속성을 초래했으며 이는 議院內閣制가 比例代表制와 群小政黨 分立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制度와 그 運營은 그들의 政治傳統에 기인된 바 크다 하겠다.

III-3. 現代 民主政治의 特徵

-1) 政治制度 運營의 專門化 :

現代社會의 特징으로 大衆社會의 出現, 科學 技術의 發達, 社會 諸機能의 細分化和 技術化, 社會問題와 經濟問題 解決을 위한 高度의 專門的 知識, 技術의 必要 등을 지적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社會領域의 專門化는 國家統治와 制度의 運營에도 專門性이 要求되게 되었다.

이렇게 高度로 熟練되고 專門化된 專門家에 의한 統治는 國民 大衆이나 國民에 의하여 選출된 凡常한 議員들에 의해서는 불가능하게 된다.

-2) 議會制度에 대한 懷疑 :

高度로 熟練되고 專門化된 專門家에 의한 統治와 各種 制度의 運營은 議員들의 地位와 발언권이 低下되고 議員들의 國民代表意識 내지 選良意識, 爲民意識 등이 弱화되며 그들의 利害關係를 중심으로 한 論爭은 도리어 혼란을 야기시켜 國民에 대한 信賴感이 약화되고 있어 議會制度에 대한 不信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議會制度의 無用論이나 危機說은 前近代의 社會條件과 經濟的 條件下에 형성된 낡은 自由主義的, 議會主義的 民主政治制度가 내포하고 있는 矛盾에 대한 것이며, 民主主義 理念과 生活原理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3) 國家權力의 集中化:

복잡한 諸般 社會問題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行政府의 權限이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현대의 특징이다.

이러한 경향은 民主政治의 兩大 中核의 制度를 택하고 있는 英國의 議院內閣制에서나 美國의 大統領中心制에서나 마찬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III-4. 民主主義 成長을 위한 先行條件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努力過程은 끝이 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임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民主主義는 現世 完成的인 理念이 아니고 發展的, 進步的 理念이며 未來 完成的 理念이기 때문에 그 理念具現을 위한 努力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問題는 그 發展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이냐에 있다. 여기에 民主主義의 成長을 촉진시킴에 필요한 先行條件들을 항목별로 지적 해 둔다.

- ① 國民의 教育水準과 높은 文字解得率
- ② 비교적 高度한 都市化
- ③ 비교적 높은 經濟水準
- ④ 文化的 同質성과 國民感情의 同質性
- ⑤ 中產階層의 擴大
- ⑥ 廣範한 地理的, 社會的 流動性
- ⑦ 大衆의 意思傳達 媒介體의 發達
- ⑧ 잘 調和된 利益團體의 組織
- ⑨ 社會的, 經濟的, 政治的, 活動過程에의 廣範圍한 參與
- ⑩ 國民의 民主的 態도와 生活樣式
- ⑪ 外勢侵略에 대한 安保 確信

第3章 韓國民主主義의 成長過程

本章에서는 우리의 政治, 文化的 傳統이 西歐의인 意味의 民主主義와는 달랐다 하더라도 共產主義의 要素와 共產主義를 受容할 수 있는 것이라기 보다 民主主義의 要素와 民主主義를 受容할 수 있는 態勢가 더 많았음을 인식시켜 짧은 歷史동안 西歐의 民主主義를 受容하고 發展시킨에 적지 않은 阻害要素가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當面問題를 분명히 하고 發展을 위한 國民의 努力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強調點을 초점으로 하여 本章이 의도하는 目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韓國의 政治 文化的 背景을 理解한다.

둘째, 初期의 民主主義 受容을 위해 시도된 試行錯誤 過程을 이해하여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阻害하는 要因을 分析 批判할 수 있게 한다.

셋째, 民主主義 發展을 위해 취해진 制度的 措置의 意味를 이해하고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課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네째,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個人的, 組織의 努力의 重要성을 인식케 한다.

以上的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급되어야 할 教育內容과 그 組織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三國時代, 高麗時代, 李朝時代 그리고 開化期등의 時期에 나타난 民主主義의 要素가 내포된 政治制度와 그 운영 그리고 民權運動등을 개관하면서 우리의 政治文化的 傳統의 特性을 밝힌다.

② 大韓民國 初期의 民主主義 受容過程에 나타난 試行錯誤를 分析하면서 民主政治 文化形成을 阻害한 要素를 밝힌다.

③ 過去의 政治制度와 그 運營過程의 矛盾點을 시정하고 發展을 촉진하는 새로운 制度的 措置의 意味를 밝힌다.

④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촉진하는 課題를 밝혀 國民의 努力의 重要성을 증명한다.

本章의 첫째 主題에 관한 內容은 第1部 “民族意識과 國家觀”에서 보다 상세히 취급되고 있어 여기에서는 그 중복을 피하고 다만 우리의 政治文化的 傳統 중 民主主義

要素가 내포된 의미만을 강조하여 우리의 政治文化的 傳統이 西歐的으로 가꾸어지고
 키워진 民主主義는 아니지만 이를 受容할 수 있는 要素가 많았고 共產主義를 받아들
 될 수 있는 傳統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을 지적해 둔다. 그리고
 Ⅱ. Ⅲ절에 관해서는 民主主義를 發展시키기 위해 排除되어야 할 그리고 克服되어야
 할 要素와 造成되어야 할 條件들을 부각시킴에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이며 다음 章에서
 취급될 內容과의 연계를 지우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民
 主主義 發展을 위한 課題와 國民的 努力의 重要성을 인식하게 하는 內容들이 강조되
 어야 할 것이다.

I. 韓國의 政治 文化的 背景

I-1. 古代 : 種族評議會

우리의 古代 原始共同社會는 그 社會의 統治權이 近世 西歐社會에 있었던 絶對君主와 같은 獨裁者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共同體의 構成員에 의하여 선출된 酋長 내지 村長에 주어져 운영되었다고 한다. 共同體의 構成員이 모여 토론하고 代表를 선출하는 기회까지 주어진 것이 種族評議會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種族評議會의 遺産으로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宗中會議, 門中會議 같은 것이 社會的 遺風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I-2. 三國時代

三國時代로 접어들면서 古代 原始共同體의 政治는 貴族政治로 전환되었으나 古代의 民主的 政治體制는 계승되었다. 그 흔적으로는 新羅의 骨品制度, 高句麗의 大對盧制度, 百濟의 國相制度 같은 政策을 協議 決定하는 統治制度가 발전된 것이다.

-1) 新羅의 和白會議 :

이는 古代 種族評議會의 參與者 滿場一致制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으로 近世 西歐의 代議制와 유사한 民主的 統治機構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2) 高句麗의 大對盧制度和 群公會議 :

古代 民族 내지 種族會議의 성격을 넘어서 여러 貴族들의 代表들이 모여 政事를 論하고 決定하는 合座機關으로 氏族長들의 貴族化로 이루어진 統治體制의 하나이다. 政事를 맡는 宰相들은 이 大對盧會議에서 貴族代表들의 互選으로 이루어졌다. 그뿐 아니라 政事를 확대된 群公會議에서 討論하는 制度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3) 百濟의 政事殿과 國相制度 :

이 制度 역시 高句麗의 大對盧制과 유사한 것으로 三國時代의 政治制度의 共通의 特徵인 合座制의 일종인 것이다. 이것은 政事를 논하는 代表들의 代議制와 같은 것이며 이들은 王位繼承 問題까지 논의하는 중요기구의 구실을 했으며 會議場所도 여러 명지를 찾아 순회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I-3. 高麗時代

三國時代 以後 高麗朝가 樹立되면서 中央集權의 封建社會로 변모되었지만 專制勢力의 登장을 排除하고 獨裁的 君主의 登장을 막기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보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예로는 高麗의 官制가운데 都堂制, 事審官制, 科擧制度, 司憲部, 弘文館, 取民有度의 收取制등을 그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政事가 복잡해짐에 따라 일종의 行政府와 같은 官廳이 생기게 되었으며 南堂 혹은 都堂으로 불리워진 이 기구는 宰臣과 樞臣들이 함께 모여 國事를 의논하는 都堂會議를 가졌으며 王에게 政事를 건의하고 王의 獨斷的 決定을 牽制하는 구실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代議的 性格을 띤 合座機關의 運營 傳統이 계승되는 한편, 王朝에 있어서도 寬仁政治 思想이 지배하게 되고 이같은 寬仁政治의 실질적인 표현으로 黑倉制度, 救恤制度 등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I-4. 李朝時代

三國時代와 高麗時代를 거쳐 계승된 合座機關의 傳統은 李朝時代에도 계승되어 議政府와 備邊司와 같은 기구가 운영되었다. 그밖에 肩堂制, 祖事, 經筵, 輸村制度등도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制度였으며, 專制的 傾向을 방지하기 위한 牽制制度로 言官三司, 民意의 暢達을 위한 直訴制, 上訴制, 示威制度 등을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制度的 措置와 아울러 李朝의 政治觀念은 高麗의 佛教思想에 터한 寬仁政治에 못지 않게 儒敎의 政治理念에 터한 民主的 統治理念이 支配的이었다.

즉 爲民思想과 民本思想은 民主的 統治理念에 손색이 없었다.

더욱이 支配者의 합리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이른바 博詢採納에 의한 政策 決定過程은 民主的 決定過程을 위한 討論과 議決의 方式과 같은 것이었다. 또한 李朝時代의 民主的 傳統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國亂克服의 護國精神은 물론 鄉約등 士林을 중심으로 하는 鄉里自治의 傳統과 哀慶相助나 農事에서의 「품앗이」 등 協同作業의 傳統이 地方의 連帶意識을 강화하는데 크게 작용한 傳統으로 아직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事例로 남아 있다.

I-5. 開化期의 民權運動

統治階層에 대한 被支配層의 對抗意識은 高麗中期에 流民, 賤民 등이 地方勢力과 結탁 身分制의 秩序에 반기를 든 소위 叛亂民의 運動으로 전개되기까지는 했으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民權運動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民權運動의 始發點을 만든 契機가 된 것이며, 李朝 때 역시 兩班政治에 반항하는 農民들의 산발적인 民亂이 있었다가 東學革命에 이르러 民權意義이 近代의 感覺과 결부된 하나의 民權運動으로 일어난 歷史의 事件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東學은 西歐에서 볼 수 있었던 君主나 王족은 貴族들에 대한 反抗意識 보다는 社會改革을 앞세운 階級으로 보아 民權意識의 韓國의 特性을 나타내고 있다.

I-6. 獨立運動

李朝末期 日帝의 侵略에 항기한 政治運動은 自由와 獨立思想을 고취하는 社會啓蒙 運動 내지 民族啓蒙 運動으로 전개되었고 自由와 自主의 意識으로 계속된 抗日鬭爭 運動은 民族國家意識과 政治參與意識을 고취한 民族主體意識強化의 土견을 마련했던 것이다.

II. 韓國民主主義 成長의 沮害要素

우리의 政治文化的 傳統에는 西歐의인 民主主義 傳統과는 다른 것일지 모

르나 어떤 의미에는 西歐의인 것 이상으로 더 훌륭한 民主的 傳統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人間尊重 思想과 여러형태로 나타난 民主的 政治制度들은 民主主義를 受容하고 더욱 發展시킬 수 있는 傳統이 形成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民主的 受容態勢의 肯定的 側面도 있었지만 이를 살려 크게 開花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여러가지 沮害要素도 크게 작용했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沮害要素는 韓國만의 결점은 아니며 어느 나라에서도 가지고 있는 問題들일 수도 있으나 유독 韓國社會에 크게 작용하여 民主主義 發展을 沮害한 原因을 分析하고 批判하는 것이 필요하다.

II-1. 民主政治 文化 形成의 傳統的 沮害要素

- ① 原始的 生産社會에서 脫皮하지 못한 점
- ② 世俗의 權威에 대한 尊敬과 順從
- ③ 秩序와 社會規範 形成의 主體者로서의 意識 缺如
- ④ 封建的 身分制의 持續
- ⑤ 日帝侵略으로 인한 近代의 生産社會 建設의 機會 剝奪
- ⑥ 植民主義의 權威意識의 助長
- ⑦ 民主的 自治能力 培養의 機會 剝奪
- ⑧ 他律的 妥性 強化
- ⑨ 政治 否定的 性向
- ⑩ 法治意識의 弱화
- ⑪ 閉鎖性和 政治參與 意識의 缺如

II-2. 初期 民主主義 受容過程의 試行錯誤

西歐社會에서와 東洋社會에 있어서 소위 封建的 身分制가 강요되었던 時代에서는 民主主義가 크게 발전할 수 없었다.

西歐社會에서는 前近代의 生産社會에서 工業化와 産業化를 통한 近代의 生産社會로 옮겨 다시 大衆消費社會로 발전되면서 前近代의 封建社會의 秩序가 무너지고 人間回復 意識이 社會秩序 形成의 主體者로서의 意識과 더불어

강하게 작용하여 人權尊重 思想이 크게 나타나 前近代의 社會의 矛盾과 前近代的 統治體制에 항거하는 각종 運動을 통하여 民主主義가 開花期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히도 이러한 開花思想이 始作은 되었으나 國內外情勢가 이를 피우게 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他力에 의하여 日帝에서 해방되어 建國을 하게 되었으나 이것 역시 他律에 의하여 南北으로 양단되는 불행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與件아래 西歐的 民主政治制度의 移植과 그 運營에는 손조로울 수 없었다. 그 몇가지 결함을 지적해 본다.

-1) 形式的 制度에의 覆重:

建國理念의 바탕으로 民主主義 理念을 도입한 데는 어느 누구의 反對도 없었다. 그러나 理念具現을 위해 만들어지고 수정되고 運營의 妙로서 그 制度의 뜻을 살려가는 西歐式 議會民主主義를 그대로 移植하여 制度만 갖추어지면 民主政治는 훌륭히 運營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큰 矛盾이었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드시 民主主義의 理念을 구현하기 위한 制度의 수립과 그 운영에 있어 그 효율성을 높일려면 先行條件들이 具備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具備條件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西歐式 民主政治制度를 移植하여 形式的인 制度에 집착한 것이다.

- ① 政黨組織과 그 運營의 矛盾
- ② 國會中心의 國政 混亂
- ③ 選出된 代表들의 民主政治에의 經驗 否足
- ④ 行政府의 非能率化
- ⑤ 爲民的 責任政治 實行難

-2) 初期의 政治的 混亂:

代表選出의 후보의 亂立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政黨의 구실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政治資金의 확보와 난립한 政黨들의 黨利黨略 치중으로 政治的 混亂을 면치 못했다. 黨의 政治的 理念의 결여는 물론 政策의 빈곤에 의한 政策의 對決없는 人物中心의 對決은 自然分裂과 感情的 對立을 극심하게 하였으며 國民 역시 政治的 訓練과 經驗 부족으로 私利的 期待로 代表를 선출하는 경향이 높아 후보자는 이를 最大限으로 이용, 있을 수 없는 私的

公約의 濫發, 善心攻勢, 權謀術數, 票의 買收 등으로 資金の 蕩盡, 民心の 混亂, 社會의 分裂, 國政의 紊亂등을 招來했다.

-3) 個體的, 觀念的 自由의 氾濫과 不調和:

他律의 구속과 통제에서 벗어난 韓國民에게 해방후 自由처럼 감미스러운 幻想的 概念은 없었다. 社會 및 國家의 安全과 秩序 그리고 社會的 福祉와 正義를 前提하지 않는 責任없는 自由만을 내세웠던 것이다. 따라서 國家社會의 利益에 逆行하는 反社會的, 行爲들이 氾濫하여 社會의 혼란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4) 貧困과 浪費:

自立經濟의 土産을 구축할 여유도 없이 建國한 우리는 外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經濟發展의 土産을 마련하는 產業構造의 改革은 도의식한 體形式的 民主政治 制度의 운영에 급급하여 낭비만이 계속되었다. 國民은 또한 外來文物에 자극되어 奢侈와 浪費의 風潮만이 高潮되었다. 이렇게 資本主義的 經濟成長을 촉진한 西歐의 精神의 背景을 터득하지 못한 體外形의 消費性向만 전염되어 貧困의 惡循環이 계속되었다.

-5) 受惠意識의 高潮:

外國의 援助에 힘입은 우리는 남의 힘과 도움만에 의존하는 受惠意識이 強化되고 있었으며 事大主義意識 또한 高潮되게 되었다. 남의 것은 다 좋아 하고 우리 것은 천시하는 풍조가 高潮되고 있었다.

-6) 主體意識과 主權意識의 缺如:

國家의 理念과 體制, 制度 등 西歐의인 것의 移植에 분방하여 經濟的 貧困으로 인한 受惠意識의 高潮와 더불어 主體意識의 發芽가 沮害되어 있었다. 文化的 傳統으로 계속된 民族의 主體性마저 弱화되어 모든 것을 우리의 傳統과 實情에 맞게 창조하는 主體의 創造意識이 缺如되어 있어 發展的 追進力이 나타날 수 없었다. 또한 國家의 主人으로서의 主權意識이 缺如되어 있어 他律的 性向이 계속되었다.

-7) 價値觀의 混亂:

外來의 文物에 자극되어 西歐의인 價値觀을 形式的으로 받아들이는 풍조

가 高潮되고 우리의 傳統的 價値觀은 극단적으로 부정되었다. 그러나 行動, 感情, 思考등에 있어서는 傳統的인 樣式이 지배적이면서 이들 樣式의 바탕이 되는 價値觀만을 부정하려는 矛盾을 가져와 價値觀의 混亂과 葛藤相이 家庭을 비롯하여 學校 등 모든 社會, 人間關係에 노골화되고 있었다.

Ⅲ.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課題

Ⅲ-1. 새로운 政治理念과 體制的 摸索

過去的 西歐式 民主主義 移植을 위한 試行錯誤 過程에 나타난 모든 矛盾을 제거하고 급변하는 國際情勢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앞당기고, 經濟的 發展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統治理念과 體制的 定立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단행된 改革이 10月維新이다.

-1) 10月維新的 理念 :

民族의 生存과 繁榮 그리고 平和的 祖國統一을 期約하기 위한 民族主體性의 確立과 發展에 그 基本的인 理念을 두고 있다. 여기에 유의해야 할 것은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뜻은 아니며 그 民主理念을 具現하는 우리의 統治理念에 새로운 뜻을 加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經驗으로 보아도 民族의 主體性과 自主性 없이 우리의 現實위에 民主主義 理念이 효과적으로 具現될 수 없다. 또한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위한 先行條件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經濟的 自立力量, 外勢에 대한 自衛的力量, 自主 獨立의 主權意識 그리고 政治的 安定없이 民主主義 理念이 具現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한 國家意思의 總和에 의한 政策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行政力이 결여되고서는 發展 역시 촉진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政治理念의 定立과 體制的 改革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2) 體制的 改革 :

憲法의 改定과 制度의 改革은 위에 지적한 새로운 理念의 要請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要素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 ① 非能率의 制度의 改革
- ② 周邊情勢 變化에의 能動的 對應
- ③ 韓國의 文化傳統과 社會的 經濟的 實情에 맞는 制度의 樹立
- ④ 韓國民主主義 發展 土基 構築
- ⑤ 祖國의 平和的 統一課業 早期完成

Ⅲ-2. 維新體制의 目標

世界史的인 大轉換點에서 國際情勢에 能動的으로 對應하고, 南北對話를 통한 祖國의 平和統一을 達成키 위하여 國內體制를 改革하고, 國力의 效率的인 組織化를 도모하여 安定을 이룩하고, 能率을 극대화하여 繁榮과 統一의 영광을 차지하려는 維新體制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된 基本目標은 다음과 같다.

- ① 自主的인 民族活路를 개척하여 安定과 繁榮을 기약할 수 있는 國力 培養을 加速化하고 國力의 組織化를 이룩한다.
- ② 民族主體勢力을 형성하여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성취한다.
- ③ 韓國民主主義를 定立 發展시킨다.
- ④ 國土와 資源의 綜合的 開發과 自助的 地域社會 開發로 祖國近代化와 福祉社會를 건설한다.
- ⑤ 우리 社會의 모든 不條理, 非能率, 非生産性, 無秩序를 剔抉하여 社會革新을 이룩한다.

Ⅲ-3. 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課題

-1) 民族主體性的 確立:

民主主義 理念을 구현하는 主體는 過去에도 民主的 傳統을 가진 우리의 韓民族이다. 우리 民族 이외의 다른 民族이 우리를 위해 모든 여건을 구비해 줄 民族이나 國家는 없다. 우리 韓民族을 위한 民主主義 理念具現이기에 우리 땅에 民主主義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民族主體性이 確立되어야 한다. 따라서 韓國民主主義는,

① 우리가 主體가 되어 스스로 발전시키려는 民主主義이기에, 그것은 韓民族의 主體的 創造의 한 課題이며,

② 그것은 이 땅에서 바로 우리가 實踐하려는 民主主義이기에, 그것은 韓民族의 歷史的 自立을 위한 過程이며,

③ 또한 民主主義는 우리의 韓民族의 幸福과 繁榮을 위한 것이기에, 그것은 民族의 主體의 한 實踐理想이다.

이러한 韓國民主主義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課題는 民族主體性的의 確立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民族主體性的의 確立을 위해서는, ① 民族傳統에 대한 自負心 ② 民族國家觀의 確立 ③ 韓民族의 正統性에 대한 確信 ④ 民族力量에 대한 自信 ⑤ 民族力量 培養에의 使命感 등을 갖도록 하는 問題들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2) 國家一體感과 國民總和의 形成 :

民族的 國家觀의 確立은 먼저 民族으로서의 一體感이 형성되고, 個人이 태어나고, 成長하고, 發展하는 터전인 國家와의 一體感이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國家一體感은 國民의 意思의 總和를 낳게 한다. 國民總和 없이 分裂과 對立, 摩擦과 葛藤만이 단행되던 安定과 繁榮을 위한 基礎는 물론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위한 社會的 基礎가 조성될 수 없다.

-3) 經濟發展과 國民福祉 增進 :

現實적으로 빈곤과 굶주림으로부터 탈피하지 않고 個人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고 個人의 尊尊性이 보장될 수 없다. 理念具現을 위한 現實的 條件은 經濟生活의 향상이며 이를 통해 社會正義가 實現되고 福祉社會가 建設될 것이다.

-4) 自律的, 創意的 活動과 能動的, 協同的 參與 :

依存的이고 被動的인 活動만으로는 主體性和 創意性이 육성될 수 없으며 進歩와 發展 또한 약속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民主主義 理念具現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위한 經濟建設을 위해서는 모든 國

家의 事業에 自律的이고 創意的이며 그리고 能動的이고 協同的인 參與姿勢가 크게 요청된다.

-5) 國力培養의 加速化와 國力の 組織化 :

以上에 제시한 課題를 성취하기 위한 方法的인 課題로서, ① 不條理, 非能率, 非生產的 要素의 除去 ② 制度的 缺陷의 是正, ③ 國力培養을 促進하기 위한 制度的 장치와 組織化의 필요 등이 요청되는 것이다.

第4章 民主的 生活樣式과 態度

政治나 經濟가 國民의 生活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民主主義를 논하고 그 本質을 규명할 때 흔히 政治體制나 經濟體制에 결부시켜 그 의미를 규정하게 된다. 政治生活 및 經濟生活은 社會生活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이 民主主義를 政治形態나 經濟體制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民主主義의 한 부분만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

民主主義는 統治原理 以上の 것으로 모든 社會生活의 原理인 것이다. 民主的 政治體制 역시 國民 個人이 民主的 生活原理에 따라 行動할 것이라는 前提를 하고 있다. 만일 國民 各者가 民主的 生活原理에 따라 行動하지 않는다면 政治體制나 制度가 民主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허울만의 것이지 眞正한 의미의 民主社會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실을 할 수 없게 된다. 모든 制度는 사람이 實際에 있어서 어떠한 行動을 해야 할 것이라는 規定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制度는 사람이 그 규정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게 될때 그 體制는 산 體制가 되며 그렇지 못한 制度는 허울만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本章은 建設的이고 創意的인 國家生活, 集團生活 그리고 個人生活을 위한 民主的 生活樣式的 意義 외에 그 實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目標達成을 위한 內容要素의 選定과 組織에 유의한다.

첫째, 生活樣式으로서의 民主主義의 意味를 이해한다.

둘째, 韓國民主主義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態도와 生活能力을 갖게 한다.

셋째, 問題를 建設的이고 創意的으로 解決하는 態도와 能力을 갖게 한다.

以上の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內容의 組織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 ① 生活原理로서의 民主主義의 意味
- ②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위한 社會的 特性
- ③ 民主的 人性和 態度
- ④ 問題의 建設的 解決

I. 生活樣式으로서의 民主主義

I-1. 社會生活의 原理와 信條

-1) 人間觀:

- ① 사람의 價値를 가장 귀중한 價値로 존중하는 人間觀
- ② 人間을 有目的的 存在로 생각하는 人間觀
- ③ 人間의 性善的 本質을 믿는 信念
- ④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的 能力을 가진 사람으로 믿는 人間觀
- ⑤ 自治的 能力의 所有者로서의 人間觀

-2) 人間關係의 原理:

- ① 他人을 존경하는 態度
- ② 個性을 존경하는 態度
- ③ 妥協과 協同의 態度
- ④ 社會的 責任을 지는 態度

I-2. 民主社會의 特性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할 수 있는 民主社會란 무엇보다 人間의 尊嚴性을 인정하고 自由와 平等을 기본으로 하는 社會인 것이다. 여기에 民主社會의 特性을 좀더 具體的으로 규명해 둔다.

- ① 사람의 能力을 믿는 社會
- ② 個性을 존중하는 社會
- ③ 多元社會
- ④ 自律的 活動이 존중되는 社會
- ⑤ 知性優位의 社會
- ⑥ 科學的 實驗을 통한 創意的 問題解決을 존중하는 社會
- ⑦ 協議와 協同의 社會

- ⑧ 多數와 少數가 다 같이 존중되는 社會
- ⑨ 公共의 福祉를 위하는 社會
- ⑩ 公開社會
- ⑪ 法이 다스리는 社會
- ⑫ 進步的 社會

여기에 지적한 民主社會의 特性은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信念을 바탕으로 個人的 最善我實現을 위한 能力, 個人的 自治的 能力, 個人的 幸福追求를 위한 能力을 民主主義는 믿는다. 이러한 信念위에 民主社會는 세워지는 것이다.

II. 民主的 人間型

民主主義는 外部에서 주어지는 物件이나 制度와 같은 形式的인 허울만의 體制가 아니며 사람이 생각하고 行動하는 生活原理임을 밝혔다. 그러나 前節에서는 社會的 水準에서의 民主的 生活原理를 밝힌 것이며 여기에서는 個人的 水準에서의 民主的 生活原理를 밝히려는 것이다. 理念이 民主的이고 制度가 民主的이라고 해서 社會生活이 民主的일 수 없으며, 制度의 운영이나 對人關係가 이루어지는 過程에 참여하는 個人이 갖는 人性和 態度 여하가 그 民主性 여하를 결정하는 基本요소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民主主義는 個人的 尊嚴性和 能力을 믿는 精神的 터전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民主主義의 발전 여하는 個人的 人性 및 態度의 特性에 의존되는 바 크다. 여기에 民主社會에서 존중되고 장려되는 人間的 特性을 지적해 둔다.

I-1. 民主的 心理 特性

- ① 獨立心
- ② 自律的 態度
- ③ 他人에 대한 尊敬心
- ④ 異見에 대한 尊重
- ⑤ 妥協과 協同心
- ⑥ 創造的 態度
- ⑦ 科學的 實驗 態度
- ⑧ 開放的

性格 ⑨ 集團知에 대한 信念 ⑩ 積極的 社會參與의 態度 ⑪ 社會的 責任感

民主의 人性 特性 중 가장 중요한 特性은 獨立性和 自律性이다. 個人이 自身의 存在價値와 能力을 믿지 못하고 他人에 의존하여 그의 命令과 指示에 따라 行動한다면 個人의 尊嚴性和 能力에 대한 概念의 토대위에 세워지는 民主主義는 그 의의를 잃게될 것이다.

獨立心과 自律的 態度는 다른 유사한 概念으로 풀어 설명될 수도 있다. 自己自身의 存在價値를 인정하는 自尊心, 自信感, 個性 伸張에 대한 自信, 自決的 能力, 自治力 能力에 대한 肯定的 態度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 概念이다. 이와같이 위에 제시된 心理 特性들을 풀어 보충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現實的 問題의 建設的 解決

民主主義는 完全無缺하게 만들어진 既成品이 아니며 가꾸어 나가는 發展의 未來 完成的인 理念임을 여러차례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問題와 葛藤이 전혀 없기를 기대할 수 없고 民主主義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 많은 問題와 葛藤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個性을 존중하기 때문에 個人의 尊嚴性을 믿기 때문에 一律의인 統制가 허용되지 않으며, 多樣性을 허용하기 때문에 紊亂해 질 가능성도 있다. 民主主義는 이러한 多樣性 속에 調和를 찾으려하기 때문에 問題가 복잡하고 問題의 해결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그러나 民主社會에서는 問題와 葛藤을 隱蔽하지 않고 도리어 問題와 葛藤의 所在를 찾아 밝히고 이를 建設的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더욱 가치있는 일로 여긴다.

民主社會이기 때문에 야기되는 共通된 問題와 葛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나라마다 文化的 背景이 다르고 社會的, 經濟的, 地理的 與件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특수한 問題들이 있을 것이며, 또한 問題解決 過程에 사용되는 방법 역시 다를 것이다. 따라서 民主國家마다 共通的으로 갖는 問題를 찾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民主主義 理念을 구현하기 위하여 갖는 共通的인 問題를 예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方法過程의 重要性을 설명하는 것이

중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 韓國의 狀況이기 때문에 생기는 問題를 찾아 그 問題가 야기되는 原因을 규명하고 그 解決方案을 제시하여 討論케 하는 방법도 권장될 만한 것이다. 먼저 공통된 問題 몇가지를 제시하고 그 건설적 解決方案을 제시하기로 한다. 무엇보다 먼저 강조해야 할 점은 問題에 임하는 態度나 그 解決 方案에 있어 民主國家와 共產獨裁國家와의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다.

Ⅲ-1. 民主主義가 敢行하는 冒險

民主主義도 個人的 尊嚴성을 믿는 信念위에서 있기 때문에, 個性을 존중하고 多様な 個人的 意思와 主體를 허용하고 장려한다. 그리고 問題들의 해결도 발전을 위해 個人的 知性的 努力으로서 건설적으로 해결될 것을 믿는다. 이러한 믿음에는 冒險성이 수반된다. 多様な 個人들의 意思와 主張은 社會的 混亂과 摩擦을 야기시킬 수 있어 社會적으로 수습하기 힘든 큰 問題로 化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일체의 問題와 葛藤을 抑壓하는 獨裁國家보다 問題들을 밝혀 個人들의 知性的이고 創意的인 努力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는 民主國家의 冒險이 歷史的 事實이 立證하고 있듯이 失敗하지 않았고 발전과 진보를 위해 도리어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民主國家들은 問題들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낙관을 갖지 않으며 個人的으로 集團의으로 혹은 國家的으로 계속 努力하는 價値를 높이 생각한다.

Ⅲ-2. 民主社會가 갖는 共通된 問題

1) 人間과 個人的 意思를 존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問題 :

① 個人的 利益과 利己의 主張과 行動 ② 社會的 混亂과 摩擦 ③ 社會秩序의 紊亂 등

2) 自由와 平等, 自由와 統制와의 調和 問題 :

① 機會의 均等 問題 ② 貧富의 差 問題 ③ 勞使間의 葛藤 問題 ④ 競爭과 協同의 問題 등

-3) 政治制度 運營上的 問題 :

- ① 國家意思의 形成 問題
- ② 選舉制度의 運營 問題
- ③ 政黨의 運營 問題
- ④ 政治資金의 問題

-4) 個人과 組織, 個人과 社會, 國家間의 問題 :

- ① 協同의 問題
- ② 個人利益과 組織利益간의 葛藤 問題
- ③ 愛國心의 問題
- ④ 利他心의 問題
- ⑤ 公共福祉의 問題
- ⑥ 總和外 團決의 問題

Ⅲ-3. 民主的 問題解決 過程 :

- ① 討論과 妥協
- ② 多數決의 原理
- ③ 科學的 實驗의 方法
- ④ 創意的 解決
- ⑤ 合理的 解決

第 3 部

共產主義의 理論과 實際

目 標

1. 共產主義理論과 實際의 矛盾性 批判 能力 培養
2. 共產主義의 宣傳과 煽動에 對處하는 態度와 能力 涵養
3. 北韓의 現實理解와 北韓挑戰 克服能力 培養
4. 民主理念과 韓國民主體制의 優越性에 대한 確信

| |
|---------|
| 內 容 概 要 |
|---------|

| 題 目 | 內 容 | 強 調 點 |
|--|---|--|
| I. 共產主義理論과 二 批判 1. 理論發生의 背景 2. 哲 學 3. 政治論 4. 經濟論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獨逸의 古典哲學, 英國의 政治·經濟學, 「프랑스」의 空想的 社會主義의 集大成 • 辨證法的 唯物論, 史的 唯物論의 概要 및 批判 • 階級鬥爭論, 革命論, 「프롤레타리아」獨裁論, 國家死滅論, 前衛黨論, 「프롤」의 國際主義와 平和共存論의 概要 및 批判 • 資本論, 勞動價值說, 剩餘價值說, 資本主義崩壞論, 帝國主義論의 概要 및 批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르크스」의 獨創物이 아니라는 點 • 共產主義 理論은 分析對象인 資本主義의 發達로 變質이 不可避하다는 點 • 現代 共產主義는 힘의 哲學을 信奉하면서 世界赤化를 勸導한다는 點 • 民主主義의 優越性 |
| II. 北韓의 現實 1. 北韓共產主義의 特殊性 2. 「主體思想」批判 3. 政治實態 4. 經濟實態 5. 軍事實態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僞裝 民族主義, 好戰性, 教條主義, 閉鎖性 • 「主體思想」의 概念, 性格, 戰略의 利用 • 金日成의 政權掌握 過程, 權力構造 및 行使, 對南戰略에 대한 概要 및 批判 • 經濟體制, 基本路線, 現況分析과 脆弱點 導出 • 北韓의 軍事思想, 軍事戰略 및 戰爭準備 狀況 分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實態分析을 통한 脆弱點 • 對話 以後에도 韓半島 赤化野慾을 포기치 않는다는 點 • 國力培養이 戰爭抑制 및 統一의 契機이라는 點 |
| III. 戰略·戰術 1. 概 念 2. 類 型 3. 北韓의 戰略·戰術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戰略: 對象 및 主力軍의 決定, 戰術: 條件 • 戰略: 「프롤레타리아」의 革命戰略 人民民主主義 戰略 • 戰術: 統一戰線, 上下層 統一戰線, 기타 • 赤化統一 戰略, 人民民主主義 戰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戰略戰術은 對象地域의 脆弱點을 노린다는 點 • 戰略戰術은 政治路線과 一致한다는 點 |

序 說

從來까지 시도되어은 우리의 反共教育의 가장 큰 弱点中의 하나는 共產主義와 北韓의 正體를 理論的으로 正確히 把握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다는 點에 있다. 共產主義 내지 北韓에 대한 反感 내지 嫌惡心을 갖도록 함에 力點을 둔 從前의 反共教育의 次元에서 進一步하여 認知的 要素를 더욱 강조하는 次元의 教育이 크게 要請되고 있다. 이러한 要請은 國際情勢의 변화와 南北對話를 통한 接觸 以來 더욱 切實해진 것이다. 그 밖에 教育的 效果로 보아서도 認知的 要素를 土台로 한 否定的 感情樣式은 더욱 강화되고 지속된다고 보아 金후의 政治思想教育은 중전의 反共教育에서 試圖한 共產主義 내지 北韓에 대한 否定的 感情을 갖게하는 次元을 포함하였는데, 이에 추가하여 共產主義와 北韓의 正體를 正確히 理解하고 批判할 수 있는 能力을 育成하는 教育을 強化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部는 共產主義의 理論의 모순성을 正確히 理解하고 批判할 수 있게 하여 北韓의 實情과 挑戰樣相을 理解하고 그 挑戰을 克服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認知的, 情意的 特性을 育成하는 點에 強調를 두게 된다.

오늘날 共產主義라 하면, 주로 「레닌」에 의하여 修正된 「마르크스」主義를 意味한다. 특히 共產主義는 人間의 問題에 關하여 解決策을 가지고 있다고 主張하는 點에서 역사상 다른 敎理와 유사하다. 敎理는 追從者를 이끌어 그 目的을 위하여 心血을 바치게 하는 매력에 있다. 共產主義者들도 그의 追從者에게 「유토피아」의 約束을 한다. 뿐만 아니라 産業時代를 包含하는 歷史的-發展段階에서 發生하는 모든 問題를 科學的으로 說明할 수 있다고 自負한다. 이처럼 共產主義는 民族이나 기타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모든 人間에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可恐할 全體主義 敎理로서 登場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事實을 감안하여 第3部인 「共產主義 理論과 實際」는 共產主義 理論의 矛盾性과 實際의 힘오성을 바탕으로 共產主義의 正體를 올바르게 理解하고 그 正體를 隱蔽하기 위한 戰略戰術을 分析하여 이에 賢明히 對處함과 同時에 反射的으로 民主主義의 優越性을 確信케 하는 態度를 培養함에 그 基本目標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本部는 크게 共產主義 理論과 그 批判, 北韓의 實情 그리고 共產主義의 戰略戰術 등 3個章으로 나누어 그 內容을 組織 整理하였는 바 그 內容과 強調點을

보면 다음과 같다.

第1章 “共產主義 理論과 그 批判”에 있어서는 共產主義 理論의 矛盾性과 그에 따른 變質 不可避性을 理解시키기 위하여 共產主義의 發生背景과 共產主義의 哲學, 政治, 經濟理論을 提示하고 그 矛盾性을 하나 하나 指摘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共產主義 理論이 「마르크스」의 獨創的인 理論이 아니라 當時의 政治 經濟學說을 集大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點과 初期 資本主義를 그 分析對象으로 하였기 때문에 資本主義의 發展과 더불어 그 理論의 矛盾性이 露骨化되었고 그를 合理化시키기 위해서는 理論의 變質이 不可避하다는 點 그리고 變質된 現代 共產主義는 「힘의 哲學」을 信奉하면서 世界赤化를 劃策하고 있다는 것등을 論證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第2章 “北韓의 現實”에 있어서는 共產主義 理論과 關聯하여 北韓實情을 綜合的으로 批判할 수 있고 大韓民國의 優越性을 認識하도록 함과 同時에 「10月維新」을 비롯한 各種 政府의 統一努力에 積極參與하고자 하는 意欲을 鼓吹시키는데 그 目標을 두었다. 따라서 그 內容을 크게 北韓 共產主義의 特殊性을 分析하고 이와 關聯하여 金日成의 主體思想, 政治, 經濟, 軍事實態를 分析 批判하였다.

第3章에서는 共產主義 戰略戰術의 臨機應變性과 이에 對處하는 能力을 培養하는데 그 目標을 두고 共產主義 戰略戰術의 概念과 類型을 分析한 다음 北韓共產黨의 戰略戰術과 性格을 究明하였다. 특히 戰略戰術 分野에서 強調되어야 할 點은 共產主義가 相對方의 脆弱點을 노린다는 點이다.

第1章 共產主義 理論과 그 批判

第1章에서는 共產主義 理論의 矛盾性을 理解시키고 이를 批判할 수 있는 能力을 培養키 위해 다음과 같은 細部目標을 設定하였다.

첫째, 「마르크스」主義는 「마르크스」의 獨創的인 理論이 아니라 당시의 古典의 學說을 그 나름대로 集大成한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理解시키고,

둘째, 共產主義 理論은 資本主義 初期의 現象을 分析對象으로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미 하나의 진부한 空論에 지나지 않다는 점과 繼續 變質되는 가운데서 하나의 全體主義的인 「이데올로기」로 轉落되었다는 事實을 理解시킨다.

셋째, 그러면서도 共產主義는 그 理論上의 矛盾性과 虛構性을 은폐하기 위하여 「힘의 哲學」을 배경으로 世界赤化를 劃策하고 있다는 事實을 共產主義 理論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는 能力을 기른다.

끝으로, 共產主義의 理論批判을 통해 民主主義의 優越性을 確信시키고 韓國民主主義의 發展에 積極 參與하는 態度를 기른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本章의 內容은 다음과 같이 組織되었다.

첫째, 共產主義의 發生背景은 당시 「유럽」의 思想潮流를 一括하여 「마르크스」가 어떤 思想의 影響을 받아 그 理論體系를 定立하였는가를 分析하고

둘째, 共產主義의 基本哲學으로서 辨證法的 唯物論과 史的 唯物論의 概要를 提示한後 그에 대한 批判要素들을 簡略히 記述하였다.

셋째, 共產主義 政治理論은 그 前提가 되고 있는 階級鬭爭論의 矛盾性을 分析하고 이에 根據한 暴力革命論, 「프롤레타리아」獨裁論, 前衛黨論, 國家死滅論, 「프롤레타리아」國際論 및 平和共存論 등을 相互關聯下에 그 基本概念과 矛盾點을 하나하나 指摘하였다.

네째, 共產主義의 經濟理論은 「마르크스」의 〈資本論〉의 紹介와 經濟理論의 骨幹인 勞動價値說 및 剩餘價値說이 이미 學說로서나 理論적으로 成立되기 어렵다는 事實을 論證하고 이에 기초하여 主張한 資本主義 沒落論과 帝國主義論의 虛構性을 論理的으로 立證하였다.

특히 本章에서 強調하여야 할 事項은 共產主義 理論이 相互關聯性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나누어 놓은 哲學, 政治, 經濟理論을 相互關聯性을 지우면서 綜合的으로 다루어야 한다. 例컨대 政治理論과 階級鬭爭論만 하더라도 이는 哲學의 唯物史觀과 政治理論의 國家死滅論과 密接한 關聯이 있으므로 그 어느 하나를 獨立的으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共產主義는 그 理論 自體가 矛盾투성인 데다가 分析對象으로 하였던 資本主義가 變化 發展됨에 따라 그 變質이 不可避하고 그 變質된 內容을 中心으로 國民을 領導시킨다는 事實을 強調하여야 하며, 變質된 現代 共產主義는 「힘의 哲學」을 信奉하면서 多樣한 戰略戰術을 통해 世界赤化를 劃策하고 있다는 것을 強調하여야 한다.

특히 共產主義의 正體는 다음 第3章에서 詳述될 것이다.

I. 共產主義 理論 發生의 背景

I-1. 社會的 背景

-1) 18世紀 중엽 英國을 비롯한 「유럽」 제국의 資本主義는 民主主義가 制度로서 만족하게 具現되지 못한 여건에서 工場勞動者들에 대한 勞動條件은 尙당 社會問題로 登場되지 않을 수 없었다. 「마르크스」主義는 이와같은 社會問題 解決의 여망을 반영한 것처럼 論理를 展開함으로써 社會의 새로운 思想으로 脚光을 받았다.

-2) 「마르크스」主義의 特異한 點은 制度의 改善에 의해서 社會問題를 解決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既存制度 즉 資本主義의 止揚에 의해서 問題를 本質的으로 解決해야 한다고 하는 革命的 立場이었다.

-3) 「마르크스」의 이러한 革命的 立場은 人類社會의 歷史를 敵對的 階級間의 鬭爭의 歷史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資本家 階級과 政治權力을 一體化시킨데 기인된다.

-4) 「마르크스」主義의 根本的 誤謬는 資本主義의 沒落과 共產主義 社會의 必然的 到來를 唯物辨證法과 唯物史觀에 기초를 둔 社會發展 法則으로 본데 있다.

-5) 「마르크스」는 資本主義 內部的 敵對的 矛盾은 革命의 方法으로 밖에 解決할 길이 없다고 보았고, 그의 모든 理論體系는 이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民主主義 思想의 發達과 그의 制度化로 資本主義 矛盾은 革命이 아닌 政策으로 克服할 수 있다는 事實이 證明되었다.

-6) 「마르크스」主義의 본래 對象인 初期 資本主義는 「마르크스」의 예측과는 다른 方向 즉 國民 福祉의 方向으로 發展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資本主義 社會를 「마르크스」 理論으로 說明할 수 없게 되었다.

-7) 「마르크스」主義는 당시의 制度의 特殊性을 分析하였다는 점에서 그 價値가 認定될지언정 시대를 초월한 普遍的 眞理일 수는 없다.

1-2. 學說의 背景

-1) 「마르크스」의 共產主義 理論은 社會를 客觀적으로 研究分析해서 도출한 科學的인 것이 아니고 「프롤레타리아」革命에 의한 共產主義 實現이라는 目的을 미리 의식하고 짜낸 것이기 때문에 眞理가 될 수 없었다.

-2) 「마르크스」는 「헤겔」의 辨證法과 18世紀 「프랑스」 唯物論 및 「포이엘바하」의 形而上學的 唯物論 그리고 英國의 古典 經濟學說을 「프롤레타리아」革命에 의해서 必然的으로 到來한다는 共產主義의 政治的 圖式에 맞추어 援用하였다.

-3) 「칼·마르크스」는 처음에 「헤겔」研究의 忠實한 學徒였으나 革命家로 出發하면서 「헤겔」辨證法의 바탕인 觀念論을 버리고 대신 「포이엘바하」의 唯物論을 가져다 唯物辨證法을 만들었다. 그리고 英國의 古典 經濟學說에서 勞動價値說을 배워 이를 剩餘價値說의 土臺로 삼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初期 資本主義를 分析하였다.

-4) 「칼·마르크스」는 「산·시몽」, 「로버트·오웬」 등의 소위 空想的 社會主義의 影響을 받았다. 「마르크스」는 社會主義 내지 共產主義가 社會發展法則에 의거하여 必然的으로 實現된다는 原理를 밝혔다가하여 空想的 社會主義를 非科學的이라 하고 그의 學說을 科學的 社會主義라고 불렀다.

-5) 「마르크스」主義의 學說的 背景은 以上과 같이 多元的이고, 일정한 目的을 위해 그 原理를 顛倒시켰거나 異質化시켰다.

-6) 올바른 의미에서의 「마르크스」主義는 1910年頃 「第2 인터내셔널」의 事實上의 終末과 더불어 하나의 社會思想으로서의 位置를 喪失하였다. 오늘날 共產主義라 함은 주로 「러시아」의 「볼셰비즘」을 가리킨다. 共產主義者들은 「볼셰비즘」이 「마르크스」主義를 가장 올바르게 繼承 發展시켰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프롤레타리아」革命의 戰略戰術에만 重點을 두었고 學說的 價値는 거의 보잘것 없는 것이었다.

-7) 오늘날 共產主義者들에 의해서 「마르크스」主義가 修正되었거나 歪曲되고 있는 것은 時代錯誤로 말미암아 現實에 옳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II. 共產主義 哲學

II-1. 唯物辨證法

-1) 概 要:

① 唯物辨證法은 「헤겔」의 觀念論的 辨證法과 「포이엘바하」의 唯物論을 結合하여 獨特한 理論體系를 이루어 놓은 것이다.

② 唯物辨證法은 世界의 本質은 物質이며 物質이 內在된 矛盾에 의하여 正(肯定—Thesis), 反(否定—Anti-thesis), 合(否定的 否定—Syn-thesis)의 3 段階 方式으로 不斷히 운동하여 變化 發展하며 이것이 世界發展의 原動力이라고 한다.

③ 「헤겔」 辨證法의 核心은 理念(精神, 觀念)인데 「마르크스」는 辨證法의 理論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核心을 理念이 아니라 物質이라고 하였다. 즉 「헤겔」과 「마르크스」는 自然界, 人間界를 包含한 全世界를 不斷한 流動過程이라고 보는데 있어서는 同一하다. 「헤겔」은 世界의 根源은 精神(意識, 理念)이며 모든 物的 現象은 精神의 外的 表現이라고 본데 反해서 「마르크스」는 世界의 本質은 物質이며 모든 精神 現象은 物質의 作用이라고 보았다는 데 큰 差異가 있다.

④ 「마르크스」의 唯物辨證法은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서 그의 獨自的 見解가 加味되어 비로소 體系化되었다.

-2) 批 判:

① 唯物辨證法은 一切의 物質이 矛盾을 품고 있다는 命題로부터 出發되고 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물론 「엥겔스」나 기타 그후의 모든 「마르크스」主義者들이 物質은 矛盾을 품고 있다는 事實을 實例로 들어 證明하려고 努力했었다. 그러나 現實世界에서 矛盾을 지니고 있는 物質이있는가 하면 矛盾을 갖지 않는 物質도 許多하다는 事實은 곧 辨證法의 前提가 옳지 않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다.

② 또 가령 어떤 物質이 矛盾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그 矛盾이 도대체 어

더로부터 생겨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마르크스」와 그의 追從者들은 說明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그들이 말하는 矛盾은 오늘날에는 實證되지 않은 하나의 假定的 擬制에 不遇하다.

③ 唯物辨證法은 發展의 矛盾을 契機로 無限히 繼續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共產社會가 社會發展의 最後段階라 하므로써 自家撞着의 矛盾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④ 唯物辨證法의 原理가운데 量으로부터 質에의 轉化法則은 (正一反一合의 原理) 被支配階級에 의한 變革의 努力을 正當化하는 法則으로 「마르크스」主義者가 특히 重要視하고 있다. 「엥겔스」는 이것이 眞理임을 證明하기 위해서 炭素化合物과 물을 引用하고 있다. 실사 量으로부터 質에의 轉化法則이 適用되는 物質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物質이 許多한만큼 그것을 보편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⑤ 唯物辨證法은 요컨대 科學이라기 보다는 미리 政治的 效果를 노린 하나의 意識的인 圖式에 不遇하며 政權樹立 段階에만 適用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矛盾의 法則이 政權을 掌握한 後에도 適用된다면 共產政權도 조만간 否定當해야 하기 때문이다.

II-2. 唯物史觀

-1) 概 要 :

① 唯物史觀은 唯物辨證法을 人間社會의 歷史에 適用한 것으로서 唯物辨證法에 기초를 둔 歷史觀이다. 따라서 앞서 提示한 바와 같이 唯物辨證法이 올바른 世界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適用한 唯物史觀이 虛構에 不遇한 것임은 두 말할 必要도 없다.

② 唯物史觀은 「마르크스」以來 系統的으로 說明된 일이 없으나 「레닌」과 「스탈린」에 이르러 政治的 目的에 따라 처음으로 唯物史觀이 體系化되었다.

③ 唯物史觀은 物的 一元論으로써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과 그 解決過程을 통해 歷史發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生産力의

不斷한 發展으로 生産關係(統濟的 構造)가 生産力의 發展에 障害가 될 때, 낡은 生産關係는 革命的 方法에 의해서 生産力과 調和된 새로운 生産關係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④ 한편 生産關係의 總和는 當該 社會의 經濟的 構造를 形成하며, 이 經濟的 構造가 人間社會의 기초로서 소위 下部構造에 該當하며 이 下部構造위에 政治, 法律, 學門, 藝術, 道德, 宗教, 哲學 등의 上部構造가 形成된다는 것이다.

-2) 批 判:

① 唯物史觀은 歷史發展에 있어서 人間의 精神的 要素를 전혀 度外視한다.

② 唯物史觀의 理論은 生産力의 概念에서 自家撞着에 빠지고 있다. 즉 生産力은 自然力, 生産手段 등 物質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勞動組織, 科學技術, 教育水準 등 精神的 要素까지 包含되는 것임으로 物의一元論의 唯物史觀은 合理的일 수 없다.

③ 唯物史觀은 人類社會 生活의 發展과 變化의 原因을 生産力의 變化에서 찾고 있으면서도 生産力의 不斷한 發展과 變化가 必然的으로 共產主義의 方向으로 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說明을 하지 못한다.

④ 唯物史觀은 資本主義는 內在的 矛盾 때문에 沒落하고 社會主義 社會가 必然的으로 到來한다는 社會發展의 法則을 盲信하면서도 「프롤레타리아」革命이 必要하다고 主張하는 것은 理論上의 矛盾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唯物史觀이 眞理라면 共產主義者들은 「프롤레타리아」의 主體的인 革命 努力을 絶對 不可缺한 것이라고 主張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⑤ 唯物史觀으로는 歷史的으로 偉大한 人物과 指導者의 役割을 說明할 수 없다.

⑥ 唯物史觀의 誤謬性은 先進 資本主義 國家일수록 「프롤레타리아」革命의 可能性이 더욱 희박하다는 事實이 잘 代辯해 준다.

-3)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物質은 社會發展에 있어서 하나의 要素는 될 수 있지만 오직 그것만이 歷史發展의 原動力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人間の 精神的 要素가 歷史發展의 重要한 要因인 것이다. 그것은 歷史發展의 여

러가지 可能性 가운데 精神을 기초로 한 人間의 創造의 行爲가 가장 큰 影響力을 行使하기 때문이다.

Ⅲ. 共產主義 政治理論

Ⅲ-1. 階級鬭爭論

-1) 概 要 :

「마르크스」는 唯物史觀에 立脚하여 生産手段의 私의 所有關係가 人間에 의한 人間의 搾取關係를 만들어 내어 結局 人類社會에 階級社會를 形成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들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은 鬭爭을 하게 되고 이 鬭爭은 漸次 政治鬭爭으로 發展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共產主義 理論은 人類歷史를 階級鬭爭의 歷史로 看做하는 한편,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間의 矛盾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타협이나 進步의 方法에 의해서가 아닌 革命에 의해서만 解決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革命은 社會發展 法則의 必然的인 結果라고 主張한다.

-2) 批 判 :

階級鬭爭論은 다음과 같은 矛盾點을 內包하고 있다.

① 共產主義者들은 모든 社會의 歷史를 階級鬭爭의 歷史라고 斷定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現實을 보면 搾取者와 被搾取者의 두 階級間의 搾取關係로만 볼 수 없고 오히려 多樣하고 複雜한 關係이다. 즉 어떤 問題를 두고 對立關係에 있는 集團이 다른 問題에 있어서는 協調의 側面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共產主義者들은 否定的 側面만을 強調하므로서 그들의 主張인 階級鬭爭論을 合理化시키고 있다.

② 共產主義者들은 「프롤레타리아」階級을 歷史上 選定된 革命階級으로 보고 그의 利益이 바로 社會全體의 利益을 代表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의 主張은 讓步나 妥協이 있을 수 없으며 오직 무자비한 鬭爭만을 앞세우므로서 一種의 暴力煽動論인 것이다. 特定階級の 利益만을 내세우는 것은 自體가 너무나 편협하고 感情的인 主唱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現代國家에

서는 民族의 利益, 國家의 利益, 國民連帶意識 등으로 보다 높은 次元의 人類全體의 利益도 엄연히 있는데도 不拘하고 유독 「프롤레타리아」階級の 利益만을 내세우는 이면에는 現代社會의 秩序를 진부하여 그들의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려는 意圖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③ 「階級鬭爭論」이 저지른 誤謬는 現代의 中間階層의 存在를 전혀 無視한다는 點이다.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現代의 中間階級이 沒落되어 下部階層으로 轉落한다고 主張하였으나 오히려 現實은 그 反對의 現象이 일어나고 있다.

先進 工業國家의 社會構造는 「피라미트」型이 아니라 「다이아몬드」型으로 變化되어 가고 있으며 少數의 富裕階級과 少數의 貧困階級間에는 大量의 中間階層이 形成되어가고 있는 實情인 것이다.

더욱이 中間階層中에서 企業의 經營에 參與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가지 利害關係에서 보면 오히려 資本家 階級과 결부되는 수가 많은 것이 오늘날 現實이며 또한 先進 資本主義 諸國은 政策的으로 中間階層을 育成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④ 共產主義者들은 「부르조아」는 沒落되고 「프롤레타리아」의 勝利는 必然的인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資本主義 社會의 現實을 볼 때, 거기에는 「부르조아」의 沒落은 물론 勞動者階級の 勝利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暴力과 革命으로 政權을 잡은 소위 社會主義 國家에서는 前「유고」의 副統領이었던 「밀로반·질라스」의 말대로 새로운 特權階級이 形成되고 그들에 의한 새로운 搾取關係가 일어나고 있는 實情인 것이다.

⑤ 先進 資本主義 國家들에서 階級政黨은 萎縮되고 國民政黨으로 發展하고 있는 事實이라든가 國民福祉 向上을 期하고 있는 先進 資本主義 國家들을 볼 때, 共產主義의 階級鬭爭論이 그 얼마나 時代錯誤의이고 진부한 理論인가를 알 수 있다. 한편 오늘날 後進國家에서의 共產化 過程이 階級鬭爭의 結果가 아니었다는 事實은 더욱 階級鬭爭論의 虛構性을 立證시켜 줄 것이다.

III-2. 革命論

-1) 概 要:

共產主義자들이 主張하고 있는 革命論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說明할 수 있다. 그 하나는 資本主義 國家에서 生産力이 一定한 發展段階에 이르르면 生産關係에 있어서 矛盾이 表面化되고 勞動者와 資本家의 衝突이 不可避할 때 일어난다는 「프롤레타리아」革命論과 다른 하나는 世界 第2次大戰의 終結과 더불어 東歐에서 나타난 「人民民主主義 革命論」이다. 즉 「人民民主主義 革命」은 前者가 資本主義가 發達된 때 必的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前提로 하나, 後者는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達되지 않은 條件下에서도 共產黨이 다른 政治勢力과 聯合하여 執權할 수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한 點에서 差異가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社會制度의 變化가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 그들은 革命論에서 人爲的인 暴力革命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의 手中에서 生産力과 政治權力을 奪取하고 끝내는 「프롤레타리아」政權을 樹立하여 社會構造의 轉換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主唱한 것이다.

「레닌」은 이러한 暴力革命의 戰略的 展開를 위해서 勤勞者의 大多數가 革命의 必要性을 充分히 理解하고 그를 위하여 스스로의 生命을 犧牲시킬 覺悟가 先行되어야 한다고 強調한 바 있다.

그래서 「스탈린」時代까지는 暴力革命만이 唯一한 것으로 그의 追從者들에게 믿어져 왔다. 그후 「후르시초프」에 이르러서는 「社會主義에로 나가는 多様な 體制」라는 命題가 제시되고 議會에는 共產黨이 多數를 占할 경우 社會主義에로의 可能性이 시사되었다. 이것이 소위 「平和革命論」인 것이다.

-2) 批 判:

暴力革命論은 다음의 事實을 들어 批判함이 보다 効果的일 수 있다.

① 共產主義자들은 「프롤레타리아」革命에 있어서 暴力을 「必要惡」으로 보지 않고 없어서는 안될 必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共產主義자들은 暴力을 崇拜하여 「프롤레타리아」革命過程에서 뿐만

아니라 政權을 掌握한 後에도 이를 戰術的인 手段으로 계속 活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스탈린」의 恐怖的인 非의 肅清, 毛澤東의 文化革命에 의한 暴力行爲 그리고 金日成의 唯一思想體制 確立을 위한 무자비한 肅清 등이 바로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② 暴力革命論은 特定 國家의 暴力革命을 合理化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르크스」의 理論에 의하면 社會主義革命的 前提條件으로 資本主義의 經濟的 成熟을 내세우고 있었으나 「레닌」은 이를 修正하여 『오늘의 帝國主義 時代에 있어서는 革命的 客觀的 條件은 한 나라의 經濟的 成熟에 있는 것이 아니라 政治的인 階級關係 如何에 달렸으며 따라서 革命을 遂行할 主體的 力量의 成熟 즉 共產黨의 組織이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主張하였다. 이와같은 「레닌」의 修正論은 「러시아」 革命을 合理化하고 나아가서는 後進國에서 革命을 선동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되었다. 즉 第2次大戰 直後에 대동한 「人民 民主主義 革命」도 그 例外일 수는 없을 것이다.

③ 共產主義者들은 「프롤레타리아」 階級政黨인 共產黨의 歷史的 使命을 過大評價하고 있다. 겉으로는 共產黨이 그 나라의 民主勢力을 代辯하고 民主化의 歷史的 使命을 지니고 있는 듯이 主張하고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自由롭고도 合法的인 選舉節次를 통하여 樹立된 既存 民主秩序를 破壞하고 「이테을르기」만을 고집한 나머지 妥協과 調整의 길을 스스로 폐쇄하고 있으며, 또한 自己의 主張을 狂信하고 相對方을 全的으로 無視하는 頑執한 思考方式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主張을 絕對 眞理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나 「레닌」 그리고 「毛澤東」이나 「金日成」 등에서 한없는 眞理를 캐내는 것이다.

④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共產黨 宣言>에서 現存하는 모든 制度를 오직 暴力으로 顛覆하여 共產主義의 所期의 目的을 達成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후 共產主義 追從者들은 이 暴力萬能의 極限的 革命論을 政治理論의 龜鑑으로 主唱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忠實한 弟子인 「카알·카우즈키」는 그의 力作 <「프롤레타리아」 革命과 그 綱領>에서 暴力革命을 社會主義 革命的 不可缺의 條件이라고 主張한 「레닌」을 「마르크스」主義의 自體變

質이라고 크게 痛駁하였으며, 한편 「마르크스」가 죽은지 7年後인 1890年 獨逸에서 社會政策 立法에 의한 社會保障制가 널리 施行되고 있는 것을 目擊한 「엔겔스」는 1848年의 「프랑스」가 失敗한 2月革命 當時의 革命戰術을 回想하는 다음과 같은 有名한 말을 했다. 卽『1848年의 鬭爭方法은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關係에서 뒤떨어진 것이 되었다. 意識없는 大衆의 先頭에 서서 意識있는 少數者가 遂行하던 革命的 時代는 지나갔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는 「프롤레타리아 革命」理論이 勞動階級の 權益과 生存問題가 國家로 부터 전면 방치된 상태를 假想한 一種의 時代錯誤의인 遺物임을 立證하는 것이다.

⑤ 「人民民主主義 革命論」은, 東歐 諸國이 蘇聯의 武力과 共產化政策을 背景으로 共產化된 事實을 감안한 때, 一種의 擬制된 것으로 世界赤化의 現代版 手段에 不過한 것이다.

⑥ 「平和革命論」 역시 右傾機會主義者의 主張이라 批判한다든가 中·蘇間의 論爭거리가 되었다는 事實로 미루어 볼 때 理論體系가 미흡함을 스스로 自認한 結果가 되는 것이다.

III-3. 「프롤레타리아」獨裁論

-1) 概 要:

「프롤레타리아」獨裁論은 「暴力革命」으로서 「부르조아지」의 階級支配를 打倒한 다음에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階級支配를 이룩하고 同時에 「부르조아」階級の 手中에서 모든 生産手段을 빼앗는 등 反革命的 要素를 除去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階級の 獨裁가 過渡的 段階로서 不可避하다는 것을 前提로 한다.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政治機構로 「마르크스」는 1871年의 「파리·콤뮌」을 들었다. 「프롤레타리아」獨裁論은 「레닌」과 「스탈린」에 이르러 크게 強調되었다. 특히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獨裁에 부과된 任務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① 資本家들의 權力復活企圖의 粉碎 ② 勞動者들의 組織化 ③ 帝國主義와 싸우기 위한 革命的 武裝化 등이다.

-2) 批 判:

「프롤레타리아」獨裁는 다음과 같은 點에서 批判의 要素를 안고 있다.

① 共産主義者들은 資本主義에서 共産主義에의 過渡期에 있어서의 唯一한 支配形態로서 「프롤레타리아」階級政黨 以外的 어떠한 競爭의인 政黨도 그 存在를 단호히 배제하고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獨裁는 唯一黨에 의한 獨裁政治이다. 그곳에는 立法機關이 民意를 代表할 必要가 없으며 重要한 政策이나 法律案은 直接 立案할 必要가 없으므로 複數政黨의 存在가 不必要한 것이다.

오늘날 共産國家의 現實은 勞動階級の 獨裁도 아니고 오직 共産黨의 獨裁이며, 나아가서 共産黨 소수 지도자의 獨裁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밀로반·질라스」는 『共産主義 政府는 黨의 政府』다 라고 까지 개탄한 바 있다.

② 「프롤레타리아」獨裁의 名分은 反革命을 抑制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실은 共産黨 政權 내지 獨裁者의 權力을 유지하기 위한 反對派의 肅清口實로 活用되고 있을 뿐이다.

③ 「프롤레타리아」獨裁는 多數의 勞動階級에 의한 少數者에 대한 獨裁라는 뜻에서 「부르조아」獨裁와 對比시키고 이를 民主主義的이라고 과찬하고 있으나 資本主義 社會에서 「부르조아」獨裁가 存在하지 않는 만큼 이는 虛構에 찬 理論에 不遇한 것이다.

④ 「프롤레타리아」獨裁는 새로운 主從關係를 탄생 시켰다. 즉, 政敵의 肅清, 反革命分子의 掃蕩, 舊指導者의 除去 등 너무나 많은 人命을 犧牲시켜 黨과 個人的 權力을 獨占化 함으로써 새로운 形態의 擄取階級을 造作해 낸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政治權力이 都市와 農村의 勤勞人民에게 있다고 宣傳하며 滿場一致制로 끝나 버리는 「소비에트」選舉를 世界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자랑한다. 여기에 「프롤레타리아」獨裁論의 虛構性이 있는 것이다.

III-4. 國家死滅論

-1) 概 要:

우선 共産主義者들은 國家란 階級の 發生과 함께 생긴 것으로 한 階級이

다른 階級을 搾取하고 暴力으로 支配하기 위한 組織에 不過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搾取와 被搾取의 階級關係가 消滅되면 國家도 當然히 消滅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레닌」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國家論을 一部 歪曲하여 國家의 撤廢는 暴力革命에 의한 撤廢를 意味할 뿐 國家自體의 最終的인 撤廢나 消滅을 意味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國家는 「프롤레타리아」 國家로서 再生되어 그것이 오랜 期間이 經過한 다음에 비로소 死滅된다는 것이다.

「레닌」은 國家死滅 過程을 다음 세 段階로 區分하였다.

첫째로, 資本主義 社會로부터 共產主義 社會로의 移行期에 있어서는 多數者인 被搾取者가 少數者인 搾取者를 抑壓하기 위한 特殊機構로서 國家가 必要하며 그것은 國家가 存在하지 않는 共產主義 社會에의 過渡期的 國家即, 半 國家의 段階이다.

둘째로, 共產主義 社會의 第1段階 다시말해서 社會主義 社會에서는 벌써 資本家도 없고 階級도 없으므로 어느 階級을 抑壓할 必要가 없다는 意味에서 國家는 死滅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직도 「부르조아」적 權利의 殘滓가 많이 있으므로 國家가 完全히 死滅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不完全한 國家의 死滅 段階이다.

셋째로, 生産力의 巨大한 發展으로 말미암아 分業이 없어지고 精神勞動과 肉體勞動과의 區分이 없어짐에 따라 共產主義의 높은 段階로 進展하면서 國家는 完全히 死滅한다.

이와같이 「레닌」은 「프롤레타리아」革命이 「프롤레타리아」國家를 實現하고 더 나아가서는 「프롤레타리아」國家도 死滅過程을 밟게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2) 批 判:

國家死滅論은 다음과 같은 矛盾을 가지고 있다.

① 國家를 단지 한 階級이 다른 階級을 支配, 搾取하기 위한 機構라고 主張하고 있다는 點이다.

우리들의 經驗的 事實에서 判斷한다면 國家의 存在 理由는 被支配階級の 抑壓機關으로서 存在했다기 보다는 실로 人間全體를 위하여 그것이 普遍的

價値를 가진 機能을 遂行해 왔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國家의 存在 理由는 그의 公共的 性格에 있는 것이므로 社會의 秩序 維持와 國民福祉 增進을 目的으로 하는 機能의 任務를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共産主義者들이 主張하는 것처럼 國家는 階級的 推取機關으로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階級間的 推取를 배제하는 方向에서 그 機能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② 오늘날의 共産主義 國家들은 歷史上 보기드문 가혹한 權力을 行使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스탈린」은 古典의 「마르크스」主義의 國家死滅論을 대폭 修正하여 資本主義 社會가 남아있는 限 蘇聯이라는 強制機構를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強化해야 한다고 主張한 바 있다. 즉 “실사 全世界가 共産化 된다고 하더라도 經濟의 組織化와 思想의 教育을 위하여 國家行政機關과 같은 形式의 中央統制機關은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르크스」主義의 「國家死滅論」은 實現될 수 없는 架空的인 환상론임을 스스로 自認한 結果일 뿐 아니라, 오늘의 共産國家에서 政治를 斷行하기 위하여 보다 가혹한 國家機能을 惡用하고 있다는 現實을 볼 때 「國家死滅論」은 黨獨裁를 合理化하는 名分의 理由로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③ 共産主義者들은 國家를 必然的이고 絕對的인 惡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國家는 人間이 만든 것이며 人間의 個性과 尊嚴性을 保護하기 위하여 그의 創造的 努力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때문에 國家는 必要惡이 아니라 오히려 그 反對인 것이다

外部勢力으로부터의 侵略에 對處하여 對外的으로는 國民과 國土를 防衛하며 對內的으로는 國民의 生命과 財產을 保護하는 安保機構로서의 國家의 必要性은 날이 갈수록 增大해 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教育·保健·社會保障 制度·交通·遞信 등 公共福祉 機構로서의 國家의 役割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國家는 支配階級的 利益보다 오히려 國民大衆의 利益을 더 크게 配慮하고 있는 것이다.

④ 共産主義者들이 地上樂園이라고 하는 共産國家의 現實은 한마디로 말해서 폐쇄된 統制社會인 것이다. 英國의 속담에 『滿足한 바보가 되는 것보다

不滿足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뭐니뭐니해도 人生의 目的은 人格과 個性의 成長과 發展에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오늘의 共產國家의 現實에서 共產國家는 本質적으로 一黨獨裁 國家이며, 一黨 兵營의 社會이며, 軍事的 官僚國家이며, 秘密警察의 統制社會임을 잘 알고 있다. 그곳에는 職業選擇이나 居住移轉 및 旅行의 自由조차 認定하지 않고 있으며 良心의 自由, 信仰의 自由는 말할 것도 없고 罷業이나 賃金引上의 要求權도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人間의 基本權은 完全히 剝奪 당하고 있는 것이다.

III-5. 前衛黨論

-1) 概 要:

「레닌」은 모든 勞動階級이 한결같이 「마르크스」主義의 階級意識으로 武裝되어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래서 勞動者 階級을 階級意識이 微弱한 勞動組合主義的, 大衆組織과 「마르크스」主義의 階級意識이 透徹한 少數의 精銳와 職業的 革命家로 區分하여 後者に 의해서 構成된 前衛黨이야말로 革命을 主導할 수 있다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한편 「레닌」은 前衛黨에는 組織의 硬固性과 行動의 性格 그리고 指導性이 뛰어나야 한다고 強調했었다.

그리하여 「레닌」과 「스탈린」은 共產黨의 特徵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提示하고 있다. 즉 黨은 ① 勞動者 階級の 核心的 前衛隊이며 ② 勞動者 階級の 組織된 指導部隊로써 (中央黨部가 黨活動을 指導하는 原則, 일단 決定된 事項을 鐵의 規律로써 遵守시킨다는 原則 등) 「中央集權制」를 組織原則으로 삼는 「프롤레타리아」獨裁를 斷行하기 위한 政治 道具이며 ③ 「프롤레타리아」階級 組織의 最高 形態이며 ④ 일체의 分派를 許諾하지 않는 單一意思의 統一體로써 「批判」과 「自我批判」을 活用한다는 것이다.

階級鬭爭의 前衛組織으로서의 共產黨 理論의 虛構性은 다음과 같다.

-2) 批 判:

① 아무리 階級을 主導하는 階級政黨일지라도 國民的, 民族的, 利益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國際關係에 있어서 모든 國家가 超

黨的이고 超階級的인 立場에서 國家의 總力を 集結하고 있는 現實을 볼 때, 共産主義者들이 主張하는 前衛黨論은 國民的, 民族的 利益을 無視한 少數階級の 利益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② 共産主義者들이 主張하는 前衛黨 理論은 結局 黨과 個人獨裁를 強化하기 위한 方法論이다. 「레닌」이 말한대로 共産黨이 勞動者 階級에게 革命的 階級意識을 注入한다면 「프롤레타리아」獨裁란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黨의 獨裁」를 意味하게 되는 것이며 黨의 獨裁도 少數의 黨政治委員이나 黨最高指導者에 의하여 움직여진다면 結局 前衛黨 理論은 個人獨裁를 合理化하는 手段에 不遇한 것이다.

여기에 黨의 最高指導者에 대한 偶像化가 必然的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 例로 蘇聯의 「레닌」과 「스탈린」의 個人崇拜는 말할 것도 없고 中共의 文化大革命 以後 毛澤東 思想의 神聖不可侵性이나 金日成 唯一思想의 絕對性 등 個人에 대한 神格化를 들 수 있을 것이다.

③ 共産主義者들은 소위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 組織原理를 가장 民主主義的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共産黨이 眞正한 民主主義的 機構라고 한다면 自由討論이나 少數意見이 尊重되어야 함은 물론, 少數派나 分派의 存在도 許容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共産主義 國家에서는 이러한 事例를 볼 수 없을 뿐더러 共産黨 指導部에는 「誤謬란 있을 수 없다」는 소위 「無誤謬」와 「絕對性」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므로 共産黨의 소위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는 獨裁를 위장하기 위한 「民主主義」라는 用語의 남용에 不遇한 것이다.

④ 共産黨이 곧잘 使用하는 「自我批判」은 共産主義의 發展을 위한 열쇠로 活用하고 있다. 그들은 自我批判을 다음과 같은 目的에서 使用한다. 첫째는 上級黨部에서 이미 決定한 政策을 完遂하기 위하여 모든 關心을 이에 集中시키고 둘째는, 共産主義에 懷疑를 느끼는 幹部를 組織的으로 洗腦하여 自己들의 目的에 맞도록 再訓練시키며 셋째는, 指目된 黨幹部를 무자비하게 규탄하며 넷째는, 黨의 無限한 權力과 能力을 黨員에게 誇示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黨員個人은 誤謬를 犯하지만 全體的인 黨은 결코 誤謬를 犯하지

않는다는 데에 根據를 두고 있는 바, 이는 共產黨이 黨의 統制를 強化하고 黨員을 그들의 손아귀에 장악키 위해서이며 北韓의 경우 「相互批判」이나 「讀報會」도 이와 類似한 性質의 것이다.

III-6.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와 平和共存論

-1) 概 要 :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는 世界各國의 勞動階級이 自己 나라 및 世界 革命을 위해서 國家的, 民族的 利害關係를 超越해서 團結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平和共存論은 「스탈린」以後 蘇聯의 外交路線을 반영한 것으로서 武力에 의한 世界赤化가 그 可能性이 희박하다는 評價下에 非武力的 方法에 의한 世界革命의 길을 摸索한 것이다.

-2) 批 判 :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는 世界各國의 勞動者들에게 蘇聯을 宗主國으로 섬기게 하려는 底意에서 발단한 것이나 共產主義 國家가 實際로 勞動者들의 權益과 幸福을 구현할 수 없다는 事實이 들어남으로써 이는 世界 勞動者들에게 「아편」하지 못하고 일종의 幻想論으로 그치고 말았다.

平和共存論도 戰爭에 의하지 않고 共產主義의 「이데올로기」를 부식시켜 世界赤化를 劃策하려는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共產主義의 好戰의 性格 내지 鬪爭의 本性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軍事力의 균형이 깨어지면 언제든지 戰爭을 야기시킬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IV. 「마르크스」經濟理論

「마르크스」는 그의 著書 <資本論>에서 그의 經濟學說을 體系化 내지 集大成하였다. 그는 <資本論>에서 近代 資本主義 社會의 經濟運行法則을 分析하는 데 目的을 두고 그 分析道具로는 唯物論的 辨證法을 活用하였고 分析對象으로는 資本主義 社會의 生成과 發展 그리고 消滅過程을 檢討하여 資本主義가 必然的으로 沒落하고 그 廢墟위에 社會主義가 樹立된다는 結論을 내렸다.

IV-1. 勞動價值說

「마르크스」는 以上の 結論을 導出하기 위하여 「勞動價值說」과 「剩餘價值說」을 適用하였는 바, 그 중에서 우선 「勞動價值說」의 主要骨子에 대해서 說明하겠다.

-1) 概 要 :

「마르크스」의 「勞動價值說」은 일찌기 英國의 「아담·스미스」가 그 研究를 試圖하여 그의 弟子 「리카도」가 發展시킨 「投下勞動價值說」을 다시 그나름 대로 整理한 것에 지나지 않다.

「投下勞動價值說」은 商品生産에 投下된 勞動의 量에 따라 價値가 決定된다는 理論이다. 例를 들어서, 한 마리의 고래를 잡는데 所要되는 勞動과 열 마리의 사슴을 잡는데 所要되는 勞動量이 같다면, 한 마리의 고래와 열 마리의 사슴이 서로 같은 값어치를 갖고 交換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위의 理論을 土台로 勞動을 具體的 勞動과 抽象的 勞動으로 區別하여 說明하고 있다.

具體的 勞動은 쌀이나 보리처럼 人間에게 必要한 物件을 生産하여 「使用價値」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抽象的 勞動」은 生産에 投下된 勞動의 量에 따라 「交換價値」를 形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抽象的 勞動」이 어떻게 價値를 生産하는가에 대하여 「마르크스」는 社會的으로 必要한 「平均勞動量」이란 概念을 使用하였다.

예컨대, 한필의 베를 짜는데 있어서 10時間의 勞動을 必要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時間을 必要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平均的으로 勞動者가 그것을 짜는데 있어서 5時間이 걸린다면 그 5時間의 勞動이 곧 베의 價値를 決定한다는 것이다.

-2) 批 判 :

勞動價值說의 矛盾點은 다음과 같다.

① 「마르크스」는 勞動의 異質의 現象을 等質的으로 取扱하였다는 點이다. 多樣한 環境속에서는 人間 自體가 能力과 素質을 달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勞働이라는 것도 多樣한 與件속에서 異質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同質的으로 單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 自명한 事實이다.

모든 經濟的 財貨의 價値가 勞働에 의해서만 決定되고 形成될 수 없음을 물론 勞働의 質이 多樣하기 때문에 現實的으로 勞働量의 嚴密한 計算은 不可能하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勞働의 量과 質이 多樣한 社會에서는 물론이고 「마르크스」가 살았던 그 當時에도 合理的일 수 없는 것이다.

② 勞働價値說은 近代 資本主義 社會에서의 利潤率 平準化 現象을 無視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主張에 따른다면, 勞働의 比率이 相對的으로 높은 輕工業分野에서의 利潤率은 높아야 하고, 比較的 機械依存度가 높은 重工業分野에서의 利潤率은 반드시 낮아야 한다는 結論에 到達한다. 이렇게 되면, 投下 勞働量에 의한 價値와 生産費의 平均利潤을 보태어야 비로소 現實的 商品 價値가 形成된다는 一般的 價値決定 法則과는 一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一部 商品은 價値以上으로 販賣되고 一部 商品은 價値以下로 販賣된다는 것을 認定하여 價値法則은 個別的으로 妥當치 않으며 全體를 통해 平均的으로 作用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궁색한 辯明에 지나지 않은 平均概念의 濫用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要는 「마르크스」가 需要와 供給關係에 의한 價値變動을 充分히 다루지 못한데서 나타난 當然한 結果인 것이다.

③ 勞働價値說은 勞働生産物 以外の 商品을 전혀 度外視한다. 「마르크스」는 價値를 오직 勞働生産物에만 局限시키고, 勞働 以外の 生産要素는 考慮하지 않았기 때문에 土地나 天然資源인 溫泉, 鑛脈, 火力 등 非勞働生産物을 전혀 無視하였다. 여기에 또한 勞働價値說이 經濟一般論이 되기 어려운 理由가 있는 것이다.

Ⅴ-2. 剩餘價値說

-1) 概 要:

剩餘價値說은 資本主義 社會에 있어서는 資本家 階級은 生産手段을 所有하나 勞働者 階級은 勞働力을 팔아서 生存을 維持할 수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資本家들이 所有하는 生産手段과 勞動者들이 提供하는 勞動力이 結合하여 商品이 生産되며, 生産된 商品의 價値속에는 生産過程에서 投下된 資本과 勞動의 價値에 比하여 더 많은 超過分의 剩餘價値가 生成되는 바, 그것이 結果적으로 利潤, 地代, 利子 등의 形態로 資本家에게 돌아가므로 資本家들은 富의 蓄積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生産要素中 勞動 以外の 生産要素는 그 自體의 價値가 勞動生産物에 그대로 移轉될 뿐이나, 勞動力만은 生産過程에서 自體의 價値보다 더 큰 剩餘價値를 生産한다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勞動力 自體의 價値는 勞動時間에 의하여 決定되고, 그것도 勞動者들의 最小限度의 生活費와 一致하는 範圍를 넘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勞賃의 固定性을 主張하였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剩餘價値論을 통해서 利潤의 本質을 資本家에 의한 勞動者의 搾取關係로 說明하려 하였기 때문에 利潤의 源泉인 私有財産制度의 廢止를 主張하였던 것이다.

-2) 批 判:

剩餘價値說은 다음과 같은 矛盾點을 內包한다.

① 剩餘價値說의 根本的인 問題點은 價値要素를 勞動一邊倒로 解釋하고 있다는 데 있다. 商品을 生産하기 위해서는 資本, 原料, 勞動 以外에도 企業能力 등 其他의 生産要素들이 必要한 것이다. 資本에 의해 機械나 原料들이 購入되고 勞動者가 雇用되며 其他 生産要素들이 結合하여 비로소 하나의 商品이 生産된다는 것은 거의 常識化된 事實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마르크스」는 商品의 價値가 오직 勞動者들의 勞動에 의해서만 創造되는 것이기 때문에 勞動者가 그 價値를 全部 獨占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은 바로 勞動에만 生産性을 認定하고 資本이나 其他의 生産要素의 生産性은 認定하지 않는데 그 理由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一部共産圈에서도 生産의 非能率性을 止揚키 위한 利潤導入說을 내세우고 있는가 하면, 農民들에게 小農具의 私有를 認定함으로써 剩餘價値說의 矛盾性이 무너지는 것은 이미 그 오래인 것이다.

② 「마르크스」는 그 價値論에서 商品의 供給만을 問題視하고 需要問題는 전혀 無視하였다. 商品의 價値는 오직 投下된 勞動이나 其他의 生産要素에 의해서만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商品에 대한 需要와 供給에 의해서 價値의 決定이 左右되는 경우가 더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이 오늘날의 經濟現實이다. 다시 말하면 勞動이나 其他의 生産要素는 그 商品의 供給을 決定하는 生産費 構成要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生産費란 商品의 價値를 形成하는데 어느 程度의 影響을 미치는 것은 分明하지만 어떤 商品의 價値를 單獨으로 決定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마르크스」는 利潤은 오직 商品의 生産過程에서 勞動 時間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主張하므로써 流通過程을 度外視하였다. 그러나 商品의 生産量에 比해서 需要量이 많을 때에는 그 商品이 높은 價格으로 팔리기 때문에 流通過程에서 利潤이 發生하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또한 같은 商品을 生産하는데 있어도 能率的인 企業은 非能率的인 企業보다 生産費의 節減에 따른 利潤이 發生하게 될 것은 自명한 經濟現實인 것이다.

③ 「마르크스」는 資本主義 體制下에서는 勞動生産性이 向上될지라도 勞動者의 賃金은 最小限의 生活費를 保障하는 線에서 머물러 있다고 主張한다. 그런데 經濟가 高度로 發達한 先進 資本主義 國家에서는 勞賃은 勞動生産性과 함께 上昇一路에 있으며, 勞動者의 貧困은 初期 資本主義 時代에 있어서 人口의 都市集中에 따른 過渡的인 現象에 지나지 않았다.

最近에 들어 先進 資本主義 國家에서 이른바 「生産性 賃金制」라 하여 勞賃의 上昇率을 勞動生産性의 上昇率과 一致하도록 法的 措置를 取하고 있는 現象에 비추어보아 共產主義者들이 아직도 이 진부한 「마르크스」의 剩餘價値論을 내세워 企業家들이 勞動者들의 勞賃을 搾取한다 함은 時代錯誤的인 不當性을 立證하는 것이다.

④ 勞動者에 대한 搾取現象은 오히려 「勞動者의 樂園」을 만들겠다는 共產社會에서 일어나고 있다. 共產社會에서의 剩餘生産物은 勞動者의 福祉向上을 위해서 使用되지 않고 軍事力 強化나 獨裁政權 維持에 使用되거나 소위 「새로운 階級」의 사치스러운 生活을 위하여 탕진되고 있는 것이다.

共産圈에서 脫出한 「수잔느·라방」은 〈共産主義 50年の 現實〉이라고 하는 冊子에서 勞動者 一人當 生産價値가 月 750「루블」인데 反해 勞動者에게 支拂되는 金額은 月 125「루블」밖에 되지 않는다고 指摘한 바 있다.

이를 分析해보면 勞動者가 搾取 當하는 比率은 600%나 되는 것이며 이는 「마르크스」가 資本主義 社會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豫言했던 숫자보다 2배나 더한 搾取率인 것이다.

勞動者에 대한 搾取는 北韓에서도 마찬가지다. 金日成은 1962年 內閣秘密 會議에서 「北韓勞動者 1名의 年間 生産額은 3千원이며 勞動者에게 支拂되는 賃金은 年間 480원 내지 500원이다」라고 指摘한 바 있다. 이를 分析해보면 勞動者의 搾取率은 約 800% 以上이 되는 것이다.

⑤ 「마르크스」의 말대로 勞動者의 賃金이 最低生活費線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資本家에 대한 勞動者들의 技術革新이란 想像할 수도 없다.

오늘날은 社會가 發達하고 生産體制가 날로 多樣化됨에 따라서 人間資本이란 概念이 점점 普遍化되어 가고 있으며 富의 概念도 物質의 富 以外에 「人間에게 응결된 富」가 매우 重視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勞動者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근육의 덩치가 아니라 知識과 技術을 가진 人間資本이라는걸 생각할 때 「마르크스」의 「最低生活費論」 주장은 不當하기 이를데 없는 것이다.

IV-3. 資本主義 崩壞論

-1) 概 要:

「마르크스」에 의하면, 資本家들은 보다 많은 剩餘價値를 얻기 위해서 勞動者들의 勞動時間을 延長시킨다든가 勞動者들의 勞賃을 떨어뜨리게 되나 그것은 모두 限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技術革新을 통해서 勞動生産性을 높이는 方法을 擇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資本家들의 技術革新은 産業의 機械化를 促進시킴으로써 不變資本의 有機的 高度化를 造成하는 反面에, 可變資本인 勞動의 減少現象을 일으킨다 하였다. 이같은 勞動의 減少現象은 勞動에 의하여 發生한다는 剩餘價値를 減少시키게 되어, 結果的으로는 資本家들의 利潤率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資本家들은 利潤率의 下落을 막기 위해서 資本의 蓄積에 의한 資本의 有機化를 더욱 高度化시키고, 生産費를 줄이려고 努力하는 한편, 國內의 劣等企業들을 흡수 併合함으로써 獨寡占에 의한 生産量을 擴大시키게 된다 하였다. 이에 反하여 勞動者들의 경우를 보면, 生産量이 擴大된다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技術革新 즉 機械化에 의한 것이므로 勞動者들의 雇傭機會는 機械화된 만큼 減少됨으로써, 人口의 增加에도 不拘하고 失業者는 늘어나게 되며 결국 勞動者들은 貧困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資本主義 社會는 資本家들의 大量商品 生産과는 달리, 勞動者들의 貧困에 따른 商品需要가 줄어들므로써 商品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고, 以上과 같은 傾向이 長期化되면 資本主義 社會는 過剩生産과 過少消費의 矛盾을 일으켜서 마침내는 經濟恐慌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矛盾을 克服하기 위해서 資本家들은 國內의으로는 獨占結合에 의한 搾取體制를 더욱 強化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自然히 階級對立이 첨예화 되고, 國際의으로는 資本主義 國家間的 海外로의 資本輸出과 海外植民地 開拓을 위한 競爭이 수반되어, 結局 資本主義 國家間的 戰爭이 不可避하게 되며 終局에는 資本主義가 崩壞되고 만다는 것이다.

-2) 批 判:

「마르크스」의 「資本主義 崩壞論」의 矛盾은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批判할 수 있다.

① 「마르크스」는 資本主義가 發達됨에 따라 資本家の 利潤率이 低下된다고 主張한다. 理論의인 面에서 考察해 볼 때, 經濟發展을 一定한 時點을 基準으로 보는 靜態의인 側面에서 보면 投資가 增加됨에 따라서 資本家の 利潤이 一時的으로 低下되는 現象을 일으킨런지 모르나 보다 長期的이고 動態的인 立場에서 보면 資本家の 利潤率은 얼마든지 上昇될 수 있다.

그것은 人間의 嗜好가 恒常 變化하여 새로운 商品이 開發되고 이에 대한 需要도 늘어나기 때문이며, 새로운 宇宙産業이나 原子工業 등의 發達は 해마다 새로운 高率의 投資를 刺戟하기 때문이다. 한편 實際面에서 考察해 볼 때, 先進 資本主義 國家는 利潤率의 下落에 따른 經濟의 여러 矛盾으로 因하

여 이미 沒落되었어야 할 것이나 반대로 高度의 成長을 보이고 있고 沈滯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들 共産國家들인 것이다.

② 共産主義者들은 産業의 機械化에 따른 勞動者의 貧困을 내세워 勞動者들이 資本家들에게 鬭爭할 것을 煽動하고 있다.

우선 理論的인 面에서 볼 때, 勞動者들이 機械化로 因하여 部分的으로 解雇된다 하여도 새로운 機械製作工業에 취업할 수 있음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機械의 發明으로 因하여 一部 勞動者들이 그들의 職場을 當분간 잃는 局部的인 現象을 가지고 모든 勞動者들이 解雇되고 窮乏에 허덕이게 된다고 主張한 것은 매우 獨斷的이고 誇張된 判斷이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實際面에서도, 「마르크스」는 資本主義 發展初期의 經濟現象을 分析對象으로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部分的으로 發展途上의 國家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勞動過剩 現象이 일어났을런지 모르지만 工業化의 進展에 따라 勞動力 過剩狀態로부터 勞動力 不足狀態로 轉換되고 勞賃도 上昇一路에 있음은 先進 資本主義 國家의 否認할 수 없는 現象이다. 그리하여 共産主義者들도 그들의 主張인 勞動者들의 「絶對的 窮乏化」 理論을 배경하고 相對적으로 窮乏化된다는 主張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그것마저도 現實적으로 맞지 않는 實情이다.

③ 資本主義가 그 發生過程에서 内部的 矛盾 때문에 生産과 消費의 不均衡이 일어나서 一大 經濟恐慌이 수반되고 나아가 資本主義가 崩壞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實際面에서 볼 때, 資本主義 經濟體制에 있어서 항상 均衡이 維持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經濟沈滯 要素가 作用하여 景氣變動이 나타나는 것은 事實이지만 그로 因하여 資本主義가 沒落한 나라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經濟의 持續的인 不均衡은 資本主義 社會보다도 社會主義 社會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現象이다. 단지 資本主義 社會에서는 조그마한 不均衡도 당장에 表面에 나타내데 反하여 社會主義 統制經濟社會에 있어서는 보다 더 큰 不均衡도 表面化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資本主義 國家들이 恐慌抑制策을 講究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即 國

家は 財政金融政策을 中心으로 한 需要의 調整, 景氣變動을 自動적으로 安定시키는 失業保險이나 社會保障 制度 그리고 累進 稅率의 自動安定裝置 등을 活用하여 恐慌의 發生可能性을 事前에 抑制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主張은 經濟恐慌의 發生을 抑制하는 國家의 다양한 機能을 예상치 못한 것이라 하겠다.

VI-4. 帝國主義論

-1) 概 要 :

「레닌」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學說을 이어 받아 이른 바 帝國主義 段階에 있어서 資本主義의 經濟의 諸般實態를 分析하였다. 「레닌」은 競爭이 支配하는 產業資本主義가 漸次的으로 獨占支配하는 獨占資本主義 即 帝國主義로 發展되며, 이 帝國主義가 資本主義의 最後의 段階이며 社會主義 革命의 前夜期라고 보았던 것이다.

「레닌」은 帝國主義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① 巨大企業體가 中小企業을 從屬化하여 生産은 물론 市場과 價格을 獨占하게 되며 ② 銀行資本이 產業資本과 結託하여 金融募頭 體制를 形成하게 되며 ③ 商品輸出보다 資本輸出에 重點을 둠으로써 後進國의 植民地化를 이룩하고 ④ 國際獨占體가 形成됨으로써 世界分割이 이루어지며 ⑤ 資本主義列強사이에 植民地 爭奪戰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世界的 規模의 戰爭이 不可避하고 資本主義가 存在하는 限 國際平和는 결코 存在할 수 없다는 主張이다.

-2) 批 判 :

帝國主義論은 다음과 같은 虛構性和 그 矛盾性을 內包하고 있다.

① 帝國主義論은 「마르크스」式 歷史觀이 가지는 理論의 貧困性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바 「獨占 資本主義 段階」라는 概念 그 自體가 架空의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資本主義 國家에서 大企業이 盛行한 것도 事實이긴 하지만 大企業化 現象과 獨占化 現象은 그 概念이 一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일 共產主義者들이 大企業化의 現象을 獨占現象과 混同하여 「獨占 資本主義」를 主張하였다면 이는 分明 理論上的 重大한 誤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資本主義 社會의 國家機能을 전혀 無視하고 國家의 調整的 機能이 마비된 無政府狀態를 가상하였다는 데도 論理上의 重大한 虛點이 있는 것이다.

② 帝國主義論은 現實과 一致할수 없는 一種의 後進國 住民의 煽動論이다. 共產主義者들은 金融寡頭體制가 資本主義의 末期에 일어난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그의 虛構性은 다음의 事實에서도 立證된다.

오늘날 企業의 資金調達 方法을 보면 各國의 實情에 따라 多少의 差異는 있어도 資本主義가 發達할 수록 資本의 銀行 依存度가 점차 낮아지는 傾向에 있다. 이것은 株式의 公募를 통한 一般國民의 家計費中 貯蓄金을 企業資金으로 吸收하는 傾向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勞動者 等 小市民의 投資가 점차 擴大되어가고 있음을 立證하는 것이다.

또한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 國家들이 原料의 供給이나 市場의 擴大를 위해서 植民地 開拓을 하게 된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그의 虛偽性은 다음의 事實에서 立證될 것이다. 즉 오늘날 先進 資本主義 國家들은 後進國 國家에 대하여 無償援助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長期的인 低利公共借款을 제공하고 있으며, 國際金融機關을 통한 後進國工業化에 最大의 便宜를 提供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共產主義者들이 資本主義 國家에 대하여 寡頭金融制나 植民地 開拓을 위한 資本輸出을 한다느니 하는 것은 先進國과 後進國의 住民들을 煽動, 相互 離間시킴으로써 그들의 窮極目標인 世界赤化를 성취하려는 一種의 後進國 住民煽動論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③ 「레닌」은 經濟的인 世界分割로 말미암아 資本主義 列強사이에 戰爭이 不可避하다고 主張한다. 戰爭이라는 事態가 人類 歷史上에 빈번히 일어났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나 그 原因은 대개의 경우 國家間의 利害의 對立, 民族間의 敵對感情, 宗教上의 葛藤, 政治指導者의 征服慾 等に 起因되었음은 누구도 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第2次大戰 以後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戰爭은 共產主義者들에 의하여 유발되었다는 事實이다.

예를 들어서, 1950年 韓國의 6·25動亂, 1956 「헝가리」 反蘇鬪爭, 1968年

「체코」의 自由化 彈壓, 1969年 中·蘇 國境紛爭 그리고 越南戰 등이 모두 그렇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共產主義者들이 모든 戰爭의 原因을 經濟에서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常識에 벗어난 主張이라 아니할 수 없다.

④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 國家들이 植民地 政策을 쓰고 있다고 하나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새로운 赤色植民地政策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共產圈의 宗主國인 蘇聯의 경우를 보면 1939년부터 1949년까지의 期間에 政治的으로는 684,300km²의 領土와 2,500萬에 가까운 人口를 強制的으로 그들의 支配下에 넣었고, 經濟的으로는 東獨으로부터 45億 「달러」, 「루마니아」로부터 20億 「달러」, 滿洲에서 20億 「달러」等 도합 85億 「달러」를 수탈했던 것이다.

그 밖에도 많은 經濟的 利權을 박탈하여 衛星國家들의 自立的 經濟體制 運營能力을 抹殺하고 말았다.

일찌기 共產圈 專門家로 널리 알려진 美國의 「오버스트리트」는 「코메콘」을 中心으로 한 蘇聯의 對外經濟政策을 다음과 같이 批判한 바 있다.

첫째, 衛星國家의 主要產業政策을 調整하여 蘇聯이 지정해 준 商品만을 過剩生産토록 하며

둘째, 衛星國의 基幹產業을 監督하는 管理者, 顧問 그리고 專門家들을 任命하고

셋째, 衛星國家와 資本主義 國家와의 通商을 監督하며

끝으로, 衛星國의 銀行을 掌握함으로써 現地通貨를 蘇聯의 「루블」貨에 예속토록 하고 있다고 指摘하였다.

이처럼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主張과는 달리 赤色植民地政策을 쓰고 있어 賊反荷杖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第 2 章 北韓의 現實

本章에서는 北韓의 實情을 보다 綜合的이고 合理的인 方法으로 터득케 하는데 그 根本目標을 두고 그에 따른 細部目標을 다음과 같이 定立하였다.

첫째, 北韓 共產主義의 特殊性을 分析하여 教條主義의 範疇內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을 認識시키고

둘째, 金日成 「主體思想」은 하나의 政治造作的 「슬로잔」에 지나지 않는다는 點과 이는 結局 金日成을 偶像化 시켰다는 點을 認識시키며

셋째, 政治實態는 史上 그 類例를 찾기 힘들 정도로 一人獨裁體制를 確立해 놓고 있다는 點을 理解시키며

네째, 經濟實態에서는 經濟構造의 跛行性, 技術水準의 低下, 生産施設의 老朽 그리고 財源의 不足 등으로 原始的 低水準 經濟體制를 免치 못하고 있다는 點과 그로 말미암아 體制의 變質이 不可避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

끝으로, 北韓의 軍事戰略은 政治戰略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으며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은 南北對話에도 不拘하고 變化되지 않고 있음을 터득시켜 總力安保體制의 必要性을 걸감케 하여야 한다.

以上の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本章의 內容構成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全體的으로 北韓 共產主義의 特殊性을 國際共產主義 運動과의 關係에서 分析하고 그로 인한 北韓 共產主義의 性格을 究明하였다.

둘째, 北韓의 「主體思想」은 그 背景과 概念 및 內容 性格을 分析한 다음 그 利用 狀況을 밝혔다

셋째, 政治實態는 北韓 政治體制의 頂點이 되고 있는 金日成의 權力掌握 過程과 그 特徵을 分析한 다음 對南戰略의 樣相을 提示하였으며

네째, 經濟實態에서는 經濟體制, 政策路線, 部門別 現況을 分析하여 北韓 經濟 體制의 취약점을 도출하였고 그 結果에 대한 展望을 하였다.

끝으로 北韓의 軍事戰略은 軍事思想과 共產軍의 性格을 規명한 다음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과 戰爭準備 現況을 提示하였다.

특히 本章에서 注意하여야 할 點은 以上 提示한 內容을 中心으로 하되, 보다 綜合

的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의 個人生活을 설명할 경우 以上の 內容만 確實히 인식한다면, 이를 主體思想, 政治論, 經濟論 등 어느 것으로도 充分히 說明할 수 있다. 또한 北韓의 革命戰略이 變質되고 있지 않다는 事實과 北韓의 戰爭準備狀況에 被教育者들이 공포감이 들지 않도록 하는 點 그리고 우리의 國力培養이 곧 戰爭抑制 方案이라는 點 등을 強調하여야 할 것이다.

I. 北韓 共產主義의 特殊性

I-1. 偽裝된 民族的 立場

-1) 北韓 共產黨은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그 活動의 最高目標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이에 조화시키려 꾀하고 있다. 즉 共產主義는 우리 民族 絶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統一路線과 그 方案에 民族的 念願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共產主義의 實現을 위해 民族主義의 勢力과 제휴해야 한다는 計略에서 緣由되는 것이다.

-2) 본래 民族主義와 共產主義는 공존할 수 없는 대립된 概念이다. 따라서 共產主義를 民族的 立場과 결부시키려는 것은 일종의 偽裝이라고 보아야 한다.

-3) 北韓 共產黨은 또한 偽裝된 民族的 立場과 관련시켜 그들이 愛國者인 양 假裝하고 있다. 그들은 「스탈린」이 對獨戰爭때 제창한 바 있는 소위 「社會主義的 愛國主義」理論을 빌려 愛國者임을 自處하려 하나, 그것은 「社會主義 祖國」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傳統的 概念의 愛國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4) 北韓 共產黨이 내세우고 있는 소위 民族的 立場과 愛國的 立場은 6·25 南侵을 비롯한 反民族的 犯罪로 그 거짓이 드러났고, 또한 민족적, 국가적 이익을 國際共產主義 利益에 증속시켜야 한다는 共產主義 立場에 비추어서도 진실한 것이 아니다.

I-2. 鬭爭의 및 好戰의 性格

-1) 北韓 共產主義는 오늘날 共產世界 가운데서도 가장 鬭爭의이며 好戰의이다. 北韓 共產主義가 가장 투쟁적이고 호전적인 배경은 赤化統一의 執念과 또한 國際共產主義의 東方哨所라는 사명감에서 연유된 것이다.

-2) 한편 北韓 共產主義가 鬭爭의이고 好戰의임은 대내적 긴장이 金日成 독재권력의 정신적 기초로 되고 있다는데서도 기인된다. 金日成은 정당한

명분없이 반대파를 연이어 肅清했으며 동시에 暴力統治로 일관시켜 왔다는 사실이 이를 立證한다.

I-3. 教條主義 體制

北韓은 傳統的 共產主義의 教條, 그 중에서도 「스탈린」의 命題에 가장 충실하다. 그리하여 北韓은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신축성있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北韓이 教條主義的 體制를 固守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緣由된다.

-1) 權力의 體制와 統治方法의 바탕이 「스탈린」主義的이며, 여기서 이탈하는 것은 現存權力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며

-2) 國際共產主義 運動과 世界革命의 使命에 충실하려는 데 있다. 오늘날 蘇聯과 中共을 비롯한 共產國家들이 자기 나라의 국가적 이해관계를 우선 시키기 위해서 「마르크스」, 「레닌」의 命題를 수정하고 또한 「스탈린」主義를 비판하고 있는 사실과 대조해서 北韓의 教條主義的 立場을 평가해야 한다.

I-4. 閉鎖性

-1) 北韓 社會는 共產世界 가운데서도 가장 閉鎖的이다. 그 이유는 外界와 접촉하는 것이 그의 權力과 體制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며 그 다른 하나는 자기편이 아니면 敵이라는 「스탈린」時代의 冷戰의 遺物을 답습한데서 기인된다.

-2) 北韓은 共產世界의 새로운 時代 思潮가 들어오는것 까지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共產主義는 지극히 閉鎖的이기 때문에 情勢의 판단이 객관적이 되지 못하고 있어 誤解와 誤算에 따른 무모한 행동이 저질러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II. 北韓의 「主體思想」批判

II-1. 「主體思想」의 正體

北韓에서 「主體思想」이란 말이 처음으로 使用된 것은 1955年 12月 「黨宣

傳, 煽動일꾼]앞에서 행한『思想事業에서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퇴치하고 主體를 確立할데 대하여』라는 金日成의 演說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의 對外的 狀況을 보면 共產圈 內部에서는 「스탈린」格下 運動이 한창 이었고 또한 東歐共產國家들의 自由化 傾向이 濃厚하였으며, 한편 對內的으로 是 金日成의 偶像化와 1人 獨裁에 대한 延安派 및 一部 蘇聯派의 反撥이 있었으며 生活의 窮乏과 勞力搾取에 대한 住民들의 不滿 또한 高潮된 狀態에 있었다.

以上과 같은 對內外的인 事情속에서 金日成은 住民들의 不平不滿을 抑制하고 政敵들로부터 金日成 自身을 保護하며 또한 對外的으로 名分을 내세우기 위한 意圖에서 내놓은 것이 바로 「主體思想」인 것이다.

II-2. 「主體思想」의 性格

「主體思想」은 複雜한 內外情勢를 克服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主體思想」 또는 「唯一思想」이라고 그네들은 一般的으로 말하고 있다.

우선 對內的으로 「唯一思想」이라 強調함으로써 住民들은 黨의 命令에 絶對 服從해야 된다는 뜻을 內包하고 있다. 즉 黨이 숨쉬고 생각하고 行動하는대로 北韓 住民들이 行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對外的으로는 「主體思想」을 운운함으로써 마치 金日成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北韓의 現實에 맞게 創造的으로 適用한 共產主義者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手段에 不週하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내세우고 있는 韓半島의 赤化는 世界革命의 一環으로써 全世界 共產化와 密接한 關聯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이 말하기를 『우리가 主張하는 自主性은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만약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에 등을 돌린다면 곧 民族利己主義로 굴러 떨어질 것』이라고 함으로써 그들의 소위 「主體思想」이란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의 從屬物에 不週함을 立證해 주고 있다.

II-3. 「主體思想」의 內容

金日成은 『우리 黨의 「主體思想」은 우리의 革命과 建設을 成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한 가장 正確한 「마르크스-레닌」主義的 指導思想이며 黨의 모든 政策과 活動의 確固不動한 指針이다』라고 그 內容을 밝혔으며, 또 日本의 每日新聞 記者와의 會見에서는 『「主體思想」이란 革命과 建設의 主人은 人民大衆임을 그 基本으로 하는 思想』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같이 革命과 建設의 主人이 人民大衆이라고 추켜 올림으로서 「主體思想」이란 革命課業에 人民大衆을 끌어 모으는 일종의 住民動員 手段인 것이다. 그 內容을 具體的으로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主體思想」의 主體는 金日成 :

北韓에서는 金日成이 다녀간 곳이면 農村일 경우 豐년이 들고, 工場일 경우에는 作業實績이 2倍, 3倍로 增加한다고 宣傳하는 등 金日成을 마차 「全知全能」한 神같이 偶像化하고 있으며 그의 말이 곧 黨의 命令이요 法이 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創造的으로 適用」할 수 있는 사람도 오직 金日成 한사람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革命과 建設의 主人은 人民이라는 그의 主張과는 달리 革命과 建設의 主人은 바로 金日成 自身인 것이다.

그래서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黨의 主體思想」「金日成의 唯一思想」이라고는 強調하지만 「民族主體性」이라는 말은 使用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主體思想」이란 우리 民族과는 무관한 共產主義者들의 宣傳口號에 불과함을 立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2)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主體思想을 내세워 黨政策의 絕對性과 正當性을 主張하고 있다 :

그들은 『勞動黨의 政策은 「마르크스-레닌」主義에 依據하여 現實을 科學的으로 分析한 「主體思想」의 基礎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實現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金日成 自身이 決定하는 黨의 最高政策에는 어떠한 誤謬도 있을 수

없고 다만 黨의 意思를 執行하는 過程에서 생기는 소위 官僚主義, 形式主義, 利己主義 등이 原因이 되어 多少 失敗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主體思想」은 黨政策에 대한 批判을 抑制하고 金日成의 命令에 服從시키려는데 그 實質的인 意圖가 있는 것이다.

II-4. 「主體思想」의 利用

-1) 北韓은 「主體思想」을 對外的 體制防禦策으로 活用하고 있다 :

1956年 2月 蘇聯共產黨 20次 黨大會 開催 以後 中·蘇의 關係가 惡化되기 始하여 50年代末頃부터 中共은 蘇聯을 修正主義로, 蘇聯은 中共을 教條主義라고 相互 誹謗하는 理念紛爭으로 發展, 結局에는 國境紛爭까지 惹起되었다.

이러한 狀況아래에서 北韓은 無節制한 外交路線을 取함으로써 中共과 蘇聯으로부터 外面당했을 뿐 아니라 援助까지 中斷되어 資本 및 技術이 極度로 不足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中共과 蘇聯이라는 두 상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兩面外交의 手段으로서 「主體思想」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北韓은 實際에 있어서 暴力革命論을 固守하는 中共側으로 기울고 있는 점만은 否認할 수 없다.

-2) 北韓은 對內的으로는 「主體思想」을 金日成 偶像化에 活用하고 있다 :

北韓에서의 金日成 偶像化 政策은 歷史上 그 例를 찾아볼 수 없을 程度로 철저하게 進行되고 있다. 金日成에 대한 偶像化 및 神格化 政策의 基本方向은 허위날조된 抗日鬪爭史를 全住民들에게 철저히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 「主體思想」을 學習하라는 데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傳統的인 倫理觀을 變形시켜 「어버이로서의 金日成」 「首領으로서의 金日成」을 強調하고 모든 現實的인 價値基準과 政治思想的인 正統性의 根據를 金日成으로부터 求하고 있다.

그러나 객觀적으로 보아 金日成에게는 그의 獨特한 思想이라고 내세울만한 體系的인 理論이 없고 「스탈린」이나 모택동의 前例를 모방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그것은 共產主義者들이 찬양하는 金日成 選集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거기에서 그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忠僕이라는 것을 自認하고 있을뿐 金日成 自身の 主義이나 主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主體思想」은 派閥을 整理하고 窮極的으로는 1人獨裁體制를 確立하는데 利用하고 있다 :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北韓을 革命基地化하고 全國의 범위에서 共產主義 社會를 建設하는데 있어서 「主體思想」(唯一思想)以外에는 어떠한 思想도 있을 수 없다』하여 政敵들에 대한 肅清과 住民들의 勞動力 착취를 合理化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主體思想」은 對內的으로 北韓 住民들의 思想과 行動을 統制하고 體制를 整備하기 위한 大衆 操作의 戰略의 手段 내지 1人獨制 確立의 效果的인 武器로 利用되고 있을 뿐이다.

-4) 主體思想의 目標 :

金日成은 「思想에서 主體」, 「政治에서 自主」, 「經濟에서 自立」, 「國防에서 自衛」를 標榜하여 金日成 偶像化를 合理化시키고, 그의 唯一體制를 強化하여 北韓 住民의 強制 勞力動員과 4大 軍事路線 強化에 의한 戰爭準備에 狂奔해 왔다.

요컨대 「主體思想」의 궁극적인 目標은 韓半島 全域의 共產化에 두고 이를 위해 政治, 經濟, 軍事, 社會, 教育, 文化 등 모든 領域에 걸쳐 이른바 「主體思想」을 適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主體思想」은 藥房의 甘草처럼 어디에나 適用되는 共產主義者들의 不文律로서 北韓 住民들을 強制로 이끌어가는 一種의 체적인 것이다.

III. 北韓의 政治實態

III-1. 金日成의 權力掌握 過程

金日成의 權力掌握 過程은 4半世紀동안 피의 肅清으로 點綴된 歷史이다. 특히 金日成이 行한 肅清의 特徵은 自己의 權力維持에 障礙가 되거나 威脅

이 되는 政敵들의 除去와 自己 政策의 失敗에 대한 責任을 全部 다른 사람한테 轉嫁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金日成의 手法은 「스탈린」式 肅清에서 一步 前進하여 反對可能者를 先制하는 手法으로서 이러한 肅清史는 일찌기 共產主義史上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肅清劇은 共產獨裁의 피치못할 歷程임으로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같은 肅清의 歷史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民族主義者の 肅清 :

金日成의 權力掌握 過程으로서의 肅清의 歷史를 살펴보면 金日成은 해방 이후 高位 執權層에 대한 네 차례의 大肅清을 단행한 바 있다.

그 첫번째가 民族主義者 및 右翼陣營에 대한 肅清이다. 우선 그 배경을 살펴보면 蘇聯軍의 占據에 불과했던 金日成은 政治基盤이 微弱하였으며, 反面 民族主義者 내지 右翼陣營은 北韓住民의 絶對的인 信任을 받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政治基盤 確保策으로 民族主義者와 右翼陣營을 肅清對象으로 하였다. 卽 民衆의 支持를 받고있던 古堂 曹晚植先生을 中心으로한 民族主義者들을 反託運動을 理由로 삼아 蘇聯으로 하여금 監禁케 했는가 하면 모든 知識人, 宗教人, 地主, 企業家, 勤勞大衆 등 右翼 陣營人士들을 民族反逆者 내지 親日派로 몰아 肅清함으로써 民族主義者와 右翼陣營 勢力은 完全히 抹殺되었다. 그러므로써 이를 避해 500萬에 이르는 北韓住民들이 38線을 넘어 自由大韓으로 越南하게 되었던 것이다.

-2) 南勞黨派의 肅清 :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른바 「人民共和國」 樹立 當時 朴憲永 등 南勞黨派는 黨과 權力機關에 自派勢力을 扶植하기에 狂奔하였으나 要職은 金日成一派에게 모두 빼앗겨 버림으로써 不平不滿을 늘어 놓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南侵 準備에 對備하여 필수록 南勞黨系에 대한 攻撃을 피해오던 金日成一派는 6·25의 侵略計劃이 失敗로 돌아가자 그 責任을 南勞黨系에 뒤집어 씌우기로 作定하였던 것이다. 當時 北韓 全域은 갓더미로 변하고 金日成에 대한 反感을 갖고 있는 住民들이 많았으므로 그것을 어디론가 끌고 가야 하였는 바 그 突破口를 南勞黨 肅清에 두기로 한 것이다.

또한 南勞黨系를 그 對象으로 삼은 것은 當時 副首相인 朴憲永 一派가 金日成의 가장 두려운 政敵이 있기 때문에 敗戰의 責任을 몰어 除去함으로써 一石二鳥의 效果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南勞黨의 朴憲永 一派에게 「政權顛覆」과 「美帝의 雇用 間諜」이라는 어마어마한 누명을 씌워 肅清하였다.

-3) 蘇聯 및 延安派의 肅清 :

中共勢力을 얻고 北韓땅에 들어온 延安派는 金日成 一派에게 적지 않은 不安을 주었다. 그리하여 最高 人民會議 常任委員長 金料奉, 副首相 崔昌益, 韓斌, 武亭, 朴一禹, 李相朝 등을 肅清의 對象으로 삼게 된 것이다.

當時의 背景을 부연하면, 副首相 朴昌玉 등 一部 蘇聯派까지 延安派에 加擔 내지는 同調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威脅勢力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이들은 金日成의 政策路線과 個人 崇拜에 대한 不滿을 품고 있던 중 1956年 經濟援助 구경차 蘇聯을 비롯한 동「유럽」 위성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金日成이 8月 全員會議을 召集하자 延安派는 그 會議席上에서 幹部登用의 不公平性, 經濟政策의 失敗 그리고 個人崇拜 思想에 대해 露骨的인 비판을 加했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延安派를 「國家變亂의 陰謀」를 꾸렸다는 名分으로 肅清해 버렸다.

-4) 黨 및 軍部の 肅清 :

그 배경을 살펴보면 當時까지 金日成은 住民生活의 惡化에도 不拘하고 계속 戰爭準備를 強行하였는데 反해 黨僚派들은 反論을 提起, 우선 經濟建設을 先行시켜야 한다는 主張을 내세운데다가 이들은 黨의 組織과 宣傳 對南 問題 등 核心權力을 掌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存在는 金日成 偶像化에 障礙가 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軍部の 심복들로 하여금 黨政治委員 兼 秘書局 秘書 朴金喆, 黨 秘書局 連絡部長 李孝淳 등 高位層 100餘名을 그 對象으로 修正主義, 消極主義, 宗派主義라는 名分下에 1967年 3月 肅清하게 하였고 그 후 1969年初에는 抗日 빨찌산 투쟁을 金日成과 함께 했다 해서 絕對的 信任을 받고 있었으며 앞서의 黨僚派 肅清에 앞장섰던 그의 充實한 心腹인 民族保衛相 金

昌奉, 總參謀長 崔光, 對南工作責 許鳳學 등 10餘名の 高位 將星들까지도 無慈悲하게 肅清해 버렸던 것이다.

-5) 族閥 政治體制的 確立:

그리하여 最近에는 自身을 追從하는 自派勢力까지도 달지 못하는 金日成은 마침내 族閥政治 體制를 確立하게 되었다. 즉 權力的 核心인 「黨」을 掌握키 위해 친동생인 金英柱를 中央黨 組織指導部長과 政治委員會 委員 兼 組織擔當 秘書로 登用시켰고 妻族인 양형섭을 黨 政治委員會 候補委員과 秘書局 思想擔當 秘書 兼 黨 中央委員으로 任命하였다.

그뿐 아니라 執行部署인 政務院內에도 外叔 강양욱을 副主席으로, 4촌 매부 허담을 副總理 兼 外交部長(長官)으로 앉혀 政務院의 實權을 掌握키 하였으며, 그것으로도 不足한 金日成은 社會團體를 掌握키 위해 김성애를 女性 同盟委員長으로, 4촌누이 김정숙을 社勞青 副委員長으로 登용하였으며 族閥 政治에 염증을 느낀 住民들로부터 新변에 威脅을 느낀 金日成은 자기 아들 김수라를 警護 責任者로 앉혀 자신을 호위케 하고 있다. 以外에도 金日成은 자신의 친척들을 관계 요로에 登용하여 現獨裁體制와 自身을 比호 托록 하고 있는 것이다.

-6) 政治權力的 特徵:

北韓의 政治權력은 原理上으로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敎理와 一致하 지만 權力的 支配樣式은 모든 權력이 金日成 一個人에게 集中되어 있다는 것이 그 特徵인 것이다.

이는 北韓의 政治權력이 共產主義의 發展 段階를 거쳐 形成된 것이 아니라 金日成이라는 個人을 中心으로 해서 權力集團을 서둘러 形成하였다는 點에 그 原因이 있다. 다시 말해서 共產主義者들이 主張하는 「暴力革命」이나 「階級鬭爭」의 適用없이 蘇聯軍에 의하여 急造作되었기 때문에 理念이나 制度 등이 모두 正常的일 수 없는 것이다.

이를 기화로 金日成은 共產社會 建設이라는 現實의 追求보다는 自己 個人의 支配力 強化에 더 力點을 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民族의 固有 傳統 破壞에 앞장서 왔던 것이며 「엘리트」形

成面에 있어서도 族閥主義의 基礎에서 充員하고 있는 것이다.

Ⅲ-2. 權力 構造와 行使

-1) 權力 構造 :

北韓의 權力構造는 制度上으로 볼 때 三權分立制를 배제하고 있다. 즉 立法部인 最高人民會議가 行政 司法까지 統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實際上 北韓의 權力構造를 논함에 있어서는 立法, 司法, 行政을 따질 何等の 價値조차 없으며 「共產黨이 國家機關 및 모든 社會團體에 대한 指導的 核心이며 權力의 源泉」이라는 共產主義的 原理에 따라 三權이 黨에 集中되어 있어 어느 部門이건 간에 勞動黨의 傘下機關에 不過하다.

그런데 共產社會에서는 黨이 모든 것에 優先하는 것이 一般的 理論이지만 오늘날 北韓에서는 黨의 決定보다는 金日成의 「敎示」가 보다 重要視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黨과 金日成을 同一視하고 있으며 權力 역시 金日成에 의해서 行使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2) 勞動黨의 組織 :

北韓의 勞動黨은 中央集權的 官僚組織으로서 그 「피라미」型的 頂點으로는 形式的인 黨大會가 있으나 實質的인 最高政策 決定機能을 行使하는 것은 黨 中央委員會이며 그 중에서도 中央委員會의 全員會議에서 選出되는 政策樹立 機關인 政治委員會와 그 執行部署인 秘書局이다. 특히 中央委員會는 물론 政治委員會와 秘書局도 金日成이 그 首席으로 되어 있고 또한 全員이 그의 측근으로 構成되어 있어 黨의 모든 權力은 金日成에게 集中되어 있는 것이다. 이 外에 黨의 下部 組織으로서 市, 道, 郡 區域黨이 있어 中央으로부터 내려오는 命令 指示에 따라 그들의 任務를 遂行하고 있다.

-3) 金日成 全權掌握의 公式化 :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1972年 12月 소위 「새 憲法」을 制定하여 金日成의 全權掌握을 公式化시켰다. 먼저 이에 의한 機構改編 內容을 보면, 從前에는 形式上이나마 國家元首는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委員長 최용건이었으나 새 憲法에는 主席制를 新設하여 金日成이 그 權限을 掌握함으로써 名實相符

한 그의 絕對權力을 法的으로 保障케 하였다.

그리고 金日成의 심복인 政治委員會와 秘書局 要員이 새로 신설된 最高指導機關인 中央人民委員會의 構成員으로 되었기 때문에 對內外 政策을 黨의 결정에 따라서 一元的으로 강력히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執行部署로서의 內閣을 政務院으로 改稱하고 일괄통제를 容易케 하기 위하여 38個 部署를 22個 部署로 統合 縮小시켰는 바, 政務院의 最高 責任者는 總理이지만 主席이 最終的인 指導를 하게 되어 있다.

이와같이 北韓의 새 憲法採擇과 이에 따른 機構改編은 모든 權力을 金日成 一個人에게 集中的으로 부여한 이른바 金日成 體制의 強化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現在 그의 職責을 보던 主席으로서 國家의 首班이며, 主權을 代表함은 물론 公式的인 最高權力機關인 中央人民委員會의 首位로서 政務院을 指導 監督하고, 人民軍 總司令官과 國防委員長을 兼하는 등 무려 8個 領域에 걸친 責任을 지고 있어 명실공히 一人獨裁體制가 公式化된 것이다.

III-3. 北韓의 對南戰略

-1) 北韓의 政治的 目標:

勞動黨은 그들의 鬭爭路線을 뒷받침하는 黨規約 前文에서 『南半部를 美國主義 侵略者들의 獨占과 그 走狗들의 反動統治로부터 解放하고 赤化統一을 達成하기 위하여 鬭爭한다』고 規定하여 그들의 鬭爭目標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窮極的 目標가 韓國政府를 뒤엎고 全 韓半島를 赤化統一 하려는데 있음을 明白히 한 것으로 이는 南北對話가 開始된지 3年이 지난 오늘에도 何等의 變化가 없는 것이다.

-2) 革命戰略의 基礎:

「스탈린」은 <레닌>主義의 基礎)라는 著書에서 『戰略은 革命의 一定段階에 있어서 勞動階級の 主要 打擊方向을 決定하는 것이며 그를 위한 革命豫備軍 配置計劃을 作成하는 것이다』라고 戰略의 概念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北韓은 毛澤東의 人民民主主義 戰略을 모방하여 그들이 直面한 特

殊與件으로, 南北이 分斷狀態에 있는만큼 1次的으로 北을 完全 支配하여 南을 北의 支配領域에 吸收한다는 點과 다음으로 南北의 分斷은 國際的 勢力關係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으로 韓半島赤化의 野慾達成을 위하여 國際的으로 有利한 與件을 造成해야 한다는 點 등을 考慮하고 있다.

-3) 革命的 三大力量 設定 :

이상에 근거하여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소위 革命的 「三大力量」을 設定하였다.

① 「北韓의 革命基地」化 : 金日成은 이에 대하여 勞動黨 創立 22週年 記念式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黨은 항상 共和國 北半部에 있어서의 革命과 建設을 朝鮮革命의 一部分으로 認定하고 있으며 北半部를 全國의인 民族解放 偉業을 完遂하기 위한 革命基地로 보고 있다』고 함으로써 北韓을 韓半島 赤化基地로 強化하겠다는 뜻을 明白히 하였다.

그들은 1960年代 後半期에 이르러서는 北韓이 韓半島 赤化의 背景의 役割에서 脫皮하여 韓國에서의 革命을 行動으로 支援해야 한다는 戰鬪的 決意下에 1·21事態, 삼척·울진 武裝共匪事件 등의 挑發行爲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反共意識을 고취시키고 勝共態勢를 더욱 갖추도록 한 結果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② 「韓國에서의 革命力量」強化 : 그들은 우선 攻擊對象으로는 美國과 資本家 그리고 一般官僚 등을 들고 있다. 이와같이 美國을 革命에서 主要한 攻擊對象으로 보고 있는 것은 美國의 對韓政策과 韓美間의 굳건한 紐帶關係가 韓半島赤化에 決定的 障礙가 된다고 評價하고 있는데 起因하며 그리고 資本가와 一般官僚들을 攻擊의 對象으로 하고 있는 것은 傳統的인 共產主義 理論에 의한 것으로서 韓國에서의 革命을 階級革命으로 유도하기 위함인 것이다.

한편 그들이 設定한 韓半島赤化의 利用對象으로서는 勞動者 農民을 根幹으로 靑年學生과 民族資本家를 들고 있다. 이는 그들이 美國과 資本家에게 抑壓되고 있어 革命力量으로 捲려질 수 있다고 억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戰略理論은 現實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共產黨이 非合法化된 大韓民國의 與件下에서의 革命力量 強化方法으

로 소위 「革命力量」을 組織化하고 나아가 革命鬭爭을 展開하기 위한 地下黨의 構築과 이를 통한 社會秩序 破壞를 重視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③ 「國際的 革命力量」의 強化: 金日成은 1950年代에 행한 한 演說에서 國際情勢가 그들의 赤化統一에 有利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5年 내지 10年동안 平和를 維持하는데 成功한다면 蘇聯은 물론이요 10億 以上の 人口를 가진 中共의 偉력이 比할 바 없이 強大해질 것이며 全體 社會主義 陣營의 力量이 더욱 強化된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60年代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戰術의 變化를 일으켜 「韓國에서의 共產革命」에 미치는 「國際 革命力量」의 影響을 不信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큐바」의 「미사일」基地 設置問題에서 美國에 대한 蘇聯의 屈服, 「통킹」灣事件에의 미온적인 態度 그리고 最近 美·蘇, 中共間의 接近 등 一聯의 事態는 北韓으로 하여금 「國際的 革命力量」의 役割에 대하여 적지 않게 懷疑를 갖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北韓은 從來의 蘇聯을 비롯한 共產圈 일변도의 外交政策을 止揚하고 中立國 내지 西方國家와의 關係改善을 圖謀하여 北韓의 國際的 地位를 向上시키고 韓國을 國際政治에서 孤立化하여 國際的으로 赤化統一에 有利한 情勢를 造成해 보려는 戰略이라 할 수 있다.

-4) 「決定的 時期」:

北韓은 全面戰이 일어나거나 「3大革命力量」이 同時에 이루어지지 않는 限 自己들 뜻대로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스탈린」은 「러시아」 共產主義者의 政治戰略과 戰術이라는 論文에서 決定的 時期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民衆의 革命氣運이 팽배하여 黨이 提示한 「테제」보다 大衆運動이 앞서 있을 때 둘째, 敵陣營에 있어서 絶망, 혼란, 퇴폐, 붕괴 등 否定的 要因이 充滿되었을 때 셋째, 이상의 두가지 契機가 同時에 造成되었을 때』라고 하였다. 이같은 「스탈린」의 「決定的 時期」 규정은 한 國家內에서 革命情勢에 대한 규정으로서 對外關係는 考慮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이미 5次 黨大會의 報告에서 公言한 바와

같이 戰爭準備은 이미 完了하였으며, 駐韓 美軍撤收를 거듭 主張하는 한편 그들에 有利한 國際情勢가 到來하기를 觀望하면서, 韓國內에 그들 支持, 同調 勢力이 確保 強化되면 곧 이를 決定的 時期로 판단하여 언제라도 南侵할 準備가 完了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北韓은 決定的 時期를 잘못 判斷하여 다시 南侵의 실수를 저지를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金日成은 이 「決定的 時期」에 대하여 『革命力量의 充分한 準備가 없이는 革命의 大事變을 맞이할 수 없다. 現段階에 있어서 南半部 革命의 基本方針은 敵의 탄압으로부터 革命力量을 保存하는 同時에 革命力量을 不斷히 蓄積 成長시킴으로써 革命의 決定的 時期를 맞을 準備를 갖추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은 1967年代 後半期 以後 武裝間諜을 南派시켜 越南에서와 같은 「게릴라」戰의 展開를 試圖하였으며 南北對話가 進行되고 있는 오늘에도 繼續 武裝間諜을 남파하여 이른바 革命의 根據地를 確保하고 나아가 革命의 決定的 條件을 能動的으로 造成하려고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南北對話를 「決定的 時期 造成」을 위한 革命力量 強化에 利用하고 있다. 即 흩어진 家族을 찾아주자는 純粹한 人道的 立場에서 出發한 赤十字會談에서 마저 反共法 및 保安法의 撤廢, 3萬名의 「요해·解說要員」 派遣 등을 들고 나옴으로써 우리의 反共體制를 弱화시켜 共產主義 運動의 合法的인 길을 열어보자는 底意를 들어내고 있으며, 심지어 「통혁당 목소리」放送 등 對南 誹謗 放送을 더욱 強化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IV. 北韓의 經濟現實

IV-1. 經濟體制

1) 體制的 比較:

自由主義 經濟體制란 私有財産의 基盤위에서 價格機能(Price Mechanism)에 의한 自律的인 資源의 配分이 이루어지는 制度的 形態이다. 따라서 個人

의 合理的 利潤追求는 물론 投資의 主體도 어디까지나 民間企業이 爲主가 되고 있는 것이다.

反面 社會主義 經濟體制는 生産手段의 私有를 否定하므로서 中央集權의 計劃에 의한 劃一的인 資源의 配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個人의 利潤追求가 否定 當하기 마련이며 무엇보다 먼저 着手되는 것은 生産手段의 國有化와 集團化이다.

-2) 生産手段의 國有化 :

共產主義者들은 私有財產制度가 모든 罪惡과 不平의 根源이며 私有財產을 抹殺함으로써 平等社會가 이루어진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共產社會의 現實은 私有財產을 無償으로 沒收하고 個人의 商工業活動을 禁止시켜도 無階級社會로는 되지 않고 共產黨員이라는 새로운 特權階級이 등장 그 횡포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共產主義者들은 繼續 私有財產制度를 否定하고 있다. 그리하여 北韓에서도 一次的으로 鑛工業 및 商業을 國有化한 다음 農業의 集團化를 斷行하였던 것이다.

即 北韓은 個人 商工業을 「利用」하고, 「制限」하고, 「改造」하는 세 段階를 거쳐 欺瞞과 背信, 壓力과 強制手段으로 國營 또는 協同組合이 吸收하여 抹殺시켰고 소위 農業의 協同組合化도 1954년에 着手하여 1957년에 대체로 完了했었다.

一般的으로 共產主義 理論에 따르면 農業의 集團化는 工業化 過程이 成熟하여 農機械를 供給할 수 있는 經濟的 基盤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遂行되기 마련이지만 北韓은 이같은 與件을 完全 度外視하였기 때문에 生産性 低下 등의 農業危機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3) 生産管理 體制 :

北韓의 生産管理 體制는 모든 資源이 計劃機構인 「國家計劃委員會」에 의하여 配分 調整되고 있다. 이는 私有財產을 基盤으로 한 市場經濟 體制를 排除하고 있기 때문에 人爲的 計劃과 統制가 不可避한데 起因하는 것이다. 특히 北韓의 生産管理 體制를 볼 것 같으면 産業經營은 國營企業과 協同組合으로 兩分되고 國營企業은 다시 中央産業과 地方産業으로 區分되고 있다.

이러한 產業經營 形態의 內部的 管理面의 特徵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國營企業에 있어서는 支配人 責任下에 嚴格한 獨立採算制를 實施하고 있으며, ② 모든 生産指標은 中央의 劃一의 管理下에 統制 管理되며, ③ 中央銀行이 「원」의 統制를 實施해서 企業活動을 調整 監督하므로써 모든 商品과 用役은 國家의 計劃價格에 의하여 公定制로 評價되고 있다. 그런데 絕對的인 權力을 行使하고 있는 勞動黨 黨僚들은 企業管理나 運營에 技術과 經驗이 전혀 없이 各部門 企業體에 浸透하여 自己의 主觀에 따라 命令, 監督하고 統制, 督勵하고 있어 많은 副作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4) 官僚主義 擡頭 :

中央集權의 計劃管理 體制는 地方과 下部 組織間의 創意와 能率의 缺如를 招來하였을 뿐 아니라 官僚主義를 擡頭시켰다.

共產主義 宗主國인 蘇聯과 東歐諸國에 있어서는 이같은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미 1950年代末부터 企業에 있어서 利潤制度의 導入 등 生産能率을 增大시키기 위한 廣範圍한 決定機能의 分散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아직도 50年代 以前에 蘇聯이 取하던 낡은 形態의 中央集權의 計劃管理 體制를 그대로 固守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따라서 이같은 管理體制는 結局 北韓經濟에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擡頭시키고 있다. ① 生産者들은 上部의 指示에 따른 目標量에만 拘碍된 나머지 生産品의 質이 粗惡하며, ② 利潤率이 무시되고 資材의 낭비가 많음으로써 生産原價가 높으며, ③ 生産者의 創意性 缺如와 技術의 落後로 生産性이 鈍化되고 있다는 點 등이다.

IV-2. 政策의 基本路線

-1) 重工業 優先政策 :

지난 50年代와 60年代에 걸쳐서 北韓이 이를 繼續推進하여 온 理論的 基礎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基本敎理를 形成하고 있는 「마르크스」 理論에서 그 名分을 찾고 있다. 即 社會主義 工業化 理論에 의하면 經濟成長의 目的 達成을 위한 最善의 方式은 보다 많은 資源을 生産財 生産 다시 말해

서 機械工業을 핵심으로 하는 重工業에 割當하고 反面에 消費財 生産의 割當分을 減少시켜야 窮極의으로 成長率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重工業에 置重하는 그들의 底意는 순수한 意味의 經濟開發의 原理에 立脚한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軍需産業의 基盤을 確立하는데 1次的의 도가 있었던 것이다.

-2) 産業間의 不均衡 深化 :

北韓은 내핍 생활에 의한 最大限의 蓄積과 軍需産業 爲主의 重工業 優先策을 強力히 推進함으로써 日常生活에 必要한 生活必需品 産業 즉 輕工業 部門을 輕視하여 왔다. 이같은 産業間의 不均衡은 北韓 住民의 生活를 犧牲시켰고 더욱이 「호프만」式 工業化 過程에 逆行하는 發展過程을 답습함으로써 生産性은 물론 全體 經濟成長率을 鈍化시켰던 것이다. 結果的으로 北韓의 經濟는 消費의 最大 抑制과 住民들에 대한 勞動強要에 의지하고 있다 해도 過言이 아닌 것이다.

-3) 國防·經濟 併進政策 :

經濟力 發展과 軍事力 強化를 併進한다는 政策은 1966年 10月 黨 代表者 會議에서 宣言되었고 全員 會議에서 決定 採擇된 以來 오늘에 이르고 있다. 北韓은 60年代 中半期の 共產圈 內部的 理論紛爭과 中·蘇紛爭의 격화에 따라 「國防에서의 自衛」를 提唱하고 同時에 「經濟發展을 一定하게 지연시키더라도 軍事力을 一層 強化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決議하고 國防建設과 經濟建設의 併進政策을 推進하여 왔다. 그 結果는 必然的으로 計劃經濟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住民들로 하여금 低水準의 生活維持를 強要당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4) 過重한 軍事費 負擔 :

北韓의 軍事費는 해마다 增加하여 70年度에 이르러서는 總歲出額의 約 31.4%에 달하였으며 이같은 額數는 同年 北韓의 G.N.P의 約 23%에 달하였다. 이를 1970年度 英國의 戰略問題研究所가 推計한 여타 共產諸國의 軍事費 負擔率과 比較해 볼 때, 蘇聯의 9.3%, 「체코슬로바키아」의 5.7%, 「東獨」의 5.7%, 「플렌드」의 4.8%, 「불가리아」의 2.9%, 「헝가리」의 2.9%에

比하여 훨씬 높은 比率인 것이다.

-5) 自給經濟政策 :

1966年 10月 勞動黨 代表者 會議에서 「社會主義 建設에서 가장 重要한 問題는 經濟的 自主性을 強化하는 것이며 自力更生の 原則에서 自主的 民族經濟를 建設하는 것이 黨의 일관된 路線이다」라고 宣傳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같은 自給經濟 路線은 첫째로, 「各國은 綜合的인 產業體系를 갖추어야 한다」는 소위 「스탈린」式的 「一國社會主義 體制」를 그대로 模倣한 것이며 둘째, 60年代 中半期를 前後하여 共產圈內에서 露骨化하기 始作한 理論上의 分裂과 中·蘇 紛爭의 激化에 따른 經濟協助 不振에서 緣由된 것이다.

-6) 封鎖經濟 體制 :

自給經濟 體制는 必然的으로 經濟體制를 封鎖化시켰고 結果的으로 새로운 資本의 導入과 技術革新의 蹉跌을 招來하여 勞動生産性을 더욱 減退시켰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最大의 弱點은 低水準의 勞動生産性이다. 그것은 이미 「레닌」탄생 100週年을 記念하기 위한 蘇聯邦 最高會議에서 「브레즈네프」 스스로가 承認하였거니와 이같은 事實은 오늘날의 蘇聯과 共產諸國이 直面하고 있는 經濟 沈滯의 原因으로서 蘇聯의 指導層까지도 「레닌」의 理念에 대한 再檢討를 不可避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연한 現實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勞動生産性이 낮은 것을 만회하는 手段으로서 「千里馬 運動」을 위시한 各種 社會主義 勞動競爭 運動을 展開함으로써 北韓 勞動者들의 勞動強度와 責任基準量을 增大시키려 하고 있을 뿐이다.

結論的으로 北韓의 自給經濟 體制는 以上の 理由에 따라 成長과 發展이 限界點에 다다르고 있어 水準 以下의 것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韓國의 自立 經濟 體制는 世界經濟 속에서의 自立을 目標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水準에서의 均衡과 發展을 維持할 수 있고 나아가 無限한 成長에로의 길이 트여 있는 것이다.

IV-3. 主要 部門別 現況

-1) 重工業:

重工業 分野에 있어서의 投資現況을 보면 7個年計劃 期間中에는 總投資의 46%가 重工業 分野에 投資된데 比하여 輕工業 分野에서는 11%, 農業 分野에는 20%가 投資되었고 6個年計劃 期間中에도 重工業 分野에는 40.7%이나 輕工業 分野와 農業 分野에는 各各 8.3%와 18%의 投資가 計劃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產業間의 극심한 不均衡으로 인해 住民의 生活이 犧牲 당하더라도 계속 重工業 優先主義로 나가겠다는 그들의 底意를 알 수 있다.

-2) 農 業:

現在 北韓에는 3千餘個의 協同農場과 180餘個의 소위 國營農牧場 그리고 이를 支援하는 農機械作業所가 있다. 1970年 現在 協同農場이 所有하고 있는 耕地는 全體의 94%에 이르고 있으며, 國營農牧場의 所有耕地는 나머지 6%로 되어 있다. 최근 現況을 살펴보면, 黨5次大會에서 強調한 것처럼 그들은 農業의 「四化運動」 즉 農業의 機械化, 水利化, 化學化 및 電氣化를 指向하고 있는 듯하나 軍備強化에 밀려 不振한 狀態에 있으며, 70年度의 食糧 生産 目標量은 600~770만톤이었으나 그것도 目標量의 71%인 500만톤 밖에 生産치 못했으며, 現在 北韓은 食糧不足을 解決하기 위하여 平野와 山間의 中間에 位置하는 山間地帶 農業을 開發하는데 置重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東歐 諸共產國家에서 集團農場制를 中斷 또는 解體하는 趨勢을 外面하고 農民들에게 아무리 革命的 熱意에 따른 生産力 增大를 호소한다 해도 農業의 發展은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3) 對外貿易:

北韓은 對外貿易에서도 政治와 經濟는 一致해야 한다는 社會主義 原理에 立脚하고 있다. 따라서 對外去來마저도 經濟計劃의 하나의 手段으로서 社會主義 建設이라는 그들의 窮極的 目標을 위한 道具로 利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對外貿易은 政治的 目的의 從屬物이며 保護主義에 徹底할 뿐 아니

라 原則的으로 國際分業을 拒否하는 性質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貿易의 現況을 살펴 보면 1971年度의 경우 輸出入總額이 겨우 8億4千萬弗 水準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額數는 같은 해 韓國의 37億4千萬弗에 比較하면 4分の1도 안되는 規模이다. 北韓 貿易의 相對國은 總輸出入의 81.7%가 對共產圈 貿易이며 그중 對蘇貿易이 차지하는 比率은 53% 對中共貿易이 18%에 머무르고, 지난 60年代의 10年間에 걸친 平均 輸出伸張率은 겨우 約 11%로써 같은 기간 韓國의 40%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4) 北韓 經濟의 沈滯相 :

北韓의 經濟成長 過程은 다음 3段階로 區分하여 볼 수 있다. 第1段階인 1953년부터 60년까지는 經濟成長이 比較的 순조롭게 進行되었던 時期로써 外國援助와 經濟成長이 比較的 원활하였으나 第2段階인 60年代는 構造的 矛盾과 外援의 不足으로 計劃에 커다란 蹉跌을 빚었고, 第3段階인 70年代는 各種 資源 技術이 限界에 到達해서 經濟成長이 沈滯一路에 있었던 것이다.

특히 60年代 以後의 經濟 沈滯의 原因은 「어-터키」型 基本路線을 그대로 固守하므로써 惹起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오늘날 北韓과 같이 制限된 資源을 가지고 있는 小規模의 經濟單位가 低水準의 「自給經濟 體制」를 固執하는 것은 經濟的 自害 行爲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自給 經濟를 포방한 封鎖經濟 體制는 北韓의 經濟發展을 鈍化시켰다는 事實이 이를 立證하는 것이다.

-5) 開放體制로의 變質不可避性 :

지난 71年 3月 西方世界에 公開된 「사하로프」의 書翰은 『앞으로 4~5年 以內에 果敢한 自由化 政策이 實現되지 않으면 蘇聯은 二流 國家로 轉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것은 蘇聯을 포함한 共產圈이 直面한 本質的 矛盾과 開放體制로의 轉換 不可避性을 指摘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共產圈內의 一般的 趨勢와 더불어 北韓은 現在 추진중인 「6個年 計劃」(1971~76) 遂行을 위하여 最近 日本의 大企業에 대한 發電機, 製造 「프렌트」 등 10억弗에 이르는 商談을 推進하고 있으며 覺書貿易의 形式을 통한 對日貿易을 70年代 中半까지 5億弗 水準으로 增大시키려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점차 西方世界 특히 獨逸, 英國 뿐만 아니라 英國 불만서 등에 資本과 技術의 協力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南北對話 以後 韓國經濟의 눈부신 發展相을 實感, 당황한 나머지 北韓 住民의 生活向上에도 關心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人民奉仕委員會」를 설치하고 박정철이 그 委員長에 就任하는 등 住民들의 不平不滿의 무마에 苦心하고 있는 實情인 것이다.

이와같은 事實들을 評價해 볼 때, 北韓 社會는 閉鎖體制로부터 開放體制로 서서히 轉換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그들의 基本路線의 變化는 合理主義 思想의 極頭를 가져올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教條主義의인 權力體制의 붕괴의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V. 北韓의 軍事戰略

V-1. 共產主義者들의 軍事思想

일찌기 獨逸의 軍事戰略 專門家 「카알·폰·클리우세비츠」는 『戰爭은 다른 手段으로 하는 政治의 계속에 不過하다』라고 主張하므로써 戰爭과 平和를 區分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思想은 그 후 「레닌」, 「스탈린」, 毛澤東 등에 의해 계승되었고 現在에도 共產主義者들로부터 높은 評價를 받고 있다.

「레닌」은 『資本主義 國家가 存在하는 限 帝國主義 戰爭은 不可避하다』는 것과 戰爭의 性格을 規定함에 있어서 『民族解放 戰爭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正義의 戰爭』이라는 그릇된 主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그릇된 理論을 모방한 金日成은 6·25南侵을 「祖國解放 戰爭」이니 「正義의 戰爭」이니 美化하면서 合理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銃口로부터 政權이 派生한다』는 毛澤東의 主張을 본받아 68年 2月 28日字 <祖國統一>이라는 新聞을 통해 金日成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武器를 들어야 政權을 잡을 수 있다. 政權을 잡으려면 武裝鬭爭을 해야 하며 선지늘음을 통해 가지고서는 政權을 잡을 수 없다. 모든 革命運動의 鬭爭形態들 가운데 가장 積極의이며 決定的인 鬭爭形態는 組織的인 暴力鬭爭, 武裝鬭爭, 民族解放 鬭爭인 것이다』라고

強調하였던 것이다.

이말은 革命의 方法이란 오직 暴力的 方法 以外의 다른 方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明白히 表示한 것이다. 한편 「체·게바라」는 『革命條件이 缺如된 狀態에서는 外部로부터 革命의 点火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根據하여 金日成은 中南美 및 「아프리카」地域에 「게릴라」를 輸出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韓國에도 武裝共匪의 南派를 통해 革命의 点火를 試圖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은 「레닌」, 「스탈린」의 「革命戰爭論」과 毛澤東의 「人民戰爭論」 그리고 「체·게바라」의 戰略을 模倣하면서 暴力에 의한 韓半島 赤化를 實現시켜 보려고 하고 있다 하겠다.

V-2. 軍事戰略

-1) 目 標 :

北韓의 軍事戰略의 目標은 소위 人民民主主義 革命理論에 根據를 두고 있다. 즉 韓國에 우선 共產地下勢力을 扶植시켜 全韓半島를 共產化 하겠다는 것이다.

金日成은 5次 黨大會에서 『南韓 人民들은 自己들의 革命鬭爭에서 외롭지 않으며 北韓에 強力한 革命基地를 가지고 있다. 北韓 人民들은 같은 民族으로서 南韓 人民들의 革命鬭爭을 積極 支援할 責任이 있다』고 強調하므로서 韓國의 赤化를 위한 北韓의 支援이 그들의 責任이라는 것을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韓國의 共產化를 위해 北韓의 支援이 要請되는 것처럼 假裝 宣傳하므로서 各種 形態의 武力挑發을 合理化시키고 나아가 大韓民國의 政權을 탈취하겠다는 것으로 評價된다.

-2) 內 容 :

① 소위 「革命的 決定的 時期」가 造成되기 前에는 이를 위한 「積極的 防禦概念」下의 持久戰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의 軍事力이 韓國을 능가하도록 軍事力 增強을 꾀하는 한편 韓國의 社會秩序를 混亂시켜 우리의 國力을 弱화시키고 나아가 人爲的으로 「決定的 時期」를 造成하려는 戰略의 概念인 것이다.

② 「決定的 時期」가 到來한 後에는 速戰速決 戰略이라 할 수 있다. 소위 正規戰과 「기린라」戰인 非正規戰을 包含하고 「韓國軍 背後的 第2戰線 形成」을 통한 短期速決戰에 의하여 우리 友邦軍의 支援이 미치기 前에 韓半島 赤化를 既定事實化 시키려는 戰略인 것이다.

V-3. 北韓 共產軍의 性格

① 「人民軍」은 소위 「革命傳統의 繼承者」로서 革命의 道具라는 点이다. 1968年 2月 北韓 共產軍 創建 20週年 記念式에서 金日成과 金昌奉은 『人民軍은 人民의 榮光스러운 抗日 武裝鬭爭의 直接的 繼承者로서 革命傳統을 全面的으로 繼承하였다』고 強調하여 「人民軍」은 韓國革命의 道具임을 밝힌 바 있다.

② 北韓 共產軍은 黨의 手足인 것이다. 1961年 9月 18日 北韓 勞動黨 第4次 黨大會에서 採擇된 規約 第66條에서 「人民軍」은 勞動黨의 軍隊임을 明示하고 있는 것이다.

③ 北韓 共產軍은 金日成의 私兵이다. 73年 2月 8日 共產軍 創建 25週年 記念式에서 北韓軍의 總參謀長인 오진우는 『人民軍은 黨의 軍隊이며 勞動階級의 軍隊로서 金日成의 敎示와 命令을 끝까지 貫徹할 任務를 띠고 있다』고 強調하므로써 人民軍은 一個人으로서의 金日成의 軍隊인양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진대 北韓 共產軍은 명칭이야 어떻든 간에 外部의 侵略으로부터 領土를 防衛하는 것이 아니라 金日成 唯一思想을 實現하고 나아가 勞動黨의 侵略의 戰略을 實踐하는 武裝力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評價된다.

V-4. 軍事力 強化와 戰爭準備 狀況

-1) 4大 軍事路線 :

1962年 12月 勞動黨 第4期 5次 全員會議에서 채택된 소위 4大 軍事路線 推進現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全人民의 武裝化」는 金日成이 『모든 住民이 다 총을 쏠줄 알며 총을

메고 있게 되었다』고 호언하듯이 현재 北韓은 戰爭에 즉각 動員할 수 있는 兵力이 正規軍 45萬, 勞農赤衛隊 150萬, 붉은青年 近衛隊 70萬, 도합 265萬으로서 全人口의 무려 20%에 달하고 있다. 이는 世界各國의 戰時 動員兵力이 通常人口의 10%가 常例인 點에 비추어 볼때 실로 엄청난 數字인 것이다. 그것으로도 不足하여 軍事訓練을 生活化시킴으로서 全 北韓 住民을 戰鬥兵化 시키고 있다.

② 北韓「全地域의 要塞化」는 金日成이 말한대로 全地域에 철옹성 같은 방위시설을 쌓아 놓았으며 重要的 施設들까지 地下에 들어가게 된 實情이다.

③ 「軍裝備의 現代化」에 있어서도 그동안 「섬, 「AS미사일」 등 現代的 戰鬥機材와 裝備를 갖추고 있다.

④ 「軍의 幹部化」問題에 있어서는 『모든 將兵이 한 等級 높은 部隊를 指揮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게 되었다』고 金日成이 장담한 바와 같이 5次 黨大會를 前後하여 이미 4大 軍事路線의 目標가 거의 整備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2) 國防費 支出狀況 :

北韓이 發表한 歲出豫算에 의하면 60年代의 경우 國防費는 總歲出額의 30%를 上廻한 31億弗에 달하며 이는 同 期間 産業部門에 投資된 基本建設費 34億弗과 거의 같은 水準이었으며, 1971年度에는 8億4千6百萬弗로서 같은 해 韓國 國防費의 2倍 以上이나 되는 規模이다.

한편 72年度와 73年度에는 各各 總歲出額의 17%와 15%로 國防費를 過少 策定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이는 豫算編成 技術上의 問題로서 國防費를 他 項目에 은폐시켜 南北對話와 關聯하여 平和攻勢를 펴기 위한 一種의 위장 술책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日本의 有力한 北韓關係 研究機關은 「北韓의 軍事力이 삭감 되지 않은 채 國防費 삭감은 不可能한 것이며 軍事費는 實質的으로 줄지 않았고 兵器 生産費는 人民經濟費로, 軍事研究 및 軍教育費는 社會文化費로, 人民武力部 關係費用은 國家管理費로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3) 軍需産業 :

北韓은 現在 20餘個의 兵器工場과 40餘個의 分工場에서 일체의 個人火器는 물론, 박격포 등 一部 共用火器와 各種 實彈, 砲彈, 手榴彈, 地雷, 火藥 등을 自體 生産하고 있으며 또한 20餘個의 特級 및 一級工場들은 短時間內에 戰時體制로 轉換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即 岐陽과 江界에 있는 「트렉타」工場은 有事時 戰車 生産工場으로, 大型機械 生産工場은 大砲 生産工場으로 轉換시킬 수 있는 措置가 完了되었다는 것이다.

現在 北韓의 兵器工場 가운데 規模가 가장 큰 것은 從業員數만도 約 1萬 2千名에 달하며 年間AK 自動小銃의 生産能力만도 10萬정에 달한다. 따라서 그들은 飛行機를 除外한 在來式의 兵器를 自體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고 있는 것이다.

-4) 最近 動向 :

地上軍의 動向을 보면 從來의 26個師團에서 28個師團으로 2個師團을 增設하였으며 특히 前線 3個集團軍에 蘇製 AF-1 對戰車 유도탄 部隊를 新設하였다. 海軍에 있어서는 O.S.A級 유도 경비정 등 大型艦艇을 追加 導入했는가 하면 空軍의 경우에는 各種 戰鬪機種을 廣範하게 配置시키므로써 航空機의 攻撃能力을 더욱 높였고 72年度에는 SU-7戰鬪機 2台, MIG8-「헬리콥터」5台, 기타 MIG-19 戰鬪機 등 新型航空機 多數를 導入하여 戰鬪力 強化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5) 僞裝平和 攻勢 :

北韓은 以上과 같이 軍機構의 增改編은 물론 新裝備를 大量導入하면서도 겉으로는 僞裝平和 攻勢를 펴고 있다. 그 內容을 보면 外軍撤收와 雙方 10萬 以下로 兵力減縮 그리고 平和協定 締結 등의 主張을 하고 있다. 그 底意는 對外的으로 그들의 對南侵略 政策과 好戰性을 은폐하여 마치 緊張緩和와 平和指向의인 國際潮流에 副應하는 듯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國際적인 支持 내지는 同調勢力을 확보하여 北韓의 地位를 높이려는 것이다. 한편 韓國에 대해서는 總力安保 態勢를 弱화시키고 韓國民의 對共警戒心을 해이시키며 國論을 分裂시켜 韓國에 대한 힘의 極少化를 꾀하려는 底意인 것으로

評價된다.

-6) 過大評價는 禁物:

그러나 北韓이 만반의 戰爭準備를 完了해 놓고 이른바 決定的 時期가 到來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해서 우리는 北韓을 過大評價하여 두려워할 必要는 없다. 戰爭의 勝敗는 武裝한 軍人에 의해서 左右될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國力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英國의 國際戰略問題研究所 發表에 依據하여 韓國과 北韓의 71年度 G.N.P를 對比하여 보면 韓國은 81億佛인데 反하여 北韓은 38億佛에 불과하다. 이를 볼때 北韓의 G.N.P는 韓國의 半도 되지 못하므로 韓國은 北韓의 2倍以上의 힘이 있다는 結論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第 3 章 共産主義의 戰略・戰術

共産主義의 僞裝性과 欺瞞性이 어떠한가를 이해하고 이에 對處키 위해서 마련한 本章은 그 細部目標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였다.

첫째, 共産主義의 戰略과 戰術의 形態를 理解하고 그 底意가 世界赤化와는 어떠한 關係에 있는가를 알게 한다.

둘째, 共産主義의 戰略・戰術에 基礎한 宣傳 煽動을 批判하고 이에 對處할 수 있는 態度를 기른다.

以上の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本章의 內容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戰略戰術은 共産化의 手段으로 活用되고 있다는 事實에 기초하여 戰略의 概念과 類型을 考察하였고,

둘째, 戰略에 기초한 戰術의 概念과 類型을 살펴 보았으며

끝으로 北韓의 戰略・戰術에 관한 概要를 살펴 보았는데, 이는 前述한 第 2 章에서 詳述하였으므로 이와 관련시켜 그 內容을 把握함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本章에서 留意하여야 할 事項은 共産主義가 理論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實踐을 前提로 한 것이기 때문에 戰略・戰術은 그 對象地域의 條件에 따라 各樣各색이라는 點을 強調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는 共産主義者와 대치하고 있다는 事實을 감안하여 北韓共産主義者들의 戰略・戰術의 援用事項과 그 展開方向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南北對話가 展開되고 있다 해서 北韓의 戰略이 變質된 것이 아니라는 事實과 變化된 것은 다만 戰術에 약간의 差異가 있다는 점을 실례를 중심으로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I. 戰略·戰術의 概念

I-1. 革命戰略

-1) 革命戰略의 概念은 革命의 對象 즉 打倒對象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革命의 主力軍과 同調勢力을 어떻게 형성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革命戰略의 概念은 「러시아」의 「볼셰비키」 革命을 모델로 차낸 것으로 各國 또는 各 社會의 社會的 및 歷史的 조건에 따라 特異性이 있는 것이다.

-2) 革命 戰略에 있어서 보편적인 원칙은 어떤 사회이든 革命의 과제가 무엇이든 노동계급이 革命의 主力軍이 된다는 것이다. 中共에 있어서는 毛澤東이 지도하는 公산당을 中共革命에서 主動勢力으로 보았다. 이것은 「레닌」 「스탈린」의 革命戰略 理論에 어긋난 것으로 蘇聯과 中共사이에 논쟁의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레닌」 「스탈린」의 理論에 의하면 勞動階級이 革命의 主力軍이며 농민은 노동계급의 동맹자에 지나지 않았다.

-3) 어떻게 현재 資本主義의 發達로 보아 대다수의 노동계급 또는 농민이 資本主義를 폐지하고 社會主義를 指向하는 革命을 원하고 있는 징후는 찾아볼 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노동계급 또는 노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이 革命의 主動勢力이라는 命題에 기초를 둔 革命戰略 理論은 虛構的이라고 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公산당의 革命戰略의 구현을 위한 組織과 宣傳은 교묘하고 교활함으로 이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호 과적인 대비책이 요청되는 것이다.

I-2. 戰 術

-1) 戰術은 戰略目標을 달성하기 위해 정세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바꾸어진다. 戰術 역시 「러시아」 「볼셰비키」 革命의 戰術이 「모델」로 되고, 여기에 各國의 相異한 조건에 따라 特異點이 가미되고 있다.

-2) 戰術은 그 實施의 次元에서 革命運動 昂揚期의 戰術과 革命運動 退 變期의 戰術로 區分되고 있다. 革命運動 昂揚期의 戰術은 革命組織과 力量

을 革命高地의 頂峰에 적극적으로 동원시키는 것으로, 罷業 示威로부터 武裝暴動에 이르기까지 모든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革命運動 退潮期의 戰術은 革命組織과 力量을 되도록 표면에 노출시키지 않고 革命力量의 保存과 蓄積에 注力함으로써 革命運動 昂揚期에 對備하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다.

-3) 革命戰術은 虛構의인 革命戰略 理論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만큼 공산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객관적인 사회운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모략과 기만에 입각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革命戰術은 戰略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虛點 및 脆弱點을 착안하고 구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는 동시에 戰術 展開의 현실적 素地를 제거해야 한다.

II. 戰略의 類型

II-1. 「프롤레타리아」革命 戰略

-1) 革命戰略은 革命의 主敵과 革命의 主動勢力이 문제인 만큼, 革命의 성격 즉 그것이 「프롤레타리아」革命이나 혹은 「人民民主主義 革命」이냐에 따라 상이하다. 「프롤레타리아」革命은 「러시아」의 「볼셰비키」革命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는 主敵이 例外없이 자본가 계급이고 革命의 主動勢力은 노동 계급과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勞農同盟이다. 中國共產黨 革命에서 농민을 革命의 主動勢力으로 본 것은 「레닌」 「스탈린」의 革命 理論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特例인 것이다.

-2) 「프롤레타리아」革命 戰略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계급이라고 하는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을 극단적으로 대립시키고 있어서 中間勢力의 지위는 비교적 경시되고 있다. 한편 해당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발전 및 역사적 조건과 계급 구성에 따라 어떤 사회 계층을 同調勢力으로 끌어들이고 또 어떤 사회계층을 中立시킬 것인가 하는 戰略計劃은 다소간 特異點을 가지고 있다.

-3) 그러나 「프롤레타리아」革命의 戰略理論은 오늘날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主義 理論에 따른다면 응당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전박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어야 할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革命의 정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II-2.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

-1) 「人民民主主義 革命」은 자본주의의 소멸을 直接的 解決課題로 삼는 것이 아니라 共産黨 執權에 질을 여는 政治的, 社會的 條件의 확보를 그 기본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 革命 戰略과 다르다. 그러나 「人民民主主義 革命」에 있어서도 노동계급이 革命運動의 주동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프롤레타리아」 革命과 같다. 革命의 대상은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및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各異하나 階級革命의 개념이 여기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 「人民民主主義 革命」의 類型: 이 類型의 「모델 케이스」로 東歐諸國의 공산화 과정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의 戰略은 아직 大衆의 基盤이 미약한 공산당이 사회민주주의 및 반「파시즘」정당과 제휴하여 공산화에 장애가 되는 자본주의 세력, 보수세력 및 地主와 西歐의 민주주의 세력을 除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東歐諸國의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은 사회 발전법칙을 밝혔다는 공산주의 이론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蘇聯 占領軍의 비호에 따른 물리적 세력관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어쨌든 東歐諸國의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은 공산당이 背信하지 않으리라는 환상을 가진 지각 없는 민주주의 정당과 그 정치세력에게는 주요한 경종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역사적 교훈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3)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은 特異성이 있으나 이는 中共의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中共은 폭넓은 民主, 民族政黨 및 政派와 제휴하여 國民黨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으며 집권후에 있어서도 소위 사회주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 민주정파와 동의할 수 있는 共同綱領을 내놓고 그들과 제휴하였다. 그러나 中共의 경우에도 그 전략은 기만적이고 정권의 획득 및 公교화의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4) 한편 해방후 北韓 共產黨도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을 援用하여 「民主主義 民族統一 戰線」 등의 이름으로 민주, 민족주의 세력과의 제휴로 공산당정권의 기반구축을 꾀하였다.

III. 戰術의 形態

III-1. 統一戰線 戰術

-1) 統一戰線 戰術은 공산당이 革命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 민족주의 세력 등 비공산주의 세력과 제휴하는 전술이다. 統一戰線은 革命戰略의 일환으로써 그 戰術은 지극히 중요시 되고 있다. 共產黨의 最高 政治綱領은 공산주의의 실현인 만큼 여기서는 統一戰線이 게재할 여지가 없으나, 社會主義 革命과 또한 人民民主主義 革命에 있어서 革命의 主敵을 반대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 있는 비공산주의 세력과 제휴하기 위해 統一戰線 戰術이 적용된다.

특히 공산당은 그가 指向하는 革命의 과제에 전면적으로 同意할 수 있는 사회계층은 물론, 部分的인 共通利害關係를 같이하는 사회세력과도 提携하려고 한다.

-2) 統一戰線의 原則은 共產黨과 提携하는 政黨 또는 政派의 獨立性을 살리는 반면, 어떠한 경우에도 共產黨의 原則의 立場은 고수된다는데 있다. 특히 統一戰線 戰術은 東歐諸國의 공산화 과정에서 주효하였고, 한편 統一戰線 戰術은 國際共產主義 運動에서도 중요시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30년대의 反「파시즘」人民戰線은 統一戰線의 理論에 입각한 것이었으며 오늘날 공산당이 사회민주주의 정당과도 특징의 「투쟁과제」에서 제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그 주요한 사실의 하나이다.

III-2. 上層 統一戰線과 下層 統一戰線

이는 統一戰線의 상대방이 정당 또는 사회단체의 지도부냐 그렇지 않으면 정당 사회단체의 일반 구성원 혹은 대중이나에 따른 구분이다. 즉 前者를

上層 統一戰線 後者를 下層 統一戰線이라고 부른다.

共產黨은 兩者가운데 下層 統一戰線을 기본으로 하고 보다 중요시한다. 共產黨과 統一戰線을 형성하는 정당, 사회단체의 지도부는 共產黨을 배신할 가능성이 비교적 큰데 대해서 하층 대중은 소위 비판과 교양으로 革命的 基本 勢力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III-3. 各種 鬭爭形態

1) 革命運動은 소극적 형태의 투쟁으로부터 적극적 형태의 투쟁에 이르기까지 戰略·戰術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투쟁형태를 보면 怠業, 罷業, 示威 등의 經濟的 鬭爭과 反政府의 성격을 띤 政治的 鬭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다시 法의 테두리안에서의 투쟁이냐에 따라 合法鬭爭과 非合法鬭爭으로 구별되고 또한 투쟁방법에 따라 非暴力鬭爭과 暴力鬭爭으로 나누어진다. 그중 暴力鬭爭의 최고형태를 武裝 鬭爭이라고 한다.

2) 공산당이 조직하고 선동하는 각종 투쟁가운데 정치적 요구를 내건 政治的 鬭爭은 소위 革命情勢가 성숙되고 있을 때 제기되며 經濟的 鬭爭은 주로 노동자들의 소위 革命性 提高와 革命勢力 擴張에 活用된다.

이밖에도 議會鬭爭을 들 수 있다. 이는 議會에 선출된 공산당 소속 의원들이 공산당을 대표하여 여러가지 정치적 요구를 하며, 그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투쟁이다.

IV. 北韓의 戰略·戰術

IV-1. 赤化統一의 戰略·戰術

1) 北韓은 統一問題를 革命的 問題로 斷定하고 南韓에서 소위 「人民民主主義 革命」이 수행되어야 積極的 革命(統一)이 수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北韓은 韓半島 革命的 성격을 「反帝, 反封建 民主主義 革命」이라고 밝히고 革命的 主敵으로 韓美의 協力 및 共同防衛關係를 設定하고 있다. 그들은 革

命의 추진세력으로 노동계급과 농민을 主力軍으로 보고 中小資産層, 學生, 知識層 및 一部 民族資本家까지 革命의 협조세력에 끌어들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北韓은 이를 위하여 지하 공산당을 조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많은 간첩을 남파하였던 것이다.

-2) 北韓은 反美, 反政府 勢力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요소를 이용하려 한다. 즉 反共의인 勢力이라도 反美的 要素가 있으면 그와 제휴하려고 하며 또한 보수적 정치세력이라도 반정부적일 때는 統一戰線을 형성하려고 꾀하는 것이다.

-3) 北韓은 韓國의 共產化가 오직 暴力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革命戰術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은 韓國의 정세를 소위 革命의 退潮期로 보고 地下革命力量의 보존과 축적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 무장간첩 및 「게릴라」의 남파로, 革命의 昂揚期 時代를 조성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그들이 革命의 鬭爭形態로서 政治鬭爭과 經濟鬭爭, 合法鬭爭과 非法鬭爭 및 半合法鬭爭, 暴力鬭爭과 非暴力鬭爭을 配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革命의 萎縮期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IV-2. 革命의 手段

-1) 北韓은 「南朝鮮革命」의 주체는 남한내의 革命力量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군사력을 革命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며, 이것은 6·25南侵의 역사적 사실이 시사해 주고 있다.

-2) 또한 北韓이 「게릴라」전을 對南革命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는 사실은 1960년대에 시도한 일련의 「게릴라」隊의 남파가 말해 주고 있다. 정세의 변동에 따라 「게릴라」전의 비중을 높게 또는 낮게 잡을 뿐이다. 한편 「게릴라」전의 시도가 戰爭勃發의 誘因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北韓의 對南 「게릴라」전이 大韓民國에게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그에 대한 보복을 가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보복과 보복의 악순환으로 전쟁으로까지 발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3) 北韓은 革命의 手段으로 物理的인 것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데올로기」 및 思想宣傳도 아울러 병행하고 있다. 南北對話 및 接觸의 時代에서는 對南革命의 수단과 방법이 가능한 모든 여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보다 多樣하게 전개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의 각별한 경계와 대비가 요청되는 것이다.

第 4 部

南北關係와 統一問題

目 標

1. 祖國分斷의 由來와 南北間의 對立關係 理解
2. 對話를 통한 南北接觸의 性格과 政府의 統一政策 理解
3. 統一問題 解決의 主導的 役割 遂行을 위한 課業에의 支援 姿勢 確立
4. 올바른 祖國 統一觀의 定立

內容概要

| 題 目 | 內 容 | 強 調 點 |
|--|--|---|
| I. 祖國分斷과 南北關係의 變遷 1. 祖國分斷의 悲劇 2. 南北韓의 政治理念과 體制 3. 우리의 統一努力과 北韓의 挑戰 | • 祖國分斷의 背景, 祖國分斷의 人爲性 • 異質의 政治理念과 體制 • 우리의 統一努力, 6·25動亂의 悲劇, 北韓의 繼續的 挑戰 | • 祖國分斷의 他律性과 北韓의 妨害로 統一遲延 |
| II. 祖國統一의 要請과 要件 1. 祖國統一의 要請 2. 祖國統一의 要件 | • 民族史의 要請, 人道的 要請, 國家發展의 要請, 國際政治의 要請 • 民族國家 同一體意識, 民主力量, 社會正義의 高揚, 國力培養 | • 統一의 必要와 統一의 與件 |
| III. 統一原則과 南北의 統一政策 1. 南北對話의 理論의 背景 2. 南北 共同聲明의 背景과 統一原則 3. 南北韓의 統一目標 및 政策의 對立 | • 對話의 效果判斷, 期待值, 目標 • 共同聲明의 背景, 統一原則, 7·4共同聲明 合意事項 • 우리의 統一目標, 北韓의 統一戰略, 南北對話의 問題點 | • 南北對話 推進의 原理와 우리의 接近方法의 妥當性 • 北韓의 偽裝平和 攻勢와 그 底意 |
| IV. 南北關係 發展의 方向과 展望 1. 南北關係 發展의 方向 2. 南北間의 競爭과 韓國의 安全保障 3. 南北關係의 展望과 韓國의 役割 | • 南北間의 理解와 信賴의 增進 • 民族의 同質性의 回復 • 南北間 競爭의 不可避性, 安保, 國際協力 • 統一問題解決의 長期性, 우리의 主導, 6·23宣言, 「南北聯邦制」와 「大民族會議」의 虛構性 | • 統一問題 解決過程에 있어 國力培養과 國民總和의 團結의 重要性 |

序 說

四半世紀동안 完全 杜絕狀態에 놓였던 南北關係가 歷史的인 7·4共同聲明으로 對話를 통한 接觸이 本格化되었다. 7·4共同聲明이 發表되자 民族의 念願이었던 祖國統一이 단시일내 이루어지리라는 期待感에 환성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막상 南北接觸이 試圖되는 過程에 國民은 統一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를 갖게 되어 환상적, 회의적, 낙관적 견해들이 엇갈리게 되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南北關係와 南北의 相異한 統一目標과 政策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南北關係와 統一問題 解決을 위한 課題를 올바르게 理解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要請에 호응하여 本部가 의도하는 것은 祖國分斷의 由來와 南北間의 누적된 對立關係를 理解하고 雙方이 주도하는 南北接觸의 性格과 統一問題를 바르게 이해하여 善意의 競爭을 통한 統一問題 解決의 主導的 役割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課題를 理解함으로써 올바른 統一觀을 갖게 하는 데 있다. 이러한 本部의 의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具體的 目標을 설정하였다.

첫째, 祖國分斷의 由來와 理念 및 體制를 달리하는 南北對立의 性格을 理解하고 北韓의 계속적 挑戰을 克服하기 위한 課題가 무엇인가를 인식케 한다.

둘째, 祖國統一의 要請과 要件을 이해함으로써 國民의 健全한 統一觀을 樹立케 한다.

세째, 南北間의 相異한 統一政策과 7·4南北共同聲明의 意義 및 統一原則을 이해하여 對話를 통한 南北接觸過程과 展望에 대한 健全한 인식을 갖게 한다.

네째, 南北關係 發展의 方向과 展望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國力培養단이 統一問題 解決의 主導的 役割을 掌握할 수 있음을 認識시켜 이를 위한 課業遂行에 積極 參與하는 姿勢와 意慾을 고취시킨다.

이상과 같은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本部가 取扱하는 教授內容이 선정되고 이 內容들을 다시 네개의 章으로 組織하였다.

第1章, 祖國分斷과 南北關係의 變遷에서는 祖國分斷의 背景으로 國際史的 考察을 하였으며 동시에 南北間의 異質의 理念과 體制를 分析 評價하고, 北韓의 계속적인 挑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統一努力은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第2章, 祖國統一의 要請과 要件에서는 먼저 要請으로 民族史的, 人道的, 國家發展의 그리고 國際政治的 側面으로 나누어 說明하고 統一의 要件으로는 民族國家 同一

體意識, 民主力量, 社會正義, 國力培養 등의 네가지 要件을 提示하였으며 이상의 要件의 充足을 위한 國民의 努力의 重要性을 지적하였다.

第3章, 統一原則과 南北의 統一政策에서는 南北對話 推進의 理論的 模型을 提示하고 이에 根據하여 7·4共同聲明의 背景, 內容, 意義 등을 分析하면서 우리의 統一目標과 政策의 正當性을 提示했다.

그리고 마지막 章인 南北關係發展의 方向과 展望에서는 段階的인 接近方法의 方向을 提示하면서, 統一問題 解決의 長期化의 不可避性을 지적하였고 그리고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우리의 主導的 役割遂行에 國民의 總和的 團結과 努力이 절대 必要함을 強調하는 한편, 北韓이 우리 6·23 宣言以後 主張해 온 「南北聯邦制」와 「大民族會議」의 虛構性을 指摘하였다.

第 1 章 祖國의 分斷과 南北關係의 變遷

祖國의 分斷은 우리民族의 意思에서가 아니라 他律的인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他律的 힘에 의하여 祖國이 分斷되었으며 分斷된 이래 어떠한 狀態로 進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젊은 世代는 적으리라 짐작된다. 祖國分斷의 由來와 分斷된 후의 南北關係를 정확히 理解하는 것은 祖國統一을 成就하기 위한 南北接觸의 過程과 그 展望을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이며 統一課業 遂行에 必要한 課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本章은 다음과 같은 目標을 설정하였다.

첫째, 祖國分斷의 國際史的 背景과 他律性을 理解하고

둘째, 南北間의 理念 및 體制의 性格과 차이를 理解하여 우리의 理念과 體制의 優越性을 認識하며

셋째, 北韓의 挑戰性과 그의 克服을 위한 課題를 理解한다. 以上の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本章의 內容을 다음과 같이 組織하였다.

첫째, 1945年을 前後한 國際情勢와 韓半島 分斷의 經위를 整理하였고

둘째, 南北의 政治理念 및 體制를 比較하였으며

셋째, 韓國의 政府 樹立後 統一을 위한 努力과 北韓의 挑戰樣相을 시대별로 整理하였다.

특히 本章을 취급함에 있어서 留意할 點은 ;

첫째, 大戰 終戰後의 國際勢力 關係가 韓半島에 어떻게 作用하였는가를 檢討함과 아울러 當時 소련의 戰略을 詳細히 說明하여야 한다.

둘째, 南北分斷이 他律的이었다는 事實을 밝혀야 하며 그것이 國內 問題와도 어떠한 關聯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國際情勢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國民의 態度的 重要性을 力說하여야 한다.

셋째, 南北의 分斷은 體制의 異質化를 招來하였고 體制의 異質化는 統一의 阻害要素임을 強調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理念과 體制의 比較를 통한 大韓民國의 優越性이 被教育者로 하여금 確信되도록 하여야 한다.

190 南北關係의 統一問題

네째, 우리의 統一을 위한 努力이 政府樹立 당시로 부터 계속되었다는 事實을 例擧 하므로써 北韓이 統一을 妨害하였다는 것을 實證시킬 必要가 있다. 이는 南北對話以後 北韓이 그들만이 統一努力을 한 양 宣傳하는 것이 虛偽라는 事實을 確信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너무나도 명확한 6·25 南侵을 北侵이라고 생트짐을 잡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의 虛偽 宣傳事實을 생생한 資料를 통해 立證시켜야 한다.

I. 祖國分斷의 悲劇

I-1. 祖國分斷의 背景

-1) 分斷論議의 始初 :

韓半島의 分斷은 꼭 오랜 동안의 國際權力의 政治의 背景을 가지고 있다. 일찌기 1895年 8月 駐韓 日本公使이며 犯關弒候의 元凶인 「三浦梧樓」는 對 「러시아」 國交 調整案으로서 韓半島의 勢力圈 分割을 提議한 바 있었고, 1896年 5月에는 「山縣有朋」이 38度線에 의한 韓半島 分割을 「러시아」 外相 「로바노프」에게 提議하였으나 拒否된 일이 있었다. 그리고 日露戰爭 直前인 1904年 에는 「러시아」가 39度線에 의한 分割管理를 日本에 提議한 바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韓半島는 그 地政學의 位置때문에 大陸勢力의 東進 또는 南下를 위한 발판이 되어왔고, 海洋勢力의 大陸進出을 위한 橋梁의 役割을 맡게 되어 周邊 強大國들의 勢力角逐場 내지 鬭爭場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2) 國土의 分斷 :

第2次大戰이 끝날무렵인 1945年 2月 美·英·蘇 3大國은 「알타」에서 會談을 갖고 蘇聯의 對日 參戰과 戰後處理에 관하여 協議한 바 있었는데, 당시 蘇聯은 이 會談에서 韓國을 包含한 極東에 있어서의 舊領土 勢力範圍 및 諸利權의 回復을 確約받음으로써, 帝政「러시아」때부터의 傳統的인 南下政策을 굳히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國土를 兩斷시키는 原因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蘇聯은 이미 帝政「러시아」 당시 日本과의 勢力均衡을 위해 잠시나마 38線을 境界로 勢力均衡線으로 정한 일이 있었거니와 「알타」會談에서도 38線을 主張했던 것은 對韓國 南下政策을 目標로 하는 蘇聯의 傳統的인 極東政策을 具現하는데 뜻을 두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韓半島에서의 어느 한 強大國에 의한 主導權을 主張할 수 없다는 態度를 취한 戰時 聯合國의 利害關係와 結付되어 우리 民族의 運命을 다시금 列強 國際權力政治의 犧牲物로 만들고 말았다.

1945年 8月 15日자로 太平洋聯合軍 最高司令官 「맥아더」將軍에게 傳達

公布시킨 「一般命令 第1號」는 韓半島 38度線 以南의 日本軍은 美軍에게 그리고 그 以北의 日本軍은 蘇聯軍에게 降伏하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이 文書야말로 韓半島의 分割을 招來한 公文書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것이 軍事作戰上의 必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아무런 政治的 考慮가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戰時 聯合國會談 특히 「카이로」會談 및 「알타」會談에서의 어떤 公約을 履行한 一環이었던 것인지는 分明하지 않다. 이에 관한 公文書는 아직 未發表인 채 38線 分割占領을 둘러싼 論議는 거듭되고 있다.

3) 蘇聯의 分斷 固執 :

38線을 分界로한 美蘇 兩軍의 進駐는 韓半島에 두개의 軍政을 結果했고, 暫定的이기를 바랐던 38線은 始初부터 軍事的 考慮 이상의 複雜性을 띠면서 마침내 單一民族의 統一을 沮害하는 障壁으로 되었으며, 時間이 지남에 따라서 사실상 하나의 政治的 分界線으로 굳어가고 말았다. 이러한 事態를 是正하기 위해 美軍 司令官은 北韓의 蘇聯軍 司令官에게 協商을 提議했으나 이 提議에 대한 蘇聯軍 司令官의 非妥協의 態度에 直面하여 韓國 獨立問題를 보다 高位層에서 取扱할 것을 美國 政府에 建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建議에 따라 45年 12月 美·英·蘇의 「모스크바」 外相會談가 열렸고 여기에서 合意된 「모스크바」協定에 의거하여 美·蘇共同會議와 美·蘇共同委員會가 서울에서 열렸다. 美·蘇 共同委員會는 46年 3月과 47年 5月에 2회의 會談을 가졌으나 蘇聯이 臨時政府 樹立에 관한 協議對象에서 信託統治를 反對하는 政黨과 社會團體를 除外하자는 主張을 固執함으로써 아무런 成果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狀態에서 韓國問題 解決의 어려움을 안 美國은 47年 8月 再次 「모스크바」會談 開催를 提議했으나 蘇聯의 拒否로 挫折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蘇聯이 줄곧 非妥協의이고 破壞的으로 나온 것은 설사 共產黨을 包含한 聯邦統一政府가 樹立된다고 하더라도 워낙 韓國의 反共勢力이 강해 早速한 全韓國赤化가 어려우므로 당분간 南北韓의 分斷狀態를 維持하여 우선 以北에 「革命基地」를 強化하고 南侵을 위한 實力을 培養함이 좋다고 判斷하였기 때문이다. 「모스크바」協定の 테두리 안에서 蘇聯과 더 이상 直接 交涉하는 것이 無意味함을 認識한 美國은 47年 9月 17日 韓國 獨立問題를 「유

엔」에 上程하였는데, 이로 해서 韓國問題가 「유엔」과 인연을 맺는 契機가 되었다. 蘇聯은 韓國獨立問題의 「유엔」 上程을 「모스크바」協定 違反이라고 하여 反對하였다.

-4) 政府樹立:

「유엔」總會는 47年 11月 4日 韓國獨立의 節次를 規定하는 美國의 決議案을 採擇하여 「유엔 韓國臨時委員會」를 設置하고 同 委員會으로 하여금 統一, 獨立, 民主의 韓國政府 樹立을 위한 南北韓 自由選舉를 실시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취하도록 委任하였다. 「유엔 韓國臨時委員會」은 蘇聯의 協力拒否와 38線 以北에의 入北拒絕에 부딪혔으나, 「유엔」小總會는 48年 2月 26日 全韓國을 통한 選舉監視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委員會이 接近可能한 南韓에서만이라도 選舉監視에 임해야 한다는 決議를 하였다. 이리하여 5·10選舉를 치루어 48年 8月 15日에 드디어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되고 우리 政府는 「유엔」決議에 의해 樹立된 正統政府이며 韓半島에서의 唯一 合法政府로서 承認을 받은 것이다.

한편 蘇聯軍政下의 北韓에서는 46年 2月 金日成 一派에 의해 사실상 共產政權인 「北朝鮮 人民委員會」가 組織되었고 47年 11月 蘇聯軍 當局에 의해 「憲法起草委員會」가 任命되었으며 48年 9月 9日 金日成의 共產政權이 樹立되었다. 그 후 蘇聯은 南韓을 侵攻하면 쉽게 赤化시킬 수 있으리라는 誤算으로 北韓으로 하여금 南侵을 敢行케 하였다. 예상대로 大韓民國은 軍備가 없었고 共產軍은 서울을 거쳐 쉽게 南下하였으나 「유엔」은 合法的 節次에 따라 우리 政府를 支援하고 「유엔」軍을 派遣함으로써 危機를 克服할 수 있었다.

休戰協定の 成立과 더불어 軍事分界線이 38線에 代置되는 새로운 分斷線으로 設置된 後 오늘날까지 南·北韓을 完全히 갈라놓는 境界線 役割을 해왔다.

I-2. 祖國分斷의 他律性

-1) 敗戰 日本軍의 무장해제라는 名分으로 美軍은 우리나라 북위 38도선 以南에, 蘇聯軍은 그 以北에 進駐하였다. 美軍은 우리 나라의 解放軍으로 온 겨레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데 반해서, 蘇聯軍은 불과 일주간 對日戰爭에 參

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解放者로 自處하면서 非人道的 行포를 감행하였기 때문에 민족의 증오를 받았다.

-2) 美國은 처음부터 國際政治의 立場과 價値觀에 따라 우리 나라를 民主 獨立 國家로 發展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蘇聯은 그의 軍隊가 進駐한 北韓地域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 北韓 共產政權을 急造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美·英·蘇의 3國 外相會議가 열리고 여기서 우리 나라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 要旨는 臨時政府를 構成하되 5년간의 4大國 信託統治를 거친 後 完全 獨立을 實現시키려는 것이었다. 이 결정은 戰後 美·英·蘇 사이의 타협의 產物로서 早速한 統一獨立을 갈망하는 우리 民族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信託統治를 反對하는 運動이 舉族的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蘇聯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民族의 興望을 저버리고 信託統治를 贊成하였다.

-3) 蘇 聯 :

政策의 代行者이며 民族의 要求를 저버린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統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共產化 統一을 위해서 北韓에 소위 革命的 基地를 建設해야 한다는 政策을 標榜하였다. 國際關係가 祖國分斷의 第1次의 人爲的 要因이라면 北韓의 反民族의 民主統一의 거부는 그 第2次的 要因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모스크바」 3相會議 결정에 따라 臨時 統一政府를 樹立하기 위한 2次에 걸친 美·蘇共同委員會 事業은 共產側의 不當한 要求로 좌절되고, 國土統一의 展望은 더욱 어두워지게 되었다.

II. 南北韓의 政治理念과 體制

II-1. 理念的 側面

-1) 國際聯合의 감시아래 民主主義의 總選舉를 실시하여 統一政府를 樹立하여야 한다는 國際聯合의 決議에 따라 南韓地域에서는 1948년 5월 10일 總選舉를 실시하였으나 共產側의 拒否로 北韓地域은 보류되지 않을 수 없었

다. 이리하여 同年 8월 15일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되었고, 同年 9月 北韓에는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이라는 不法 共產政權이 서게 되었다.

大韓民國은 우리 民族의 歷史的 念願과 時代的 要請을 반영하여 自由民主主義의 理念아래 人間의 尊嚴性을 政治의 最高價値로 하여 議會民主主義, 主權在民, 代議政府 體制를 갖추게 되었다.

-2) 이에 반하여 北韓에는 民主主義의 基本條件으로 되는 三權分立制를 「프롤레타리아」獨裁의 理論에 의해서 부인하고 모든 權力을 共產黨에 集中시켰다. 이 때문에 人間의 尊嚴性은 共產黨 獨裁에 의해 無視되고 市民의 基本權은 짓밟히게 되었다. 공신주의자들은 이러한 정치 체도를 「프롤레타리아 民主主義」 혹은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로 정당화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皮鞭에 불과한 것이다.

II-2. 體 制

-1) 政治體制:

反對黨의 存在와 그 活動의 保障은 民主主義 政治의 하나의 徵表이다. 大韓民國은 이러한 民主主義 原理를 政治에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共產黨의 政策을 무조건 지지해야 하는 조건에서만 다른 政黨의 存在가 許容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北韓에서는 정권의 평화적 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共產黨 內部에서도 執權者에 대한 비판이 금지되며, 執權者에 위협이 되는 思想과 政治的 見解는 가차 없이 탄압을 받는다. 소위 金日成 唯一思想이란, 獨裁者 金日成을 반대하는 어떠한 思想 및 政治的 見解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獨裁者의 獨斷으로 인한 政策의 시행착오가 불가피 하며, 동시에 대중의 창의성이 위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經濟體制:

大韓民國은 自由競爭과 需要供給의 原理에 立脚한 市場의 機能에 依存하는 동시에, 國家의 경제활동에 대한 조절적 기능에 의해서 國家가 資源 配分의 適正을 기하며 生産能率의 極大化를 示顯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北韓은

모든 生産手段의 私有를 폐지한 바탕위에서 官僚에 의해서 經濟體制가 運營되며 主觀主義에 의해서 經濟計劃이 樹立되고 있다. 따라서 經濟의 合理化가 無視되며, 經濟發展의 원동력이 되는 生産者의 物質的 關心이 生産性 向上에 活用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經濟發展의 能率面에서도 大韓民國의 체제는 北韓에 비해 상대적 優位임이 실증된다.

-3) 國民福祉 向上面:

大韓民國은 經濟의 高度成長을 기하는 동시에 勤勞者의 權益을 制度的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초위에서 國民생활이 均衡을 이룩해 가고 있다. 즉 國家의 富強과 國民福祉를 經濟政策의 至上目標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民主主義 制度에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勞動階級の 國家」란 이름뿐이고 勤勞者의 權益이 유린됨으로써 정당한 勞動代價를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거운 勞動苦와 엄한 勞動組織속에서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빈곤한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

-4) 文化分野:

大韓民國은 슬기로운 民族文化의 傳統을 계승발전시키는 동시에 先進文化를 섭취하는 정책적 바탕에서 創作의 自由와 多樣한 文化活動이 保障 育成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소위 社會主義와 金日成 唯一思想에 文化를 종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民族文化가 歪曲되고 있으며 文化活動이 엄한 統制속에 있는 것이다.

III. 우리의 統一努力과 北韓의 挑戰

III-1. 우리의 統一努力

-1) 政府樹立 以後 動亂期까지:

1948年 5月 31日 北韓同胞을 위한 100個 議席을 남겨둔 채 召集된 制憲國會는 6月 12日의 決議에서 北韓同胞가 國會에 보낼 國會議員을 選出하기 위하여 自由選舉를 實施하고, 獨立 統一의 韓國政府를 樹立하기 위하여 北韓의 國會議員들과 合流하기를 呼訴하였다. 특히 우리 政府는 8月 15日 獨

立을 內外에 宣布하고, 統一實現을 위한 努力으로서 다음과 같은 內容을 闡明하였다.

① 大韓民國 政府는 憲法의 規定에 따라 全 韓半島에 대한 主權을 가진 唯一 合法政府임을 內外에 宣言하고 ② 選舉가 留保된 北韓에서 早速히 民主的 選舉를 實施하여 北韓同胞를 위해 國會에 空席으로 남겨둔 100席의 議席을 채우도록 促求하였으며, ③ 北韓收復은 北韓同胞들의 自發的 意思에 의하여 成就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自由意思가 계속 封鎖되는 경우에는 大韓民國은 武力에 의해서라도 北韓에 대한 主權을 回復할 權限이 있음을 明白히 하였다.

第3次「유엔」總會는 48年 12月 12日의 決議로써 大韓民國이 韓半島에서 唯一 合法政府임을 宣言하고 「유엔」韓國委員團을 設置하여 全 韓國의 完全獨立을 위한 努力을 繼續할 것을 闡明하였다. 「유엔」韓國臨時委員團의 任務를 계승한 「유엔」韓國委員團은 49年 2月 그 活動을 開始하였으나 北韓地域에서의 活動은 遂行하지 못하고 말았다. 50年 10月 李大統領은 收復된 北韓地域에 대한 行政權을 大韓民國이 行使해야 한다는 見解를 表明하고 第6次「유엔」總會에서 北韓에서만의 「유엔」監視下 自由選舉를 主張하였다. 그 후 休戰協商의 氣運이 成熟해지자 李大統領은 어떤 休戰도 反對하며 統一을 위한 單獨戰鬪 繼續의 意思를 闡明하였다. 그러나 53年 7月 28日 李大統領은 『「유엔」과의 協調下에 韓國統一을 이룩하겠다』고 함으로써 統一을 위한 單獨行爲를 保留하고 다시 「유엔」을 통한 統韓原則으로 되돌아 갔다. 그리고 53年 11月 23日 特別聲明을 통해 李大統領은 『北韓만의 選舉로 國會의 殘餘議席을 채우는 것이 原則이나 北韓住民이 원한다면 全國選舉를 받아들일 用意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休戰後 「北韓만의 選舉」에서 「全國總選舉」로 바뀐 政府의 統一方案에 관한 最初의 聲明이었다.

-2) 「제네바」會議 以後 4·19까지 :

休戰協定 第4項에 따라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하여 열린 高位政治會談이 「제네바」會談(54年 4月~6月)이었다. 이 會談에 參席한 卞榮泰 外務長官은 1次發言에서 北韓에서만의 選舉實施를 主張하였으나 聯合國 代表들의

希望을 받아들여 韓國統一에 관한 14個項目的 綜合的 提案을 하였는데 그 主要 骨子는 다음과 같다.

① 6個月 以內에 「유엔」監視下에 大韓民國 憲法節次에 따라 秘密 普通投票에 의하여 南北韓을 통한 自由選舉를 實施할 것.

② 選舉區의 正確한 人口比例에 따라 國會議員數를 정하기 위하여 「유엔」監視下에 國勢調査를 實施할 것.

③ 「유엔」監視團員과 立候補者들의 移動 및 言論의 完全한 自由를 保障할 것.

④ 總選 後 서울에서 開催될 全 韓國 立法府가 憲法을 改正할 때까지는 大韓民國 憲法이 繼續 効力을 維持할 것.

⑤ 選舉日字 1個月前까지 中共軍은 完全 撤收할 것.

⑥ 「유엔」軍의 撤收를 開始하되 「유엔」軍 撤收는 統一政府가 全韓國에 대한 完全 統治를 達成하고 이를 「유엔」이 確認할 때 完了할 것 등이다.

위의 提案은 韓國의 平和統一을 이룩하는데 있어 가장 建設的이고 理想的인 方案으로 友邦들의 全幅的인 支持를 받았으며 聯合國側의 立場을 代辯하는 것으로 看做되었다. 그러나 共產側은 全韓國選舉에 있어 「유엔」의 監視役割을 認定할 수 없다는 理由로 14個項을 全面 拒否하였다. 원래 共產側은 休戰協定을 그들의 再武裝을 위한 軍事的 休息時間으로 利用하려던 것으로 그들은 터무니 없는 「平和的 解決」을 운운하면서 會談場所를 常習的인 宣傳場으로 惡用하였다.

-3) 4·19以後 5·16까지 :

北韓단의 選舉 내지 武力北進 統一을 主張하던 自由黨 政府가 무너지고 過渡政府가 수립되자 無秩序와 不安속에서 革新系의 搦頭와 더불어 各樣色의 統韓論이 搦頭하여 國內의 統一論議는 混亂相을 露呈하였다.

이러한 混迷속에서 7·29選舉를 통해 執權한 民主黨 政府는 그 統一方案으로 自由黨期의 統一方案을 撤回하고 「南北韓 總選舉에 의한 平和統一」이란 「제네바」原則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러한 立場에서 60年 8月 發表된 外交施政方針은 『無計劃的인 「슬로진」을 止揚하고 「유엔」決議를 尊重하며, 「유엔」監視下에 南北韓을 통한 自由選舉에 의한 統韓政策을 遂行한다』고 闡明하였다.

自由黨과 달라진 것은 「유엔決議에 의하여」라는 語句를 「유엔決議를 尊重하여」로 變更한 것이다. 이는 15次 「유엔」總會에 亞·阿新生國이 大學 加入하게 되면 「유엔」會員國數가 大 100個國으로 늘어나므로 58개국의 會員國을 想定하고 세워진 統一方案은 再考되어야 한다는 結果, 만일 「유엔」에서 容共的 決議가 採擇되는 경우까지를 考慮해서 취해진 對策이었다.

-4) 5·16以後 10月維新까지 :

革命政府는 무엇보다도 먼저 統一方案에 대한 國論統一을 圖謀하였다. 革命政府는 革命公約으로 「民族的 宿願인 國土統一을 위하여 共產主義와 對決할 수 있는 實力培養에 全力을 集中할 것」을 闡明하는 동시에 「『유엔』憲章을 尊重하고 國際協定을 忠實히 履行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反共體制의 再整備強化와 國家自立經濟의 再建을 이룩하고 民主的 力量을 培養함으로써 國土統一에 對備하는 「反共, 先建設 後統一」의 方針을 세웠다. 革命政府의 統一方案으로서는 61年 6月 「우리는 武力에 의한 國土統一을 원하지 않으며, 平和的 方法으로 統一을 追求하며, 유엔監視下의 南北韓 總選舉實施를 強調한다」고 闡明하였다. 이 方針은 63年 12月 民政移讓에 의한 第三共和國 誕生 後에도 變함없는 政府方針으로 繼承되고 있다.

朴正熙大統領은 해마다 年頭敎書에서 統一에 대한 政府方針은 確固한 것이고 그 이외에 어떠한 다른 統一方案도 있을 수 없음을 確言하고 感傷의인 空論과 非現實的인 統一論議를 排擊하며 共產主義와 對決하여 民主主義의 勝利로써 祖國統一을 成就하는 바 統一의 道이 祖國近代化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指摘하였다.

① 67年 年頭敎書에서는 「착실하고 꾸준한 統一의 努力은 統一을 위한 過程에 있어서 수많은 政治的·經濟的·文化的 課業에 充實하는데서 所期의 成果를 爭取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하여 統一自體의 努力에 앞선 諸課業에 충실해야 한다고 強調하고, 오늘 이 段階에서는 經濟建設과 民主力量의 培養만이 統一에의 捷徑임을 밝혔다.

② 70年의 新年辭에서 朴大統領은 「70年代에는 國土統一 方案을 積極的으로 摸索·追求해 나가는 한편, 平和的 方法이든 非平和的인 方法이든 어

며한 方式의 統一方案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對處하고 對應할 수 있게끔 北韓에 비해 絕對 優位의 힘을 항상 確保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 해 1月 記者會見에는 「政治·軍事·經濟·文化·社會 모든 分野에서 高地를 먼저 占領하고 統一에 대한 主導權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③ 朴大統領의 平和統一에 대한 積極的인 意志는 70年 8·15 慶祝辭에서 더욱 具體的으로 表明되었다. 여기에서 朴大統領은 同族相殘의 戰爭을 피하면서 平和의 方法으로 統一을 이룩할 것과 「民主主義와 共產獨裁의 그 어느 體制가 國民을 더 잘 살 수 있는 條件을 가진 社會인가를 立證하는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競爭」 즉 「善意的 競爭」에 나설 것을 北韓에 促求하였다. 당시 緊張된 韓半島 情勢에도 불구하고 北韓에 대하여 緊張緩和와 善意的 競爭을 促求한 것은 統一에 대한 長期的 眼目에서 나온 英斷이 아닐 수 없으며 統一問題에 있어 우리가 主導權을 掌握할 수 있게 하는 契機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統韓政策의 一大 轉換點을 이룩하게 하였다.

④ 8·15宣言에 이어 우리는 71年 8月 12日 南北赤十字會談을 提議하였거니와 政府는 人道主義의 接觸, 非政治的 交流, 政治的 對話라는 3段統一方式을 提議하였다.

⑤ 또한 朴大統領의 一大 英斷으로 72年 7月 4日 發表되기에 이른 南北共同聲明은 恒久的으로 戰爭을 抑制하기 위하여 北韓을 對話의 廣場으로 誘導한 것이었고, 이는 곧 平和統一을 위한 政治的인 南北對話의 開始이었으며 南北關係에 新紀元을 劃한 것이었다.

⑥ 1973年 6月 23日에는 平和統一外交政策을 闡明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Ⅲ-2. 6·25의 悲劇

1) 北韓의 武力南侵의 史的 背景 :

당시의 對內外的 狀況은 다음과 같다.

① 蘇聯은 帝政「러시아」時代부터 韓半島에 대한 南下政策이 2次大戰 以後 北韓의 占領 및 北韓政權 樹立으로 나타났고 繼續해서 南韓까지 併合赤化시

김으로서 「아시아」大陸에서의 據占을 確保하며 동시에 美國의 對共產 沮止 能力 및 覺悟를 試驗하기 위하여 金日成을 使喚하고 積極 支援하였다.

② 中共이 本土에서 國民黨 政府를 逐出하고 1949年 10月 1日 共產政權을 樹立, 北韓의 南侵意慾을 間接的으로 支援하였다.

③ 美軍이 1949年 6月, 南韓에서 撤收하고 50年 1月初에 發表된 「에치슨·라인」에서 韓國이 除外되었다는 發表와 50年 1월에 締結된 「韓·美軍事 防衛援助 協定」에서 美國側이 韓國에서 要求한 重武器 供給을 拒絕함으로써 南北韓 軍備面에서 不均衡을 招來함으로써 北韓이 勝戰에 대한 確信을 했다.

④ 北韓이 당시의 南韓實情에 대하여 政治·經濟面에서 不安定하다고 誤判하였다.

⑤ 「南勞黨」系가 南韓에 潛在하는 共產殘黨 勢力을 50萬으로 誇張하고 戰爭發生時에는 이들이 暴動을 일으켜 呼應할 것이라고 豪言하고 「金日成」이 이를 또한 믿었다는 점 등이 北韓이 6·25를 挑發케 한 것이다.

-2) 6·25의 影響 :

6·25動亂은 수많은 人命과 財產被害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南北間의 不信의 障壁을 드높였으며 外勢誘致를 더욱 強化시키는 結果를 招來하여 우리 民族의 至上目標인 統一을 沮害하게 되었던 것이다.

-3) 「國軍北侵」 운운하는 宣傳의 虛偽性 :

動亂 당시 國軍이 押留한 證據品 가운데 몇가지만 列擧한다면 1950年 6月 18日字 北韓軍 最高司令部 情報本部司令官으로부터 第4師團長에게 보낸 偵察命令書 第1號와 50年 6月18日字 北韓軍 第4步兵師團司令官 「이건무」의 戰爭命令書 第1號 등에 의하면 北韓의 事前 南侵計劃을 明白히 探知할 수 있다. 즉 위의 根據에 의하면 侵攻에 대한 모든 준비는 6月 22日에 完了되었고 平壤에 있는 蘇聯 顧問團은 北韓 「民族保衛省」에 命하여 戰鬥命令 第1號를 前方 師團長에게 下達하여 1950年 6月 23日 12:00時까지 이른바 「韓國軍隊」를 무찌를 수 있는 만반의 態勢를 갖출 것을 指示하였다는 事實이 이를 立證한다.

Ⅲ-3. 北韓의 挑戰

-1) 1950年以前 :

1945年 8月 15日 解放 後 金日成을 우두머리로 하는 北韓集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南韓地域까지 併合 赤化하려는 野慾을 버리지 않고, 地下黨 組織과 「게릴라」南派 등의 繼續인 對南攻勢를 취하고 있다. 最初에는 南韓地域이라는 緣故關係를 생각하여 주로 南勞黨을 中心으로 즉 北勞黨의 前衛黨으로 對南工作을 展開하였으나 金日成은 6·25의 敗戰責任을 영똥하게 南勞黨에 轉嫁시켜 그들을 全面的으로 肅清하는 殘忍한 手法을 썼다.

-2) 5·16以前 :

金日成 一派는 이른바 民主(共產)基地 戰線을 再確認하고 여기에 따른 韓國의 赤化를 企圖하는 그들의 野望을 버리지 않고 再次 韓國에 北勞黨系를 主軸으로 하는 地下黨을 組織하기에 바빴다. 한편 軍需工場 특히 兵器生産에 狂奔하여 經濟·軍事力 強化 併進政策 遂行에 住民을 總動員한 金日成은 어느 程度 兵器生産 展望이 밝아지자 다시 武力南侵의 野慾이 생기어 對南工作을 加一層 強化하였다. 한편 1959년부터는 모든 部分을 戰時體制로 整備하고, 正規軍 外에 勞農赤衛隊 등 豫備軍까지 訓練시키기에 이르렀다.

4·19가 일어나고 한때 政局이 어수선해지자, 金日成 一黨은 금시에 赤化 統一이라도 달성되는 듯이 南韓地域을 統轄할 人的 構成까지 서둘렀고, 平和統一攻勢를 強化하여 聯邦制案을 提議하는 등의 「제스츄어」까지 썼다.

-3) 5·16以後 :

5·16軍事革命이 일어나자 이에 당황한 金日成은 一切의 平和攻勢를 버리고 武力強化에 全力을 기울여 戰爭準備를 다해왔다.

그러나, 越南戰 支援의 餘裕까지 保有한 第三共和國의 實力에 制壓되었음은 물론, 經濟가 高度로 成長되어가는 韓國에 共產主義의 뿌리를 播種하는 것은 어려운 問題라고 豫測하고 1968년에 들어서면서 本格的으로 武裝共匪 南派 등 暴力戰術로 對南 積極攻勢를 취하였다. 그러나 一元화된 強力한 組織과 韓國 國民들의 高潮된 反共意識으로 그들의 暴力戰術이 失敗로 돌아가자, 1969년부터는 暴力戰術을 일시 後退시켜 地下黨 工作으로 一貫시켜 왔다.

第 2 章 祖國統一의 要請과 要件

祖國統一은 全民族의 念願이라는 當爲性으로 흔히 규정된다. 그러나 막연한 念願만으로는 굳은 統一 信念을 형성할 수 없다. 統一이 되어야 한다는 念願과 當爲性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統一을 위한 信念을 굳게 하고 나아가 統一을 위한 努力을 強化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前提下에 本章은 祖國統一의 要請과 要件을 분명히 이해케 하여 國民으로 하여금 올바른 祖國 統一觀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이에 따른 細部 目標은 다음과 같다.

첫째, 統一의 要請과 統一을 成就하기 위한 要件이 무엇인가를 이해케 한다.

둘째, 統一은 民族正統性을 繼承한 韓國의 民主的 理念을 具現하고 民族國家로서의 發展을 保障하는 우리의 統一理念에 의하여 實現되어야 한다는 信念을 갖게 한다.

셋째, 統一課業 推進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忍耐와 꾸준한 努力으로 해결하는 姿勢를 가져 祖國統一課業을 完수하는 歷史的 使命을 깨닫게 한다.

以上の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된 內容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統一의 要請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統一의 要件에 관한 內容이다. 統一의 要請은 최소한 네가지 측면에서 분석된다. 즉 ① 民族史的 要請, ② 人道的 要請, ③ 國家發展을 위한 要請 그리고 ④ 國際政治的 要請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로 취급되어야 할 統一要件의 內容으로서는 ① 民族國家 同一體意識의 強化, ② 民主力量의 強化와 韓國民主體制의 強化, ③ 社會正義의 高揚 그리고 ④ 國力培養과 民族正統性에 의한 國家繁榮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內容을 취급함에 있어 留意해야 할 점은 本章의 目標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統一을 해야겠다는 信念을 굳게하기 위하여 그 信念의 타당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는 점이다. 이에 덧붙여 강조하여야 할 점은 祖國統一은 民族의 正統性을 繼承하고 있는 우리의 統一理念인 民主勝共統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民主勝共統一의 信念은 統一成就 方法과 구분하여 논의되어야 하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할 것

204 南北關係와 統一問題

이다. 그 까닭은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現在 進行되고 있는 南北關係를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統一의 要件에 관한 內容을 취급함에 있어서도 다른 部와 章들에서 취급된 內容들을 인용 내지 상기시키면서 本章에서 의도하는 要旨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民主主義 理念의 優越性(第2部)을 지적하고 그 理念具現을 위한 우리의 體制의 優越性을 역시 지적하면서 이러한 기반조성을 위한 國民的 努力의 중요성이 아울러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統一을 위한 要件具備는 全國民的 努力의 重要함을 강조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要件의 구비는 우리측에 有利하게 統一問題가 논의될 것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I. 祖國統一의 要請

I-1. 民族史의 要請

單一民族으로서의 文化傳統의 繼承·發展: 三國時代에 一時 分裂된 歷史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民族은 古朝鮮以來 新羅, 高麗, 李朝를 통하여 文化的 共同運命體로서 歷史를 같이 해 왔다. 新羅의 統一은 한 民族 한 國家로서의 基盤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歷史의 意義가 있다. 唐나라의 힘을 일부 利用하여 三國을 統一하였다지만 일단 統一된 年후에, 新羅는 唐의 勢力을 몰아내기 위하여 共同運命體로서 온 民族的 團合을 誇示하였다.

高麗 時代에도 거란, 女眞, 蒙古의 侵略 등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옛 高句麗의 失地를 回復하기 위하여 아래로는 賤民으로부터 위로 王에 이르기까지 온 民族이 한 덩어리가 되어 꾸준히 北進政策을 遂行하였다. 朝鮮 時代에도 우리 民族은 淸의 侵入(丙子胡亂), 倭의 侵入(壬辰倭亂) 등을 받았으나 大同團結함으로서 民族의 團結力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近世에 와서도 3·1運動을 비롯한 수 많은 크고 작은 歷史의 事件을 통하여 우리 民族은 運命共同體로서 團合된 民族의 底力을 誇示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 民族의 公同한 結束과 團合은 古朝鮮 以來 文化共同體로서, 運命共同體로서 單一民族으로서 만만년의 歷史를 같이 呼吸하면서 이어 왔었다.

外勢에 의한 人爲的인 民族의 分裂은 歷史를 통해 形成 發展된 單一民族으로서의 自負心에 큰 傷處를 주었다. 더욱이 共產主義에 의하여 우리의 文化와 傳統이 여지없이 破壞되고 있다는 것은 民族的 矜持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의 文化와 傳統을 繼承하고 發展시켜 새 歷史를 創造함에 있어 共產主義로 인하여 民族의 일부가 參與하지 못한다는 것도 重大한 悲劇이 아닐 수 없다.

悠久한 民族 文化의 傳統을 繼承 發展시키고 民族 總和의 새 歷史를 創造하기 위하여, 그리고 民族의 自負心과 矜持의 損傷을 回復하기 위하여 民族

의 統一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I-2. 人道的 要請

共產 侵略과 強大國들의 利害關係에 의한 人爲的인 國土分斷은 많은 우리 同胞에게 人間으로서 참을 수 없는 苦痛을 안겨 주었다. 우리와 같이 文化, 言語, 風俗, 人種을 같이하는 單一民族 國家는 歷史上 혼치 않다. 이와 같은 文化的 歷史的 條件은 우리 民族을 거의 血緣的으로 結合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南北間에 家族과 親戚이 헤어져서 生死 消息조차 알 수 없으니 1千萬 離散家族의 苦痛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統一은 기필코 이룩되어야 한다.

大韓赤十字社는 이러한 民族의 苦痛을 덜어주기 위하여 共產主義者들과의 어려운 對話를 繼續하고 있다. 우리의 赤十字社는 人道的인 問題부터 하나 하나 解決하려 하고 있으나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同胞들의 苦痛은 아랑곳하지 않고 實現 不可能한 政治的인 發言만을 繼續하고 있다.

I-3. 國家 發展의 要請

經濟, 社會, 文化的 發展은 물론 國家의 安全保障은 國家發展의 基本 要件이며 同時에 國家가 追求하는 目標이기도 하다. 國土分斷과 民族의 分裂은 우리의 經濟發展을 沮害하는 要素가 되어왔으며 文化的으로는 固有傳統 文化的의 斷切과 破壞를 招來하였고, 國家 保安上으로도 戰爭의 可能性을 恒時 안고 있도록 만들었다.

-1) 經濟的 側面:

南, 北의 地理的 條件은 資源分布의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남쪽은 氣候的 地理的 條件으로 보아 比較的 農產資源이 豊富하고, 북쪽은 相對的으로 地下資源이 豊富하다. 이와같은 與件은 產業構造上 南北이 相互 補完的 關係에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統一은 더욱 國家發展을 促進하게 될 것이다.

-2) 文化的 側面:

文化的 發展없이 國家發展이 이룩될 수 없다. 文化란 思考 樣式과 生活 樣式的 反映이다. 文化 傳統이란 오랜 歷史를 통하여 이룩하여 놓은 民族의

遺産이다. 傳統文化의 繼承과 發展은 民族의 總和의 努力에 의해서만 可能하다. 그러나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우리의 傳統文化를 破壞 또는 斷切시키고 있다. 北韓 共產黨에 의해 우리의 固有한 歷史는 階級史觀으로 뒤집혀지고 歪曲되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共產黨에 의해 唯物論의 世界觀의 形成을 強要받고 있다. 이와 같은 傳統文化의 斷切과 破壞를 止揚하고 統合된 文化를 형성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하루속히 國土가 統一되고 民族이 結合하여 總和의 前進를 해야할 것이다.

-3) 安保의 側面:

우리의 國土分斷은 韓國의 安全뿐만 아니라, 亞細亞 및 世界平和의 威脅이 된다. 北韓은 韓半島 赤化統一의 原則을 固守함으로써 武裝間諜의 繼續의 인 南派, 軍事 分界線上的 挑發 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北韓의 挑戰은 韓半島의 平和와 世界平和를 威脅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經濟發展과 國民福祉에 投入될 수 있는 많은 豫算들이 相互 國防費에 投入되게 되므로써 財源不足을 招來하게 된다.

I-4. 國際政治의 要請

國際政治 社會에 있어서 當事國은 國家가 最終的 單位이다. 우리와 같은 한 民族이 하나의 國家로서 統一된다면 國際政治 社會에서 보다 確固한 地位와 信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民族이 分裂되어 서로 正統的 國家로서 地位를 確保하려고 다투게 된다면 國際的 信賴와 地位를 獲得하기는 커녕 오히려 國際社會의 秩序를 어지럽히는 存在로서 疎外당하거나 異端視될 可能性도 크다. 따라서 國際政治 社會의 當당한 一員으로서 國家의 地位를 確保하기 위하여도 統一된 民族國家를 形成해야 할 것이다.

II. 祖國統一의 要件

II-1. 民族과 國家 同一體意識의 強化

統一의 要請중의 하나이면서 統一이 성숙될 수 있는 要件으로 民族國家

同一體意識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單一民族이기 때문에 統一을 이룩하여야 된다는 信念이 發生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民族과 國家 同一體意識은 國力の 組織化와 直結되며 愛國愛族의 國家觀을 土壘로 한 國家榮光觀의 確立이 要求되는 것이다.

II-2. 民主的 力量

우리가 포방하는 統一을 위한 重要的 原則의 하나인 民主勝共統一 意識은 곧 民主主義에의 國民的 同化 내지 民主主義 理念의 內面化와 生活化를 통해 이룩되는 것이며, 共產主義에 대한 批判과 共產主義의 挑戰을 克服해 낼 수 있는 精神的 힘의 培養되었을 때 可能하다. 이를 위한 民主的 力量을 培養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1) 民主主義 基本理念 具現 :

第2部에서 설명된 民主主義 基本理念 즉 人間의 尊嚴性과 個人的 最善我實現을 위한 社會正義의 具現이 強化될 때 우리의 民主力量이 크게 배양될 것이며 나아가 共產主義의 挑戰을 克服하기 위한 우리의 長點이 될 것이다. (第2部の 內容을 參照하여 보충 설명함이 좋을 것임)

-2) 自由 民主體制의 強化 :

形式的 民主體制가 아니라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이 具現될 수 있고 우리의 現實에 맞는 體制, 制度의 整備와 效果的 運營이 요청되며 이러한 요청에 호응한 體制의 整備를 단행한 것이 維新課業의 一次的 課題였다. 실질적으로 人間이 존중되고 個人的 最善我實現이 가능하도록 하는 體制의 強化는 共產主義의 침투를 저지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3) 自主, 協同, 團結의 社會氣風과 生活態度的 強化 :

II-3. 社會正義의 高揚

社會正義는 自由와 平等과 더불어 民主主義의 3大支柱를 이룬다. 社會正義의 精神은 그 기원을 人間의 존엄성에 두어야 하며, 따라서 社會秩序에 대한 道德的 責任感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道德的 社會規

範의 確立은 물론, 淸富思想과 公益精神이 高揚되어야 한다. 이같은 社會正義가 具現되었을 때 우리의 統一은 앞당겨 질 수 있는 것이다.

II-4. 國力培養

여러곳에서 強調되고 있듯이 國力培養만이 共產主義 내지 北韓과의 對決에서 승리하는 힘이 된다. 앞서도 지적 했듯이 民主主義 理念 具現도 어느정도의 經濟的 力量이 積蓄되어야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더욱이 對話를 통한 善意의 競爭을 南北間에 시도하고 있는 지금, 實力으로서 善意의 競爭을 통해 國民의 호응을 받으면서 北韓住民을 우리의 體制에로의 同化를 유도하려면 우리의 全般的 經濟水準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自主的 그리고 自立的 經濟成長은 우리가 내세우는 統一의 諸原則에 합치하는 統一課業 遂行에 앞서서 반드시 이룩해 놓아야 할 基本적 조건이 되는 것이다.

第3章 統一原則과 南北의 統一政策

對話를 통한 南北接觸이 試圖된 以來 南北間의 相異한 接近으로 南北關係 改善 過程이 湧이지 않다는 事實이 들어남과 同時에 國民은 統一觀에 여러가지 見解를 스스로 가지기 始作하였다. 統一에 대한 悲觀論, 懷疑論, 樂觀論 등 구구하다. 이러한 見解는 統一原則과 南北의 相異한 統一政策을 올바르게 理解하지 못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統一努力을 위한 國論統一을 어렵게 하는 重要한 問題로 提起되고 있다. 이러한 點에 유의하여 本章은 統一原則과 南北間의 相異한 統一政策에 대한 正確한 理解와 對話를 통한 南北接觸過程의 展望에 대한 健全한 理解를 토대로 올바른 統一觀을 갖게하기 위하여 設定된 것이다. 이러한 本章의 意圖에 따라 설정한 細部目標은 다음과 같다.

첫째, 7·4 南北共同聲明의 意義와 統一原則을 正確히 理解하고,

둘째, 南北韓의 相異한 統一目標과 政策을 理解하여 우리의 統一目標과 政策의 正當性을 인식하며,

셋째, 對話를 통한 南北接觸의 계속적인 努力過程에 忍耐와 誠實로서 支援할 수 있는 態度를 갖게 한다.

이러한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本章의 內容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진다.

첫번째 영역에서는 南北對話의 機能, 目標, 效果를 理論的 分析模型을 援用하여 考察하고

두번째에는, 7·4 共同聲明의 背景으로서 國際情勢의 變動에 能動的으로 對應하고 韓半島에 戰爭挑發을 抑制하기 위하여 취해진 8·15 宣言의 內容과 意義를 分析하는 問題들이 취급되며, 7·4 共同聲明의 內容으로는 自主, 平和, 民族團結 등이 내포되는 統一原則의 意味 등이 취급된다.

세번째 영역에 해당되는 “南北間 統一目標과 政策의 對立”에서는 우리의 統一目標인 自由 民主理念과 우리의 體制에 의한 統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北韓의 對南赤化 野慾을 비판하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現實的 段階的 接近方案과 北韓의 革命的 立場과를 比較하면서 우리의 統一接近方法의 正當性을 지적할 것이다.

이러한 內容을 취급함에 있어 留意해야 할 點은 北韓이 提示한 統一原則과 目標,

政策의 底意를 充分히 理解할 수 있도록 하는 點과 雙方의 統一政策과 接近方法을 比較 檢討하여 우리方案의 正當性을 充分히 理解할 수 있도록 하는 點이다. 그리고 나아가 올바른 統一觀을 갖도록 內容을 說明함에 強調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I. 南北對話의 理論的 背景

I-1. 對話의 效果判斷

-1) 理論模型 :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 會談이 變化된 內外情勢 속에서 統一에 대한 希望을 갖게함과 同時에 國際緊張緩和 潮流에 寄與할 수 있다는 것은 客觀的 事實보다는 오히려 東西關係를 包含한 集團關係의 理論에 그 根據가 있는 것 같다.

우선 對決의 構造를 對話의 構造로 轉換시키는 것이 南北間에 高潮되고 있는 緊張을 緩和시킨다는 論理는 「칼·도위치」(Karl Deutsch)의 이른바 決裂制禦效果(Lock in Effect)에서 살필 수 있다. 「도위치」教授는 「아나톨·라포포드」(Anatol Rapoport)의 競技理論을 紹介하면서 敵對하는 두 集團間에 우연한 契機로 對話가 始作되면 이 對話는 決裂되기보다는 決裂되지 않고 계속 대화가 지속되는 一種의 決裂制禦效果가 나타난다고 指摘하고 있다. 이것은 「척킨·게임」에 있어서 「플레이어」(Player)가 서로 約束動作을 취할 수 있을 경우 「兩플레이어들이 모두 망신 당하지 않기 위해 동시에 바른 길에서 벗어나 協同이 일어나는 경우」와 비슷하다. 또 囚人의 「딜렘마」에 있어서 「罪囚들이 침묵을 지켜 報償金品이 없이 自由를 獲得하는 結果」유도가 可能할 것이기 때문이다.

-2) 對話의 持續 :

對話는 비록 戰略目標은 相異하더라도 相互間의 對話의 必要性 때문에 決裂되지 않고 持續되며 이로 因하여 兩側의 緊張은 對話以前보다 緩和된다. 특히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變節보다 協同하는 選擇이 強하게 作用하기 때문에 效果는 더 高潮되고 個人間의 關係에서는 對話를 통한 約束動作에 의한 協同效果가 더욱 크게 된다.

이같은 分析이 國家間의 關係에 있어서도 그대로 適用된다는 保障은 없

다. 그러나 國家間的 關係라고 하더라도 緊張緩和가 選好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한번 열린 對話는 決裂되기 보다는 계속 유지될 可能性이 있다. 왜냐하면 對話의 決裂은 問題解決 手段으로서의 對話의 機能停止를 意味하기 때문에 武力對決 一步前의 關係가 造成될 수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번 열린 對話가 決裂되면 當事者 關係에서는 對話가 있기전 보다는 한층 더 심각한 緊張을 유발할 것이며 이 경우 어느 側도 對話開始 以前에 지속되던 緊張維持負擔보다 더 加重된 負擔을 擔當할 能力을 確保하기가 至難하게 된다.

兩行爲者 關係에 있어서 兩者間에 均衡이 파괴되지 않고 對決狀態가 持續될 수 있었던 것은 兩側에서 總力을 기울여 動員한 緊張維持能力이 保合勢를 維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對話가 開始되고 相互間에 協同이 造成되면 緊張維持負擔은 그만큼 줄어드나 다시금 變節이나 背信 등으로 인해 對話가 決裂되면 緊張이 對話以前보다 增加되는 것은 不可避한 現象이 아닐 수 없다. 새롭게 增加된 緊張에 適應키 위해 兩側은 새로운 負擔을 支拂해야 하는바, 兩側은 어느 側도 外部의 支援없이는 먼저 必要한 費用을 調達할 수 없다.

그러나 緊張造成이 統制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어느 側도 外部의 支援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얻을 수 없다는 事實을 當事者들도 認識하고 있다.

따라서 當事者들은 이같은 負擔增加의 結果를 초래할 事態의 發生을 회피하려는 選擇에 관심을 갖는다. 이 선택욕망에 의해서 한번 열린 對話는 成果에 關係없이 계속되는 效果를 갖는 것으로 推理된다.

따라서 對決의 構造를 對話의 構造로 轉換시키는 措置는 理論上 決裂制御 效果에 의하여 對話를 維持시키면서 나아가 緊張을 緩和시키게 된다. 이 點에서 赤十字會談 決定 南北調節委員會 會談 決定은 初期段階의 效果面에서는 理論的 妥當性을 갖는 選擇으로 評價할 수 있다.

I-2. 對話效果의 期待值

南北間에 對話가 열렸다는 事實은 그것이 앞에서 檢討한 바와 같이 「Lock in Effect」에 의해 緊張을 緩和시킨 對話持續의 效果를 產出한다. 그러나 이

것이 有效한 選擇이 되기 위해서는 苦痛輕減論으로 再定義되는 統一接近에 寄與할 수 있다는 것이 證明되어야 한다.

-1) 對話效果의 理論模型 :

苦痛輕減論에 必要한 理論的 證明은 對話不在期에는 想像할 수 없었던 南北間의 協力이 對話開始로 可能해졌는지의 與否를 밝혀야 한다.

現在까지 알려진 理論으로서 「데이비드·미트라니」(David mitrany)에 의해 定說化된 機能主義(Functionalism)는 體制와 理論의 差異에 關係없이 相異한 體制間의 對話에서는 理念的 制約이 적은 機能間의 協力이 可能하다는 것을 前題로 한다.

이같이 非政治 分野에서 조그마한 形態의 協力이 이루어지면 이 協力は 보다 큰 協력을 生産하는 波及效果를 갖는 바 樂觀論的 見地에서는 이 雪人效果(Snow Ball Effect)로 說明되기도 한다. 이같은 效果가 國際關係에서 定說로서 妥當성을 갖기는 國際聯合 專門機構 및 經濟社會 理事會 所管의 非政府機構에서 행해진 美蘇協力 以後부터이다.

-2) 機能主義의 論據 :

이상과 같은 前提下에 機能主義의 論據를 國際關係의 協력으로 置換해서 吟味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각 國家가 解決해야 할 社會福祉 問題는 各 國家가 共同으로 協力하는 가운데 더욱 그 解決이 促進될 것이며 目標達成이 容易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國家單位의 個個領土의 테두리를 벗어나 超國家的 見地에서 논하는 것이 가장 效率的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그에 대한 論理展開은 간추려서 간단히 紹介해 본다. 먼저 機能主義者들은 國家間에 協力할 수 있는 課業을 政治的인 것과 非政治的인 것 즉 技術的인 것과 機能的인 것으로 區別한다. 그 理由는 後者が 前者보다 國家間 協力이 더 容易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이와 같은 福祉事業을 함께 協力해서 해나갈 때 그 過程에서 習得한 知識은 國際社會의 共同利益을 위해 自然히 한 事業分野에서 다른 分野로 옮겨 利用될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더욱 重要한 事實은 그에 發生하는 協同心은 國家에

대한 忠誠心과 競合하게 되어 전국 國際的인 協力體制에 대한 忠誠心의 可能性마저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分野의 專門家들에 비해서 政治人들이나 外交官들 또는 軍人들은 그 思考가 너무 閉鎖的이며 排他的이라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機能別로 各國家가 모여 協力하게 되던 自然的으로 또한 無의식 중에 한 主權國家의 統治權이 조금씩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業務를 調節해야 할 必要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綜合的 政治 權力(A general political authority)의 形成이 要求된다. 이와 같은 「미트라니」(Mitrany)教授의 學說은 몇가지의 根本的 假說을 基礎로 하고 있다.

첫째, 人間은 合理的인 存在(Human beings are rational)라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漸進的 向上과 發展(Evolutionary steps)이 可能하다는 것이고 根本的으로 人類는 鬭爭과 對立보다는 調和(Harmony over conflict.)와 平和를 더 希求한다고 믿고 있다. 그뿐 아니라 戰爭의 根本原因을 社會的인 또는 經濟的인 問題에서 起因된다고 믿고 따라서 國際平和로의 捷徑은 貧困을 一掃하고 文盲과 疾病을 征服(The conquest of poverty, ignorance and disease)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 機能主義 理論은 차츰 一般의 큰 關心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西歐의 指導者 「스쿠만」(Schuman)이나 「모네트」(Jean Monnet), 「홀스타인」(Walter Hallstein) 또는 미드랄(Gunnar Myrdal)같은 者들은 그 代表的인 人物들이다. 그러나 이 機能主義에 대해서 懷疑的인 學者들도 적지 않다. 그중 가장 著名한 學者는 國際機構學에서 널리 알려진 「클로드」(Inis Claude, Jr)教授이다. 그는 機能主義를 批評하면서 國際間의 紛爭이 經濟的 社會的 要因에서 起因된 것이 아니라고 指摘하고 「켈센」(Hans Kelsen)教授의 그 有名한 말을 引用해서 世界經濟의 不安은 오히려 戰爭의 所致라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政治的 問題와 經濟的 社會的 問題를 分離할 수 없다고 主張하면서 만일 그와 같은 分離가 可能하다고 해도 各國은 政治的 問題가 解決이 될 때까지 우선 福祉(Welfare)問題는 뒤로 미룰 것이라고 했

다. 또한 人間의 協同精神이나 또는 그 經驗傳授의 可能性에 대해서도 懷疑의이었으며 나아가서는 人間의 合理性과 忠誠心의 理性的인 傳移까지도 의심스럽다고 한다.

이와 같은 「클로드」(Claude)教授의 批評에도 불구하고 機能主義에 대한 研究는 日益 活潑해져서 그들은 이 機能主義에 의하여 世界 各地域에서 일어나는 統合運動을 說明해 보려고 힘써 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代表者인 業績을 낸 學者는 「하스」(E. B. Haas)教授로서 그를 中心으로 한 「하바드」大學의 「나이」(Joseph S. Nye)나 「위스콘신」大學의 「린드버그」(Leon N. Lindberg)에 「시카고」大學의 「슈미터」(Philippe C. Schmitter) 등은 「미트라니」의 理論 및 다시 政治的인 效果를 加味해서 新機能主義學派를 形成하게 되었다. 그들은 「미트라니」教授의 學說에다 좀 더 具體的인 變수의 性格을 檢討하고 그 運動의 政治的 統合에의 意義를 分明히 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點을 특히 지적하였다.

첫째, 가장 重要的인 理論的인 貢獻은 傳播機能 (Spill over Capacity)에 대한 理論이다. 「하스」教授는 ITU와 ILO(國際勞動機構)를 比較 考察하면서 國家間에 協力할 수 있는 機能中에서도 ITU와 같이 너무 그 業務 自體가 技術的인 경우 그것은 擴張하고 成長하는 能力을 缺如한다는 것이다. ITU의 歷史는 1百年을 헤아리나 ILO는 그 半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의 業務는 훨씬 廣範圍하게 擴大되어 國際統合에 貢獻한 바 至大하다고 評價했다. 이것은 오직 그 機能의 傳播能力 즉 連鎖反應效果의 結果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로, 그들은 「미트라니」教授가 專門家나 技術者는 다른 政治人이나 外交官 또는 軍人들과 달라서 훨씬 自由롭게 協力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事實은 그들도 性格上 유연성이 적은 자들이라고 했다. 따라서 오히려 專門知識을 所有한 者로서 政治人이나 外交官이 된 者가 더욱 適格이라고 主張한다.

세째는, 忠誠心이 새로운 求心點을 찾게 된다고 한 것에 대해 條件을 붙여 市民이나 社會一般에서 國際機構가 自己나라에 대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事實이 認識되어야만 그 國際協力機構에 대해서 國民의 觀心이 集中될 것이

라고 말하면서 이는 오직 開放社會에서만 可能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고로 共產主義社會와 같은 閉鎖된 社會에서는 自由化的 물결이 일고 나서, 비로소 國民들의 關心이 國境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하스」教授는 協同할 課業이 簡單하게 明示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國家間的 協力이 이루어 질려면 課題가 明確해야 한다. 즉 人道的인 事業이라든가 또는 非政治的인 社會文化事業 또는 經濟的인 交流 및 協調中 어느 領域이라는 것을 正確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爲政者들의 同意와 후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3) 機能主義와 南北會談 :

機能主義는 赤十字會談을 起點으로 시작된 南北對話를 利用, 段階的 統合을 指向하는 政府選擇의 正當性을 立證해 준다.

그러나 現段階의 南北關係처럼 體制守護를 위한 戰略이 相衝하는 狀況에서는 雪人效果의 可能性에 대한 實質的 展望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容易하지 않다. 또 現在의 南北關係에는 合意될 수 있는 分野와 合意될 수 없는 分野가 明白히 分割되어 있기 때문에 機能主義만으로는 南北對話를 통한 統一의 展望을 밝게 내다 보는 데는 限界가 있는 것이다. 이 限界性 認識에서 統一에 關聯되는 理論的 根據를 摸索해야 한다.

I-3. 對話의 目標判斷

-1) 分斷國 :

第2次 世界大戰이 終結된 이래 現在 地球上에는 體制와 理念의 차이로 말미암아 國土가 兩斷된 4個의 國家가 있다. 그런데 이 4個國中 어느 國家도 傳統的 概念으로서의 統一이나 現代的 狀況論理를 反映하는 再結合 (Reassociation)에 成功한 國家는 없다. 現在까지 紹介되어 있는 社會學的 統合理論(integration theory)들은 例外없이 同質 社會內部에서 作用하는 機能의 統合, 均衡維持에 關心이 集中되었을 뿐 理念을 달리하는 異質體制의 統合에 관한 研究는 거의 없는 實情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南北間에 열린 對話가 機能分野에서 協력을 促進시킬 수 있다고 前提하더라도 그러한 協력이 과연

體制 差異, 理念 差異에서 發源하는 모든 葛藤(conflict)과 緊張을 克服하고 하나의 秩序에로의 統合을 成就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분명한 回答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赤十字會談을 계기로 열린 南北對話가 단순히 緊張을 緩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全國民이 원하는 統一의 디딤돌로 評價되기 위해서는 對話開始에 의한 緊張緩和, 對話維持를 통한 機能分野別 協力の 擴大 및 緊張緩和秩序의 定着이라는 理論的 背景以外에 統合의 可能性에 관한 論證이 隨伴되어야 한다.

그러나 經驗의 世界에서는 相異한 體制의 統合이 具像化(Materialization)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理論的 證明을 期待할 수 없고 다만 未來學的 觀點에서 提起되는 새로운 理論構想에서 必要的 類推를 기할 수 있다.

-2) 收斂理論:

60年代 初半부터 하나의 假說로서 登場한 收斂理論(Convergence theory)은 두 가지 論據에서 機能主義 限界性 내지 悲觀의 局面을 克服할 可能性을 示唆하고 있다.

우선 收斂理論家들은 現代의 產業社會(Industrial society)를 分析의 場으로 設定하고 現代社會는 工業化(Industrialization)와 都市化(Urbanization)에 의해 오늘날 世界를 東西로 兩分시키는 「이데올로기」의 制約을 벗어나서 점차 工業化와 都市化의 要求에 副應하는 方向으로 社會態度가 收斂한다(converge)고 主張한다. 同時에 이들은 世界 各國이 發展段階는 다르지만, 經濟的 後進國들은 基本的으로 工業化되고 都市化된 產業社會의 形成을 發展의 目標로 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에 의하면 共產主義 政黨은 그 社會와 國家가 工業化에 成功하여 豊饒를 공급할 수 있는 한, 그 「이데올로기」의 使命은 終了되고 다만 工業化의 要求에 副應하는 管理者의 役割을 맡게 될 것으로 展望하면서 그 實例로 自動車 工業都市인 美國의 「디트로이트」(Detroit) 市와 蘇聯의 「스베들로브스크」(Svedlovsk)를 指摘한다.

이 두 都市는 각각 理念과 體制가 根本的으로 다른 國家와 政府의 支配下

에 있지만 다같이 自動車工業을 發展시키는 過程에서 體制維持의 理念差異와는 關係없이 高度로 類似(Similar)한 管理體制를 示顯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類似性은 처음에는 産業構造와 管理과 같은 下部構造에서 나타나지만 이것이 普遍化될 경우 政治體制에서도 收斂化的 變化가 期待된다고 展望한다.

-3) 理論의 適用 :

收斂理論을 南北韓 關係에 代入시켜보면 現在の 南北韓은 다 같이 開發途上國(産業化의 程度에서 南韓이 다소 優勢하지만)으로서 對話를 통한 協力の 範圍가 극히 制限되어 있지만 앞으로 南北 共히 工業化와 都市化의 程度가 더 심화되고 또 이 構造에 附合하는 「엘리트」群과 「리더쉽」이 形成될 경우에는 現在 南北間에 協力에 대한 合意가 不可能한 分野일지라도 얼마후에는 合意possible한 分野로 轉換될 수 있다는 希望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南北韓이 앞으로 工業化를 中心으로 한 産業社會로 發展하여 「이데올로기」보다는 能率性을 重視하는 態度가 形成된다면 窮極의으로 統治體制에 대한 合意形成도 可能해 질 것이다.

이 점에서 이 理論은 南北對話의 最終結果를 明確히 豫見할 수 없는 現時點에서 南北間의 對話를 통한 緊張緩和와 分野別 協력이 窮極의으로 平和統一에 연결될 수 있다는 可能을 보여주는 것이다. 同時에 機能主義의 接近에서 制約되는 要素로서 波及效果(Spillover effect)에 대한 懷疑도 克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理論은 政策의 實踐原理로 採擇하는 데는 限界가 있다.

첫째, 經驗의 世界에서 豫測possible한 推論이기는 하지만 事實로서 證明된 것은 아니다. 둘째로는, 모든 國家의 發展經路와 目標을 單一化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現代世界에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文化相對主義(Cultural Relativism)를 無視하고 있다는 批判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理論은 南北關係처럼 競爭의 共存이 暫定的이나마 不可避하게 到來될 狀況下에서는 南北韓의 收斂化的 變化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統一의 展望도, 對話의 成果도, 이 論理에 依存치 않을 수 없

을 것이다.

南北赤十字會談의 決定家들이 以上の 理論의 背景을 통해서 對話戰略을 選擇했다는 證據는 없다. 오히려 理論의 考慮보다는 內外情勢變化의 考慮가 더 큰 作用을 했을 可能性이 크다.

그러나 赤十字會談 決定도 多數의 共感과 支持를 받는 決定이 그러했던 것처럼 經驗의 世界에서 抽出된 理論의 根據에 비추어 볼 때 分明히 現實性과 妥當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以上 檢討한 論據는 決定家들에게 心理的 正當感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 南北 共同聲明의 背景과 統一原則

II-1. 南北 共同聲明의 背景

-1) 8·15宣言 :

朴正熙 大統領은 1971年 8月 15日 光復節 26週年 慶祝辭 가운데서 平和統一의 構想을 밝혔으며, 이 宣言은 南北對話와 또한 南北關係改善의 方向 및 平和統一의 原則이 合意한 南北共同聲明이 나오게 된 契機가 되었다.

8.15宣言은 北韓이 戰爭準備를 서두르고, 한편 南韓에 대하여 武裝挑發을 하고 있는 狀況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의 戰爭을 防止하고 南北關係를 平和的으로 誘導하며, 그 바탕위에서 平和統一의 與件을 造成하고자한 것이 그 背景이며 趣旨이다. 8.15宣言의 主要 內容을 拔萃하면 다음과 같다.

① 統一은 반드시 平和的으로 이룩해야 한다. 統一이 시급을 要하는 民族의 至上 課題라고 하더라도 同族殺戮의 戰爭은 反對해야 한다.

② 北韓은 武裝共匪의 南派 등 모든 戰爭挑發 行爲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이나 暴力에 의한 大韓民國의 顛覆을 기도해온 從前의 態度를 完全히 拋棄한다는 것을 明白하게 對外에 宣言하고 이를 行動으로 實證해야 한다.

③ 이러한 우리의 要求를 北韓이 수락하여 實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確實히 認定할 수 있고, 또한 「유엔」에 의해 明確하게 確認될 경우에는 南

北間에 가로놓인 人爲的 障壁을 段階的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現實的인 方案을 提示할 用意가 있다.

④ 北韓에 대해 「더 이상 무고한 北韓同胞의 民生을 犧牲시키면서 戰爭準備에 광분하는 罪惡을 범하지 말고 보다 善意的 競爭, 말하자면 民主主義와 共產獨裁의 그 어느 體制가 國民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與件을 가진 社會인가를 立證하는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競爭에 나설 用意가 없는가를 묻고 싶다는 것」이 그 主要 骨幹이었다.

-2) 戰爭抑制:

同族間에 流血의 慘劇을 빚어내고 나라의 財富과 國民의 財産을 잿더미로 化하게 하는 戰爭은 어떻게 해서라도 방지하는 것이 民族의 所願이며 歷史的인 課題이다. 특히 우리 民族은 6.25 動亂의 慘狀을 體驗하였기 때문에 戰爭防止는 무엇보다도 艱요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戰爭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南北間의 緊張을 緩和해야 하며, 또 相互 誤解와 不信을 解消해 나가야 한다. 南北關係가 이와 같은 方向으로 改善되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南北韓의 對話가 必要한 同時에 廣範한 南北交流를 통해 相互 理解의 분위기를 造成해야 한다. 한편 戰爭 防止의 與件이 確保됨이 없이는 平和統一의 努力은 奏效하지 못할 것이다.

-3) 平和統一에 대한 民族의 念願:

祖國의 平和統一은 8.15 解放後 民族의 一貫된 念願이다. 祖國의 分斷은 外勢에 의한 우리 民族에게 強要된 것인 만큼 統一을 平和的으로 이룩할 수 있는 機會를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精進해야 한다. 單一民族으로 統一國家의 悠久한 歷史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祖國 統一의 歷史的 任務를 한시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平和統一은 民族의 主體的 努力에 의해서만 이룩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무언가 南北間에 對話의 通路가 必要하며 統一의 與件을 造成하기 위한 南北의 共同努力이 있어야 한다. 南北共同聲明은 이와 같은 民族의 歷史的 念願을 反映한 것이다.

-4) 統一問題에 대한 大韓民國의 主導的 地位 :

祖國統一은 民族의 至上課題이며 統一의 內容은 民族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안되는 만큼, 여기서 統一問題에 대한 大韓民國의 主導가 必要하다. 大韓民國의 主導에 의한 統一만이 民族이 念願하는 民主主義 統一國家가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統一問題에 대해 大韓民國의 主導的 地位를 確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要件이 必要하며 現在 그 要件을 대충 갖추었고 그 展望은 밝다. 그 要件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經濟 및 社會 發展에서 南韓이 北韓에 비해 相對的 優位를 占하고, 이에 의해서 大韓民國의 理念과 體制가 北韓에 대한 相對的 優越性을 確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統一問題에 대한 國論이 統一되고 統一 努力에 대한 國民總和가 이룩되어야 한다.

③ 敵의 어떠한 挑戰 또는 背信的 侵攻에도 능히 對處할 수 있는 防衛態勢가 갖추어져야 한다.

④ 統一問題에 대해 大韓民國의 國際的 協力關係가 有利하게 展開되고 있어야 한다.

1960年代末 以來 大韓民國의 經濟開發計劃은 成功的으로 進行되어 民族中興을 期約하는 祖國 近代化 作業은 밝은 展望을 보이고 있다. 1980年代初에 輸出 100億弗, 國民所得 1人當 1000弗의 指標가 達成되면 經濟發展에서 南韓은 北韓에 비해 壓倒的 優位를 占할 것이며, 이에 따라 國民福祉向上도 획기적으로 轉換될 것이다.

한편 政府의 經濟政策 및 統一政策에 대한 國民의 支持와 協調는 그 어느 때보다도 두터워지고 있으며, 10月維新에 의한 國民總和의 基盤이 굳혀졌고 동시에 새마을 事業에 따른 國民의 開發과 創造의 精神이 偉大한 結實을 거두고 있다. 이것은 國家發展과 國民生活向上의 原動力이 될 것이다.

-5) 國際情勢 :

國際情勢는 美國과 中共사이의 和解가 象徵해 주고 있거니와 획기적인 緊

張緩和의 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極端的으로 對立한 東西兩陣營이 多
元化되고 있는 國際關係를 反映하고 있는 동시에 世界平和에 대한 人類의
여망을 反映하고 있다. 이러한 國際情勢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戰爭勃發의
危險地域으로 남아 있는 것은 國際潮流와 逆行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大韓民國의 政策이 國際的 要請과 背馳되면 폭 넓은 國際的 支持 및 協調
關係를 維持 發展시키기 어려우며 統一問題에서도 國際情勢에 맞추어 能動
的으로 對處해 나가기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國際情勢에 能動
的으로 適應해 나가는 가운데서 國家의 安全保障을 기하며, 동시에 統一問
題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7.4 南北共同聲明은 이와 같은 國際情勢의
推移가 또한 主要 背景의 하나로 되고 있다.

II-2. 統一原則

-1) 基本原則 :

大韓民國 政府는 政府樹立以來 統一에 관한 全體國民들의 所望을 統一成
就의 基本原則으로 設定하고 이 原則의 實現이 保障될 統一成就를 위해 不
斷히 努力해 왔다. 祖國統一에 관한 國民들의 所望은 다음과 같다.

① 統一은 同族間의 戰爭이 아닌 平和的 方法으로 成就되어야 한다. 統一
이 아무리 緊急한 民族의 課題라고 하더라도 이를 成就하는 方法에 있어서
는 어디까지나 武力手段이 아닌 平和的 文法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 國民들의 始源의인 所望인 것이다.

② 祖國의 統一은 自主的으로 成就되어야 한다. 우리의 國土가 強大國 政
治의 必要에서 分斷되었지만 祖國의 統一은 國民自身の 窮極的 決斷과 責任
下에서 成就되어야 할 課題인 것이다. 우리는 이 必要性을 強大國들의 韓半
島에 대한 信託統治 反對運動에서 切感했고 大韓民國은 反託運動에서 다져
진 國民의 自主獨立精神을 政府樹立의 精神의 支柱로 삼았기 때문에 自主的
統一이야말로 가장 根幹的 統一原則인 것이다.

③ 統一은 民主的으로 成就되어야 한다. 國民들의 意思와 關係없거나 國
民들의 意思가 無視되는 統一은 어느 것이나 國民들이 願하는 統一일 수 없

다. 따라서 우리의 統一은 모든 國民이 自由로운 意思表示의 機會가 保障되는 公正한 選舉를 통해 民主적으로 成就되어야 하며 統一政府의 形態도 國民多數의 自由로운 選擇으로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大韓民國 政府는 統一에 관한 國民들의 以上과 같은 所望에 立脚하여 統一實現의 基本原則을 平和, 自主, 民主의 原則에 두고 그러한 原則이 관철되고 保障될 수 있는 統一與件의 造成 誘導에 우리의 努力을 集中시키고 있다.

-2) 現段階의 統一原則 :

政府의 統一에 관한 基本原則은 過去나 現在나 變함이 없이 平和, 自主, 民主統一에 있다. 이 原則에 입각해서 政府는 8·15 宣言을 發表했고 이를 發展시켜 7·4 南北共同聲明을 誘導했으며 이를 한층 具體化시키고 現實的 結實을 얻어내기 위해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을 發表한 것이다.

이같은 措置는 平和, 自主, 民主統一이라는 基本原則 관찰을 위한 代案이며 朴正熙大統領이 1970년부터 最近까지 平和統一을 誘導하기 위한 諸措置를 斷行하는 가운데 定立한 現段階의 統一原則을 集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民族의 至上念願으로서의 祖國統一은 반드시 平和의 方法에 의해 民主적으로 成就되어야 한다.

② 南北韓은 統一이 成就될 때까지 過渡의 으로 「유엔」에 同時加入함으로써 「유엔」 憲章體制下에서 서로 侵略하지 않고 干涉하지 않는 條件에서 統一을 成就할 南北關係를 定立한다.

③ 祖國統一의 現實的 障礙要素인 南北間의 體制差異는 民族史的 正統性에 立脚해서 克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南北對話를 통한 서로의 社會를 서로에 開放하는 南北關係를 展開한다.

④ 南北間에 가로 놓여있는 諸般問題를 成功的으로 解決하기 위하여 해결하기 쉬운 문제부터 시작하여 점차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指向하는 段階的이며 漸進的인 努力을 경주한다.

⑤ 祖國統一을 위한 國際的 環境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는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와도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門戶를 開放한다,

以上の 諸原則은 70年代의 內外情勢에 대한 客觀的 評價와 韓半島에서 解決되어야 할 特徵을 바로 認識하고 이를 뒷받침할 多方面的 統合理論의 成果에 기초되어 있다.

다시 이 原則에 의한 統一의 實現은 北韓側이 이 原則의 眞意를 터득하는 時期와 涵數關係에 있으며 北韓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統一된 祖國의 榮光에 參與하거나 拒否함으로써 民族의 利益을 外面하는 孤立의 길을 가거나 兩者中의 하나를 選擇해야 할 것이다.

II-3. 7.4南北 共同聲明의 合意事項

-1) 合意事項 :

1971年 9月 20日 開始된 南北赤十字 會談이 進行되고 있는 가운데, 1972年 南北當局者間의 一連의 秘密 接觸으로 7月 4日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었다. 南北共同聲明에서 合意된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主的으로 解決되어야 한다.

② 統一은 서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使에 依據하지 않고 平和의 方法으로 實現되어야 한다.

③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우선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하여야 한다.

以上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7.4南北共同聲明에서 合意된 統一原則은 平和, 自主, 民族的 團結 등 大韓民國의 一貫된 統一政策과 合致하고 있다. 여기에서 7.4共同聲明이 우리 측의 主導的 努力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南北間의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해서 民族的 團結을 圖謀하여 統一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은 南北間의 對立된 理念과 社會制度를 論題로 삼고 서로 自己側의 理念과 體制를 相對方에게 強要한다면 緊張이 強化될뿐 統一問題 解決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認識에 基礎한 것이며, 結局 民族이 指向하는 대로 統一을 한다는 것으로서 民主統一의 原則과 合致한 것

이다.

실로 南北共同聲明은 民族이 바라는 統一問題 解決의 방식을 올바르게 反映한 것으로서 歷史的 課業이었다. 問題는 이 聲明에서 合意된 統一原則을 北韓이 모두 誠實하게 지켜 나가느냐이다. 어떻게 戰爭準備에 全力을 기울이고 있던 北韓側을 南北共同聲明에 同意토록 이끌었다는 것은 大韓民國 政府의 成功이라고 일단 보고, 合意된 統一原則을 어김없이 지키도록 우리 측은 忍耐性있는 努力을 기울여야 하겠다.

-2) 南北關係의 方向:

7·4南北共同聲明에서는 統一原則을 밝힌 동시에 南北關係 改善의 方向을 아울러 提起하였다.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雙方은 南北 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信賴의 분위기를 造成하기 위하여 서로 相對方을 中傷 誹謗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武力挑發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的 衝突事件을 防止하기 위한 積極적인 措置를 취한다는 點.

② 雙方은 끊어졌던 民族的 連繫를 回復하며 서로의 理解를 增進시키고 自主의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南北 사이에 多方面的인 諸般 交流를 實施한다는 點.

③ 南北赤十字 會談이 하루 빨리 成事되도록 積極 協調한다는 點.

④ 雙方은 突發的 軍事故를 防止하고 南北 사이에 提起되는 問題들을 直接 迅速 正確히 處理하기 위하여 서울과 平壤 사이에 常設 直通電話를 設置한다는 點 등을 合意하였다.

즉, 南北間의 緊張緩和, 理解와 信賴의 增進, 人道的 問題의 解決, 不意의 軍事的 事故의 防止 등을 그 骨子로 하고 있다.

이와같은 南北關係 改善의 方向은 大韓民國의 一貫된 統一政策과 符合되며 올바른 것이다. 休戰線 주변에서의 武力衝突 事件, 1968年 1月 21日 北韓 武裝 特攻隊가 서울에 침투하여 청와대를 습격하려다가 未遂에 그친 事件 등 北韓의 武力 挑發은 南韓 內部에 적지않은 影響을 끼쳤다. 이와같은 武力 挑發과 그에 의한 軍事的 衝突은 南北間의 緊張을 高조시켰을 뿐만 아

나라 戰爭의 要因으로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한편 南北間의 敵對關係를 解消하고 平和統一을 위한 對話의 廣장을 넓혀 나가자면 相互 理解와 信賴의 분위기가 造成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러자면 南北間의 各 分野에 걸친 폭 넓은 交流가 實施되어야 한다. 朴正熙 大統領은 8.15宣言에서 이미 北韓의 態度에 따라 南北間의 障壁을 段階的으로 除去할 用意가 있다고 宣言함으로써 南北交流에 대한 積極적인 자세를 시사했던 것이다.

다음 南北間의 人道的 問題 解決을 위한 南北赤十字 會談은 온겨레의 기대속에 進行되어 왔었다. 그러나 北韓側의 強奪的 要求와 北韓側의 一方的인 8.23宣言으로 中斷狀態에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과 평양간의 直通電話의 가설은 不意의 軍事事故 내지 戰爭을 防止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美國과 蘇聯사이에서도 平和共存關係에 들어선 이래 「워싱턴」과 「모스크바」사이에서 直通電話(Hot Line)를 加設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우리는 6.25의 不意의 南侵에 따른 뼈아픈 경험에 비추어 南北間 直通電話의 設置가 주는 가치를 再認識하여야 될 것이다.

Ⅲ. 南北韓의 統一目標 및 政策의 對立

Ⅰ-1. 우리의 統一目標

-1) 우리는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統一國家의 實現을 目標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代替될 수 있는 어떠한 統一目標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統一目標가 合理的인 것은 다음의 事實이 立證한다.

①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統一國家는 大韓民國 國民의 要求이며 온 겨레의 念願이라는 點.

②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相對的 優越性은 大韓民國 國民이 實際 生活를 통해서 體驗되었다는 點 등이다.

-2) 統一目標 具現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點이 考慮되어야 한다.

① 7.4 南北共同聲明에서 合意된 統一原則은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統一 國家實現으로 具現되어야 하며

② 自由民主主義 統一國家 實現을 위한 우리의 努力은 強要가 아니라 民族의 支持를 바탕으로 쟁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大韓民國의 自由民主主義의 優越性을 國民生活을 통해서 實證하여야 하고

③ 自由民主主義 理念을 具現하는 統一은 絶對的 課題인 만큼 이에 대한 어떠한 挑戰도 과감하게 물리쳐야 하며, 동시에 이를 저해하는 요소를 가차 없이 除去해야 한다.

Ⅲ-2. 北韓의 統一目標

1) 새로운 南北關係에도 不拘하고 北韓의 統一目標은 여전히 共產主義의 實現에 있다. 共產主義者들이 共產主義의 目標을 버리는 것은 自身이 共產主義者임을 否認하는 結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이 民族의 立場에서 있는 것처럼 主張하고 있으나 北韓은 自身이 國際 共產主義의 東方哨所라고 自處하고 있어 그들의 共產主義 統一目標은 國際共產主義 運動 내지 世界革命 目標의 一環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2) 赤化統一의 方法 :

北韓은 共產主義 統一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다. 6.25의 南侵도 그 企圖의 發露였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모험적이고 反民族의 行爲를 감행할는지 모르는 일이다. 北韓은 소위 「南朝鮮 革命」을 先行시키고 共產主義 統一을 이룩하려고 企圖해 왔다. 南北對話 時代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企圖를 拋棄했다는 증거를 아직 窺아 볼 수 없는 것이다(Ⅲ-5를 參照할 것).

Ⅲ-3. 南北對話의 問題點

7.4 南北共同聲明에서 統一原則이 合意되었음에도 不拘하고 統一目標가

相異하기 때문에 南北의 統一政策은 對立되고 있다. 對立 樣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政策의 基礎:

우리측은 統一에 民族의 自由意思가 民主主義의 方法으로 反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반해서 北韓側은 民主主義 方式에 의한 統一을 反對하고 있다.

-2) 接近方法:

우리측은 比較的 容易한 問題부터 풀어나가 南北間의 理解와 信賴를 回復하고 그를 토대로 問題 解決의 폭을 넓혀 나가며 統一 問題 解決에 점차 接近해 나가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側은 이에 관해서 大韓民國의 安全과 反共體制를 약화시키는데 主眼點을 둔 問題를 先行시키려 하고 있다.

-3) 南北對話의 問題點:

두갈래 對話의 問題點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赤十字會談: 「離散家族 찾기」라는 것과는 別個의 問題인 韓國內에서의 共產主義 運動을 合法化하기 위한 手段으로써 이른바 「韓國의 法律的, 社會的 環境改善」을 들고 나왔다. 即, 共產主義者들의 不斷한 社會秩序 破壞行爲와 政府의 顛覆活動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國家保安法」과 「反共法」의 撤廢를 要求하여 왔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民主主義의 理念을 實踐하는 國家어니만치 이들의 合法的인 限度內에서의 活動을 容認할 用意은 充分히 가지고 있으나 現在의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暴力革命的인 性格이나 過去의 挑發的 行態로 미루어 볼 때 또 그들의 韓半島 赤化統一路線에는 何等の 變化도 찾을 수 없는 것이 分明할진대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우리의 安全保障을 위해서 共產黨의 合法的 存在를 認定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破壞的 活動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安全保障上 堪耐할 수 없는 代價를 支拂하면서까지 對話를 推進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赤十字會談은 膠着狀態를 면치 못하고 있다.

② 調節委員會 會談에서도 韓國은 現實的으로 可能한 部分인 經濟, 社會,

「스포츠」 등 非政治分野의 交流의 優先實施을 主張한 反面에 北韓側은 政治, 軍事的인 問題의 一括處理을 내세우면서 平和協定締結을 優先하자고 主張하여 왔다. 이 平和協定의 內容은 分明치 않으나 2次 調節委에서 北韓側이 내세운 5個項을 中心으로 要約해 볼 때 우선 南北韓의 正規軍을 10萬이하로 減縮하고 外國으로부터의 武器搬入을 禁止하며 美軍을 撤收시키자는 것 등이다.

이같은 北韓側의 主張은 表面上으로는 合理的인것 같이 보이나 그 실은 大韓民國의 安全保障能力을 完全히 분쇄하려는 意圖가 內包되어 있다.

첫째, 10萬減軍問題를 볼 때 北韓은 140萬의 勞農赤衛隊 70萬의 붉은靑年近衛隊 등 非正規兵力을 編성한지 이미 오래 되었고, 이들에 대해서는 週 17時間씩 戰鬥訓練뿐만 아니라 攻擊用 火器 등으로 武裝되어 있어 減軍問題와 相關없이 210萬의 正規軍級 戰力이 恒時 確保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反해 韓國에는 鄉土豫備軍이 編成되어 있으나 이들에게는 「갈빈」銃도 제대로 配當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나 個人의 生業을 優先적으로 考慮하여 運營되고 있는 實情이다. 때문에 北韓側의 正規軍 10萬 減軍 主張은 大韓民國의 防衛力만을 一方的으로 強化시키고 그들이 軍事的 優位를 維持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둘째, 外國으로부터의 武器搬入의 禁止問題를 생각해 볼 때, 北韓은 이미 4大 軍事路線에 의한 單獨戰爭 遂行能力을 具備하였을 뿐만 아니라 日帝時에 남은 重工業施設을 軍需産業으로 轉用, 繼續 發展시켜 現在 戰鬥機를 除外한 모든 武器의 自給自足體制를 갖추고 있으나 韓國은 小銃 한자루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이 主張 역시 大韓民國의 軍事的 弱화를 노린 主張이 아닐 수 없다.

셋째, 北韓側의 美軍撤收 主張이다.

北韓은 地理的으로 中共 및 蘇聯과 바로 隣接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軍事同盟을 締結하고 있다. 한편 韓國은 美國과 防衛條約을 締結하고 있긴 하여도 美國과의 距離는 太平洋을 사이에 끼고 있다.

이러한 地政學的 特殊性을 考慮해 볼 때 美軍撤收는 韓國의 安全만을 全的으로 위태롭게 하게 된다. 結局 北韓의 平和協定 締結 要求는 「그들에게

無條件 降伏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南北對話를 重要視하지만 이같은 代價를 支拂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때문에 南北調節委 會談도 큰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第4章 南北關係 發展의 方向과 展望

人道的 問題解決을 위한 南北赤十字 會談과 南北間의 關係改善 및 統一問題 解決을 위한 南北調節委員會 會議가 서울과 平壤을 번갈아 왕래하면서 열리고 있다. 이렇게 變化되고 있는 南北關係를 어떻게 理解하며 그 方向과 展望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는 教育의 主要 課題로 되지 않을 수 없다.

本章의 目標은 새로운 南北關係의 性格과 南北關係 發展의 方向 및 展望을 올바르게 理解함으로써 民主統一의 歷史的 使命感을 鼓吹하고 南北關係의 改善 및 平和統一에 대한 우리의 政策을 國民總和로 뒷받침함으로써 南北對話가 所期의 成果를 거두게 함에 있다.

本章의 內容 및 強調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 南北關係 發展의 方向은 무엇보다도 平和的 關係의 維持가 先行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民族의 同質性 回復을 위한 努力과 南北間의 相互理解 및 信賴의 增進에 注力함으로써 점차 平和統一에 接近하는 方向으로 發展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南北間의 異質의 理念과 體制間의 調和에 의한 統一은 期待할 수 없는 만큼 南北間 善意의 競爭에 의한 統一問題 解決의 主導의 地位 確保가 必要하며 그 중에서도 國家安保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國際的 協力關係의 確保가 소중하다는 점.

셋째, 南北關係의 性格으로 보아 統一問題의 解決은 短時日內에 解決될 可能性며 희박한 만큼 이에 對備하여 統一問題 接近에 原動力이 되는 國力을 培養하고 國民意志의 總和를 기해야 한다는 점.

네째, 南北對話의 發展과 그에 의한 南北間 平和關係의 維持는 平和統一에의 接近에 緊要한 課題로 되고 있다는 점.

다섯째, 6·23宣言은 南北關係의 方向과 平和統一에 대한 接近方式을 賢明하게 提示하고 있다는 점.

여섯째, 南北對話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韓半島 赤化를 拋棄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을 再強調하여야 할 것이다.

I. 南北關係 發展의 方向

I-1. 南北間의 理解 및 信賴의 增進

-1) 必要性:

南北間의 誤解와 不信은 바람직한 南北關係의 發展을 沮害할 뿐 아니라 緊張의 要因이 되며 나아가서 戰爭勃發의 要因이 되기도 한다. 특히 北韓은 一貫된 教條主義의 思考方式에 立脚하여 大韓民國의 政策을 認識하고 우리의 情勢를 判斷하고 있기 때문에 南北間의 關係改善 및 平和統一에 대한 우리側의 誠實한 態度을 믿으려 들지 않는다. 우리側은 南北對話와 接觸을 통해 北韓의 이러한 誤解를 풀어주고 同時에 北韓을 올바르게 理解하는데 努力할 것이다.

-2) 北韓의 態度:

理解와 信賴가 南北關係 發展의 基調로 되는만큼 南北關係의 發展은 段階的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現實的 與件을 無視하고 「合作」을 主張한다. 7·4南北共同 聲明은 南北間에 到達할 目標와 그 方法을 提示한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는 合作主張의 根據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南北間의 理解와 信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合作」이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3) 우리의 立場과 方向:

([南北間의 理解와 信賴는 對話를 통한 見解 交換과 함께 接觸과 交流의 폭을 넓힐 때 增進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會議(73.3) 이래 經濟 및 社會·文化交流의 早速한 實施와 더불어 南北間의 相互 社會開放을 提議하고 있다. 南北間의 理解와 信賴는 南北 當局間에서 단이 아니라 同胞間에서도 增進되어야 한다. 當局間의 理解와 信賴는 限界가 있으나 南北 同胞間에는 무한히 增進될 수 있고 이것은 곧 國土統一의 原動力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社會를 開放化시켜 同胞들간의 交流의 폭을 넓힐 計劃인 것이다.)

I-2. 民族的 同質性的 回復

-1) 必要性 :

南北間에는 理念과 體制가 맞지 않고 統一目標가 對立되고 있기 때문에 南北關係의 改善 및 平和統一 努力은 民族的 同質性的 回復에 重點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對話의 課題 :

對話에 있어 각기의 理念과 體制에 걸리는 問題를 解決課題로 어느 일방이 提起할 때는 論爭만 되풀이 될 뿐 南北關係의 改善이 어렵고 問題接近이 어려울 것임으로 相互의 利益이나 民族的 立場이 南北對話의 課題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南北은 본래 같은 民族이면서도 南北間에는 民族觀이 달라지고 있으며 더욱이 政治的 對立意識으로 말미암아 相互 敵對視되고 있다. 이와같은 民族의 異質化가 南北關係 緊張의 要因 가운데 하나로 되고 있어 統一問題 解決을 보다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思想 및 政治意識上的 對立에도 不拘하고 하나의 民族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共通된 民族的 立場이 存在한다. 이 共通點을 넓혀 나간다면 相對的으로 思想 및 政治意識上的 對立은 緩和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統一은 南北의 相異한 理念과 體制 및 對立된 統一目標에 대한 妥協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오직 民族的 同質性的 回復 및 擴大로서만이 비로소 可能할 수 있다. 따라서 民族的 同質性的 回復은 우리의 統一努力의 中心的 課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南北對話 素材 開發方向 :

南北韓에 걸친 民族的 意志와 指向의 連結은 北韓의 反民族的 立場과 政策을 견제하는 強力한 힘이 될 수 있다. 이것은 南北關係의 바람직한 發展 및 統一問題 解決의 接近을 推進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單一民族이고 또한 民族 共同運命體로서의 歷史意識이 강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南北關係에서 民族的 同質性 回復의 意義를 각별히 重要視해야 할 것이다.

II. 南北間의 競爭과 韓國의 安全保障

II-1. 南北間의 競爭과 그 意義

-1) 競爭의 不可避性 :

南北間에 統一目標가 對立되고 있으며 그것이 妥協에 의해서 합치될 可能性이 없기 때문에 自然히 競爭이 不可避하게 된다. 北韓側은 統一의 수단으로서 武力과 暴力革命을 併行시켜 왔고 우리는 戰爭을 抑制하고 北韓을 平和的 競爭의 南北關係로 誘導시켜 왔다. 卽 우리는 8·15宣言에서 南北間의 善意的 競爭을 호소한 바 있고, 1973年 6月23日에는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을 통해 우리의 以上과 같은 政策을 再確認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武力에 의한 統一의 可能性이 없다고 判斷되던 좋은 時辰에 南北間의 競爭에 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여기에서도 그들이 優位를 차지함으로써 統一問題의 主導權을 장악하려 企圖할 것이다. 1973年 12月 北韓의 體制 改編은 南北間의 競爭에 對備하기 위한 것으로 判斷된다.

-2) 南北間의 競爭內容 :

南北間 競爭의 內容은 經濟 및 社會發展이며 그에 의해 雙方의 理念 및 體制의 優劣이 證明되는 것이다. 이같은 立場에서 볼 때 大韓民國 政府의 祖國 近代化와 經濟開發 計劃은 重要한 意義를 가지는 것이며 이와 아울러 體制는 물론 人間의 尊嚴性과 自由의 保障이 중시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競爭에서 우리側이 勝利하게 되면 大韓民國의 祖國像이 北韓同胞들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게 되고 그리되었을 때 大韓民國의 主導下에 統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II-2. 總力安保의 意義

南北對話 가운데서도 北韓이 武力에 의한 統一을 拋棄했다는 證據를 찾아볼 수 없는 한, 우리는 寸分도 우리의 安保를 소홀히 할 수 없다. 北韓은 소위 革命的 方法에 의한 統一과 武力에 의한 統一을 並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總力安保로 대응하는 한편 政局 및 社會의 安定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北韓이 武力統一의 勝算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平和的 南北關係를 維持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國力을 더욱 培養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南北韓 關係에서의 有利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것이다.

II-3. 國際的 協力關係의 意義

-1) 南北關係와 國際協力の 不可分性:

새로운 南北關係에 있어서도 大韓民國의 國際的 協力關係가 重要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南北關係의 發展과 國際的 協力關係는 相衡되지 않고 均衡을 이루어 維持 發展되어야 한다. 1973年 6月 23日 朴大統領의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에서는 民主友邦과의 既存紐帶를 公고히 해야 한다는 종래의 政策을 再確認하고 나아가서 互惠平等의 原則아래 共產國家들과도 外交關係를 개선할 姿勢를 淸명하였다.

國際的 協力關係는 大韓民國 政府의 對北 및 統一政策을 뒷받침해 준다. 南北對話는 힘의 均衡이 背景으로 됨으로써 進展될 수 있으며 힘의 關係에 있어서 우리側이 優位를 占함으로써만 統一 指向으로 南北關係가 發展할 수 있다. 國際的 協력이 南北間 힘의 關係 變化의 要因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國際協力の 內容:

大韓民國의 경우에 國際的 協力の 主要內容은 國家 安全保障과 經濟發展計劃에 대한 國際的 協력과 支援 外에도 統一問題에 대한 올바른 國際的 支持가 절대 증시된다는 것이다. 특히 南北關係 및 統一問題에 대한 國際的 協力關係의 重要한 內容은 大韓民國의 國際的 地位向上과 아울러 北韓의 大韓民國 孤立化 劃策을 效率적으로 저지하는 問題로 集約될 수 있다.

오늘날 北韓이 大韓民國의 安全保障 및 經濟發展에 重要한 기여를 하고 있는 韓美關係를 脆弱化 내지 破壞하려고 책동하고 있음을 勘案해 볼 때 國際協力の 意義는 더욱 증시되는 것이다.

-3) 國際協力の 方向 :

國際關係를 維持, 發展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時代感覺으로 國際潮流에 역행하지 않고 能動的으로 適應해야 하며 또 民主友邦을 비롯한 世界 여러 나라들과 共同利益의 基盤 위에서 紐帶를 緊密히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6·23宣言의 意義가 더욱 부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Ⅲ. 南北關係의 展望과 韓國의 役割

Ⅲ-1. 統一問題 解決의 長期性

-1) 理 由 :

우선 統一問題 解決에 대한 南北間의 目標의 對立은 統一 原則을 合意한 7·4南北共同聲明에도 不拘하고 長期性을 띠지 않을 수 없다. 即 北韓共產主義者들이 統一을 위해 共產主義의 目的을 拋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統一問題에 대한 國際關係도 統一의 長期化 要因의 하나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統一의 相對方으로서 北韓뿐만 아니라 그 背後에 있는 中共과 蘇聯을 생각해야 하고 統一問題는 對內的 統一 與件의 成熟과 國際關係의 調和가 同時에 이루어질 때 解決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國民의 態度 :

따라서 統一問題 解決을 위해 努力하는 우리는 主·客觀的 與件에 따른 長期的이고 巨視的 展望에서 悲觀論이나 宿命論 및 早急論에 빠짐이 없이 與件造成을 確實히 推進해 나가야 한다.

Ⅲ-2. 統一問題에 대한 우리의 主導的 役割

-1) 主導的 役割의 必要性 :

統一問題에 있어서 우리側이 主導的 役割을 하여야만이 自由民主主義 理念을 구현시키고 民族國家의 繁榮을 圖謀할 수 있으며 統一問題는 外勢와 國際潮流에만 依存하지 않고 民族이 自主的으로 解決해야 할 性質의 것인 만큼 우리側이 統一問題에서 主導的 地位를 確保하여야만이 民主統一의 기

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다.

-2) 主導的 役割의 要件:

다음과 같은 要件이 갖추어져야 統一問題에서 우리側이 主導的 役割을 할 수 있다.

① 社會, 經濟的 側面에서 大韓民國이 壓倒的 優位를 占하고 大韓民國의 祖國像이 北韓同胞의 가슴에까지 심어져야 한다.

② 大韓民國의 平和統一 政策이 國內에서 뿐만 아니라 國際的 支持를 받아 統一問題에 대한 國際的 協力關係에서도 大韓民國이 優勢한 고지를 確保해야 한다.

③ 大韓民國의 安全保障이 確立되어 共產侵略을 防止할 수 있어야 한다.

④ 統一問題에 대한 國民意志의 統一이 確保됨으로써 政府의 統一政策이 과감하게 推進될 수 있어야 한다.

Ⅲ-3. 南北對話의 發展과 平和關係의 維持

-1) 南北對話 發展의 必要성과 우리의 立場:

① 南北對話는 雙方의 對立된 基本立場이 反映되어 바람직하게 進展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험난한 길이 豫想되고 있다. 그러나 南北對話는 南北間 平和關係의 維持와 平和統一에의 接近에 必要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中斷함이 없이 維持 發展시켜야 한다.

② 南北對話는 南北赤十字 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 會議의 두 가지 通路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誠意와 忍耐性있는 努力으로 南北對話를 發展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統一問題에 대해 우리側이 主導的 地位를 確保하여 平和統一에 漸次的으로 接近해 나가야 한다.

③ 우리의 基本 統一政策은 平和統一인 만큼 南北對話가 維持됨이 없이 統一問題에 관한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어려운 問題이다.

그리하여 朴正熙 大統領은 6·23宣言을 통해 誠實과 忍耐로 統一努力을 繼續할 것이라고 申明하였다.

-2) 南北 平和關係 維持의 必要性:

南北間의 平和關係가 維持됨이 없이는 平和統一의 努力은 奏效할 수 없

다. 그것은 北韓이 南北對話를 進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1973年 金日成의 新年辭에서 公言한 바와 같이 소위 4大 軍事路線 即 全人民의 武裝化, 全 國土의 要塞化, 全軍의 幹部化 및 武裝의 現代化를 推進하고 있기 때문이 다. 4大 軍事路線은 防衛에 目的이 있을뿐만 아니라 武力에 의한 統一企 圖를 拋棄하지 않고 있음을 意味한다. 따라서 對話있는 새로운 南北關係에 있어서도 南北間 平和關係 維持를 위해서는 우리의 主導的인 努力이 不可缺 한 것이다. 即 傳統的으로 好戰의이고 6·25南侵을 敢行한 北韓 共產主義者 들을 相對로 統一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노력을 하고 南北間의 平和關 係의 維持, 發展은 大韓民國 政府의 主導的 役割에 의해서 이룩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Ⅲ-4. 6·23宣言과 南北關係의 方向

-1) 6·23宣言의 要旨 :

- ① 祖國의 平和統一을 위해 모든 努力을 繼續한다.
- ② 南北韓은 相互 相對方의 內政을 干涉하지 않아야 하며 侵略을 하지 않 아야 한다.
- ③ 南北對話의 成果를 위해 誠實과 忍耐로 努力한다.
- ④ 緊張緩和를 위해 北韓의 國際機構 參與를 反對하지 않는다.
- ⑤ 統一에 障礙가 안된다면 南北이 各各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 하지 않는다.
- ⑥ 互惠平等의 原則아래 모든 國家와 門戶를 開放한다.
- ⑦ 友邦國家와 既存 紐帶를 공고히 한다.

이에 덧붙여 北韓에 대한 以上の 政策은 統一이 成就될 때까지의 過渡的 暫定措置임을 指摘하고 北韓을 國家로 承認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2) 6·23宣言의 意義 :

- ① 平和統一에 基礎한 統一努力이다. 南北關係가 對話있는 새로운 時代로 轉換되고 더욱이 統一原則에 合意한 7·4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었음에도 不 拘하고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南北의 價值觀과 統一目標의 對立으로 南北 對話는 바람직한 進展을 보지 못하고 平和統一의 展望은 여전히 憂鬱한 形

便에 있다. 이러한 狀態는 統一問題가 南北雙方 立場의 接近에 의해서 解決될 可能性이 稀薄하므로 統一의 成就를 위해서는 長期間의 努力이 不可避함을 말해주고 있다.

大韓民國 政府는 이와같은 實情에서 무엇보다도 南北間에 戰爭이 일어나지 않도록 平和關係를 공고히 하고 이에 基礎하여 平和統一의 努力의 成果를 쌓아 窮極의 平和統一을 成就하고 말겠다는 것이다.

② 平和統一의 捷徑을 提示하였다. 統一問題가 南北間의 對話에 의해서 解決될 수 없다면 平和的 競爭의 結果로 問題解決의 길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競爭은 어느쪽의 理念과 體制가 民族의 絶對의 支持를 받을 것이냐는 方向으로 나갈 것이며 이 競爭에 勝利하기 위해서는 經濟 및 社會發展과 福祉國家 建設이 北韓을 월등히 凌駕할 수 있어야 한다.

大韓民國은 經濟發展 政策이 成功的으로 進展되고 政治 및 社會的 安定의 토대를 構築함으로써 南北間의 競爭에 자신을 가지고 배진하고 있다. 이를 基礎로 「유엔」同時加入 등 國際機構에 北韓을 끌어들여 「유엔」憲章, 國際法 및 國際秩序속에서 韓半島의 平和를 定着시키려는 것이다.

③ 6·23宣言은 國土分斷의 責任 所在를 糾明하였다. 8·15解放以後 大韓民國 政府는 祖國의 平和統一을 위해서 公明正大한 提案을 하고 그의 具現을 위하여 誠意있는 努力을 해왔으나 그때마다 北韓은 拒否해 왔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側은 國土統一이 안되고 있는 責任을 우리側에 전가시키기 일췌였다. 특히 南北對話가 進行되는 중에서도 韓國을 孤立化시키기 위해서 外交網의 擴張과 國際機構 加入에 全力을 傾注하였다. 이러한 北韓의 僞裝 平和攻勢를 對內外에 폭로한 것이 곧 6·23平和統一 外交宣言인 것이다.

④ 6·23宣言은 北韓의 侵略策動에 대한 國際的 牽制作用을 한다. 이는 平和統一에 否定的 影響을 주는 國際舞台에서의 南北間의 外交的 敵對關係를 緩和하는 한편, 北韓으로 하여금 平和를 指向하는 國際情勢의 潮流에 따르게 하고 나아가 國際輿論의 壓力에 의해 北韓의 侵略策動을 牽制시키자는 데도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

-3) 北韓의 反應 :

우리의 6·23宣言이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自主의 平和統一 與件을 實質的으로 改善하려는 가장 現實的인 努力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이를 正面으로 拒否하고 소위 「高麗聯邦制 實施 後 유엔 加入」이라는 새로운 엉뚱한 提案을 하여 왔다.

이는 우리의 平和統一-外交政策 宣言이 現在 南北間에 介在된 諸般 問題點을 가장 現實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方法이며, 또한 國際大勢에 合理的으로 對處한 措置임을 보자 이에 當황한 窮余之策인 것이다.

「高麗聯邦制 實施 後 유엔 加入」운운은 現在 北韓의 故意的인 政治造作으로 膠着狀態에 빠진 南北對話마저 完全히 破壞하려는 行爲이며, 더 나아가 두개의 韓國에 대한 責任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려는 術策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8·28宣言을 통해 일방적으로 南北對話를 중단시켜 버렸다.

Ⅲ-5. 「南北聯邦制」主張의 虛構性

-1) 聯邦制 主張의 經緯와 內容 :

北韓이 南北聯邦制를 처음으로 提案한 것은 4·19義擧 後 南韓에서 民主黨 政權이 樹立되고 平和統一論爭이 汗창 벌어지고 있었던 1960년의 8·15紀念式에서 行한 金日成 演說에서 비롯된다. 즉 『① 外勢干涉 없이 民主主義의 基礎위에서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實施한다. ② 南北總選舉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過渡的 措置로서 南北聯邦制를 實施한다. 南北聯邦制는 南北에 現存하는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兩政府의 獨自의 活動을 保障하는 同時에 兩政府 代表로 構成되는 最高民族委員會를 組織하여 주로 南北의 經濟, 文化 發展을 統一的으로 調節한다. ③ 만일 上記 提案에 同意치 않으면 南北의 產業界 代表로 構成되는 純全한 經濟委員會라도 構成할 것을 提議한다.』

이같은 南北聯邦制 提案은 그후 南韓의 5·16革命으로 인한 情勢安定과 함께 北韓 內部的 戰爭準備 政策으로 事實上 中斷되었다가 1969年 8·15紀念式에서 行한 金一(當時 第一副首相, 現在 政務院 總理)의 演說에서 다시

提起되었다. 이때는 越南戰의 終戰 展望이 거의 確實하게 나타 보였고 한때 惡化되었던 北韓의 對中共關係가 好轉되는 時期로, 平和統一 政策 및 戰略을 再定立하고 이 새로운 情勢에 適應하기 위한 必要에 의한 것이었다.

그후 1971年 4月 12日 北韓 外務相 許淡이 發表한 8個項目의 統一方案 가운데서도 南北聯邦制가 提案되었는데 1960年 金日成이 처음으로 提案한 것과 대체로 同一한 內容의 것이었다.

그리고 南北對話와 함께 公式의 南北聯邦制案을 提示한 것은 1972年 8月 17日 金日成의 日本「每日新聞」記者와의 會見에서였다. 金日成은 同會見에서 『平和의 祖國統一을 하루 빨리 實施하기 위해서 우선 南北聯邦制를 實施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主張하는 南北聯邦制는 南北의 現存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政府와 大韓民國 政府의 代表로 「最高民族會議」를 組織하여 南北間에 提起되는 政治, 經濟, 軍事, 文化의 諸問題를 解決함으로써 民族的 團結을 이룩하자는 것이다』라고 南北聯邦制에 관하여 說明하였다. 그리고 南北聯邦制에 의해서 展開될 南北關係의 樣相에 대해서는 『南北間에 보다 廣範한 接觸과 往來가 實現되고 經濟, 文化의 交流도 一層 圓滑하게 實現될 것이다. 南北이 經濟的으로 合作하고 交流를 하면 共和國 北半部의 發達한 重工業과 豊富한 地下 資源을 利用하여 南朝鮮의 經濟狀態를 빠르게 改善할 수 있으며, 南北朝鮮人民의 生活에 극히 有益한 것이다. 南北의 經濟人과 文化人, 藝術家가 서로 南北을 오가면서 體育競技와 藝術公演을 하며, 國際「스포츠」競技와 國際藝術祭에 南北 單一「팀」과 南北 單一 藝術團을 構成해서 보낼 수 있다. 記者도 자유로이 往來하여 取材活動을 하며 平壤과 서울에 記者代表部와 新聞社의 支局을 設置하여 南北間에 新聞, 雜誌를 交換하는 活動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부언했다.

또한 南北聯邦制가 나라의 平和의 및 自主的 統一에 있어서 지니고 있는 意義와 役割에 관해서 『이와같이 南北聯邦制를 實施하여 南北間에 經濟 및 文化를 비롯한 모든 分野에서 廣範한 交流와 往來가 實現되면 南北間의 不信과 차디찬 感情은 解消되어 서로 理解하고 信賴하는 雰圍氣가 造成됨으로

세 民族的 團結이 容易하게 이룩될 것이며, 南北間에 信賴의 霧圍氣가 造成되어 民族的 團結이 이룩되면 어떠한 外部勢力의 干涉도 받지 않고 民主主義의 南北總選舉를 통해 全朝鮮統一政府를 樹立하는 方法으로 나라의 自主의 平和統一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후 北韓은 南北對話가 本 軌道에 들어감에 따라 第2, 3次 南北調節委員會에서 『무엇보다도 北과 南사이에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고 緊張狀態를 가시게 하는 것은 現時期의 誤解와 不信을 풀며, 南北關係를 改善하고 平和統一을 實現하기 위한 가장 關鍵的 問題』라고 力說하면서 平和統一을 이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武力增強과 軍備競爭 中止, 外國軍隊 撤收, 軍隊와 軍備의 縮小, 外國으로부터의 武器搬入 中止, 平和協定 締結 등을 主張했다.

이리하여 南北調節委員會에서 韓國側의 「南北社會 完全開放」對 北韓側의 「軍事問題 優先解決」主張이 서로 맞서 對話는 停頓되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朴正熙 大統領의 6·23 特別宣言이 發表되자 金日成은 같은 날 午後 8時 「후사크」「체코」共産黨 總秘書 歡迎大會 演說을 통해 이른바 「高麗聯邦共和國」名稱을 最初로 舉論하면서 다음과 같은 發言을 했다. 즉

- ① 南北사이의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시키고 緊張狀態를 緩和시키고,
- ② 北과 南사이의 多方面的인 合作과 交流를 實現하고,
- ③ 北과 南의 各界 各層 人民들과 政黨, 社會團體代表로 構成되는 「大民族會議」를 召集하고,
- ④ 現存 制度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南北聯邦制를 實現하며, 國號는 「高麗聯邦共和國」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⑤ 單一한 高麗聯邦 國號를 가지고 「유엔」에 들어가야 한다는 內容이었다.

2) 南北對話 以前과 以後의 聯邦制 提議에 있어 特異點 :

첫째, 南北對話 以前에는 獨立的인 諸般 統一方案을 提示하고 南韓側이 聯邦制이든 또는 어느 하나를 택하라는 方式이었는데 對話 以後에는 이를 止揚하고 聯邦制를 다른 統一方案과 不可分하게 關聯시켜 提議하고 있는 點이다.

둘째, 南北對話 以前에는 宣傳의 이거나 大衆의 鬭爭 課題로서 南北聯邦制를 提起한데 비해 對話 以後에는 宣傳과 大衆的 鬭爭課題로서는 물론 南北當局間의 對話의 主題로서 올려 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南北對話에서 聯邦制 問題의 解決 可能性이 稀薄해 질수록 宣傳 및 鬭爭 課題로서의 比重을 相對的으로 높여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째, 南北對話 以前에는 南北聯邦制 實現에 何等の 前提條件을 붙이지 않았는데 反해 오늘날에는 南北間의 軍事問題 解決을 先行條件으로 들고 있다는 點이다.

이를 볼 때 北韓은 南北聯邦制를 提起하는 것 自體에서 어떤 效果를 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施行의 段階에서 前提條件을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二重, 三重으로 묶어놓고 南北對話의 進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3) 「南北聯邦制」의 概念 :

이는 統一指向의인 것이면서도 主·客觀의 情勢의 推移에 따라 南北間에 平和의 關係가 維持되는 分斷固定化 政策에도 利用될 수 있다는 것이다. 南北聯邦制案이 갖는 이러한 兩面性은 南北對話 時代에 있어서 北韓의 現實의 立場과 소위 革命的 立場의 兩面을 併行시키고 情勢의 推移에 따라 그 가운데 어느 한쪽의 比重을 높이거나 또는 줄일 수 있는 戰略 戰術과 關聯되고 있다.

現時期의 南北聯邦制案이 本質的 또는 理論的으로 統一指向의임은 다음과 같은 北韓의 解說에서 明白히 엿볼 수 있다. 1972년 11月 16日 平壤放送은 『南北聯邦制는 汎「아랍」主義와 같이 條約에 의한 國家의 單純한 結合으로 加入國들이 同意한 事項에 관해서만 統制가 可能한 國家聯合과는 本質적으로 相異하며 또한 美國과 「스위스」, 「카나다」의 聯邦과도 相異하다. 오랜 歷史를 거쳐온 한 民族 한 國家안에서 外來侵略者에 의한 民族分裂과 國土 兩斷을 끝장내고 祖國統一을 앞당기기 위한 過渡的 措置이다. 獨立的 中央 政府가 없는 條件에서 統一의인 國家施策은 못하나 合意에 이른 問題를 共同으로 解決하며 廣範한 接觸과 對話의 實現 및 諸般交流를 圓滿하게 實現

할 수 있게 함으로써 統一的인 發展을 保障할 수 있다』고 그 性格을 밝혔다.

即 南北聯邦制는 南北에 各各 二個의 主權國家가 存在하고 있는 것을 條件으로 하고 있다는 意味에서 美國과 「스위스」등의 聯邦과 區別되며, 한편 南北聯邦制는 統一을 目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랍」의 國家聯合 등과도 區別되어야 한다는 論理이다.

요컨대 北韓이 提案한 南北聯邦制는 分斷된 韓半島에 二個의 主權國家가 存在하고 있다는 認定이 한 側面이며 다른 한 側面은 統一國家를 指向하기 위한 措置라는 主張에 그 特徵이 있다.

물론 北韓의 南北聯邦制案이 統一指向的인 側面이 있다고 하여 民族共同의 念願에 基礎한 統一國家의 實現을 追求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北韓이 共產化 統一을 絶對的 課題로 하고 있는 것은 南北對話의 前後에 걸쳐 전혀 變化가 없는 만큼 오늘날의 南北聯邦制案은 소위 對南革命戰略의 一環으로 提起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統一指向的이란 側面의 全部이다.

-4) 「南北聯邦制」를 對南革命戰略의 一環으로 提案한 理由 :

① 統一의 基本障礙인 美軍을 온 겨레의 團合된 힘에 의해 撤收케 할 與件을 만들며, 統一問題 解決에 대한 美國의 干涉을 排除하도록 하는 現實的 方途가 必要하며, ② 思想, 理念, 制度가 相剋된 南北의 現實은 多方面的인 交流에 있어 그 制限性이 不可避하므로 政治, 經濟, 文化, 軍事, 外交面의 民族的 連繫를 보다 促進할 수 있는 方途, 即 完全合作이 必要하며, ③ 以上の 諸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當분간 過渡的인 對策이 要求되며, 過渡的 措置(南北聯邦制)를 實施하는 過程에 外勢의 干涉없는 南北總選舉를 통한 統一政府를 樹立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할 수 있다(1972年 11月 22日 平壤放送)는데 있다.

여기서 再強調할 點은 金日成의 「高麗聯邦共和國」提案에서는 分明히 軍事의 問題 先決을 要求하여 駐韓美軍의 撤收를 南北聯邦制 實現의 先行條件으로 내 세움으로써 南北聯邦制의 實現으로 美軍撤收를 促求하자던 過去의 態度

로부터 轉換되었다는 事實이다.

北韓은 南北間의 平和條約 締結의 提案에서도 같은 變化를 보여주고 있다. 卽 1972年 1月 金日成이 日本「讀賣新聞」記者와의 會見에서 밝힌 바와 같이 『平和條約을 締結하고 駐韓美軍을 撤收케 한다』고 하여 平和條約 締結에 何等의 先行條件을 붙이지 않았는데 1973年 3月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 會議에서는 平和條約의 하나로 駐韓外國軍의 撤收를 包含시켜야 한다고 主張하고 나섰다. 北韓의 이와같은 一聯의 態度變化는 韓國側으로부터의 進攻勢를 豫想한 逃避路를 事前에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評價된다. 어떻든 南北聯邦制에 대한 北韓의 以上과 같은 立場은 同案이 對南革命戰略과 不可分の 關係에 있음이 分明하다.

한편 北韓의 南北聯邦制案에 南北間의 平和的 關係를 維持하고자 하는 現實의 立場이 反映되고 있는 側面은 平和共存 問題에 비추어서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北韓은 武力에 의한 統一의 機會를 얻지 못하고 또한 「南朝鮮革命」을 통한 共產化 統一의 戰略이 具現되지 못할 경우에는 體制維持와 統一問題 解決의 長期化에 對備하여 좋은 싫든 南北間의 平和的 共存을 肯定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는 韓半島內의 「두개의 政府」 내지 「두개의 國家」를 南北이 相互 認定하는 것이 되는 「南北聯邦制」가 合當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平和共存의 概念은 우리가 말하는 純粹한 概念이 아니라 共產主義의 概念이라는 點이다. 다시 말하면 北韓이 생각하고 있는 平和共存은 革命的 立場을 拋棄한 것이 아니라 다른 形態와 方法에 의해서 對南革命의 目的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5) 共產世界에서의 平和共存에 관한 理論 :

이는 1920年代의 「레닌」과 그리고 「스탈린」에서 發端을 찾아볼 수 있으나 對外政策과 革命戰略의 理論으로 發展시킨 것은 1950年代 後半期 「후르시초프」 蘇聯 首相이다. 「후르시초프」는 1956年 2月 蘇聯共產黨 第20次 大會에서 「國際外交에 있어서 몇가지 原則的 問題」라는 表題로 「平和的 共存」, 「戰爭防止의 可能性」,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로 가는 多様な 道」이라는

세가지 命題를 闡明하였다. 이것은 「후르시초프」가 1964년에 失脚했음에도 不拘하고 오늘날까지 蘇聯共產黨의 對外政策 路線 및 國際共產主義 運動의 戰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平和共存의 理論은 요컨대, 體制를 달리하는 社會主義 國家와 資本主義 國家間의 共存은 좋은 싫든 客觀的 實在인 만큼, 戰爭에 의한 世界革命의 可能性이 없는 條件에서 兩體制間에는 共同滅亡의 根源인 戰爭을 避하고 領土의 保全과 主權의 相互尊重, 不侵略, 內政 不干涉, 平等 및 互惠, 平和共存의 原則에 따라 平和의 으로 共存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나 兩體制間의 經濟 및 社會發展의 競爭에 의해서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優越性을 證明함으로써 共產主義 革命的 目標을 追求해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은 蘇聯의 이와같은 平和共存의 理論에 대하여 一貫性있는 態度를 갖지 못했는데 그것은 蘇聯의 平和共存政策이 北韓의 對南革命 目的을 充足할 수 있다고 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데 基因되고 있다. 이 점은 平和共存의 一面이 있는 南北聯邦制案의 政策的 및 戰略的 意圖를 糾明하는데 크게 參考로 될 것이다.

即 1950年代는 蘇聯의 平和共存 理論을 公式的으로 支持하고 同 路線이 同一問題에 주는 肯定的 意義를 強調하였다. (1957年 12月 5日 勞動黨 中央委員會 擴大全員會議에서의 金日成 演說) 그리고 이어 『蘇聯을 비롯한 強力한 社會主義 陣營과 世界平和 愛護 力量 및 南朝鮮의 모든 愛國的 力量을 團結하여 美帝와 李承晚 徒黨을 反對하는 鬭爭에 動員한다면 우리나라의 平和 統一은 達成될 것이다』라고 하여 世界的 平和共存을 背景으로 한 平和的 統一問題 解決의 展望을 表明하였다.

-6) 北韓이 蘇聯의 平和共存을 統一問題와 關聯시켜 支持한 前提條件: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共產圈의 經濟力을 비롯한 全體의 勢力이 不遠間 西方圈을 壓倒하고 共產主義 思想이 世界的으로 「어필」된다는 것.

② 共產圈의 勢力과 團結이 北韓의 統一政策 展開에 強力한 背景으로 된다는 것.

③ 南北韓의 經濟, 社會發展 및 對內的 團結面에서도 北韓이 優位를 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基本 前提條件은 1960年代에 무너지게 되었다. 美·蘇의 和解와 協力關係의 增進 및 中·蘇紛爭에서 보여준 共產圈의 分裂이 그것이며 또한 1960年代 以來 韓國 經濟의 急速한 成長「템포」와 밝은 展望으로 보아 南北韓 經濟發展에서 北韓이 優位를 占할 것이라는 從前의 確信도 動搖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같은 事情은 北韓의 平和共存에 대한 態度에 反映되어 『相異한 社會制度를 가진 國家와의 平和的 共存政策은 社會主義 國家 對外政策의 한 側面에 不過하다. 결코 그러한 政策에 의해서 反帝鬭爭을 溶解시킨다든가 또는 그에 의해서 反帝鬭爭을 弱화시켜서는 안된다.』(1965年 10月 10日 金日成의 演說)고 主張하기에 이르렀다.

-7) 「南北聯邦制」의 立脚點은 平和共存 理論과 相通 :

그 根據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① 韓半島에 現實的으로 體制를 달리하는 두個의 國家가 存在하고 있다는 認識이 前提로 되고 있는 點.
- ② 南北間의 關係는 戰爭에 의한 併合이 아니라 平和的이어야 한다는 點
- ③ 經濟, 社會發展 競爭과 階級鬭爭을 排除하지 않고 窮極의 目標은 社會主義 革命에 있다는 點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重視해야 할 點은 南北聯邦制案이 南北間의 經濟 및 社會發展 競爭에서 北韓이 勝利함으로써 統一問題에 主導權을 잡을 수 있다는 自信을 根據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같은 判斷이 動搖되면 南北聯邦制案을 戰略的 次元으로서의 性格을 褪色시켜 事實上 實現이 不可能한 合作과 軍縮, 平和協定 등 보다 어려운 條件을 添加하여 宣傳的 또는 戰術的 次元으로 標榜하는데 그치게 될 것이다.

다음 北韓이 主張하는 聯邦制는 政治學의 通念과도 어긋난다. 北韓의 南北聯邦制案이 聯邦 形成을 위하여 그 理念的 基礎를 밝히지 않고 있는 理由는 그들로서는 聯邦制 自體에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聯邦制 實施後 다만 統一共產政府를 樹立하기 위한 過渡的 措置로서만 意義를 賦與하고 있기 때

문에 北韓은 이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었고 또 말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그들의 眞意대로 밝히자면 共產主義를 理念的인 求心點으로 해야 한다고 할 것이겠지만 그렇게 하면 감춰두어야 할 그들의 企圖가 公開되기 때문에 그 點에 대해서는 깊이 말하러 하지 않고 다만 形式만의 南北聯邦制를 標榜했을 따름이다.

따라서 過渡의 措置로서 民族의 名分이 缺如된채 南北韓의 共通分母를 찾지 못하는 同聯邦制는 政略的인 것에 不遇한 것이다. 卽

① 北韓이 蘇聯, 中共 등 世界의 2大 共產國家와 接境하여 그들과 結束하고 있는데 反하여 韓國은 널리 大洋 건너 盟邦을 갖고 있는 地理的 不利 때문에 항상 威脅을 받고 있다는 事實을 重視하고,

② 북녘에 原料 및 地下資源이 豊富한데 反하여 韓國은 地下資源이 적고 平野가 많기 때문에 經濟的 相互 補完에 의하여 北韓은 南韓社會에 惠澤을 줄 수 있다는 點.

③ 위와 같은 事情 때문에 共產主義의 民族綱領의 一定한 命題를 南韓社會에 繼續 適用하면 韓半島의 共產化는 반드시 이룩할 수 있다는 「樂觀的」 革命主義에 基礎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北韓의 南北聯邦制는 그의 成立條件을 雙方의 理念的 同意에 두고 있는 것이므로 結局 하나의 理念에 의한 一方의 統合을 前提로 하는데로 부터 出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南北聯邦制는 「이데올로기」의 含蓄性에 있어서 暫定的으로는 韓國을 마치 韓半島의 한 구석에 樹立된 보잘 것 없는 「부르조아」民族主義 國家로 看做하고 그때까지는 併存關係를 維持하면서 그 過程에서 現狀을 破壞하는 共產主義 運動의 물결을 繼續 밀어 넣어 언젠가는 하나의 共產權力으로 全韓半島를 統合할 수 있게 하자는 思考方式을 基本으로 삼고 있다.

輕微한 것으로부터 重大한 것으로 干涉을 점차 昇華시킴으로써 그들이 行使하는 革命的 影響力에 의해 南韓社會의 革命的 改造가 可能해진다는 隣接地帶 革命論을 適用코자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北韓이 主張하는 聯邦制가 支分國家 結合에 의한 複合國家 또

는 條約에 의한 國家의 單純結合이라는 國際法上的의 類型과는 전혀 關係없는 政略의 特性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8) 國共合作時 中國共產黨이 主張한 聯合政府論과의 比較 :

이를 위해 먼저 中國大陸에 있어서의 情勢變化와 關聯하여 展開된 2次에 걸친 「國共合作」의 主要內容과 그 때마다의 中國共產黨의 戰略 戰術을 概觀 하던 다음과 같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第1次 國共合作(1923~27)은 「콤민테른」(第3 國際共產黨)의 東方迂廻 作戰에 의거한 植民地 解放運動과 國民黨의 民族解放運動이 當時 中國의 諸與件에서 相通하는 特性下에 이루어졌다.

이때는 孫文에 의한 「國民革命」이 絕對的 支持를 받고 있었는데다가 新生 蘇聯이 中國과의 不平等條約의 諸權益을 拋棄함에 따른 好感으로 國民政府가 「聯俄容共政策」(蘇聯과 善隣政策을 維持함으로써 共產主義者를 吸收하는 政策)을 採擇함으로써 「合作」이 成立되었는데 1921年 7月 수십名으로 創黨한 中國共產黨은 三民主義 遵守, 孫文 指導 支援, 中國共產黨의 獨自의 黨組織 清算, 個人資格으로의 國民黨 加入 등을 內容으로 하는 中國共產黨의 屈辱의 合作이 그 條件이었다.

그러나 中國共產黨은 이같은 「合作」이 進行되는 동안 數萬 黨員과 數十萬의 大衆組織을 굳혀나가는 등 여전히 獨自의 政治組織을 構築해 나갔으며 한편 1926年 7月 蔣介石은 國民革命軍 總司令官으로서 北伐을 開始함으로써 결국 第1次 國共合作은 分裂되고 말았다.

다음 第2次 國共合作(1937~46)은 滿洲 事變(31年 9月), 蘆溝橋 事件(37年 7月), 太平洋 戰爭(41年 12月) 등 日本의 本格的 中國 侵略으로 인해 內戰을 停止하고 民族團結을 하며 對日鬭爭에 總躍起하라는 舉國의 輿論을 그 背景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때는 中國共產黨內의 派閥이 심한데다 모처럼 建立한 瑞金의 「中華 소비에트」(31年 11月)가 大討伐에 直面하여 敗走(34年 9月~35年 10月, 萬里長征)함으로써 10萬 中共兵力이 2萬으로 激減됐고 한편 國民黨은 張學良에 의한 西安事件(蔣介石을 監禁)을 비롯 비등한 國民輿論과 美國에 의한 國

· 共對日戰鬪 共同戰線 促求 때문에 成立된 것이니 國共產黨은 再生의 機會로 國民黨은 「올며 겨자먹기」式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當時 合作條件은 ① 三民主義 遵守, ② 國民政府로부터 行政 및 軍事的 指揮監督을 받으며 地主의 土地는 沒收치 않는다 등으로 中國共產黨에 屈辱的 條件이기는 하나 이른바 「黨外合作」方式이 第1次 合作과 相異한 것이라 하겠다.

이같이 하여 1937年 2月 第2次 國共合作 正式協定이 締結되었다. 그러나 毛澤東은 抗日의 名分下에 自己勢力 擴充에만 급급하여 黨의 發展에 70%, 國共合作에 20%, 抗日鬪爭에 10%를 돌리도록 指示하고 그 勢力이 커감에 따라 對國民黨 妥協→對國民黨 1對1의 對立 및 競爭→對國民黨 優勢 爭取 및 攻勢 展開의 이른바 三段階政策을 強行하였다.

第2次 國共合作 期間에 雙方間에도 여러차례의 軍事協商, 政治協商, 停戰協商 등이 열렸지만 妥協이 成立되지 못하거나 合意事項이 履行되지 않았고 이러한 사이 中國共產黨의 段階的 政策은 착실히 展開되었다.

抗日戰爭 過程에서 中國共產黨은 前記 戰略戰術 即 엄격히 말해서 同 權謀術數에 의해 모든 것이 그들 뜻대로 되어 가며 日帝의 敗亡이 目前에 이르자 1945年 4月 延安에서 開催된 中國共產黨 第7回 代表大會에서 毛澤東은 問題의 「聯合政府論」을 내놓았던 것이다. 同 聯合政府論은 ① 中國人民의 基本要求 ② 國際情勢와 國內情勢 ③ 抗日戰中の 두개의 戰線 ④ 中國共產黨의 政策 ⑤ 全黨團結로서 黨 任務의 實現을 위해 鬪爭하자 등의 5章으로 나누어져 있다.

毛澤東은 여기서 中國人民의 基本要求는 各黨 各派 및 無黨 無派의 代表를 團結시켜 民主的인 臨時 聯合政府를 만들어 日本을 敗北시키고 解放을 爭取해야 한다고 強調했던 바 그 具體的 內容은 다음과 같다.

第1段階에서는 各黨 各派(國民黨, 共產黨, 民主同盟), 無黨 無派의 代表의 人物의 聯合에 의해 「臨時 聯合政府」를 樹立하여 民主改革와 當面危機의 克服 그리고 全中國 抗日力量 動員으로 統一을 이룩하며 聯合國과의 協同作戰으로 日本侵略에서 解放한다.

第2段階에서는 自由選舉에 의해 國民代表大會를 召集코 各黨 各派, 無黨 無派의 보다 廣範한 代表의 人物을 包含하는 <聯合의 性格의 正式 民主政府>를 樹立하여 解放 後의 全國 人民指導 및 獨立, 自由, 民主, 統一, 富強의 新 國家를 建設한다는 것이다.

毛澤東은 黨7次大會에서의 主張에서 「共同 綱領」을 提起하면서 그것을 다시 「一般 綱領」과 「具體的 綱領」으로 二分하였으며 後者를 「最低限度 綱領」이라고 提示했다.

「一般 綱領」은 「新三民主義」의 發展이라고 하는 「新民主主義」를 骨子로 하는 것인데 「프롤레타리아」 領導下에 將來의 「最高 綱領」(社會主義와 共產主義를 意味)을 向해 邁進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의 「最低限度 綱領」에서 「國民黨 一黨獨裁」의 廢止 및 「聯合政府」, 「聯合統帥部」의 建立 내지 解放區 政府의 承認을 要求하고 나섰다.

以上에서 毛澤東의 聯合政府論이 「最低限度 綱領」에 明示된 바와같이 國民黨의 地位를 抹殺하는데 基礎하고 있음을 역력히 볼 수 있거니와 몇가지의 特徵을 分析해 볼때 北韓이 主張하는 聯邦制案과 많은 類似點이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① 聯合政府를 構成함에 있어 國共 兩黨에 限한 것이 아니라 中國共產黨이 扶植해 놓은 「民主同盟」을 비롯해서 中立勢力 등을 包含한 統一戰線 形成을 提示했다는 點으로 보아 南北의 各界 各層 人民 및 諸政黨, 社會團體 등의 代表로 「大民族會議」를 召集하여 이를 聯邦制 構成의 協議機構화하려는 北韓 側의 統一戰線 戰術과 같은 것이다.

② 聯合政府의 名分으로써 宣傳을 擴大하여 中共에 대해 認識不足한 純眞한 住民들을 誘惑하며 各黨 聯合政權을 내세워 美國의 關心을 誘導하여 國民黨을 弱화 孤立시키려 했다는 事實로 볼 때 聯邦制 主張으로 韓國 國民의 感傷의 統一論을 誘引하고 國際輿論을 誤導함으로써 韓國政府로 하여금 그들 主張에 同調토록 하려는 점이 類似한 것이다.

③ 國民黨이 聯合政府를 拒絕할 때 이것을 舉國抗日 要求에 대한 拒否라고 逆宣傳함으로써 政治的, 軍事的 攻勢의 口實로 삼으려고 했다는 事實로

보아 韓國政府가 聯邦制를 反對할 때 이를 祖國統一의 民族的 念願에 대한 背反이라고 못박음으로써 이른바 統一 不願, 外勢 依存의 南韓政權 打倒 運動을 加熱化하려는 것이 類似하며,

④ 人民戰爭 및 두개의 國·共抗日戰場의 狀況下에 「內戰 擴大와 內戰 反對의 兩面戰術」로 國民黨 弱化 및 自體力量 強化를 積極 促進코자 한 點으로 보아 南北 分斷 條件下 對話의 次元과 範圍 擴大로 合作攻勢를 展開함으로써 이른바 民族的 連繫強化 過程에 協商高地를 先占코자 企圖하는 것이 비슷하다.

⑤ 聯合政府論이나 聯邦制案의 提示에서 明白해진 바와 같이 자기 다른 特殊한 背景과 時·空間的 與件이 있기는 하나 다같이 그 自體에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完全 赤化를 向한 一定時期에 있어서의 過渡的 措置에 不過하다는 同質性이 明白하다.

毛澤東이 1945年 8月~10月間 蔣介石과 重慶會談을 벌인 다음부터 積極 攻擊으로 轉換하였는데 이같은 軍事攻擊이 있기 불과 몇달 전에 聯合政府論을 提起하였다는 事實은 1950年 6月 25日 不法南侵을 불과 18日 앞두고 平和攻勢를 展開한 北韓 共產集團의 戰略戰術을 熟知하고 있는 우리 國民에게는 深刻히 마저볼 問題로 取扱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9) 「高麗聯邦共和國」提議의 底意 :

① 駐韓美軍 撤收를 비롯한 韓·美의 共同防衛 및 協心關係를 弱化 내지 斷絶시키려는 것이다. 南北聯邦制案은 이른바 外勢 干涉없는 統一이 根據로 되고 있으며 또한 6月 23日 「高麗聯邦共和國」을 提案한 金日成의 演說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駐韓美軍 撤收등 軍事問題 解決이 南北聯邦制 實現의 前提 條件으로 되고 있다.

北韓은 美國의 對韓政策과 그로 인한 韓·美關係가 「南朝鮮 革命」에 가장 主要한 障礙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同 革命의 첫째가는 對象은 「美帝」라고 指摘하고 있다. 그리고 反美의 가장 重要한 當面課題로 駐韓美軍의 撤收를 내세우고 있다.

南北對話 가운데서도 駐韓美軍 撤收의 促求 내지 韓·美關係에 대한 非難이 對南宣傳의 으뜸가는 자리를 占하였다. 또한 南北調節委員會 會議에서의

軍事問題 解決 優先論은 駐韓美軍의 撤收에 主眼點을 두고 있다.

그러나 南北關係의 現 與件에서 駐韓美軍의 撤收를 비롯한 傳統的 韓·美關係의 斷絶은 어려우므로 北韓은 南北聯邦制의 實現으로 同 目的을 이룩하려고 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韓·美의 友好 및 協力關係는 韓國의 經濟發展에 有利한 與件으로 되고 있으며 그것이 對南革命戰略 具現의 背景으로 되어야 할 南北間 經濟 및 社會發展 競爭에서의 北韓側 優位를 어렵게 한다고 보는데서 韓·美 協力的 瓦解는 北韓의 要請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② 南韓內의 廣範한 階層 내지 政治勢力과 소위 統一戰線을 形成하려는 것이다. 7·4共同聲明 以後 北韓側은 南北 當局間의 双務的 接觸과 함께 多務的(多邊的) 接觸을 併進시켜야 한다고 主張해 왔다.

「多務的」接觸이란 非政府 政黨, 社會團體間의 對話와 會議를 말한다. 北韓이 「多務的」接觸을 重視하고 있는 것은 對南革命 戰略의 核心으로 되는 소위 統一戰線을 具現시킴으로써 韓國政府의 對北 警戒態勢를 牽制하고 나아가서 反美, 反政府라는 「南朝鮮革命」의 鬭爭課題에 南韓內의 廣範한 政治, 社會勢力을 集結시키기 위해서이다.

7·4共同聲明과 合意된 南北調節委員會의 機能에는 이와같은 多邊的 接觸을 實現하기로 되어 있으나 南北間의 現在와 같은 與件에서는 실사 多邊的 接觸이 實施되더라도 그것을 統一戰線으로 誘導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서 南北聯邦制의 實現을 鬭爭課題로 浮刻시키고 있다.

③ 韓國의 反共體制 即 共產主義의 浸透를 막는 法的 및 政策的, 社會的 規制와 國民의 反共意識을 깨뜨려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韓國에서 共產黨이 不法化되고 있는 것은 「南朝鮮革命」의 戰略, 戰術 展開에 決定的인 打撃으로 되고 있으며, 또한 共產黨이 不法化되고 있는 與件에서의 地下活動이 韓國의 法的 및 社會的 規制와 함께 國民의 反共意識으로 인해 奏効하지 못하고 失敗를 거듭한 事實은 이때까지의 經過가 말해주고 있다.

北韓은 赤十字會談을 비롯한 南北對話에서 韓國 反共體制的 廢棄를 要求하는 同時에 反共은 中止되어야 한다는 「社會的, 法律的 條件의 改善」을 主

張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對話로 貫徹될 수 없는 만큼 南北聯邦制의 實現으로 南韓內에서 共產黨의 合法的 活動을 保障케 하며, 同時에 國民의 對北韓觀을 改善함으로써 反共意識을 弛緩시키며 나아가서 親共勢力을 結集하려고 꾀하고 있는 것이다.

④ 韓國 安全保障의 中核을 이루고 있는 國軍의 對共意識을 弱화시킴으로써 消極的으로는 北韓安保에 대한 威脅要因을 除去하며 積極的으로는 國軍의 一部를 「革命」의 陣에 끌어 들이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軍事的手段에 의한 赤化統一의 機會을 捕捉하려는 것이다. 革命의 最後 勝利는 武裝鬭爭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는 共產主義 命題와 또한 「南朝鮮 革命」은 오직 暴力에 의해서만 遂行될 수 있다는 北韓의 主張으로 보아 韓國軍隊가 北韓의 對南革命에 主要障路로 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北韓은 1960年代 以來 國軍에 대한 工作을 보다 重要視해 왔다. 金日成은 이에 관하여 『國軍兵士들과 將校들을 革命의 陣으로 돌려세우는 것은 反革命力量을 弱화하는데 매우 重要的 意義를 가진다. 南朝鮮의 革命組織들과 革命家들은 國軍과의 事業을 잘하여 兵士大衆과 中下層 將校들을 革命의 陣에 進취하는데 깊은 關心을 돌려야 한다』(1966年 10月 勞動黨代表者會에서의 金日成 演說)고 말하였다.

南北關係가 發展하여 各分野의 交流가 實施되더라도 南北間의 基本的 對立關係가 解消되지 않는 限 國軍은 끝내 反共堡壘로 남아 對南革命의 遂行에 障路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를 克服하기 위해서 南北聯邦制를 企圖하고 있다고 보겠다. 即 南北聯邦制에 의해서 南北의 軍事問題를 對南革命의 戰略에 有利하게 처리해 나가며, 同時에 國軍의 對共意識을 模糊하게 誘導하고 이 가운데서 南北軍隊 사이에서도 「合作」의 原理를 適用함으로써 國軍이 南朝鮮革命의 遂行에 障路가 되지 않게 하며 나아가서 國軍의 一部 또는 大多數를 革命의 協調勢力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⑤ 南北聯邦制가 革命의 「決定的 時期」造成에 有用하다고 보고 있는 點이다. 北韓이 「革命의 大事變을 準備있게 맞이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곧 「決定的 時期」의 造成을 노리고 있음을 意味하며 특히 僞裝된 民族的 命

題를 앞세워 大衆을 煽動하고 混亂을 誘發케 하는데 있어서는 南北聯邦制라는 「統合의 形態」 속에서 推進하는 것이 훨씬 有用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⑥ 國際的인 現狀固定化 趨勢에 被動的 立場을 취하면서 南北分斷 永久化 責任을 轉嫁하려는 底意이다. 北韓의 聯邦制案이 實質的으로 主·客觀의 情勢 推移에 따라 「두個의 政府」 내지 「두個의 國家」를 前提로 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聯邦制가 統一로 가는 過渡的 措置라고 宣傳함으로써 그들의 立場을 民族的 次元에서 正當化하려 하고 있는 것은 嚴然한 事實이다.

우리의 主動的 提議에 의해 分斷 4半世紀만에 對話가 이루어졌음에도 不拘하고 北韓側은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에서 無誠意 一邊倒로 나아가 對話를 故意的으로 停滯시키는 한편, 이를 國際社會에 積極 과고드는 外交活動에 逆用해 왔다.

특히 그들은 國際社會에서 韓國과의 單純한 1對1의 對等關係 形成뿐만 아니라 「유엔」傘下 專門機構에 까지도 進出하여 國際的으로 「두個의 韓國」을 明白히 하는 일마저 서슴치 않았다.

現時期에 民族的 念願을 안은 모처럼의 南北對話를 國際外交만에 局限치 않고 「두個의 韓國」을 劃定하는 線으로까지 逆用하고 있다는 것은 分明히 現狀凍結을 追求하는 國際趨勢에는 被動的 立場을 堅持하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⑦ 住民 教養과 結束 등의 對內政策 遂行에 有用하기 때문이다. 北韓은 現在 「高麗聯邦共和國」의 國號와 關聯, 金日成의 政治的 創造力의 卓越性을 誇示하는 대대적인 群衆運動을 連日 벌이면서 北韓 住民의 金日成에 대한 原始的 忠誠을 強要하고 있다.

「高麗聯邦共和國」의 國號는 北韓 住民에게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보다 好感으로 대해질 수도 있다. 「高麗共和國」의 國號는 北韓에서는 解放 直後에 一部 民族系 人士들에 의하여 이미 擧論된 일이 있었는데 그 後에 共產黨에 의하여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으로 制定되자 一部에서는 「高麗共和國」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였었던 것이다.

北韓의 舊世代는 復古意識에서 別다른 批判없이 高麗聯邦을 歡迎할 것이며 金日成 一黨이 그 氣勢를 利用하여 全住民으로 하여금 南北聯邦制를 支持케 하려들 수 있다.

北韓 當局은 住民의 意識構造에 唯一思想을 徹底히 內面化하는 政策을 통하여 唯一體制를 壁持하려는 것이 不變의 方針이므로 南北聯邦制와 「高麗聯邦共和國」 國號의 宣傳教義을 통한 內部統制의 強化策은 當然히 要請되는 것이다.

⑧ 海外僑胞에 대한 浸透工作에 利用할 수 있다. 僑胞社會는 比較的 母國의 具體的 事情에 어둡거나 敏感하지 못한 制約性을 가지고 있는 側面이 있다. 北韓이 在日朝總聯을 赤化革命의 間接基地로 利用하고 있는 것도 僑胞社會의 이같은 制約性을 積極 利用할 수 있다는데 根據를 두고 있다.

-10) 「南北聯邦制」의 不當性 :

金日成이 南北韓 「유엔」 同時 招請은 渴求하나 同時 加入은 反對하며 「高麗聯邦共和國」의 國號를 가지고 하나의 國家로 加入한다고 한 것은 論理的 矛盾에서 뿐만 아니라 同 聯邦制의 本質부터가 源泉의 虛構性을 지니고 있다는 點에서 全的으로 正當化될 수 없는 것이다. 그 不當性은 다음과 같다.

① 聯邦國家의 理念的 基礎가 없는 主張이다. 聯邦을 可能케 하는 第一의 條件은 聯邦形成의 理念的 基礎에 관한 同意이다. 北韓은 南北聯邦制案에 있어서 聯邦의 形成을 可能케 하는 理念的 基礎를 明示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理念的 求心點으로 하여 聯邦國家를 形成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言及이 없다. 이 點은 北韓의 南北聯邦制案이 지니고 있는 致命的 缺陷이다. 그것은 聯邦 그 自體에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聯邦制 實施를 赤化統一로 가는 中間目標로 삼고 있기 때문에 聯邦構成의 理念的 基礎를 밝힐 必要도 없었거나와 또 밝힐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② 「두個의 韓國」을 先行하여 赤化統一을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北韓은 자기들을 韓半島의 正統主權인 大韓民國과 1對1의 對等한 地位에 올려 놓은 다음 北韓共產基地의 影響力에 의하여 南韓赤化를 遂行하는 方法으로 統一國家에 到達한다는 定式이다. 즉 國際外交와 함께 南北聯邦制를 對內外에

宣傳하여 우선 南北韓의 1對1 關係를 實現하고 난 다음 南北聯邦制를 實施하여 聯邦國家의 테두리 안에서 北韓의 影響力으로 南韓을 赤化하는 過程을 考慮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南과 北이 各各 「유엔」에 加入하게 되면 聯邦國家의 政治的 울타리 안에서 北의 影響力으로 南의 赤化를 遂行하는 길이 妨害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南北의 「유엔」 同時加入을 反對하고 聯邦制에 의한 하나의 國家로서의 加入을 主張하게 된 것이다.

③ 現實의 與件을 考慮하지 않고 있다. 國號만으로 聯邦이 可能한 것이 아니다. 聯邦을 形成할 수 있는 理念도 있어야 하거니와 그에 못지 않게 더 重要한 것은 聯邦을 可能케 할 수 있는 現實의 與件이다.

南北韓關係의 現況에서 그 같은 聯邦制가 可能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4半世紀 以上の 斷絶을 통하여 敵對的 關係를 持續하여 온 異質體制의 두 社會가 그 동안의 不信과 敵對感情을 그대로 안고 聯邦國家를 形成한다면 그 結果는 現在보다 더 무서운 不信과 對立關係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聯邦制 實施에 앞서 累積된 不信과 誤解가 풀어져야 하며 그것을 土臺로 雙方間에 새로운 理解와 信義를 回復하는 것이 先次的 問題로 되어야 할터인데 이것을 度外視하고 一躍 聯邦制로 誘導하려는 것은 現實無視의 虛妄한 處事라 아니할 수 없다.

④ 冷戰用의 낡은 思考方式의 宣傳物에 不過하다.

北韓의 南北聯邦制案은 本來 4·19直後 韓國의 國論分裂의 危機와 社會混亂을 利用하여 南北間의 對等한 地位를 獲得하고자 冷戰用의 宣傳物로서 첫 선을 보였던 것이다.

만일 北韓이 1960年代 末에 南侵可能한 與件이 무르익었다면 그들은 南北聯邦制 宣傳으로 南北間의 1對1 關係를 얻고자 했을 것이 아니라 소리없이 軍事的 征服手段을 發動했을 것이다.

今年 6月 23日에 提議한 「高麗聯邦共和國」도 基本動機에 있어서는 4·19直後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만 戰術的 次元의 格調만을 높이고 있을 뿐

이다. 即 南에 대하여 軍事的 征服手段을 發動할 수 없는 것은 어떤 事情에 基因하던 間に 結論的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며,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1對1의 關係를 얻기 위해서였고 지금은 그것을 굳히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번 提議는 赤化統一의 平和的 方略이라는 낡은 思考方式에서 出發한 宣傳物로 밖에는 달리 認定할 수 없고 政治的 妥當性을 前提로 한 現實的 方案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⑤ 南北對話에서 聯邦制를 利用함으로써 結局 統一을 향한 對話의 進展에 障礙를 造成할 것이다.

7·4南北共同聲明以後 北韓은 南北聯邦制案을 보다 積極的으로 들고 나왔다. 即 北韓은 『南北이 南北共同聲明에서 祖國統一의 3大原則을 비롯하여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한 一聯의 方途들에 合意를 보고 있는 지금 그것을 實踐에 옮기기 위해 協議하고 있는 만큼 南北聯邦制를 實施할 수 있는 現實的 可能性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祖國統一을 바라는 사람이라던 가장 合理的인 南北聯邦制를 받아들이지 못할 何等의 理由도 없다』(1972年 11月 15日 平壤放送)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 南北調節委員會에서 南北聯邦制를 公式으로 提議한 일은 없다. 그것은 南北調節委員會를 南北聯邦制로 發展시켜 나가려 꾀하였고 또 그 可能性이 있다고 評價한데 起因한 것이다. 어쨌든 北韓은 南北調節委員會의 機能이 南北聯邦制와 共通性을 가지고 있다고 評價하고 그들은 南北調節委員會를 公式的인 政府間 機構로 變化시킴으로써 形態上 南北聯邦制로 漸次 이끌어 나가려고 꾀할 것이며 同時에 南北聯邦制 實現의 與件造成에 努力을 傾注할 것이다.

그런데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한 南北對話로서는 南北聯邦制 實現의 與件造成이 어렵다는 것이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會議을 契機로 한 雙方提案의 對立으로 드러났다. 우리側의 經濟 및 社會, 文化交流의 優先實施 提案과 北韓側의 軍事問題 優先解決 提案間의 對立이 그것이다.

이리하여 北韓側은 南北當局間의 對話機構인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해서

南北聯邦制 實現의 基本與件으로 되는 소위 合作과 團結의 南北關係로 이끌어 나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南北調節委員會를 南北聯邦制로 發展시켜 나갈 當初의 構想도 具現될 수 없다고 보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觀點에서 南北調節委員會에 南北政黨, 社會團體 代表 및 各界 各層 人士를 參加시키던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南北政黨, 社會團體 代表 및 各界 各層 人士가 參加하는 「南北協商會議」를 열 것을 提案(73年 4月 16日 金日成의 演說)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南北調節委員會의 地位를 意識적으로 格下시키려 한 것이며 南北聯邦制는 南北當局間의 對話에 의해서가 아니라 大衆의 鬭爭에 의해서 그 實現을 꾀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6月 23日 「高麗聯邦共和國」 提案에 있어 南北 各界 各層 人民 및 政黨, 社會團體 代表들의 「大民族會議」 召集을 云謂한 것도 이러한 南北關係에 대한 認識을 背景으로 한 것이라고 보겠다.

이렇듯 北韓은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한 對話에서 南北問題 解決의 與件造成을 위한 眞摯한 努力 및 理解와 信賴를 敦篤히 하는 實證的 措置를 講究하는데는 無誠意한 反面, 對話의 內容을 飛躍시키고 그 對象을 擴大하는데만 급급하면서 南北聯邦制를 억지 成就하려는 策動을 恣行하고 있다.

Ⅲ-6. 「大民族會議」主張의 虛構性

-1) 「大民族會議」의 內容 :

北韓側은 「大民族會議」를 召集하는 必要性에 대해 『統一問題를 우리 人民의 意思와 要求에 맞게 解決하기 위해서는 北과 南의 廣範한 各界 各層 人民들이 祖國統一을 위한 學族的인 愛國事業에 參與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必要하다』고 前提하고 『祖國統一을 위하여 北과 南 사이의 對話가 다만 南北當局者들 사이의 範圍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全民族的인 範圍에서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主張했다. 또한 그들은 南北對話에 參加하는 範圍問題에 있어서도 『北半部의 勞働者, 勤勞農民, 勤勞「인테리」, 青年學生, 兵士들과 南朝鮮의 勞働者, 農民, 青年學生, 知識人, 軍人, 民族資本家, 小資產階級과 같은 北과 南의 各界 各層 人民들과 各 政黨, 社會團體 등의 大民族會議를 召集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廣範圍하게 協議하여 解決할 것』을 提議하였다.

-2) 從來 北韓이 主張한 「政治協商會議」:

〔北韓側이 主張한 「大民族會議」는 오늘에 와서 새롭게 提示된 것이 아니라 解放後 金日成 政權이 確立되는 時期부터 줄곧 宣傳하던 從前 主張에 그 淵源을 찾아볼 수 있다.

① 北韓側은 1948年 3月 25日 「北朝鮮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名義로 「유엔」 決議(總選決議)와 南韓에서의 總選을 反對하여 同年 4月 14日 平壤에서 「全朝鮮政黨, 社會團體 代表者會議」를 開催할 것을 提議」한 것이 제일 첫번 째의 南北政治協商의 主張이다.

② 그後 1950年 6月 7日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는 呼訴文을 통해 『平和統一의 모든 必要한 條件과 手段을 討議 決定하기 위해 南北政黨 社會團體 代表者 協議會를 海州 또는 開城에서 6月 15日~17日에 걸쳐 召集』할 것을 主張하면서 『李承晚, 李範奭, 金性洙, 申性模, 趙炳玉, 蔡秉德, 白性郁, 尹致暎, 申興雨 등 民族 反逆者는 協議 對象에서 除去할 것. 韓國側의 政黨 및 社會團體中에서 大韓國民黨과 民主國民黨의 두 政黨은 協議 對象에서 除外한다』라는 條件을 붙였던 것이다.

③ 1960年 4月 21日 4·19義舉와 關聯한 北韓의 政黨, 社會團體 指導者 連席會議에서 『統一問題를 討議하기 위하여 南北朝鮮의 諸政黨, 社會團體 連席會議를 構成하자』고 主張한 以來 때때로 같은 趣旨의 提議를 하였다.

④ 특히 1971年 8月 6日 金日成은 「시하누크」를 歡迎하는 平壤市 群衆大會에서 『韓國의 民主共和黨을 包含한 諸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의 人士들과 언제라도 接觸할 用意가 있다』고 主張하여 지금까지 包含시키지 않았던 與黨까지를 協議 對象에 包含시켰다. 이는 그 時期的 背景으로 보아 「닉슨」의 中共訪問으로 美·中接近이 이루어져 가는 등 東北「아시아」의 冷戰構造가 和解의 方向으로 解體되어 가는 때였기 때문이다.

⑤ 그後 1973年 4月 16日 金日成은 「시하누크」 歡迎 平壤市 群衆大會에서 『南北調節委員會에 各 政黨, 社會團體 代表 및 各界 各層 人士들을 參加시켜 그 幅을 넓히든지 아니면 現 調節委員會 事業은 그대로 進行시키고 各界 各層 人士와 政黨, 社會團體 代表가 參加하는 政治協商會議를 召集하자』고

主張하기에 이르렀는데 周知하는 바와 같이 이때는 이미 韓國側이 經濟, 文化交流에 積極的인 姿勢를 보인데 反해 北韓側은 軍事問題를 先決하자는 基本態度를 굳히고 있는 狀況下에서 提示된 것이다.

以上에서 본바와 같이 北韓은 1948년에 「유엔」 監視下의 韓國의 總選舉 反對, 1950年 6·25南侵 攻擊時點의 隱蔽, 1960年 4·19學生義舉에 따른 韓國政局混亂 逆用 그리고 70年代에 들어 東西 緊張緩和 趨勢와 南北對話에 便乘하여 이번에는 모처럼의 南北 當局者間 交渉인 南北調節委員會를 格下 또는 完全히 有名無實한 存在로 만들어 놓는데 力點을 두고 政治協商會議와 異名同質의 「大民族會議」를 提起하였다.

-3) 北韓의 對內外的 背景:

그들이 「大民族會議」召集을 主張하게 된 主要 背景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朴正熙大統領의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에 따른 對內外的인 肯定的 反應을 들 수 있다. 朴正熙大統領의 「6·23宣言」은 透徹한 現實 認識의 바탕에서 國際情勢에 能動的으로 適應함으로써 平和統一의 길을 効率的으로 開拓해 나가겠다는 「프로그램」인 同時에 北韓이 말모는 平和統一을 떠들며 내면서도 行動으로는 國土分斷을 固定化하는 方向으로 나가며 南北對話를 國際地位 向上에 利用하고 있는 反民族的 處事에 打擊을 준 것이다.

②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한 南北對話가 北韓側이 期待한 대로 進展되지 않고 있다는 狀況이다. 그동안 南北調節委員會에서 韓國側은 相互不信과 誤解를 除去하고 信賴을 回復하기 위하여 經濟, 文化交流 등 實現 可能한 問題부터 解決해 나가자고 하는데 反하여 北韓側은 軍事問題 優先解決이라는 非現實的인 主張을 함으로써 對話는 事實上 膠着狀態에 빠졌다. 北韓側은 從來부터 그들이 主張한 經濟, 文化交流를 막상 實施할 경우, 南北 社會現實의 격차로 인해 自己들에게 不利할 것으로 判斷하고 이를 어떻게 해서든 回避하는 대신 軍事問題를 비롯한 南北關係의 政治的 一括妥結을 위해서는 南北對話를 南北調節委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立場에 이른 것이다.

③ 그들은 韓國 內部的 反共基盤이 너무 鞏固한데다 共產主義者를 相對한 對話가 어렵다고 하는 韓國 國民의 輿論을 看破하고 있으므로 民族感情에 보

다 迎合하는 提議로서 相對側을 攪亂해야 할 狀況에 당도했다.

4) 「大民族會議」提議의 底意 :

그러면 北韓側이 7·4南北共同聲明의 基本精神과 現行 對話通路를 도외시하고 이른바 大民族會議 召集을 主張한 戰略의 底意가 무엇인가를 剝明해 보기로 한다.

① 南北調節委를 無力化하고 多務的 接觸으로 對南革命의 與件을 造成하려는 것이다. 原來 北韓은 南北對話를 對南革命 戰略의 一環으로 規定하고 現行 「雙務的」 接觸을 점차 「多務的」 接觸으로 끌고 감으로써 平和的 統一의 美名下에 우선 南韓을 攪亂하는 工作活動에 力點을 두는 策略을 展開코져 「多務的」 接觸을 종종 主張해 왔다. 北韓이 「多務的」 接觸을 主張하는 것은 요컨대 雙務的 接觸 卽 南北當局間의 對話에서 이룩하지 못한 目的을 非政府, 政黨, 社會團體間의 對話에 의해서 이룩하려는 것이며 바꾸어 말하면 「多務的」 接觸에 의해서 韓國政府의 立場과 主張을 牽制함으로써 南北對話를 對南革命의 與件을 造成하는데 利用하려는 것이다.

② 統一戰線 戰術의 一環이다. 統一戰線이란 共產黨의 當面 革命鬭爭 課題 혹은 그 課題의 一部에 政治的 利害關係를 같이 하고 있는 政黨, 社會團體 및 기타 여러 社會階層과 손을 잡고 行動統一을 期함으로써 革命의 對象을 孤立시키는 것을 말한다.

金日成은 지난 1966年 10月 勞動黨代表者會議에서 소위 「南朝鮮革命」에 있어서 統一戰線이 갖는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革命의 勝利를 위해서는 革命의 主力軍을 꾸리는 同時에 革命에 利害關係를 갖는 모든 力量을 動員해야 한다. 爭取할 수 있는 모든 力量을 爭取하여 하나의 政治的 力量으로 묶어세워야 反革命을 徹底히 孤立시키고 그에 대한 革命力量의 壓倒의 優勢를 保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南韓에서의 統一戰線은 「反美救國 統一戰線」이어야 한다 라고 強調하였다.

이와같은 金日成의 主張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北韓은 美軍의 韓國駐屯을 비롯한 韓美共同防衛 및 協力關係가 對南革命에 가장 重大한 障礙라고 보고 反美에 의한 韓美關係의 斷絶을 위해 韓國의 政黨, 社會團體 및 各界

各層과 提携하려고 피하고 있다. 北韓은 그들의 主觀的 判斷으로 소위 反美 統一戰線에 南韓의 廣範한 國民階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관해서 金日成은 1966年 10月の 勞動者代表會議에서 『勞動者, 農民, 青年學生, 知識人, 都市 小資產層과 民族 「부르조아지」 등 南朝鮮의 廣範한 階層이 美帝國主義의 植民地 統治下에서 다같이 苦痛을 겪고 있다. 이것은 美帝와 그와 結託하고 있는 地主, 買辦資本家, 反動官僚들을 反對하는 各界 各層 人民들의 反美救國 統一戰線을 形成할 수 있는 客觀的 條件으로 된다』고 主張하였다.

한편 北韓은 統一戰線을 形成함에 있어 反美鬭爭과 함께 反政府鬭爭面을 重視하고 있는 바 이는 對南革命을 遂行함에 있어서 韓國政府의 反共政策이 또한 重大한 障礙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은 統一戰線을 政黨, 社會團體의 指導層과 이루어지는 「上層 統一戰線」과 各界 各層의 群衆과 이루어지는 「下層 統一戰線」으로 區分하고, 「下層 統一戰線」을 基本으로 하면서 이에 基礎하여 「上層 統一戰線」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大民族會議」에 南北의 政黨, 社會團體뿐만 아니라 各界 各層의 人士가 參加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은 分明히 「上層 統一戰線」과 함께 「下層 統一戰線」을 形成하여 與件에 따라 이를 有機的으로 또는 相互 對立的으로 活用하려는 것이다.

③ 民族的 團結을 앞세운 政治「合作」을 企圖하려는 것이다. 北韓은 南北關係가 競爭과 對決이 아니라 合作과 團結이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南北政黨, 社會團體 및 各界 各層이 參加하는 協商會議, 即 「大民族會議」를 提議한 合當性을 여기서 찾고 있다. 물론 民族的 團結은 7·4南北共同聲明에서 統一原則 가운데 하나로 밝히고 있거니와 統一을 위해 이룩해야 할 課題이다. 그러나 民族的 團結은 우리가 앞으로 이룩해야 할 中間目標이지 現在 그것을 實現할 諸般與件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南北의 民族團結이 容易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問題라면 우리나라의 統一이 어려운 問題일 수가 없으며, 이미 統一은 成就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問題는 團結을 위한 諸般與件이 갖추어져 있지도 않는데 北韓側은 이를 당장 解決해야 될 先決課題로 主張하고 있는 데 있는 것이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民族의 團結이 무엇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가의 價値基準이다. 民族의 團結은 民族의 幸福이 約束되는 繁榮된 民族國家를 指向할 때 비로소 價値있는 것이며, 여기서만이 民族團結의 求心點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目的을 가진 民族團結이야 말로 韓國이 始終一貫 追求해온 것이며, 7·4南北共同聲明에서 統一原則의 하나로 밝힌 民族團結도 이러한 精神에서 그 意義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相異한 理念과 體制를 가진 南北間에는 각 追求하고 있는 政治的 目的 내지 統一의 價値觀마저 다르지 않을 수 없는 만큼 民族團結에 대한 立場이 반드시 合致된다고는 할 수 없다. 어떻게 오늘날의 南北關係로 보아 民族의 團結은 祖國觀 및 統一觀을 비롯한 價値觀의 共通性을 서로가 찾아야만 비로소 이룩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南北政黨, 社會團體 協商會議나 혹은 南北의 「大民族會議」를 한번 또는 몇번 여는 것 보다는 모처럼 門이 열려있는 南北對話를 통해서 經濟 및 社會文化 등의 各分野에 걸쳐 交流와 接觸을 實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相異한 價値觀을 超越하거나 理解하는데 있어서는 會議나 協商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兩側을 比較 檢討함으로써 얻은 知識과 經驗을 통해서 굳힌 「確信」과 「信念의 共通」에 의해서 可能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民族의 團結은 現時點에서는 祖國統一을 위한 中間目標로 設定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條件을 갖추기 위해 南北社會를 完全히 開放하여 交流를 實施하는 效率的인 方法으로 卓실한 努力에 의해 이룩하여야 한다.

그러나 北韓은 나라의 平和的 統一에 寄與하는 民族의 團結을 속으로는 願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 社會 및 文化分野의 南北 交流와 같은 우선 선고도 效率的인 方法은 回避하면서 軍事問題 優先解決을 앞세우며 「大民族會議」와 같은 事實上 效果를 期待하기 어려운 非現實的이고 허황한 提議를 내놓고 있는 實情이다.

④ 韓國의 國論分裂을 助長하려는 것이다. 北韓當局은 南北對話를 始作한 以後에 韓國에 대한 認識이 달라져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南北赤十字

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 會議을 위해 여러번 南北關係者들이 往來하고 또 對話를 나누는 가운데 韓國의 發展相을 새로이 認識함으로써 北韓이 韓國보다 經濟 및 社會發展面에서 相對的으로 優位에 있다는 생각이 뒤집혀졌고 同時에 韓國 國民의 民主主義에 대한 信念과 反共意識이 豫想했던 것 이상으로 透徹하다고 보기에 이르렀다.

北韓이 從來 가지고 있었던 韓國에 대한 認識을 南北會談을 契機로 再定立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어떠한 手段을 써서라도 우리 國民이 가지고 있는 民主主義 信念을 破壞코자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러한 體制가 더욱 굳어지기 以前에 어떻게 하던 混亂과 分裂을 劃策하지 않으면 그들의 赤化野慾의 꿈은 이룰 수 없다는 判斷 밑에 실상 새롭지도 않는 「大民族會議」 召集을 들고 나와 國論의 分裂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⑤ 「6·23宣言」과 「유엔」對策을 겨냥한 海外宣傳을 目的으로 한 것이다. 지난 4月5日 北韓의 最高人民會議에서 政務院(從前的 內閣) 總理 金一은 南北對話가 不振한 狀態에 빠지고 있음을 認定하고 對話가 不振한 原因이 美軍의 韓國駐屯 때문이라고 主張하였으며, 이에 根據하여 同會議는 「유엔」이 韓國에 「유엔」軍을 두기로 한 決議를 撤回하고 駐韓 美軍을 撤收시켜야 한다는 書翰을 「유엔」 및 世界各國의 議會에 보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南北調節委員會 會議에서 北韓이 主張하고 있는 ① 相互軍縮 ② 駐韓外國軍의 撤收 ③ 平和條約의 締結 등 軍事問題를 優先 解決하는 것이 南北間의 緊張緩和 및 南北關係 改善에 가장 正當하다는 點을 宣傳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今年 가을의 「유엔」總會에 韓國 問題를 上程시켜 「유엔」軍을 撤收시키는 決議를 實現시키고자 하는 外交的 目的을 가진 것임은 分明하다. 뿐만 아니라 北韓은 今年에 들어 「유엔」總會에 對處하기 위해 前例없이 活潑한 巡訪外交를 展開하였으며, 北韓側은 이들 國家를 巡訪하면서 南北對話에 대한 韓國의 立場을 마구 헐뜯었다.

北韓側이 「大民族會議」 開催를 主張한 것은 이러한 外交目的과 無關하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國土分斷의 責任을 國際的으로 韓國側에 轉嫁하고 平和統一을 위해서 그들만이 誠意를 다하고 있는 것처럼 眞實을 歪曲시키고

國際적으로는 그의 地位를 向上시키는 반면, 韓國의 立場을 困難케 하려는 企圖의 表現인 것이다. 卽 駐韓外國軍 撤收을 비롯한 軍事問題의 優先的 解決을 反對하고 있는 것은 韓國政府의 立場이고 韓國國民과 民族은 그렇지 않으니 北韓側은 「大民族會議」의 召集을 要求하고 있다는 式으로 國際輿論을 欺瞞하는 것으로 이는, 北韓當局이 常套的으로 使用해 온 狡猾한 宣傳手法에 不遇한 것이다.

⑥ 北韓 住民들의 統制를 위한 政治求心點을 造作함에 있다.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자 北韓은 이 聲明이 자기네들이 主張한 原則대로 만들어졌고 따라서 統一도 자기네들이 뜻하는 方向으로 成熟되어 가고 있다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했던 것처럼 날이 갈수록 그 約束은 한낱 空手票와 같이 虛無한 것으로 되어가자 北韓은 住民의 士氣를 鼓吹하고 赤化統一에의 希望을 불어넣기 위하여 「大民族會議」의 召集을 要求하는 「宣傳物」을 끄집어내 놓은 것이다.

이런 方法으로 獨裁者 金日成의 威信을 維持하고 體制를 強化하는 것이 北韓의 傳統的 政治行態로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北韓은 民族會議를 召集하자는 政治的 「캠페인」을 北韓 全域에 걸쳐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北韓 住民들을 組織的으로 動員할 政治的 求心力을 造作하기 위한 또 하나의 必要不可缺한 政策이기도 한 것이다.

-5) 「大民族會議」의 不當性 :

① 7·4共同聲明의 違反이다. 祖國의 平和의 統一을 成就하자는 7·4南北共同聲明에 署名하고 南北調節委를 發足시켜 南北對話에 들어간지 1년도 못되어 南北調節委와는 별도로 南北對話의 協議體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우선 政治的 妥當性이 없다. 北韓當局은 韓國政府의 名分外交를 破壞하는 데만 注力하고 對話에서 民族念願을 充足시키는 일에는 無誠意하며 또한 그들은 故意로 南北對話를 停滯狀態로 몰아 넣었다.

그러고서도 南北對話는 進展이 되지 않으니 南北當局者들 사이의 範圍에서만 南北對話를 할 것이 아니라 各界 各層을 經羅한 對話機構를 만들자고 한 것은 한낱 政略에 지나지 않으며 統一問題를 眞摯하게 다루려는 態度가

아니다.

② 平和統一의 拋棄이다. 얼마전 進行中인 南北對話에 의해서도 解決되지 못하는 問題가 南北政黨, 社會團體의 會議나 혹은 個別의 人士間의 對話에 의해서 解決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이 南北調節委員會 以外的 會議를 主張하고 있는 것은 合理的인 方向으로 問題解決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共產黨 特有的의 소위 「鬭爭의 方法」에 의해서 그들의 일방적인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려 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事實 北韓當局은 南北對話過程에서 보더라도 民族의 念願에 맞게 南北關係를 改善하고 統一問題 解決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姿勢를 처음부터 갖지 않았으며 우리側을 소위 「合作」으로 誘導하며 對南革命의 障礙가 되는 諸要素, 예컨대 韓美 關係離間, 反共體制의 弱화를 노렸고 나아가서는 韓國防衛에 虛點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였다.

③ 對話는 커녕 舌戰場 役割밖에 못된다. 南北間에 統一의 價値觀과 思想 및 政治的 見解가 다르고, 또한 生活方式와 思考方式마저 本質的 差異를 보이고 있는 環境下에서 이를 調整하기 위한 努力도 하기전에 南北의 政黨, 社會團體 協商會議 또는 여기에 南北의 各界 各層 人士들까지 參加해야 한다고 하는 소위 「大民族會議」는 舌戰場이 될지언정 어떠한 所得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明白하다.

北韓이 참으로 나라의 平和의 統一을 民主主義的으로 그리고 또한 民族의 여망에 따라 이룩하기 위해서 「大民族會議」를 提議했다면 그에 앞서 同民族 會議의 基盤을 마련해 줄 經濟 및 社會·文化 分野 등의 交流부터 始作하자는 우리의 正當하고도 合理的인 提議를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側이 提案한 南北社會의 相互開放을 實施하여 南北當局間은 물론이고 各界 各層의 廣範한 사람들이 南北을 서로 來往하면서 서로가 相對方을 自由로이 觀察하고 對話를 나누는 가운데 相互 理解와 信賴의 바탕이 마련되게 해야 할 것이다.

④ 自己들이 主張하는 全民族的 團合 論理에도 矛盾된다. 北韓은 그들이 主張하는 「大民族會議」 對象 階層에서 南韓側 對象을 「勞動者, 農民, 青年 學生, 知識人, 軍人, 民族資本家, 小資產階級, 各政黨, 社會團體」만을 들고

그들의 階層 規定이나 革命의 打倒 對象으로 規定하고 있는 소위 「買辦資本家」, 「反動官僚」 등으로 呼稱하는 韓國의 執權層이나 指導階層을 除外시키고 있는데 이는 現 執權層과의 協商을 排除하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赤化 革命 戰略遂行에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이 分明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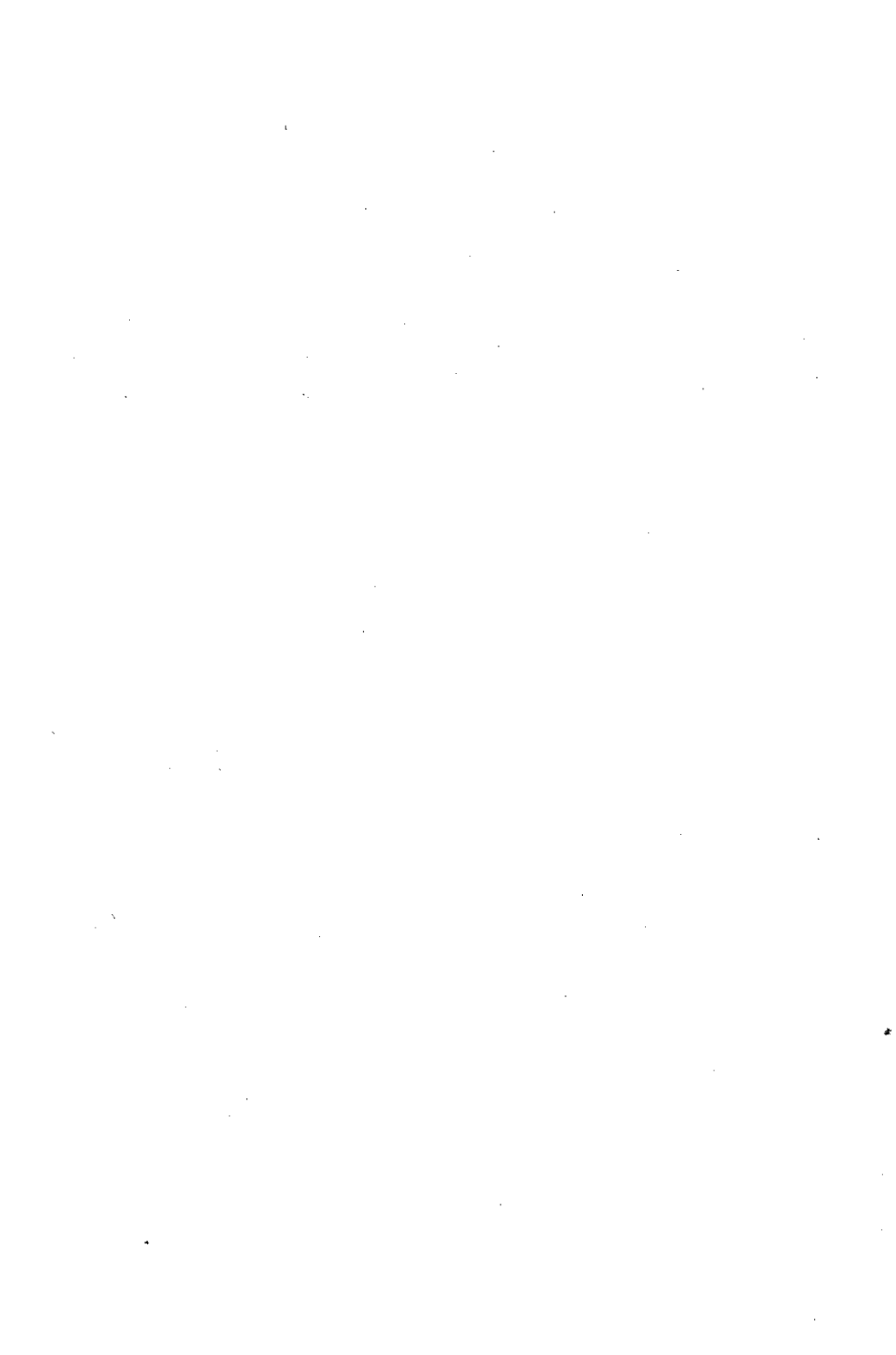
물론 韓國社會의 勞動者, 農民, 青年學生이 北韓의 同調勢力일 수도 없고 또한 南韓社會의 民族資本家, 小資產階級이 南北關係에 있어서 中立勢力일 수도 없으며 또 南韓社會의 知識人士가 容共的 進步勢力일 수도 없는 것이지만, 北韓은 이러한 戰術을 통해 國民과 政府를 離間하고 廣範한 非共產主義 勢力과 提携함으로써 反政府 統一戰線을 劃策하려는 것이다.

第 5 部

國際社會와 韓國

目 標

1. 國家生活의 國際性과 韓國의 國際的 地位 認識
2. 國際社會 變動에의 能動的 對應의 必要性 認識
3. 10月維新 및 6.23 宣言의 意義 理解
4. 統一問題의 國際的 性格을 理解하고 韓國의 座標 設定



| |
|---------|
| 內 容 概 要 |
|---------|

| 題 目 | 內 容 | 強 調 點 |
|--|---|---|
| I. 國際關係의 本質과 最近 趨勢 1. 國際關係의 本質 2. 戰後 國際關係의 變化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國家, 國家目標, 各國利益의 調和 葛藤, 國際政治의 變遷過程, • 70年代의 國際情勢의 轉換 方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關係의 本質 • 戰後 國際秩序 |
| II. 世界속의 韓國 1. 國際社會와 韓國 2. 周邊 強大國의 韓半島政策 3. 韓國의 外交目標 및 現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의 地政學의 位置, 韓國의 外交傳統 • 美, 蘇, 日, 中共의 韓半島政策, 10月維新의 國際的 當爲性 • 國家安保, 近代化 統一外交, 韓國 外交의 過去와 現在, 北韓外交의 評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秩序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키 위한 政府의 努力과 그 合理性 |
| III. 國際社會와 南北關係 1. 南北關係의 國際的 背景 2. 統一을 위한 國際的 協調와 外交的 要請 3. 國際平和를 위한 韓國의 役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問題의 國際性, 統一에 관한 4大強國의 立場 • 統一을 위한 國際的 協調, 統一을 위한 韓國外交의 課題와 條件 • 平和愛護의 傳統, 人類共榮의 寄與, 統一을 위한 國民의 外交의 座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關係의 國際성과 統一을 위한 外交의 座標 |



序 說

個人이 살고 있는 地域共同體, 나아가서 社會와 國家를 잊어서는 안되듯이 國家도 國際社會를 잊어서는 안된다. 科學技術의 發達로 交通手段, 通信手段 등이 改善되어 人間生活이 漸次 國際化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提起되고 있는 問題를 觀察해 보면 各國이 個別的으로 解決 못할 問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너지」資源問題, 傳染病 豫防問題, 核武器 制限問題, 核戰爭 防止問題, 環境 汚染問題, 水産資源 保存問題 등 殊한 問題가 國際的인 解決을 要求하고 있다. 즉 이들 問題는 이제 各國의 個別的 努力으로는 해결 못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最近에 와서는 地球의 保存과 人類의 殘存을 위해서는 「地球管理」(Globe management)가 開發되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한편 모든 國家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國際環境의 影響을 받고 있으며 결코 他國에서 일어나고 있는 問題라고 해서 無關心할 수 없는 立場에 이르렀다. 따라서 國家生活을 지혜롭게 營爲하고 國家發展을 圖謀하려면 國際環境을 바로 分析하고 把握하여 이에 適應하고 活用하며 나아가 이를 主體的으로 變化시킬 수 있어야 한다.

政治思想教育에서도 韓國의 경우 國內의 問題와 南北關係 問題에 대해서만 바람직한 國民定向을 企圖해서는 不充分하다. 國際環境에 대한 理解를 꾀하며 「世界속의 韓國」으로서 우리가 國際社會에 대해서 어떤 姿勢를 취하여야 하며 韓國이 國際적으로 發展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第5部 「國際社會와 韓國」에서는 바로 이와같은 政治思想教育의 要請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目標을 設定하였다.

國家生活의 國際性和 韓國의 國際的 位置를 認識하여 國際社會의 變化에 能動的으로 適應하고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韓國의 役割에 대하여 自負心을 가지고 參與하게 한다. 이와같은 本部의 目標을 더욱 細分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4個의 目標로 나눌 수 있다.

첫째, 國際關係의 本質과 最近 國際趨勢의 基本性格을 理解하여 國際社會가 韓國에 주는 制約을 自主적으로 克服하고 國家發展을 위하여 國際社會가 提供하는 機會를 最大限 開發 活用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른다.

둘째, 國際社會라는 共同運命體의 一員으로서 韓國의 位置와 立場을 理解하며 안으

로는 國民總和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國家主權의 強化와 自主外交 成就를 위한 國家의 努力에 積極的으로 參與하는 態도와 能力을 기른다.

세째, 國際平和와 人類共榮을 위하여 韓國이 맡을 수 있는 役割에 自負心을 가지고 10月維新的 國際的 當爲性과 6·23 宣言의 意義를 깨닫게 한다.

네째, 南北關係의 國際的 背景과 南北統一을 成就하기 위하여 國際的 協調가 必要함을 理解하고 이를 위한 國家의 努力의 重要性을 認識시킨다.

이와같은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第5部에서 다루어야 할 內容과 強調點은 다음과 같다.

第1章 「國際關係의 本質과 最近 趨勢」에서는 國際關係에 대한 基礎知識을 提供하고 國際關係의 本質이 各國의 利益追求에 있다는 點을 강조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最近의 趨勢를 概觀함으로써 韓國外交는 어떤 方向을 取하여야 할지 方向感覺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第2章 「世界속의 韓國」에서는 國際環境과 韓國과의 關係를 理解시키고 國際社會속의 韓國의 位置를 取扱하여 韓國 外交目標의 國際的 正當性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第3章 「國際社會와 南北關係」에서는 國際社會의 共同目標 成就를 위해서 韓國이 맡을 수 있는 役割과 南北統一의 平和的 成就是 韓民族의 自主의 努力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만 國際社會와의 有機的 關係속에서 接近되어야 한다는 點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第1章 國際關係의 本質과 最近 趨勢

本章에서는 國際關係의 本質과 最近 趨勢를 簡略히 說明하여 被教育者로 하여금 國際政治에 대한 最小限의 基礎知識을 얻게하고 國際問題에 관심을 가지게 하며 國際關係에 대한 分析能力을 키워주는데 目的이 있다. 이와같은 本章의 目標은 더욱 細分하던 다음과 같이 記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國際關係의 本質이 國家利益 追求에 있으며 國家利益의 增進을 위하여서는 國力培養과 外交資源의 効率的 運用을 통한 國際的 協調의 確保가 重要함을 인식시킨다.

둘째, 戰後 國際關係를 略述하여 政治理念의 定向이 弱화되고 대신 實利追求의 定向이 強化되었으며, 兩極體制가 무너지고 多極體制가 形成되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셋째, 國際關係의 本質과 最近 趨勢의 基本性格을 알게 함으로서 韓國의 外交努力에 効果의으로 그리고 能動的으로 參與케 한다. 이와같은 教育目標의 達成을 위하여 本章이 다루어야 할 教育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國際關係의 本質을 理解시키려면 거기에 關聯된 基本概念 즉 國家, 民族國家 利益, 國家目標, 國際關係 등의 概念을 說明해야 할 것이며 各國의 國家利益 追求가 國際關係 또는 國際政治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루어야 한다.

둘째, 戰後의 國際關係 變遷을 훑어보고 그 變遷의 基本性格이 무엇인가를 論하고 이와 같은 變遷에도 不拘하고 各國 利益追求라는 國際關係의 本質에는 變함이 없음을 說明한다. 또한 좁아지는 世界속에서 너무 편협한 國家利益의 追求 즉 排他的 民族主義는 長期的으로 오히려 不利할 수 있다는 事實을 分析한다.

本章에서 특히 強調해야 할 點은 다음과 같다.

① 國際環境에 대한 機敏한 適應과 對處없는 國家目標의 追求는 非現實的이라는 點. 즉 獨立主義의인 國家定向은 時代錯誤的이란 點.

② 國際關係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各國의 利益追求이며 長期的이고 巨視的인 眼目에서 考察해 볼 때 國際主義的 立場을 취하는 것이 國家利益 追求의 合理的인 길이라는 點.

③ 戰後 國際政治의 趨勢가 政治理念的인 定向에서 實利追求의인 定向으로 기울어

였다는點과 兩極體制的 構造에서 多極體制的 構造로 變化되고 있다는點.

④ 한편 이와같은 國際政治의 性格의 變化는 國際環境의 安定化를 結果할 可能性이 커서 韓國의 立場으로서는 歡迎할 일이며 우리는 이에 適應할 뿐 아니라 이와같은 變化를 우리가 願하는 方向으로 이끌 必要가 있으며 또 그렇게 이끌 수 있다는點.

I. 國際關係의 本質

I-1. 國家, 民族國家

-1) 民族國家 :

國際政治의 行爲者(actor)가 國家임은 말할 것도 없다. 民族主義의 擡頭에 따라 오늘날의 國家는 대부분 民族國家(nation-state)의 樣相을 띠고 있음도 周知의 事實이다.

民族國家란 各 國家의 構成이 民族을 單位로 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 民族國家는 主權의(sovvereign)이다. 즉 民族國家 內部에서 最高의 權力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民族國家를 支配하는 外部權力이 없다는 뜻이다. 「유엔」 등 國際機構도 各國의 主權的 立場을 侵害 못하는 것이다. 즉 各國이 自進合意하지 않을 때는 이를 強制할 法的 權威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法的인 또는 當爲的인 立場에서 관찰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實際에 있어서 한 나라의 主權이 侵害되고 심지어는 박탈되는 例가 많은 것도 事實이다. 한 國家內에서 어떤 個人이나 集團의 權益이 不法의으로 侵害받았을 때는 法的인 措置가 可能하다. 그러나 國際間에 主權의 侵害가 있었을 때 侵害國을 強制로 處罰할 方法이 없다. 물론 「유엔」 등이 있어서 集團의인 응징조치를 기할 수도 있지만 「유엔」도 法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다는 各國의 實利的 打算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 더욱 正確할 것이다. 또 이와 같은 集團의인 응징도 이에 贊同하는 勢力이 反對하는 勢力보다 힘이 優越한 때만 實効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힘이 正義다」라는 말이 國際政治에서는 아직도 妥當한 表現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狀況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널리 認識된 事實이다. 그래서 「유엔」을 더욱 強化해서 하나의 世界政府인 形態로 昇格시키자는 움직임도 있고 또 「유엔」과는 별도로 世界政府를 구상하는 學者나 政治家들이 있다.

-2) 世界政府 :

이는 曄만 構成되면 바람직스럽고 또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問題의 解決을 보다 容易케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核戰爭에 의한 人類滅

난의 豫防, 「에너지」 資源의 合理的 開發과 需給, 航空機 拉致事件 등의 規制, 環境汚染 防止 등 世界的인 次元에서 다루어야 할 問題의 解決이 適當한 世界政府의 構成으로 그만큼 容易해질 것을 豫想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스러우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人間事이요 國際政治의 現實이다.

따라서 各民族國家를 單位로 形成되는 國際關係에서 各國의 立場으로 보아 가장 중요한 것은 自國의 國力을 強化하는 일과 되도록 많은 友邦을 確保하는 일이다. 자기의 힘과 좋은 벗이 없으면 서글프고 외롭고 또 멸시를 받게 마련인 것이 오늘날 國際政治의 現實이다.

-3) 強調點:

위와같은 本質의 內容을 다루면서 強調해야 할 것은 이상 말한 國力培養과 友邦確保의 必要性이다. 또한 友邦確保에 있어서도 自國의 國力이 중요한 資源이 된다는 것은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는 스스로의 힘이 없으면 友邦이 있어도 友邦에 被動的으로 이끌려서 主體性을 살릴 길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2. 國家利益, 國家目標

-1) 國家利益:

國家利益은 보는 角度에 따라 또 價値定向에 따라 여러가지로 定義되거나 設定될 수 있을 것이다. 宗教的인 定向을 가진 個人이나 國家는 國家利益을 定義함에 있어서 宗教的인 것을 크게 강조할 수 있다. 西洋史에서 있었던 宗教戰爭이 完全한 의미에서 宗教戰爭은 아니었다 해도 宗教的인 考慮가 중요한 動機가 되었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또 政治理念的인 價値定向을 강하게 가진 個人이나 國家는 國家利益을 定義함에 있어서 政治理念的인 考慮에 크게 影響받을 수 있을 것이다. 2次大戰以後 形成되었던 冷戰時代에 美國과 蘇聯을 위시한 여러 나라들이 自國의 利益을 理念的인 觀點에서 보는 경향이 짙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외에 領土擴張, 經濟的 利益, 文化的 向上 등 國家利益을 定義하는데 고려될 수 있는 要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무튼 各國이 제나름대로 自

國의 國家利益을 定義하고 이를 增進하는 한 方法으로 國際政治에 參與하고 있다는 事實은 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2) 國家目標 :

國家利益의 增進을 위해서 設定되는 것이 國家目標(또는 國際의인 側面에서 外交目標)이다. 國家目標가 具體的으로는 여러가지 形態를 띌 수 있지만 共通的인 基本要素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次的인 目標은 各國의 體制 維持와 強化일 것이다. 이것이 곧 安保요, 安保는 國力의 培養과 國際的 同調의 確保로 이루어진다. 즉 스스로의 힘을 기르고 友邦을 많이 갖고 될수록 敵國을 적게 만들면 安保 強化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튼 安保問題가 어느정도 解決되는 것이 다른 國家目標를 追求할 수 있는 前提條件이 됨은 말할 것도 없다.

② 經濟的 利益의 增大를 들 수 있을 것이다. 經濟利益의 追求는 그것이 自國 國民의 豐饒한 生活를 可能케 하고 또 國力培養의 基盤을 조성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특히 70年代에 들어와서 世界各國은 政治理念的인 定向에서 實利追求的인 定向으로 바뀌가면서 經濟利益의 追求에 보다 큰 重要性을 부여하고 있는 듯하다.

③ 政治的 影響을 들 수 있을 것이다. 政治的 影響力과 安保와는 밀접한 關係를 가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 政治的 影響力은 經濟的 影響力을 土臺로 한다는 것도 常識的인 이야기이다.

그러나 政治的 影響力의 增大가 安保의 強化 그리고 經濟利益의 增進을 위한 길이 된다는 것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④ 文化向上을 들 수 있을 것이다. 人間이 追求하는 價値는 經濟的인 것도 있지만 文化的 또는 精神的인 것도 많다.

各國은 自國의 文化를 豐富케 하는 同時에 自國의 文化가 他國에 影響을 주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領土의 帝國主義와 經濟的 帝國主義 外에 文化的 帝國主義를 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文化的 價値의 追求는 安保問題와 經濟問題가 어느 정도 해결된 후 소위 「餘裕가 있을 때」 考慮되는 것은 事實이지만 文化向上이 人間의 基本慾求라면 이것이 중요한 國家目標가 되

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 외에도 前述한 바와 같이 國家目標의 設定에 있어서 宗教的인 考慮가 혹은 政治理念的인 考慮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考慮가 共通性을 띤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強調點 :

本項에서 強調할 점은 國際關係란 各國의 利益追求의 相互作用에서 이루어진다는 事實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國際的인 行爲도 하나의 慈善的인 樣相을 取할 수 있지만 그 實際動機는 自國利益의 追求라는 점을 分明히 해야 할 것이다. 經濟援助나 軍事援助가 利益追求의 動機에서 나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人道主義的인 救濟의 提供(醫藥品 衣類, 食糧 등의 提供)에 있어서까지도 利益追求的인 考慮를 完全히 排除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國際關係는 國家를 行動單位로 하고 있으며 國家의 決定은 個人과는 달리 氣分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는 것이 現實的인 일 것이기 때문이다.

I-3. 各國 利益의 調和와 葛藤

-1) 葛藤 :

國際政治에서 各國이 利益을 追求하는 過程에서 葛藤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當然한 일이다. 이와같은 葛藤은 平和的으로 解決되는 수도 있지만 武力的인 衝突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國際社會에도 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國際法을 強制로 執行할 機構가 없기 때문에 當事國들의 自制가 缺如될 때 無法狀態가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 各國이 利益을 追求함에 있어서 帝國主義의 性格을 띤 때 國際的인 葛藤은 深刻해지고 武力衝突의 可能性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領土는 制限되어 있는데 2個國 以上이 같은 領土에 野慾을 가지고 있을 때, 市場은 制限되어 있으며 2個國 以上이 같은 市場을 占領하려고 할 때 利益의 相衝은 不可避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利害가 相反된다고 해서 반드시 對決이나 衝突로 國際關係가 發展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對決이나 衝突이 만드시 가장 效果的인 利益追求의 手段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며 個人間에서와 마찬가지로 國家間에도 利益과 葛藤의 平和的 解決이 모든 當事國에게 가장 有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衝突에서 勝算이 없는 當事國은 衝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當事國이 다 勝算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勝算이 있다해도 代價(物的, 人的 消耗 등)가 衝突에서 얻을 수 있는 利益보다 더 클 때는 衝突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2) 葛藤의 解決 :

다행히 오늘날 一般的인 趨勢는 「힘에 의한 對決」보다 「協商에 의한 平和的 解決」로 기울어지는 것 같다. 또한 各國의 利益間에는 언제나 葛藤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調和가 있을 수도 있다. 개미와 진땀물의 共生에서와 같이 두개 以上の 國家間的 利益이 合致될 수도 있고 또 서로 有利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서로 無害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무튼 좁아져 가는 世界속에서 各國은 利益追求에 있어서 對決보다는 協調를 志向해야 할 것이며 또한 國家利益이나 目標의 設定에 있어서 편협한 民族的 排他性이나 帝國主義性을 止揚하고 國際主義的인 立場을 取하는 것이 모두가 잘 사는 길이 될 것이다.

-3) 強調點 :

여기에서 強調할 사항은 國家利益을 圖謀하는 것은 當然하지만 그와 같은 國家利益을 될수록 他國利益과 相衝되지 않는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合理的이며 또한 利益의 葛藤은 될수록 平和的 方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國際社會 全體를 위해서 뿐 아니라 長期的으로 自國利益도 增進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點이다. 특히 여기에서 「나치」獨逸이나 軍國主義 日本의 例를 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II. 戰後 國際關係의 變化

II-1. 國際政治의 變遷過程

-1) 冷戰의 發展(1945~53):

冷戰開始의 公式聲明은 47年 3月 「트루만·독트린」의 發表였다. 즉 「트루만」大統領은 共產勢力的 進出로 威脅을 받고 있던 「그리스」및 「터키」를 援助하고 共產主義의 侵略에 對抗하여 自由諸國에 軍事援助를 提供한 것을 約束하였다. 또한 同年 6月에 「마아살·플랜」이 發表되어 西歐 諸國에 대한 美國의 經濟援助가 대대적으로 實施되었다. 나아가서 美國은 「對蘇封鎖政策」을 展開하여 9月에 美洲 21個國에 의한 全美相互援助條約이 調印되고 48年 3月에 西歐聯合이 結成되었으며, 이를 基礎로 하여 49年 4月에 美國을 盟主로 하는 「北大西洋條約機構」가 成立되었다.

한편 蘇聯은 「마아살·플랜」에 對抗하기 위해 47年 7月에 「몰로토프·플랜」을 發表하였고, 49年 1月에 蘇聯과 東歐諸國으로 構成되는 「經濟相互援助委員會」(COMECON)를 設置하였다. 또한 47年 9月에 歐洲諸國 共產黨間의 連繫強化를 目的으로 하여 「코민포름」이 結成되었으며 NATO에 對抗하는 軍事措置로서 蘇聯과 東歐 諸國間의 相互援助條約이 強化·擴大되었다.

그런데 48年 2月 「체코」共產黨의 「쿠데타」와 4月以後 1年間 繼續된 「베를린」封鎖는 西方側에 非常한 衝擊을 주었고, 49年 9月 蘇聯의 原爆實驗 成功에 관한 報道는 美國의 核獨占의 終焉을 意味하였다. 50年 2月 蘇·中 友好同盟相互援助條約이 締結된 後 6月에 韓國動亂이 勃發하여 東西冷戰은 部分的인 熱戰으로 되어 爆發하였다.

美國의 「아시아」政策 構想은 日本의 無力化와 中國의 民主化를 目標로 하였으나 中國內戰의 本格化에 의하여 破綻되었고 49年 10月 中共政權의 成立으로 崩壞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後 50年 1月 美國은 「아시아」防衛線이 「아류산—日本—沖繩—필리핀」을 잇는 線이라 宣言하고 中國에의 不

干涉政策을 取하였다. 그러나 韓國動亂을 契機로 美國의 「아시아」政策은 大轉換하여 臺灣防衛를 引受하고 對日講和條約의 締結을 서둘게 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美·比相互防衛條約, 美·日安保條約, ANZUS條約을 締結하고 對蘇封鎖政策을 中共에도 適用하였다. 다른 한편 韓國戰爭은 歐洲의 情勢에도 큰 影響을 미쳤다. 即 50年 12月의 NATO理事會에서 西獨軍 創設이 決定되었고, 西歐 6個國에 의한 「歐洲防衛共同體條約」이 調印되었으며, 「유럽」軍의 테두리 內에 있어 西獨의 再軍備를 認定하게 되었다.

1953年 1月 「달레스」美國務長官은 「封鎖政策」은 消極的이라 하여 더 積極的인 「返捲政策」을 發表하였다. 또한 10월에 美國은 韓國戰爭이 再發하지 않도록 韓·美相互防衛條約을 締結하였다.

上述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冷戰發生의 直接的 契機는 美·蘇 兩大國의 權力鬭爭을 本質로 하는 것이며 美·蘇間의 體制的 相違나 「이데올로기」的 對立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美·蘇 對立이 全世界的인 東西 對立으로까지 發展한 理由는 自由主義 對 共產主義라고 하는 「이데올로기」的 對立이며, 또한 資本主義 對 社會主義라고 하는 體制的 對立을 根底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戰爭 直後 西歐諸國의 國家利益은 무엇보다도 經濟復興이었기 때문에 資本主義의 盟主인 美國의 援助를 必要로 했고, 東歐諸國의 國家利益은 獨逸 報復主義로부터의 防衛에 있었기 때문에 社會主義의 祖國인 蘇聯의 後援을 必要로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美·蘇를 中心으로 하는 「兩極構造」가 形成된 것이다.

-2) 冷戰에서 共存으로(1954~62):

54年 1月 「아이젠 하워—달레스」美政府는 大量報復 政策을 提唱하여 世界에 걸쳐 蘇聯과 中共에 대한 包圍網을 띄고 核全面戰爭의 威脅에 의하여 共產勢力의 進出을 抑制하려고 하였다. 이에 對抗하여 「달렌코프」政權은 이 包圍網을 突破하기 위해 「平和攻勢」를 취했다.

「유럽」에서는 54年 8月 「歐洲防衛共同體條約」이 流産된 後 西獨의 NATO 및 西歐聯合에의 加入과 2年間에 50萬의 軍備強化가 實現되었다. 「아시아」에서는 9월에 東南亞條約機構, 12월에 美·中相互防衛條約, 55年 2월에

「바그다드」條約이 締結되어 自由陣營의 共產主義 包圍政策은 더욱 進展되었다. 이에 對抗하여 55年 2月에 成立한 「불가닌-후르시초프」政權은 5月에 東歐 8個國의 會議를 열어 「바르샤바」條約機構를 結成하여 共產陣營의 軍事協力 體制를 더욱 強化하였다.

東西冷戰은 美·蘇文化交換協定の 調印, 核實驗停止會議와 奇襲防止會議의 開催, 核實驗의 一方的 停止 등에 의하여 緩和의 傾向을 보이는 한편 中東紛爭, 「베를린」問題, 「알제리아」叛亂, 臺灣海峽의 危機 등으로 여전히 對立을 露呈하였다. 특히 58年 11月 蘇聯이 西方勢力的 西「베를린」撤收를 要求하여 이 「베를린」問題가 62年の 「쿠바」危機까지 滿 4年間に 걸쳐 最大의 爭點으로 되었다. 또 한가지 重要的 것은 58年 7月末 蘇·中共 首腦會談이 北京에서 열렸을 때 「후르시초프」는 中共이 蘇聯의 核「미사일」優位를 背景으로 하여 臺灣의 武力解放을 企圖하려고 하는 冒險主義에 警戒心を 불러 일으킨 한편, 毛澤東은 蘇聯의 對美核抑制力을 信賴하지 않고 獨自의 核武裝을 斷行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59年 1月 蘇聯 第21次 黨大會에서 「후르시초프」는 資本主義 諸國과의 經濟競爭과 平和共存을 強調하였고, 9月에 訪美하여 「아이젠 하워」大統領과 「캠프·데이비트」會談을 가졌다. 그는 美國에서 歸國하는 도중 北京을 들러 中共首腦에게 臺灣問題에 관하여 美國과 和解할 것을 說得했으나 兩者의 意見은 對立하였다. 蘇聯은 57年에 中共과 調印했던 國防用 新技術協定을 一方的으로 破棄하여 原爆見本과 原爆製造에 관한 技術資料의 提供을 拒否하였고 또한 8~9月の 中·印國境紛爭에 대하여 中立的 態度를 취하여 蘇·中共關係는 이미 冷却化되고 있었다.

60年 봄 東西解氷「무우드」는 U-2機 擊墜事件으로 한때 일어불었으나 9月에 「후르시초프」가 「뉴욕」을 訪問, 美·蘇關係 改善을 強調하여 美·蘇共存은 維持되었다. 한편 蘇·中共間에서는 4月부터 「이메울로기」論爭이 表面化하고 國境紛爭이 頻發했으며 11月の 世界 81個國 共產黨 會議에서도 兩國代表의 意見은 激甚하게 衝突하였다. 다른 한편 「드골」大統領은 58年 1月에 發足한 歐洲共同市場을 經濟的 基礎로, 佛·西獨의 協調를 政治的 基礎

로 또한 獨自의 核武裝을 軍事的 基礎로 하여 美國에 挑戰大國으로서의 地位를 要求하기 始作하였다. 이러한 美·佛對立과 蘇·中共對立에 共通되는 特徵은 東西 兩陣營에 있어 美·蘇의 指導權에 대한 挑戰이었다.

61年 1月 「케네디」 美大統領이 就任하자 그는 優越한 武力을 基礎로 하는 和戰兩面の 柔軟反應戰略을 採擇하였다. 62年 봄 「라오스」情勢가 緊張되고 가을에 中·印國境紛爭이 深刻해졌으나 이 해의 最大危機는 「쿠바」危機였다. 이 「쿠바」危機를 契機로 ① 東西陣營의 勢力關係 現狀의 急激한 大幅變更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② 核全面戰爭단은 絶對 回避해야 되겠다는 美·蘇 兩首腦의 認識이 다시 강하게 確認되었으며, ③ 蘇聯이 美國의 決意를 誤算할 可能性이 극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세가지 點이 그 後 東西關係를 好轉시키게 되었다고 하겠다.

-3) 共存의 定着(1963~70):

「쿠바」危機를 契機로 하여 東西間의 緊張은 서서히 緩和되어 갔다. 63年 6월에 美·蘇直通通信協定, 8월에 美·英·蘇의 部分核禁條約이 調印되었다. 이러한 美·蘇接近 특히 美·蘇의 核獨占에 佛·中共 兩國은 反撥하여 部分核禁條約을 非難하였다. 이보다 앞서 62年 12월에 美·英은 「나소」協定을 締結하여 NATO에 대한 多角的 核戰力 創設의 方針에 兩國이 協力하기로 約束하였는데, 佛은 이를 美·英·佛 三頭指導下에 둘 것을 要請하였으나 美·英이 이를 拒否하자 63年 1月 「드골」大統領은 「나소」協定에 不參하고 英國의 EEC加入 拒否를 表明하였으며 6월에 NATO로부터의 佛大西洋艦隊 撤收를 通告하여, 美·佛關係는 反目하였다. 또한 中·蘇間에는 激烈한 批判應酬이 있었으며, 7月の 「모스크바」會談도 決裂되었다. 이와같이 「쿠바」危機 後 美·蘇의 兩極化 時代는 終焉을 告하고 多元化 現象이 現저 하게 되었다.

63年 11月 「케네디」가 暗殺되고 64年 10月 「후르시초프」가 突然 解任되었으나 美·蘇協調는 繼續되었다. 이 「美·蘇에 의한 平和」에 대한 挑戰은 64年 1月の 佛·中共 外交關係의 樹立과 10月 中共의 1次核實驗 成功이었다. 64年 8月の 「퉁킹」灣事件을 契機로 美國의 越南 軍事介入이 擴大되어 갔다.

美國과 越盟을 支援하는 蘇聯間的 關係는 凍結狀態로 되고 民族鬭爭을 支援하는 中共과는 戰爭 一步直前的 狀態로 되었으나, 中共이 蘇聯의 越盟에 대한 共同行動을 拒否하여 美·蘇·中共은 三巴葛藤을 繼續하였다. 또 65年 9월에 勃發한 印·파戰爭에 있어서도 印度에 最後 通牒을 發한 中共과는 對照的으로 美·蘇兩國은 中立的 態度를 취하여 戰爭擴大를 抑制하였다.

그후 蘇聯은 美國의 越南 軍事行動을 非難하였지만 核戰略의 優位性을 保持하기 위해 核不擴散과 宇宙利用의 面에서 對美協調를 推進하였다. 中共의 外交는 66年 文化大革命의 混亂에 의해 國際的으로 孤立되었다. 이에 반하여 「드골」은 越南中立化를 標榜하고 NATO의 軍事機構로부터 脫退하는 한편 蘇聯首腦와의 交流를 始作하고 東西交流를 積極化하였다. 또한 日本도 「아시아」外交를 活潑히 展開하기 始作하였다.

67년에는 美·蘇關係가 越南戰爭과 6월에 勃發한 中東戰爭으로 冷却化했으나 6月 美·蘇 兩首腦는 「그라스보로」會談에서 「平和共存」을 再確認하였다. 中共에서는 文化革命의 進行에 따라 戰鬪가 全國에 擴大되고 革命을 A.A. 諸國에 輸出하였기 때문에 國際的 孤立을 招來했고 中·蘇國境紛爭도 頻發하였다. 「유럽」에서는 66年 12월에 成立한 西獨의 「키싱거-브란트」政權이 東西「유럽」의 和解를 推進하고 「드골」도 東歐에의 接近을 試圖하였다. 또한 「經濟大國」으로 成長한 日本에서는 佐藤首相이 「존슨」大統領으로부터 3年內에 仲經返還에 合意를 보게 될 것이라는 諒解를 얻어냈다.

68年 3月 「존슨」大統領은 越南戰의 縮少措置를 취하는 한편, 5月부터 越盟과의 平和會談을 開始하였다. 다른 한편 蘇聯은 1月 以來의 「첵코」自由化를 抑壓하기 위해 8월에 武力干涉을 敢行하였다. 이러한 蘇聯의 大國主義的 蠻行은 世界 輿論의 反擊을 샀을 뿐만 아니라 西方側의 對蘇警戒를 增大시켰다. 그러나 美·蘇 核超大國은 各己의 勢力範圍를 默示裡에 諒解하여 干涉하지 않고 世界支配를 더욱 確實히 하기 위해 7월에 核擴散防止條約에 調印하였다. 또한 文化大革命이 終局的 段階에 들어간 中共은 蘇聯의 對「첵코」武力介入을 「社會 帝國主義」라 攻擊하였으나 美國과의 關係는 轉換의 徵候를 보이기 始作하였다.

69年 1月에 美國에서는 「닉슨」大統領이 就任하여 越南戰을 早速히 終結하여 國內의 分裂을 克服하는데 注力하였다. 또한 聯聯은 「체코」武力介入에 의하여 深刻해진 共産圈內의 對立을 調整하는데 注力하고 6月에 世界共産黨 會議을 「모스크바」에서 開催하였다. 中共에서는 4月에 9全大會가 開催되어 文化大革命이 일단 마무리되었다. 「유럽」에서는 「드골」이 退陣하고 「퐁피두」首相이 大統領으로 選出되었으며, 西獨에서는 「브란트」社民黨 政權이 成立하였다. 특히 69년에는 美·蘇間의 戰略武器制限會談(SALT)이 開始되었고 中·蘇國境의 武力衝突(「다만스키」島 事件 등)이 激化하였으며, 11月の 「닉슨」·佐藤 共同聲明으로 仲繩施政權 返還에 관한 合意를 보게 되었다.

이렇듯 美·蘇는 戰後 各己 自由陣營과 共産陣營의 指導國으로서 그 陣營을 形成하고 이끌어 왔으나 美·蘇의 陣營對立은 修正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現象을 흔히 國際政治의 多元化라는 말로써 表現하고 있다. 多元化를 가져오게 된 主要 要因을 들면, ① 美·蘇間의 平和共存이 漸次 定着되어 간 것. ② 自由陣營 內에서 英·佛·西獨·日本 등이 戰爭의 打擊에서 復興하여 自主政策을 追求하게 된 것. ③ 共産陣營 內에서도 蘇聯과 指導權을 다투어 獨自의 核開發을 推進하고 自立政策을 遂行하고 있는 것. ④ 美·蘇 超大國의 核戰力은 그 破壞力이 너무도 엄청나서 政治的 影響力으로서의 效果에 限界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4) 70年代 國際秩序의 全般的 趨勢:

70年代에 들어와서도 美·蘇는 戰略的 核武器의 優位性을 獨占의으로 維持함으로써 世界國家로서의 既往의 地位를 維持할 必要가 있다는데 利害를 같이하고 있다. 즉 陣營을 이끌고 다님으로써 생기는 附隨的인 負擔에서는 相對的으로 벗어나되 第2次大戰 以後에 形成된 世界的 勢力均衡의 現狀은 維持함으로써 世界的 強大國으로서의 地位는 지켜나가겠다는 點에서 美·蘇는 政策上의 一致를 보고 있다.

그리고 過去 20餘年間의 歷史는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國家들의 政治觀의 對立이라는 狀況을 빚어놓았기 때문에 陣營對立의 結果로 社會體制는 對立的인 基本的 緊張關係를 계속 가지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오늘날의 武器

體系的 性格上 資本主義的 社會經濟 體制를 갖는 나라들은 그 體制를 지키기 위하여 또 社會主義的 社會經濟 體制를 갖는 나라들도 역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窮極의으로는 美國 또는 蘇聯의 核武器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處地에 놓여 있다. 이러한 狀況을 가리켜 「헨리·키신저」(Henry Kissinger)는 「軍事的 二元化와 政治的 多元化的 政治現象」이라고 하였다. 즉 社會體制的 性格上 美國은 西歐諸國의 運命에 無關할 수 없고 또 蘇聯은 東歐의 自由化를 完全히 放任할 수는 없다. 또한 西歐나 東歐諸國 역시 보다 獨自的인 政策路線의 追求가 要請된다고 할지라도 政權과 社會體制的 基本은 美國·또는 蘇聯의 힘에 의하여 계속 保障될 必要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戰後 國際政治秩序의 變化를 몇가지 具體的 側面으로 나누어 簡單히 살펴보기로 한다.

① 政治的인 面에서는, 世界 政治主役國 數의 增大, 「이데올로기」의 鈍化, 緊張緩和, 現狀維持의 諸傾向을 들 수 있다. 世界政治問題 解決에 있어 獨占的 發言權과 主導權이 許容되었던 美·蘇 兩極體制는 漸次 崩壞되어 나가고 美·蘇·中·日 및 하나의 統合된 單位勢力으로서의 西歐 등 世界主役國의 數가 더 많아진 多元體制가 形成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世界政治는 이러한 列強間의 多元的이고 多邊的인 復雜한 對立·協調關係가 展開되어 갈 것이다. 또한 「이데올로기」戰爭은 政治的 本質上 永續할 要因을 潛在하고 있긴 하나 核武器 革命 때문에 生存을 위한 現實的 打開策을 摸索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異質的 社會體制間의 平和共存競爭이 強調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政治「이데올로기」의 鈍化現象을 招來했고 오직 現實主義와 實利主義만이 두드러지게 浮刻되고 있다. 이러한 實利優先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具體的 手段方法으로서 對決속의 長期的 安定을 圖謀하려는 現狀維持 政策을 強調하는 한편, 世界의 全般的 緊張緩和를 指向하는 必須條件으로서 對話와 交渉의 重要性을 높이고 있다. 그리하여 相互不信과 敵對意識을 漸次的으로 解消해 나가면서 世界 全般에 걸쳐 새로운 勢力均衡을 摸索하고 있는 것 등이 今日의 特徵이 되고 있다.

② 經濟的인 面에서 보면, 今日의 世界經濟는 富益富·貧益貧의 現況속에 허

덕이고 있는데 이 南北問題의 根本的 解決을 위한 滿足할만한 成果는 期待하기 어려운 形便에 있다. 先進 強大國들은 여전히 自國實利 爲主로 世界經濟政策을 遂行해 나가면서도 後進 諸國에 대하여는 強大國의 利益保全을 위해 自進해서 自己犧牲을 甘受해 달라는 식으로 強要하고 있다. 그리하여 生存과 繁榮을 위한 實利追求라는 國際環境下에서 後進 弱小國들도 先進 強大國들의 恩惠와 慈悲에의 全的인 依存狀態를 벗어나려는 自主努力의 一環으로 自立·自助의 經濟施策과 自主國防 등에 力點을 두고 熾烈한 貿易競爭에 積極 뛰어들지 않을 수 없는 處地에 놓이게 되었다. 全般的으로 보아 經濟的 側面에서도 世界各國은 冷戰體制에서의 敵對關係를 解消시키면서 經濟活動 領域을 擴大하여 共存競爭의 길을 追求하게 될 것이다.

③ 軍事的인 面에서는, 世界各國은 대체로 紛爭을 軍事的 方法보다는 오히려 政治·外交的 方法 즉 平和의 方法에. 의해 解決하려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그 理由는 주로 武力에 의한 紛爭解決의 困難性, 軍事費 支出이 財政에 미치는 莫大한 影響 그리고 經濟的 繁榮과 實利追求를 優先的으로 考慮해야 할 政策上 必要때문이다. 따라서 現狀維持를 통한 長期的 軍事安定 나아가서 軍事費의 財政에 미치는 重壓을 克服하여 繁榮과 實利追求의 方向으로 政策을 轉換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強大國들은 直接 援助介入을 통해 國際責任 地域을 擴大하려고 하던 既往의 政策을 修正하여 國際 責任地域의 縮少, 直接介入 要因의 除去, 軍事同盟 體制의 性格 轉換, 軍縮을 위한 努力, 紛爭地域 특히 分斷國群에서의 武力競爭 要因의 除去와 緩和를 一般政策으로 삼고 있다.

④ 外交的인 面에서는, 兩極體制의 破壞와 多極體制에의 轉換, 緊張緩和와 軍事的 依存度의 相對的 低下, 紛爭의 政治·外交的 解決主義, 實利의 優先 등의 一般의 趨勢下에 群小國들도 그 存立과 活路打開을 위한 政策選擇의 幅이 擴大 多樣化되었고 多角的 方法에 의한 自主·自立이 切實히 要求되는 狀況에 이르렀다.

II-2. 70年代 國際情勢의 轉換方向

-1) 美國의 役割 縮小:

지난 冷戰史에서 「世界警察官」으로서 自由 諸國을 保護해 오던 美國은 70年代에 들어와서부터 그 役割을 크게 減縮시키는 政策轉換을 보이기 始作하였다. 「닉슨·독트린」으로 알려진 美國의 새로운 政策構想은 ① 美國의 役割을 減縮시키는 대신, 域內 國家의 自主的 國防態勢와 多邊的 防衛態勢에 期待를 걸고, ② 「아시아」諸國과 맺은 條約상의 義務는 尊重하되 「아시아」地域에서의 軍事的 介入은 選擇의 으로 하며, ③ 「아시아」域內 國家의 地域協力を 側面에서 支援하여 ④ 對決아닌 協商으로 共產國과의 關係를 改善하고 域內 地域國家와의 多角的 勢力均衡을 維持한다는 것을 內容으로 하였다. 이러한 政策轉換은 莫大한 戰費와 人命을 消耗해도 끝날 줄 모르는 越南戰에 대한 美國民의 懷疑와 批判, 過剩公約에 대한 깊은 反省, 產軍複合體에 대한 疑惑 또는 批判運動과 軍部に 대한 不信感, 「달려」危機, 「인프레」와 景氣後退 問題, 黑人問題, 貧困問題, 都市問題 등 실로 錯雜한 諸國內 問題의 重壓과 아울러 中共의 文化革命, 中·蘇對立 및 日本의 經濟力 向上이라는 國際情勢의 變化를 그 背景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닉슨·독트린」의 具體的 展開은 美軍과 그 軍事基地의 「아시아」로부터의 漸次的인 撤收와 對中共和解로 나타났다.

美國은 中·蘇對立을 利用, 中共과 蘇聯을 相互 適切히 牽制 均衡시킴으로써 이 兩國中 어느 一國이 「아시아」地域에서 紛爭이나 挑發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 이러한 立場에서 美國의 對中共 接近은 中共에 대한 通商制限 措置를 緩和시켰고 「유엔」에의 門戶를 開放시켰으나 自由中國의 國際的 孤立을 招來하게 되었다. 1972年 2月 28日 美·中共의 共同聲明은 武力 不使用과 膨脹政策의 中止를 宣言하였다. 이 共同聲明으로 美國은 安心하고 「아시아」에서 撤軍을 斷行할 수 있고 中·蘇紛爭을 利用하여 蘇聯에 대한 抑制力을 行使하게 되었으며 蘇聯과의 協商에서 有利한 立場을 취할 수 있게 되어 「닉슨」의 「모스크바」訪問으로 戰略武器制限協定을 調印할 수 있

는 結果를 가져왔다. 또한 美國은 對中共接近으로 지금까지 自國의 保護下에서 實利追求에 급급해 오던 日本으로 하여금 域內 國家의 開發에 參與케 하고 經濟援助를 提供케 함과 더불어 美國의 「아시아」에서의 役割을 代行해 주기를 期待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은 日本과 中共이 「아시아」強大國으로 登場함에 따라 發生하는 複合的 勢力關係에서 多邊的 牽制 均衡體制를 形成시키려는 것이다.

-2) 蘇聯의 對「아시아」政策 :

現在 蘇聯은 「유럽」의 緊張을 緩和시켜 現狀凍結에 의한 安定을 確保하고 中共을 牽制하기 위한 包圍網을 構築하며 日本·中共·印度 등이 主軸이 된 對蘇聯合作戰의 形成을 沮止하는데 力點을 두고 있다. 이러한 政策目標 아래 70年 8月 獨·蘇不可侵條約을 締結했고, 美·蘇戰略武器制限會談을 提案했으며, 日本을 「시베리아」開發에 誘引하였다. 또한 「브레즈네프」의 「아시아 集團安保」構想과 「뉴델리」—「방글라데쉬」—「아프가니스탄」을 連結하는 印度洋遮斷戰略을 樹立하였고 東南亞 諸國과의 通商外交를 擴大하고 있다.

66年 6月 世界共產黨大會에서 發表된 「브레즈네프」의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이란 美國과 英國의 後退에 대신하여 中共·日本·濠洲 등이 「아시아」地域에 進出하지 못하도록 이 地域 諸國이 스스로의 安保體制를 確立하고 蘇聯이 그것을 支援하겠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美國과 英國이 이 地域에서 役割을 減縮해감에 따라 생기는 힘의 眞空을 中共이나 日本에 앞서 蘇聯이 메우려는 것이고 中共을 앞뒤에서 封鎖하려는 것이며 美國과 英國의 影響力下에 있던 弱小諸國에 接近함으로써 그들을 美·英의 影響圈으로부터 完全히 離脫시키려는 底意를 갖고 있다.

이러한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 蘇聯은 다음과 같은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다. 먼저 「아시아」에서 中共에 對抗할 수 있는 日本과 印度에의 接近이다. 印度와는 71年 8月 友好援助條約을 締結한 바 있고 「파키스탄」과의 戰爭에서도 印度를 積極 支援하였다. 日本에 대해서는 基本的으로는 美·日安保體制의 廢棄와 軍事的 中立地帶의 形成을 꾀하고 있지만 그것이 如意치 않게 되자 72年에 「그로미코」外相을 日本에 보내 積極的인 接近을 圖謀하려 하였

다. 北韓·越盟·蒙古 등 中共周邊의 共產政權에 대해서는 무리한 壓力을 加하지 않으면서 經濟 및 軍事援助를 提供하여 中共에의 密着을 막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其他의 自由 및 中立의 「아시아」諸國에 대해서는 經濟交流에 따르는 政治的 進出이라는 方式을 擇하면서 現實政權과의 交涉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3) 中共의 새로운 姿勢:

中共은 中·蘇國境紛爭으로 말미암아 北方으로부터의 威脅을 받아 왔으며 美國의 封鎖網에 걸려 있었고 新興大國으로 登場한 日本이 次後 可能한 對美·蘇關係에서 不利한 背後 威脅要因임을 意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中共을 四面楚歌의 包圍網속으로 넣는 結果가 되는 蘇聯의 印度洋 및 東南亞에의 進出에 直面하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中共은 우선 兩面對決을 止揚하고 國內産業 開發을 서둘지 않으면 안되었다. 中共은 이때까지 東南亞에 關心을 쓰기 보다는 美·蘇의 保護地域 내지 利害地域인 南美·東歐 및 「아프리카」地域에 浸透함으로써 美·蘇의 關心을 分散시키는 迂迴戰略을 써왔다. 그러나 中·蘇國境紛爭의 惡化와 「닉슨·독트린」에 따른 美軍撤收後 日本의 役割代行에 不安을 느끼고 外交의 方向轉換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中共은 美·蘇間의 共存限界와 對立狀況, 美·日間의 安保體制의 虛實과 限界 그리고 日·蘇間의 接近 可能性 등을 把握하여 對美 平和共存, 對日 關係正常化, 臺灣의 平和의 解放을 위한 努力 등을 當面目標로 삼고 對美接近을 試圖하여 72年 2月 美·中共 共同聲明을 發表하게 되었다. 中共은 對美和解로써 蘇聯의 包圍網을 弱화시키고 蘇聯의 挑發可能性을 抑制하며 美軍撤收後 東南亞에 있어 日本과의 對立에서 美國의 支援을 期待할 수 있고 또한 日本의 核武裝 및 東南亞 進出과 蘇聯의 東南亞 進出을 抑制시킬 수 있는 하나의 契機를 만들게 되었다.

다음으로 中共은 日本에 接近하기 始作하였다. 中共은 日·蘇平和條約이 締結되기 前에 先手를 써서 中·日關係를 正常화시킴으로써 역시 蘇聯의 對中共 包圍網을 牽制하고 蘇聯의 東南亞 進出을 沮止하며 日本技術의 導入으로 國內産業 開發을 圖謀하려 하였다. 72年 9月 30日 日·中共共同聲明에 의해

中共의 唯一合法性과 臺灣이 中共領土의 一部임을 確約받았다.

中共은 全般的으로 現 國際秩序의 現狀을 維持하는 동안 第三勢力을 擁護하여 새로운 勢力圈을 確保하는 第二의 「만동」接近을 摸索하고 있다. 따라서 中共은 平和5原則 支持國들과 外交關係를 樹立하여 平和共存路線을 指向하는 한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抗美勢力을 支援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民族解放 運動」을 支援하고 있다. 특히 東南亞에서 中共은 1,500萬 華僑를 利用해서 對外經濟 8原則을 武器로 「이데올로기」를 輸出하여 日本의 膨脹을 沮止하려 하고 있다.

4) 日本의 政策轉換 :

日本은 戰後 美國의 軍事的 保護와 經濟的 支援으로 平和憲法下에 世界 第三의 經濟大國으로 登場하였다. 美·日安保體制를 主軸으로 「아시아」 地域 특히 韓國防衛의 發進基地로서 役割을 擔當해 온 日本은 美·蘇冷戰體制下에서는 別다른 獨自의 길을 摸索할 수 없었다. 그러나 東西冷戰體制의 解氷과 政治의 多極化 그리고 특히 美國의 政策轉換에 따라 日本도 새로운 政策方向을 세우게 되었다. 먼저 日本은 對美關係에서 經濟關係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 範圍內에서 美國의 軍事的 保護로 인한 日本의 對外政策上 制約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다. 日本은 沖繩基地의 施政權을 返還받았고 日本內의 美軍基地 使用에 관한 發言權을 強化시켰다.

日本은 美國의 美·日安保條約의 要求를 들어주는 反面 美國은 日本의 對美貿易關係에서의 要求를 들어주어야 하는 立場에 있었는데, 이러한 關係가 69年 「닉슨」·佐藤共同聲明에서 나타났던 바 佐藤首相은 國際情勢가 緩和되어가고 對中共接近國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韓半島와 臺灣의 安全이 日本의 安全과도 關係가 있음을 밝혀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美·中共和解를 契機로 美國의 敵概念이 變更됨에 따라 日本도 對外關係를 根本적으로 再調整해야만 하였는데 이것이 中共接近으로 나타났다. 中共과의 修交를 통해 日本은 첫째, 美·中共關係의 變化에 맞추어 나감으로써 美國과 對等한 外交的 地位를 確保할 수 있고 둘째로, 東南亞에 있어 日本의 壓倒的인 交易關係를 물리치고 中共과 일어날 수도 있는 摩擦을 미리 政治적으로 調

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中共의 諒解를 얻는 경우 蘇聯과의 經濟協力도 推進할 수 있게 되었다.

日本은 이러한 有利한 點을 確保해 나갈 수 있는 길에 들어서서 이제 本格的으로 政治大國으로서의 行勢를 하면서 均衡體制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 均衡體制속에서 行勢하는데 있어 日本은 다른 3大國이 지닌 軍事力을 갖지 못하고 들어온 것이다. 通常的 軍事力은 第4次 防衛計劃에 따라 進行되어 갈 것이지만 當분간 核武器는 갖기 어렵게 되어 있다. 日本의 經濟力에 核武器까지 곁친다면 이것은 3大強國에 모두 威脅이 될뿐만 아니라 現狀打破의 素地를 남기는 것이므로 3大強國은 모두 日本이 軍事大國으로 登場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點에서, 日本은 蘇聯 및 中共의 核力에 대해 既存의 美·日安保體制에 의한 美國의 核保護를 받지 않을 수 없고 또 실상 그 立場을 밝혀온 바이다. 따라서 日本은 그 새로운 地位에 따른 外交政策을 주로 經濟에 焦點을 맞추지 않을 수 없으며 經濟的 進出을 위해 더욱 注力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周邊 強大國의 對外政策 轉換方向과 目標를 簡單히 보았는데 今後 이들 強大國間의 勢力關係는 어떻게 될 것인가?

1972年 2月 28日 美·中共 上海共同聲明과 同年 9月 30日의 日·中共 共同聲明은 兩者가 다 같이 『兩側 어느 쪽도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主導權을 追求해서는 안되며, 또 兩國은 各各 그러한 主導權을 確立하려는 다른 어떤 國家 또는 國家集團 努力에도 反對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히 美·中共共同聲明 中에는 『兩側은 어느 主要國家든지 다른 主要國家와 共謀하여 其他 國家들에 對抗하거나 또는 主要國家들이 世界를 勢力圈으로 分割하는 것은 世界人民들의 利益에 違背된다』라고 되어 있다. 兩聲明에서 中共은 基本的으로 蘇聯 또는 日本이 東南亞地域에서 今後 可能한 勢力圈形成 試圖를 防止하려는 것이고 美國과 日本도 蘇聯이나 中共의 장차 있을 수도 있는 勢力圈 擴大 企圖를 沮止하려는 것이었다.

4大國은 一次的으로는 다른 두 나라가 自國에 對抗하는 聯合戰線을 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二次的으로는 4大國中 어느 나라도 東南亞地域에서

自國의 勢力圈 擴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美國은 中·蘇의 單一共同戰線을 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日本은 蘇·中共이 聯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中共은 蘇聯과 日本의 聯合을 防止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에 있어 4大國間의 力學關係는 利害와 勢力이 얽히고 錯綜된 多角的 相互牽制 體制로 될 것으로 豫想된다.

第 2 章 世界속의 韓國

序說에서 이미 밝힌바와 같이 第 2 章에서는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韓國의 位置가 어떤 것인가를 認識시키는데 그 目標가 있다. 이를 다시 細分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은 歷史적으로 國際環境에 影響을 많이 받았으며 먼 過去에도 그러하였거니와 특히 가까운 과거와 現在에 있어서도 더욱 더 그러하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둘째, 韓國은 國家의 發展을 위하여 國際環境에 機敏하게 適應하면서 機會를 最大限 開發 活用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셋째, 韓國이 追求하는 國家目標 내지 外交目標가 무엇인가를 알게하고 이의 正當性을 확신케 한다.

네째, 韓國外交의 現況을 把握케 하여 이의 成就를 위해서 能動的으로 參與케 한다. 위와같은 教育目標를 達成키 위하여 本章에서 다루어야 할 教育內容은

첫째, 歷史적으로 國際環境이 韓國史에 미친 影響과

둘째, 地政學적으로, 國際政治 構造의으로서 韓國의 位置

셋째, 韓國이 追求하는 國家目標과 外交目標 그리고 그 正當性

네째, 韓國外交의 現況과 當面課題를 살펴보는 순서로 전개하였다.

以上과 같은 內容과 組織을 통하여 本章에서 強調해야 할 點은

- ① 韓國은 國際環境에 대한 機敏한 對處없이 國家發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點
- ② 國際環境에 대한 合理的인 對處란 適應과 主體性의 적당한 配合(調和)에서 이루어진다는 點
- ③ 韓國外交의 目標은 특히 1970年 8.15宣言, 71年의 南北赤十字會談 開催提議, 72年의 7·4共同聲明, 73年의 6·23平和統一 外交宣言 등 一連의 政策調整에서 國際環境에 대한 適應과 主體의 立場에서의 目標追求가 잘 調和되었다는 點
- ④ 韓國의 外交目標가 國際적인 正當性을 띠고 있으며 外國의 同調를 많이 받고 있다는 點 등이다.

I. 國際社會와 韓國

-1) 韓國의 地政學的 位置 :

韓國은 外勢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地政學的으로 韓國은 中國·蘇聯·日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三角關係의 한가운데 位置하고 있기 때문에 國際勢力政治의 바람을 심하게 받게 되어 있다. 最近에 이르러 科學技術의 發達로 距離가 征服되자 既存의 三角關係에 美國이 追加하게 되어, 한국은 世界 4大強國의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 國家의 外交의 策略이 있을 때마다 한국은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韓半島問題 특히 南北關係는 南北韓만의 關心事로 더우르지 않고 強大國간의 勢力政治에 크게 관련되게 된 것이다.

-2) 韓國의 外交傳統 :

歷史的으로 살펴 볼 때, 한국이 外侵을 받은 것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13世紀에 있었던 蒙古侵略, 16世紀의 壬辰倭亂, 17世紀의 丙子胡亂이 그 좋은 예이다. 그리고 近代에 이르러 19世紀末의 淸日戰爭도 韓國이 主爭點이 되어 일어났고 20世紀初의 露日戰爭 역시 韓國이 그 爭點의 하나였다. 外勢의 영향을 가장 혹독하게 받았던 것은 日本의 強制合併과 36年間의 植民統治이다. 二次大戰에서 日本이 敗亡하고 韓國이 解放된 것도 國內的 要因보다 國際的 要因의 作用에 起因된 바 크며 南北分斷도 外的 要因(특히 美·蘇의 勢力다툼)에 더 起因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6·25 당시 共產黨 南侵의 擊退도 美國을 위시한 自由國家들이 「유엔」旗 밑에서 한국을 도우지 않았으면 不可能했을 것이며 그 後의 韓國安保도 友邦 특히 美國의 힘입은 바 크다.

第IV節에서 論하겠지만 韓國의 平和統一의 成就도 國際社會와의 有機的인 關係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經濟成長을 통한 國力培養도 國際社會에서 孤立되어서는 成就되기 어두운 입장이다.

그렇다고 韓國이 國際環境에 대해서 完全히 被動的인 姿勢를 취해야 된다

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되면 「남의 目標」은 成就될지 모르지만 「우리
의 目標」은 成就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國際社會는 韓國보다 크고, 또
韓國은 強大國도 아닌 制限된 영향력의 所有國인만큼 國際環境에 適應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適應도 스스로의 目的을 잃은 즉 主體性 없는 適應이어서
는 안 될 것이다.

主體性 있는 適應, 스스로의 目的을 堅持할 수 있는 適應, 이것이 바람직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國際環境을 예리하게 分析하여 變化에 민첩하게
對處하면서 韓國의 國家目標의 達成을 위한 機會를 最大限으로 開發하고 活
用하는 方向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비유를 하면 韓國은 國際社會에서 活
潑한 柔道選手처럼 스스로의 目的을 위해서 自身과 友邦의 힘은 물론, 競爭
的 立場에 있는 國家의 힘까지 利用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國際社會에서
同調勢力을 最大限으로 確保할 뿐 아니라 競爭 혹은 對立關係에 있는 國家
들의 強弱點을 잘 把握하면 비록 스스로의 絶對的 힘은 制限되어 있다해도
반드시 絶望的인 것은 아닌 것이다.

-3) 強調點:

以上과 같은 內容을 다루면서 강조할 것은 첫째, 韓國은 國際環境의 影響
을 많이 받게되어 있으므로 國際環境의 變化에 機敏해야 한다는 점과 둘째,
우리 스스로가 機敏하지 못할 때는 國際環境의 影響이 韓國에 否定的이겠지
만 우리만 機敏하면 國際環境의 影響이 우리에게 肯定的으로 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우리가 取해야 할 姿勢는 國際環境에의 기민한 適應과 國際
環境의 主體的인 操縱을 잘 調和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II. 周邊強大國의 韓半島政策

II-1. 周邊國의 韓半島政策

-1) 美 國:

美國이 韓半島에 대해 갖는 利害는 大陸勢力인 蘇聯과 中共의 南下로부터

周邊地帶 利益線을 連結·維持하는 것과 南韓에서 獨占的 影響力을 갖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美國은 60年代 前半까지는 積極防禦戰略의 概念에 따라 우리를 크게 支援하여 주었고 美軍을 駐屯시켜 이를 뒷받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닉슨·독트린」의 展開에 따라 保障을 積極戰略에 의하지 않고 中共과 和解함으로써 消極戰略으로 轉換하였다.

「韓國化」의 推進에 따라 美國은 71年初 駐韓美軍 2萬을 撤收시켰고 對韓 軍援을 削減하고 있다. 특히 美國은 71年 駐韓美軍 減縮에 公約한 國軍現代化 5個年計劃에 所要되는 軍援額까지도 대폭 削減하고 있는 實情이다. 殘留 駐韓美軍도 조만간 撤收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같이 駐韓美軍 減縮計劃을 推進시키게 된 直接的 動機와 假定은, 韓國의 軍事的 및 經濟的 發展으로 美國의 直接支援없이도 防衛負擔을 自擔할 수 있다는 것, 北韓이 가까운 將來에 重大한 軍事的 冒險을 恣行하지 않으리라는 것, 中·蘇間의 自體事情으로 어느 쪽도 北韓의 南侵을 使喚하거나 支援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前提는 美國의 樂觀論이며 우리의 安保觀과 相反되는 點이 없지 않다.

美國의 韓半島政策은 基本的으로 現狀維持이다. 南北韓이 다시 紛爭을 일으키는 경우, 이것은 美國의 對蘇·對中共政策의 變更를 強要하는 것이므로 美國은 紛爭의 再發을 極力 막으려 한다. 紛爭의 再發을 막는 方法은 韓半島에 可能한 限 軍事力을 적게 갖게 하는 方法을 構想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美國은 南北韓의 共存이 極東平和의 核心으로 생각하고 南北韓이 競爭的으로 共存하는 것을 願하며 統一에로의 接近과 交流를 歡迎하고 있다. 나아가서 美國은 南北韓의 共存을 前提로 한 美·中·蘇의 韓半島에서의 現狀維持와 共存關係를 公式化 또는 制度化시키려 할 것 같다.

美國의 政策樹立에 關與하는 學者「그룹」의 研究方向을 보면 첫째, 南北韓에 대해 4大國의 影響力을 行使함으로써 分斷現狀을 凍結시키고 現在와 같이 韓國만을 一方的으로 擁護하는 立場을 止揚할 것 둘째, 「언커프」를 解體하고 南北交流를 擴大시키며 軍縮을 위한 國際的인 壓力을 加重하고 셋째, 駐韓美軍의 撤收를 豫想하여 「오스트리아」式 中立化 統一方案을 摸索하고 네

째,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을 實現시켜야 한다는 方向으로 研究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民間學者들의 研究方向이 곧 「닉슨」 行政府의 對韓政策은 아니라 하더라도 今後의 對韓政策 樹立에 相當한 影響力을 미칠 것만은 確實하다. 이같은 美國의 對韓政策 方向이 우리의 政策方向과 어긋나는 점이 없지 않은데 問題點이 있다.

-2) 蘇 聯:

第2次大戰 後 蘇聯은 北韓을 蘇聯 衛星化하고 「革命基地」로 만든 다음, 北韓으로 하여금 南侵을 敢行케 하였다. 蘇聯으로서는 韓國戰爭이 現狀變更의 마지막 企圖였으나 美國과의 直接的인 衝突을 피하기 위해 軍事的 介入은 하지 않았다. 韓國戰爭을 통해 美國을 비롯한 自由世界의 強硬한 反擊에 直面하였기 때문에 1953年의 休戰成立 이래 蘇聯은 極東赤化試圖를 일단 中止하고 韓半島와 極東에서 現狀維持政策을 實施하지 않을 수 없었다.

蘇聯으로서는 中共의 韓國戰參加가 結果的으로 中共勢力의 韓半島 上陸을 意味하기 때문에 損害를 본 셈이며 따라서 中·蘇間에서 北韓의 地位가 不安定하기 때문에 現在의 南北韓 分斷狀態에 短期的으로는 滿足할 수 밖에 없다. 만일 北韓이 中共의 影響下에 들어가게 된다면 蘇聯은 北韓에 의한 全韓半島 占領을 反對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蘇聯은 北韓이 中共에 密着하지 않도록 努力하는 한편, 現在 分斷의 公式化를 통한 北韓地位의 合法化에 더 큰 關心을 갖고 있다. 北韓의 地位를 公式化하고 合法化하는 것은 韓國에서 戰爭終結 措置의 一環으로 提起될 南北韓 相互 地位認定協定을 締結케 만들 可能性이 있다. 다시말하면 蘇聯으로서는 韓國에서 戰爭終結 措置를 취하게 되면 休戰協定이 消滅되고 그렇게 되면 中共이 合法的으로 韓半島 問題에 關與하고 있는 狀態에 終止符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北韓地位의 公式化는 南北韓間의 敵對關係와 韓半島에서의 紛爭發生의 可能性을 줄어들게 할 것이므로 對馬島 海峽의 安定에 寄與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아가서 蘇聯은 韓半島에 있어 紛爭發生 可能性의 減少는 日本의 武裝強化를 덜 刺戟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같이 戰後處理 問題인 韓半島 問題에 깊숙히 關聯되어 있는 美國과 蘇

聯은 對韓半島에서의 兩國間的 均衡을 考慮할 것이다. 만약 韓半島 問題가 잘못 處理되는 경우, 美·蘇의 世界外交 및 戰略態勢의 均衡을 깨뜨려버릴 가능성이 潛在해 있는 噴火口的 要因임을 認識하고 있으며, 때문에 蘇聯은 對北韓政策에 있어서 美國의 對韓政策과 비슷한 形式의 勢力均衡 維持에 努力해 왔다. 具體的으로 그것은 政治·經濟·軍事上의 對北韓 影響力으로 나타났다. 만약 蘇聯이 北韓의 軍事的 現狀打破에 대하여 支援公約을 할 경우 美國의 對韓公約의 增大를 招來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蘇聯은 北韓의 軍事的 現狀打破를 過去처럼 積極 支援할 立場에 있지 않는 것 같다. 오킨데 美·蘇 兩國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 南北韓間的 衝突防止, 南北對話 및 交流를 통한 長期的 軍事安定 및 現狀維持라는 점에서 利害를 같이하고 있다. 이리하여 美國이 韓國의 國軍現代化 計劃을 左右할 수 있는 關鍵을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蘇聯도 北韓에 대하여 軍事戰略的인 制約을 加할 수 있는 影響力을 갖고 있다.

-3) 中 共:

文化革命이후 中共의 새로운 政治氣運은 對外關係面에서 脫教條主義的인 現實主義와 現狀固定化의 傾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政策方向은 韓半島에도 適用될 것으로 보아진다. 韓半島에서의 現狀固定化란 具體的으로 말해서 現在의 分斷狀態를 認定하는 것이며 그 固定化를 위한 方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考慮할 것으로 觀測되고 있다.

① 中共은 對美關係 改善과 時期를 같이하여 韓半島에도 共存을 摸索하려는 것 같으며 그 方法을 韓國戰爭 終結措置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中共은 이 韓國戰爭 終結措置로써 北韓의 地位를 公式化시켜 줌으로써 北韓에 대해 影響力을 扶植시키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措置를 취하는 過程에서 韓半島問題 處理에 美·蘇와 對等한 立場에 설 수 있으며 強大國으로서 威信을 誇示하려 한다. 中共으로서 美·蘇와 共存關係를 韓半島에서 公式化 내지 制度化할 수 있으면 中共政權 樹立以後 中共의 地位를 「유엔」 밖에서 確認하는 機會가 되며, 이것은 또한 中共의 對蘇 地位를 強化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實際 中共은 韓國戰 參加를 對北韓 影響力 形成에 最大限으로 利用해

왔을 뿐만 아니라 休戰協定の 署名 當事國이라는 立場을 最大限으로 살려서 對蘇關係에서 強大國의 立場을 維持하려고 努力해 왔다.

② 中共은 南北韓의 「유엔」 同時加入을 推進할 것이며, 또한 日本勢力의 韓國進出을 꺼려할 것이고 이에 대한 牽制策을 追求할 것이다. 現狀固定化를 바라는 中共側의 立場으로서 日本勢力이 韓國에 大學 進出한다는 것은 韓半島에서의 現狀을 깨뜨리는 契機가 되기 때문이다.

③ 南北韓에 紛爭이 再發하는 경우 日本의 核武裝化 可能性을 包含한 武裝 強化와 北韓의 對蘇 依存度 強化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中共은 이를 막으려 할 可能性이 크다. 따라서 中共도 南北韓間의 對話와 平和共存 狀態를 원하는 것 같으며 이로써 韓國이 美·日의 反中共 軍事基地化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 같다.

그러나 中共의 「유엔」加入은 우리에게 큰 挑戰으로 되고 있다. 中共이 安保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이 되므로 말미암아 「유엔」에서의 韓國問題 取扱에 影響을 미치게 된 것이다. 中共이 安保理事會 常任理事國이 되므로써 韓國動亂時와 같은 「유엔」의 集團防衛 措置는 期待하기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南北韓 同時招請 및 統韓問題에 있어 中共은 韓國政府의 合法性을 否認하고 그의 保護下에 있는 北韓을 大韓民國과 對等한 地位에 올리려고 試圖할 것이다. 實際 中共은 「유엔」加入 一聲으로 北韓의 赤化統一 方式을 積極 支持하였을 뿐만 아니라 上海共同聲明에서도 中共은 『1971年 4月 12日 北韓이 提出한 韓國의 平和統一을 위한 8個項目의 方案과 「언커프」의 解體에 대한 要求를 強力히 支持한다』고 밝혔던 것이다.

또한, 中共은 短期的으로는 戰術上 現狀維持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窮極의으로는 美軍의 撤收와 美國의 國際的 孤立化 그리고 北韓의 勝利를 意味하는 共產化 統一을 目標로 하고 있음은 말할 必要도 없다.

-4) 日 本:

日本의 韓半島에서의 利害關係는 共產勢力의 膨脹을 緩衝시키는 것과 經濟市場의 確保라는 두 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이 두가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日本은 무엇보다도 韓半島의 安定과 緊張緩和를 바라며 南北韓의 勢力

均衡으로 戰爭再發을 防止하려고 한다. 또한 日本은 韓半島內에 對日敵對勢力이 자리잡게 해서는 안된다는 政治的 利害關係를 對韓半島 政策의 基本으로 삼는 한편, 現狀維持·分斷政策에 의해 南北韓의 日本을 둘러싼 競合關係를 利用하여 韓半島에 대한 影響力을 漸次 增大시키려는 試圖도 엿보이게 하였다.

1960年代까지만 하더라도 日本은 65年 韓·日 國交正常化, 69年 「닉슨」·佐藤共同聲明 등을 통해 韓國의 安保에 대하여 間接的이나 積極的인 姿勢를 보였다. 그러나 最近 美·中共和解, 7·4 共同聲明 그리고 田中內閣의 出帆後 日本의 對韓半島政策은 서서히 樣相을 달리하기 시작하였다. 美·中共接近을 契機로 日本은 美國의 要求와는 달리 韓國에 대한 直接的인 軍事支援을 回避하려는 態度를 表面化하였고, 7·4共同聲明과 그리고 특히, 日·中共國交正常化 이후부터 日本의 對北韓 政策이 아직 消極的어긴 하나 肯定的인 方向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日本은 人的 交流 및 交易 등과 같은 非政治的 分野에서의 事實上의 接觸增大에 의해 北韓과의 關係를 改善해 나가려는데서 北韓과 利害를 같이하고 時間의 經過와 더불어 南北等距離外交를 實現해 나가려 하고 있다. 實際 最近에 와서 日本과 北韓間的 關係는 民間次元에서 準政府間 次元으로까지 發展되어 가고 있는 實情이다. 現在와 같은 國際緊張緩和, 共存關係의 普遍化 傾向 및 韓半島內의 狀況變化는 日本으로 하여금 對韓 友好政策과 새로운 形態의 對北韓 政策을 兩立시킬 수 있는 것으로 判斷케 할 可能性이 있으며 이것은 日本의 對北韓 政策을 人道的 交流段階에서 政經分離政策 段階로, 다시 나아가서 政治的 段階로까지 漸次 擴大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現在 日本에서는 南北赤十字會談, 7·4共同聲明에 의해 韓半島에서 緊張緩和 傾向이 나타나자 對中共關係 改善에 便乘하여 對韓政策에 대한 再調整 要求가 現實的인 壓力으로 擡頭되고 있다. 野黨들은 지금까지의 對韓政策을 非難하고 日本·北韓間的 自由往來, 「유엔」에의 南北韓 同時招請을 主張하고 將來에는 韓·日 基本條約을 認定하는 讓步를 하더라도 北韓과 國交關係를 樹立하라는 主張을 내세우고 있다. 여하튼 日本에서는 南北對話에 의한 統

—이 實現되려면 長期間을 要할 것으로 보고 平和共存體制下의 分斷固定化가 進行될 것으로 보는 것이 一般的 趨勢인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韓國이 南北對話에서 北韓의 存在를 既定事實로 認定하거나 分斷固定化를 통한 平和共存을 認定하는 듯한 態度를 취할 경우에는 앞으로 日本이 北韓을 承認할 可能性도 없지 않다. 요컨대 4大國중 가장 劣勢인 日本은 強大國間의 勢力均衡에 「이니셔티브」를 취하기는 어려우나 極東 및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現狀安定을 追求하는 方向에서 美·中·蘇의 現狀維持策에 대체로 同調할 것이다.

II-2. 10月維新的 國際的 當爲性

-1) 周邊情勢 變化의 衝擊:

70年以後에 들어서면서부터 심한 激變을 겪고 있는 韓半島 周邊의 國際情勢는 우리에게 多方面에서 至大한 衝擊을 주고 있다. 먼저, 새로운 勢力再調整過程에서 浮刻되기 始作한 強大國들의 利己的인 實利主義와 列強主義는 弱小國의 運命을 犧牲시킬 可能性이 커졌다고 하는 것이다. 그 可能性은 이미 美·中 和解와 日·中 國交正常化의 過程에서 臺灣이 겪게 된 경우에서 實證되었거나 越南戰 終結過程에서 「티」政府가 겪고 있는 苦難을 통해 充分히 엿볼 수 있다. 오늘날 多極化 列強爲主의 實利主義라는 國際情勢의 全般的 趨勢속에서 國際的 信義는 흐려지고 術數만이 支配하게 되었다. 어제까지의 同盟國을 오늘은 背信하고 어제까지의 敵이 오늘은 同志가 되는 義理不在의 時代가 到來하여 友敵觀念이 漸次 稀薄해져 가고 있다. 말하자면 오늘의 國際關係야 말로 이제까지의 同盟을 더 큰 實利를 위해서라면 당장 내던져 버리는 變化無雙·表裏不同·朝夕變化의 非情한 社會로 變貌한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強大國들이 그들의 더 큰 實利追求를 위해서 韓半島 問題도 우리 民族의 意思와는 關係없이 處理하려들 可能性을 결코 輕視할 수 없게 되었다.

더 現實的으로 우리에게 衝擊을 준 것은 「닉슨·독트린」과 美國의 「아시아」에서의 役割縮小이다. 美國은 이에 따라 駐韓 美軍을 減縮시키고 軍援도

줄여가고 있다. 「닉슨·독트린」에 의하면 美國은 同盟國에 대하여 核保護를 提供하겠다고 하지만 核抑制力이란 外交·軍事上の 威脅과 心理의 宣傳效果는 가질 수 있으나 條約上 公約의 實際 保證은 아니며 局地戰이 일어날 可能性이 여전히 存在하는 韓半島에서는 戰爭抑制力으로서의 效用도가 낮은 것이다. 또한 美國은 韓國의 安保를 위한 日本의 一部 役割代行을 바랐지만 日本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美·中共 接近을 契機로 韓國에 대한 直接的인 軍事支援을 忌避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닉슨」大統領은 共產侵略을 막기 위한 地域協力 構想을 提示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共產侵略을 막겠다고 設立된 東南亞條約機構도 오늘날에 와서는 本來의 目的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經濟·文化的 機構에로의 轉換이 不可避하게 되었으며 「아스팍」도 解體論이 擡頭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 아울러 美·中共 和解, 日·中共 修交와 같은 韓半島를 둘러싼 列強들간의 既存勢力關係의 大變化는 韓國의 安保에 直接·間接的인 危險한 影響을 끼치고 있다. 美·中共 關係 改善과 日·中共 國交正常化의 結果는 「샌프란시스코」體制라고 불리우는 「아시아」·太平洋의 既存秩序와 安保體制를 變質시키는 가운데 새로운 勢力構造를 擡頭시키려 하고 있다. 日本 太平外相은 『美·日 安保條約은 不變할 것이나 運用方法은 事態進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고 美·日 安保條約의 性格變化를 말했거니와 이때까지 韓·美防衛條約을 뒷받침해 오던 이 條約의 性格變化는 必然的으로 韓國의 安保에 影響을 미치지 마련이다. 따라서 從來에는 『韓半島의 安全이 日本의 安全에 緊要하다』고 한 69年 「닉슨」·佐藤 共同聲明이 美·日의 對 韓半島政策의 基調를 이루어 왔으나, 日·中共 修交로 臺灣條約처럼 事實上 廢棄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相當히 褪色하리라는 것이 支配的 見解이었다.

또한 最近 日本의 動向은 우리로 하여금 懷疑感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日本은 앞으로 「두개의 韓國」을 固定化시키려는 政策을 採擇하게 될지도 모르고 最近에 와서 急速度로 增大시키고 있는 北韓과의 交流와 아울러 南北等距離外交의 方向은 北韓의 地位를 向上시킬 뿐만 아니라 對南工作 能力을 增大시키며 韓國의 韓半島에서의 唯一合法性에 대한 挑戰을 結果게 될

것이다.

오늘날 強大國間에서는 緊張緩和의 趨勢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列強들의 問題解決方式에 不過하고 不幸히도 韓半島에서는 이러한 緊張緩和가 아직도 定着되지 못하고 不安定 要素가 存在하고 있다. 즉 舊韓末 韓半島를 둘러싼 列強들의 勢力角逐을 聯想케 하는 오늘날의 列強들의 利害調整 過程에서 南北韓의 勢力均衡이 破壞될 可能性이 엿보이는데 이는 韓半島에서 戰爭再發의 可能性이 없지도 않음을 示唆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닉슨·독트린」에 따른 美國의 「아시아」로부터의 後退, 「아시아」集團安保體制에 대한 日本의 消極의 내지 否定的 態度, 駐韓美軍의 早期撤收 展望, 美國의 對韓經濟·軍事援助의 減縮, 中共의 「유엔」加入과 對北韓支援, 日本의 對北韓 接觸 增大, 北韓의 戰爭準備 完了 등이 우리에게 不利한 南北韓 勢力均衡 破壞要素로서 浮刻되기 始作한 것이다.

韓半島에서의 勢力關係를 보면, 韓國은 美·日과의 協力關係를 骨格으로 하는 三角同盟關係에 의해 安保를 유지하고 있고, 北韓은 中·蘇와의 同盟關係를 骨格으로 하는 三角同盟關係가 安保의 主軸으로 되고 있다. 韓國의 경우, 日本과의 關係는 軍事同盟이 아니라 協力關係이나, 北韓의 경우에는 中·蘇 兩國과 軍事同盟關係이다. 다만 中·蘇 兩國이 政治·軍事的으로 對立하고 있는 點이 美·日間의 經濟競合關係와 다르나 대체적인 見地에서 보면 北韓·蘇聯·中共의 三角關係 쪽이 地理的으로나 同盟關係의 內容面에서도 強力하다. 日本은 中共과의 修交의 餘勢로 北韓에의 關心이 높아지고 있으며 現存의 民間貿易關係를 準政府間의 關係로 強化하려는 움직임이 東京과 平壤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美國記者의 北韓訪問이 始作되었다. 그러나 서울과 北京과의 關係는 좀처럼 改善될 徵候가 보이지 않으며 서울과 「모스크바」의 關係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北韓은 市場確保를 위한 資本主義諸國의 競爭의인 接近을 最大限 利用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狀況에 直面하게 된 「아시아」·太平洋地域의 諸國은 美軍의 撤收, 中共의 「유엔」加入, 美·中共 和解, 日·中共 修交와 같은 最近의 急激한 事態發展에 대해 한결같이 憂慮와 不安과 懷疑를 表明하고 있

다. 이들 諸國은 드디어 自主·自助努力의 重要性을 切實히 痛感하고 對外的으로는 冷嚴한 國際權力政治와 外部威脅으로부터 國家生存權을 保持하기 위한 自主的 體制를 確立하는 한편, 對內的으로는 自國에 알맞는 能率的인 體制에 의해 政治的 安定과 國家發展을 위한 一大 體制整備 強化를 斷行하게 되었다. 近年에 와서 泰國·「크메르」·越南·「필리핀」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一連의 事態들은 바로 그러한 體制改革의 不可避性을 잘 說明해 주었다.

-2) 10月維新的 不可避性 :

이같은 韓半島 周邊情勢는 우리의 安保와 平和統一 展望에 直接·間接으로 危險한 影響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과 같은 勢力再編成의 流動的인 狀況下에서는 強大國間의 實利追求 競爭이 激化될수록 그 틈바구니에서 第三國인 中小國의 利益이 犧牲될 可能性이 커지고 또한 南北韓間의 勢力均衡이 깨어져 戰爭이 再發하지 않는다는 確固한 保障도 없다. 어느 意味에서 今日의 韓半島 周邊情勢는 帝國主義 列強이 角逐戰을 벌였던 舊韓末을 彷彿케 하거나 第2次大戰 前夜의 列強間 勢力圈다툼을 再現시키는 前奏의 情勢를 聯想케 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舊韓에서와 같은 歷史的 恥辱을 되풀이하지 않고, 또 戰爭再發로 인한 同族相殘의 民族悲劇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안으로는 南北對話를 통한 平和統一을 뒷받침할 國力培養을 加速化하고 國民總和 體制를 強化하며, 밖으로는 情勢變化에 主體的·能動的으로 對處하여 試鍊을 國運開拓의 契機로 轉換시킬 自衛·自助策을 講究할 수 밖에 없었다.

時間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며 우리에게만 有利하게 適用되는 것은 아니다. 今後 數年內에 強大國들의 對韓國政策이 定着될 것으로 豫見되는데. 美國과 日本의 對韓政策에 큰 變化가 없는 지금 必要한 措置를 講究해야만 했고, 보다 적은 波動으로 最大의 體制改革이 可能하고 또 安定이 維持되고 있는 時期를 놓치지 않고 歷史的 決斷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美·日의 對韓政策 變化를 비롯한 國際情勢 變化에 의해 우리의 國家 利益이 犧牲되거나 南北韓間의 勢力均衡이 우리에게 不利하게 기울어져 金日成이 또 情勢를 誤判해서 戰爭을 일으키기 前에 有備無患의 對備政策을

講究할 필요가 있었다.

10月維新은 激動하는 國勢情勢에 能動的으로 對應하고 南北對話를 통한 平和統一을 굳게 뒷받침하기 위해 國內體制를 먼저 改革 整備하여 우리의 國力を 組織化하고 國力培養을 加速化하려는 當面課業을 提示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轉換期的 狀況속에서 内外의 試鍊을 克服하기 위하여 밖으로는 民族主體性을 드물려 國運을 自主的으로 開拓해 나가고, 안으로는 우리의 歷史의 傳統과 文化風土에 알맞는 韓國的 民主主義를 土着化하여 國家發展과 繁榮을 促進시킴으로써 平和統一과 民族中興에 이바지할 것을 目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10月維新은 國家生存權과 民族自決精神의 宣言이요 平和統一에 대한 舉族의 意志의 表明이며 國家의 安定과 發展을 위한 自主意識의 宣揚이고 民族中興의 劃期的 轉機와 基盤을 마련하려는 新秩序의 創造를 위한 努力이다.

Ⅲ. 韓國의 外交目標와 現況

Ⅰ-1. 韓國의 外交目標

外交目標은 國家가 當面하고 있는 課題를 成就하기 위하여 要求되는 外交의 支援을 提供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살펴 볼때 다음의 3大外交 目標가 導出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國家安保의 維持, 強化를 위하여 要求되는 外交의 支援의 提供 둘째, 祖國近代化의 早速한 成就를 위하여 要求되는 外交의 支援의 提供 셋째, 南北統一의 成就를 위한 國際的 同調, 協力の 確保와 動員 등이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外交日標를 들 수 있겠지만 위의 세가지가 가장 重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위의 目標가 다 우리 스스로가 잘 살려고 하는데 관계되는 것이며 他國家의 權益侵害가 전연 介在되지 않는다는 點이다. 즉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의 바탕위에서 우리의 發展을 圖謀하는 것이며 利己, 排他的인 姿勢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면 위에 列學한

3大目標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國家安保의 維持強化:

國家安保의 維持와 強化를 위하여 要求되는 外交의 努力이란 ① 友邦의 確保, ② 軍事援助(武器 및 技術)의 確保, ③ 「유엔」軍 駐屯 등으로 具體化된다. 國家安保를 위해서 될수록 友邦을 많이 確保하는 것이, 특히 軍事의 同盟國을 增大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긴 說明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이와같은 友邦 내지 同盟國의 確保는 雙務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多務的으로 集團의 同盟體制에 加入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國家安保를 國際的인 次元에서 살펴 볼 때, 威脅의 源泉을 積極的으로 除去(쉽게 말해서 敵國의 無力化)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고 外的 威脅에 대해서 消極的으로 自體의 防衛態勢를 強化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 韓國은 後者, 즉 防衛的인 方法에 置重하고 있다는 事實을 強調할만한 것이다. 韓國의 國家安保에 대해서 가장 큰 威脅의 源泉이 되고 있는 北韓에 대해서도 韓國의 立場은 어디까지나 防衛的이며, 國內的으로 武力 北進統一을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韓美防衛條約 같은데서도 防衛的인 姿勢가 明確히 나타난다. 또한 韓國의 軍事戰略도 防衛的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점을 볼 때, 한국이 平和統一을 主張하는 것은 單純한 宣傳이 아니고 韓國의 基本安保姿勢와 一貫되고 있음이 分明하다.

-2) 近代化의 促進:

祖國近代化를 위한 外交의 努力이 어떻게 具體化되어야 한다는 것을 判斷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近代化를 위해서 國外的으로 얻어야 할 것은 近代化 推進에 도움이 되는 ① 知識, ② 物質的 資源, ③ 技術일 것이다. 그리고 國家經濟力의 持續的인 發展을 위하여서 國產品에 대한 海外市場의 開拓도 要求된다.

近代化의 成功的인 推進을 위해서 科學技術, 產業市場 등에 대한 知識과 情報을 海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주 重要的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 國內的으로 動員할 수 있는 物質的 資源, 즉 資本, 施設材, 原資材 등이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無償援助나 借款의 形式으로 外國으로부터 物質的 資源

을 導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論理에서 특히 새로운 事業을 착수할 때 外國의 技術者(知識뿐 아니라)를 招致하는 것도 아주 合理的인 것이다. 그리고 外換을 얻어 보다 많은 外國 資源을 導入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生産하는 物品이나 原資材를 팔 수 있는 海外市場의 開拓이 決定的인 중요성을 띤 말할 것도 없다. 이와같은 目的達成을 위하여 韓國은 소위 「經濟外交」를 펴오고 있는 것이다.

-3) 統一外交:

本章 第Ⅳ節에서 더욱 具體的으로 다루어지겠지만 統一外交의 課題는 ① 南北間 緊張緩和을 통한 戰爭 抑制, ② 韓國이 主唱하는 統一政策의 妥當性 說得, ③ 平和 統一을 위한 國際的 協調의 獲得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南北 緊張緩和은 南北間의 直接的인 對話와 合意로도 어느 정도 成就될 수 있지만 韓半島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國家들, 특히 美·日·中·蘇의 四大強國의 役割에 크게 도움 받을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가 主唱하는 統一政策(段階의 接近, 平和의 方法, 國際活動에 同時參與 등)이 보다 妥當하다는 것을 海外에 說得하는 것은 거의 全的으로 外交的 課題일 것이다. 그리고 平和統一을 위해서 南北韓間의 合意와 努力 뿐 아니라 國際的인 뒷받침이 있어야 함을 認定한다면, 이와같은 國際的 支持者 獲得 또한 중요한 外交的 課題임은 말할 것도 없다.

以上과 같이 韓國外交目標을 ① 安保의 強化, ② 近代化의 促進, ③ 統一外交의 促進으로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4) 強調點:

위와 같은 內容을 다룰 때 특히 留意할 것은 이와 같은 目標가 韓國의 立場에서만 妥當性を 지니는 것이 아니라 國際社會의 共同目標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의 觀點에서도 妥當性を 지닌다는 點이다. 그래서 共產國家를 포함한 大多數의 國家에서 韓國外交目標의 妥當性を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想起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II-2. 韓國의 外交現況

-1) 過 去 :

韓國外交가 한때는 固着的이고 我執的이어서 때로는 守勢에 물리기도 하고 또한 友邦國들의 立場을 거북하게 한적도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外交路線이 韓國의 國際的 地位向上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 事實이다. 그렇다고 韓國이 國際的 孤立에 빠져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固着的인 外交政策으로 機動性을 어느정도 잃고 있었으며 韓國이 얻을 수 있는 國際的 同調를 다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뿐이다.

-2) 現 在 :

韓國은 1970년에 있는 朴大統領의 8·15宣言을 하나의 轉換點으로 보다 現實的이고 國際主義的이며 柔軟性있는 對北 및 對外政策을 追求하게 되었다. 따라서 8·15宣言에 대한 國際的 反應이 壓倒的으로 肯定的이었던 것은 當然한 일이다. 71년에 韓國은 離散家族을 찾기 위하여 人道主義的인 次元에서 南北赤十字 會談을 提案하여 世界輿論의 歡迎을 받았으며 1972년에 들어서 南北間의 懸案問題를 妥結하기 위한 韓國政府와 北韓當國者間의 接觸과 對話를 主導함으로써 7·4南北共同聲明을 發表케 했으며 이어서 南北調節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의 길을 터서 다시한번 平和共存과 國際協調를 믿는 世界多數國家의 歡迎을 받았다. 특히 73년에 있는 6·23特別宣言은 8·15宣言과 7·4南北共同聲明에 담긴 平和統一精神의 發展的 具現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 宣言에 대한 世界輿論은 壓倒的으로 肯定的이었다.

이로써 韓國外交는 새로운 國際潮流의 交流에 들게 되었으며 韓國外交에 대한 世界諸國의 認識이 根本的으로 改善되었다. 또 韓國의 合理的이고 正當한 提案을 拒否함으로써 北韓은 그들이 常套的으로 떠들던 平和攻勢가 虛偽와 欺瞞에서 나온 것임을 內外에 露呈시키는 결과를 自招하게 되었다.

-3) 北韓外交에 대한 評價 :

南北對話가 시작된 以後 北韓을 승인하는 國家의 數가 늘었으며 北韓과

外交 또는 交易을 한 나라가 늘어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北韓外交의 勝利나 成功이라고 評價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서 考慮되어야 할 點이 적어도 셋이 있다.

첫째로, 世界的 潮流가 外交關係에 있어서 普遍性的 原則을 따르고 있어서 좋아하고 싫어함을 따지지 않고 되도록 모든 나라와 修交한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北韓과의 交易을 시작하거나 外交關係를 연다고 해서 北韓에 대한 國際的 同調가 높아졌다거나 北韓의 國際的 地位가 높아졌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로, 南北對話가 시작되기까지 北韓은 심한 國際的 孤立狀態에 빠져 있었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世界諸國이 普遍外交의 原則을 따르게 되자 자연히 北韓을 승인하는 나라의 數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北韓承認國의 急増은 그전까지 北韓을 承認하지 않은 나라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 된다.

셋째로, 6·23特別 宣言에서도 明白히 밝혀졌지만 韓國外交의 目的이 北韓의 國際的 孤立을 持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北韓이 「國際的 孤立의 동굴」에서 벗어나 國際潮流에 깊숙히 뛰어드는 것을 勸獎하는데 있다는 事實이다. 緊張緩和, 平和共存, 國際協調라는 새로운 國際趨勢에 접함으로써 北韓이 종전의 反國際主義와 挑戰性을 止揚하고 보다 合理的인 方向으로 政策을 轉換할 것을 韓國은 마라고 있다. 그래서 6·23宣言의 4項과 5項에서 北韓의 國際機構參與를 反對하지 않는다는 立場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6·23宣言에 나타난 가장 合理的이고 正當한 韓國側의 提案에 反對하고 나오므로써 또다시 世界潮流에 逆行하게 된 것이다. 對照的으로 韓國은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國家들로부터 同調와 支持를 받고 있는 것이다. 例를 들면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이 폭넓은 國際的인 支持를 받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서 北韓도 不遠間 무리한 固執을 버리고 6·23精神을 受諾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豫想된다. 아무튼 그때까지 韓國은 外交的으로 優位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北韓은 劣勢 또는 守勢를 띠기 어려울 것이다.

第3章 國際社會와 南北關係

本部 序說에서도 言及한 바 있지만 本章에서 意圖하는 目標와 內容은

첫째, 南北關係가 單純히 韓國民族만의 關心事가 아니고 強大國들의 利害關係가 얽혀 있어 韓半島 問題의 解決은 國際社會의 勢力構造 自體에 중대한 影響을 미치고 東南亞뿐 아니라 全體 國際社會의 安定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南北關係의 改善과 統一의 成就是 무엇보다도 우리 民族의 自主的 努力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國際社會와의 有機的 關係 속에서 이 問題가 接近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事實을 認識시킨다.

둘째, 南北分斷 그 自體가 國際勢力 政治의 所産이었다는 點과 南北關係에 적어도 美, 日, 中, 蘇 4 大強國의 利害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點을 무각시켜 南北 問題의 해결을 위해서는 國際的 協調 특히 4 大強國의 理解와 協調가 重要하다는 것을 把握케 한다.

세째, 南北關係의 改善과 統一의 成就是 위하여 어떠한 國際協調가 要請되는 가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南北問題의 解決을 위해서 遂行되어야 할 外交的 課題가 무엇이며 이는 어떠한 方法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인가를 特독시킨다.

이와같은 內容을 취급함에 있어 強調하여야 할 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 南北問題는 韓國民族의 自主的인 努力과 韓國의 主導的 努力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點.

둘째, 分斷이 國際勢力 政治의 所産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南北關係의 推移에 強大國들의 利害關係가 깊이 얽혀있다는 點.

세째, 따라서 南北關係의 改善과 祖國統一의 成就是를 위한 韓國民族의 自主的 努力에 國際協調가 뒷받침되는 것이 重要하다는 點.

네째, 大統領의 6·23特別宣言은 南北問題의 해결을 國際協調精神 속에서 摸索하자는 것으로 가장 合理的이고 正當한 政策方向의 提示라는 點.

다섯째, 이와 같은 國際協調의 確保를 위하여는 外交資源의 開發과 外交體制의 合理化 그리고 外交努力의 能率化가 切實히 要望된다는 點.

要는 本章을 통하여 南北關係나 統一問題를 다룸에 있어서 國際環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確實하게 認識시켜야 할 것이다.

I. 南北關係의 國際的 背景

I-1. 南北問題의 國際性

南北關係에 始初부터 國際勢力政治의 背景이 있었다는 것은 세삼스럽게 지적할 필요가 없는지 모른다.

38線의 設定이 美·蘇의 合意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後에 北韓을 뒷받침하는 蘇聯과 韓國을 支援한 美國이 없었던들 內亂이나 그의 어떤 다른 過程을 겪었더라도 이미 오래전에 統一이 이루어졌을 可能性이 크다. 그래서 南北分斷이 韓民族만의 問題가 아니라 적어도 美國과 蘇聯의 立場에서는 「自己들의 問題」이기도 했던 것이다. 또 南韓에 大韓民國 政府를 樹立한 것이나 北韓에 共產政權이 서게된 것도 상당한 程度 美·蘇勢力競爭의 作用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6·25動亂 또한 國際的 背景을 고려하지 않고는 바로 이해할 수 없다. 北韓이 소련의 軍事的 支援과 指令 또는 중용하에 南侵을 감행한 것은 確證된 歷史的 事實이며 韓國이 共產侵略軍을 擊退한 것도 「유엔」軍과 美軍의 支援下에서 可能했다. 더구나 6·25動亂에 中共이 加擔함으로써 南北關係의 國際性은 더욱 깊게 되었던 것이다. 6·25의 潛定的 解決로 나타난 休戰 또한 北韓側과 中共側과 對座하여 「유엔」軍이 署名함으로써 하나의 國際的 協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미 오랫동안 韓國問題에 介入되어온 美國, 蘇聯, 中共 外에 日本의 對韓關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韓半島의 事態發展이 日本의 安保에 중요한 直接的 影響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常識的인 일이다. 더구나 韓日 國交正常化 以後 日本의 對韓經濟進出에 비추어서 韓半島 問題에 대한 그들의 關心은 더욱 깊게 된 것이다. 美·蘇·中·日의 4大強國만이 韓國에 利害關係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 比해서 이들 4大強國의 利害가 더욱 깊다는 것 뿐이다.

그래서 南北問題는 단순한 韓半島內에서의 南北問題라는 性格을 벗어나

國際的 問題가 되고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를 둘러 자른 軍事分界線은 우리民族과 國土를 가르는 線이 될 뿐 아니라 國際勢力 政治의 交叉線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같은 背景때문에 美國과 蘇聯이, 美國과 中共이, 美國과 日本이, 日本과 中共이, 그리고 日本과 蘇聯이, 마주 앉을 때 거의 例外없이 韓國問題가 舉論되는 것이다.

I-2. 韓國統一에 관한 4大國의 立場

美國은 韓國의 自由와 民主主義 守護, 그리고 經濟發展을 위해서 人的, 物的으로 莫大한 投資를 했다. 또한 對蘇, 對中共 戰略을 위해서도 韓國의 共產化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즉 韓半島 全部가 안되면 그 半 즉 大韓民國만이라도 그들의 友邦으로 維持하고 支援하는 것이 美國으로서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韓美防衛條約, 美軍의 駐屯 그리고 對韓軍事援助를 持續하고 있는 것이다. 政治軍事的인 중요성 외에 美國의 經濟的 「파트너」(economic partner)로서도 韓國의 중요성이 益增하고 있음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中共의 立場에서는 첫째, 北韓에 共產政權이 維持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도 蘇聯보다 中共에 기우는 共產政權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蘇聯의 立場도 中共의 立場과 비슷하여 北韓에 共產政權이, 가능하면 親蘇의인 共產政權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日本의 立場에서는 自體의 安全을 위해서도 南韓에 民主體制가 維持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韓半島 全體의 共產化는 日本에게 심각한 安保問題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日本은 韓國에 投資한 그들의 經濟的 利益의 維持, 增進을 위해서도 韓國安保의 유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들 4大強國은 大體的으로 韓半島에게 緊張緩和를 통한 現狀의 固定을 희망하는 것 같다.

現狀의 變化로 4大強國中 有利한 나라도 있겠지만 不利한 나라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國際的 不安要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現狀이 충분히 滿足스럽지는 않지만 現狀의 變化가 지금보다 더 不

滿스러운 結果를 望을 可能性이 있다고 보는 것이 4大強國의 共通된 判斷인 것 같다. (I-2, 戰後國際關係의 變化 및 II-2. 參照)

그러나 종전과 같은 긴장과 軍事的 對峙, 衝突關係가 南北間에 계속하는 것도 중요한 國際的 不安要因이 되기 때문에 이들 強大國들은 南北間에 對話와 接觸을 통하여 긴장이 완화되고 分斷된 狀態대로 現狀이 固定化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內容의 國際的 背景을 이해하지 않고 南北關係를 단순한 韓國民族의 問題로만 보는 것은 非現實的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II. 統一을 위한 國際的 協調와 外交的 要請

II-1. 統一을 위한 國際的 協調

前節에서 본 國際的 背景으로 미루어 보아서 國際社會와 有機的 關係를 維持해 가면서 南北統一 問題를 接近해야 한다는 것은 自明해진다. 즉 統一이 우리 民族의 念願이라고 하지만 國際的 協調없이 는 그 成就가 거의 不可能한 일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分明히 해야 할 것은 強大國들이 韓半島에서 現狀維持 내지 分斷狀態의 固定化를 希望하며 統一에는 별로 積極的이 아니라는 事實에 비추어서 南北統一은 우리 民族의 自主的 努力에 더욱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點이다. 무슨 일이든 그것을 希望하는 사람에 의해서 成就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當然한 것이다. 따라서 韓國民族을 除外하고는 南北統一에 대해서 별 熱意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國際環境을 無視하고, 특히 強大國들의 利害關係를 考慮하지 않고 南北統一을 위한 戰略을 構想하는 것도 지극히 無謀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強大國들은 그렇지 않아도 극히 어려운 統一問題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38線이 強大國間의 勢力均衡의 中心點이 되고 있다는 事實을 기억할 때 東北亞의 勢力均衡을 破壞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또는 可能하면 이와같은

強大國問의 勢力均衡을 더욱 安定化해 주는 方向에서 南北統一의 方案이 摸索되어야 한다는 結論에 이른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볼 때 統一은 韓國이 主張하는 대로 서서히 段階적으로 推進되어야 하며 北韓의 主張대로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또 國際勢力均衡을 깨지 않고 統一을 推進해야 한다는 前提에서 볼 때 6·23宣言에서 나타난 韓國의 모든 國家에 대한 門戶開放 政策의 妥當성이 더욱 強해진다. 특히 韓國이 蘇聯 및 中共과 國交를 가짐으로써 韓國이 이 둘 두 共產大國에 대하여 敵對的인 目標을 追求하지 않을 것이며 互惠平等의 關係를 希望한다는 意思를 確信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南北統一, 韓半島 平和保障, 東北亞 平和保障이란 關聯된 目標의 達成을 위해서 적어도 4大強國과 南北韓이 參與되는 6個 勢力間에 東北亞 平和保障을 위한 全般的인 合意가 이루어지고 그와같은 東北亞 安保體制의 一部로서 韓半島 問題에 대한 合意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韓半島를 하나의 國際的 緩衝地帶보다는 平和聖域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단 統一이 될 때까지 休戰處理, 非武裝地帶의 名實相符한 非武裝化, 軍縮問題 등 여러가지 難題를 해결하는 데는 外國의 個別的인 協調나 또는 「유엔」이나 其他 「채널」을 통한 集團的인 國際協調가 많이 要請되는 것이다. 韓國에 주어진 課題는 國際環境을 南北統一에 有利하게 이끌어서 要望되는 國際協調를 効率的으로 造成하고 動員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7·4南北共同聲明에 밝혀진대로 自主, 平和, 民族大團結이란 3大 平和統一原則에 따라 民族傳統에 合致되고 民族將來를 위하여 가장 有利한 統一을 成就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韓國民族의 歷史的 使命인 것이다.

大統領의 6·23特別宣言은 韓國이 平和統一을 追求함에 있어서 國際社會의 意思를 존중하며 國際協調 精神에 立脚할 것임을 分明히 밝히고 있어, 現實的이고도 合理的인 政策方向을 設定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에 따른 國際的 反應은 아주 肯定的이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北韓이 이와같이 合當한 韓國의 主張을 小我的인 偏狹한 생각에서 反對하고 나왔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北韓도 결국은 國際協調 精神

을 따르는 길만이 祖國統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머지않아 6·23宣言의 精神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判斷된다.

II-2. 南北統一의 外交的 要請

-1) 統一을 위한 外交的 課題 :

韓國이 主導하여 南北對話를 시작함으로써 北韓은 國際的 孤立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與件을 맞았다. 또 6·23特別宣言으로 한국은 北韓이 國際的 孤立에서 벗어나 國際社會에 보다 活潑히 參與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는 뜻을 公式的으로 밝힘으로써 北韓이 國際舞台에 進出할 수 있는 길은 더욱 열렸다.

따라서 韓國 外交는 그 어느때 보다도 北韓으로부터의 挑戰을 더 받게된 것이다. 北韓과 修交하는 國家의 數가 늘 것이며 보다 많은 國際機構의 會合에 北韓이 참여하게 되어 韓國은 北韓과 국제무대에서 맞서는 기회가 많이 늘어 날 것이다. IPU(國際議員聯盟)와 WHO(世界保健機構)에는 이미 北韓이 加入되었으며 「유엔」에도 73年 가을부터 「유서버」資格的 北韓 代表團이 事務室을 열게 되었다.

北韓은 아직도 眞正한 平和統一에 뜻이 없고 南韓의 共產化를 통한 赤化統一에 뜻이 있기 때문에, 韓國은 外交를 통하여 첫째, 韓國側이 主張하는 段階的 平和統一이 가장 合當하고 現實的인 統一方案이란 點을 國際社會에 알리고 둘째로, 北韓의 一括處理論, 聯邦制 統一論, 軍縮案 등이 宣傳을 위한 僞裝이며 眞意는 赤化統一에 있다는 사실을 國際社會에 알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南北의 直接的인 接觸을 통해서나 間接的인 方法으로 時代錯誤的인 赤化統一 野慾을 버리고 眞正한 平和統一을 政策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北韓으로 하여금 確實히 認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國際社會로 하여금 北韓이 合理的인 統一의 길을 따르도록 韓國은 外交를 통하여 說得活動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前項에서 略述한 內容의 國際協調를 確保하는 것이 韓國 外交의 重大課題임은 말할 것도 없다.

-2) 統一外交 要請의 充足을 위한 條件 :

먼저 外交資源의 폭넓은 開發이 要望된다. 韓國이 여태까지 密接한 外交를 펴오지 않은 地域과 國家를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專門家의 養成이 時急하다. 특히 對 共產圈 門戶開放 政策을 펴려고 하는 이 마당에 蘇聯을 비롯한 東歐 共產諸國에 대한 專門家 不足을 長·短期計劃으로 確保해야 할 것이다. 外交資源이라고 할 때 이는 實務를 맡을 外交官뿐 아니라 外交政策을 研究開發할 수 있는 專門家도 包含되는 것이다. 外交研究 專門家들이 있어야 急變하는 國際情勢를 機敏하게 分析하여 長期, 短期政策을 概括的인 次元에서 또는 特定 國家나 地域을 相對로 開發해 내게 될 것이며 이와같은 研究를 밑바탕으로 한 外交活動이라야 合理性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外交政策 決定 體制의 合理化가 要望된다. 보다 폭넓은 參與로 多様な 意見이 檢討된 다음에 最終政策이 採擇되어야 하며, 이미 採擇된 政策도 꾸준히 批判 評價받아서 보다 合理的인 政策으로 修正되는 政策決定 體制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政府傘下의 外交研究機關뿐 아니라 私設 外交研究團體에도 外交問題에 대한 豊富하고 迅速한 情報提供이 있어야 하며 活潑한 官民의 研究活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外交努力의 能率化가 要望되는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先決要件은 外交豫算의 擴大와 外交人力의 擴充이라고 하겠다.

國家豫算이란 所要處가 많지만 오늘날 韓國과 같이 外交의 比重이 큰 때가 없는만큼 어떤 非常的인 措置를 취해서라도 보다 有能한 人材들이 보다 많이 外交分野에 投入되어서 보다 넉넉한 豫算의 뒷받침으로 活動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같은 內容을 다룸에 있어서는 여기에 提示된 方案이 絕對的으로 採擇되어야 한다는 態度를 取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대신 南北統一의 外交的 要請을 充足하기 위해서는 韓國 外交를 보다 더 合理化하고 能率化하는 것이 要望되며 그런 合理化와 能率化의 方案을 위해 상술한 것과 같은 方向에서 摸索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 強調되어야 할 것은 韓國의 體制는 適應能力이 있어서 그때 그때의 政

策的 要請에 따라 必要한 體制의 改善과 政策方向의 調整을 過去에도 해왔으며 未來에도 할 것이라는 点이다. 그래서 韓國體制의 變化에 대한 適應能力에 自信을 가지게 하여 너무 심한 危機意識이나 悲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必要한 것은 조심성있는 樂觀이며 積極인 問題接近 姿勢이다. 이와같은 姿勢가 있을 때 解決 못할 問題가 없으며 우리의 앞날은 國內的으로 國際的으로 밝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Ⅲ. 國際平和를 위한 韓國의 役割

Ⅲ-1. 國際平和를 위한 韓國의 役割

韓國은 傳統的으로 平和愛護 國家였다. 韓國史를 아무리 뒤져 보아도 먼저 武力的 挑戰을 받지 않고 外國을 侵略한 記錄은 찾을 수 없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平和愛護의 이 아닐래야 아닐 수 없지 않았느냐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이와같은 解釋은 韓國史를 잘못 理解한 所致일 것이다. 왜냐하면 韓國은 긴 歷史를 통하여 軍事的으로 늘 弱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7世紀 隋楊帝의 100萬大軍을 沒殺한 乙支文德의 軍隊나 그뒤 唐의 攻擊을 물리친 淵蓋蘇文의 軍隊는 隣接國家의 領土에 野心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강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防衛的인 目的에만 充實했다. 아무튼 韓國의 平和愛護 傳統은 거의 티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고 하는데 異議가 없을 것이다. 平和만이 人類殘存의 길이 된 오늘날에 와서 이와같은 平和愛護의 傳統은 말할 수 없이 貴重한 精神의 資產인 것이다.

이와같은 平和愛護 傳統은 南北이 갈라진 後 韓國이 보다 正統的으로 繼承했다. 北韓은 他民族도 아닌 單一民族을 向해 侵略의 犯罪를 저지름으로써 民族傳統의 正統的 後繼者로서의 資格을 喪失한 것이다. 韓國은 우리 民族의 平和愛護 傳統에 無限한 矜持를 가져도 좋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貴

重한 精神的 資産을 밑바탕으로 韓國은 世界平和 建設의 先鋒의 役割을 할 수 있을 줄 안다. 더욱이 韓國은 오늘날 排他的 國家利益 追求가 支配하는 舊國際秩序의 象徴이라고도 할 수 있는 祖國分斷의 悲劇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分斷問題의 平和的 解決은 韓國民族에게만 소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보다 永久한 平和를 建設해야 되는 모든 人類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平和와 協調를 土台로 하는 새 國際秩序의 確立은 韓半島 問題의 平和的 解決에서 出發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줄 안다. 또 이와 같은 人類史의 難題의 解決은 오랜 平和傳統을 精神的 民族遺産으로 삼고 있는 韓國民族에 의해서만 可能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注目하여야 할 것은 DMZ를 사이에 둔 南北分斷에는 韓國과 北韓의 利害가 얽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 특히 世界 4大強國인 美國, 日本, 中共, 蘇聯의 利害가 깊이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韓國 分斷의 平和的 解決은 우리 民族의 課題를 벗어나서 하나의 世界史的 課題인 것이다.

2次大戰 後 지금까지 4半世紀가 넘는 期間동안 韓半島는 國際勢力政治에 있어서 緊張의 한 中心地였다. 그러나 韓半島 問題를 平和的으로 妥結함으로써 韓半島는 世界平和의 寄與者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南北關係의 平和的 解決을 통한 祖國統一의 成就是 첫째,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면서도 보다 創造的인 目的을 위해서 뭉칠 수 있다는 國際政治의 새 次元을 보여주는데 意義가 있고 둘째로, 國際政治가 排他的 利益追求로 인해 對立을 持續해 오던 것을 止揚하고 平和共存과 國際協調의 새 秩序로 昇華해가는 길을 연다는 意義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平和統一이란 課業에 임하는 우리는 우리 民族史의 悲劇에 終止符를 찍고 榮光스러운 새 民族史의 章을 연다는 것 뿐 아니라 葛藤과 衝突을 일삼던 過去의 非生産的 人類史에 終止符를 찍고 平和와 協調의 새 人類史의 章을 연다는 自負心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위의 內容 敘述에서 이미 이 節에서 무엇을 強調해야 할지 充分히 밝혀진 줄 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할 것은 우리는 우리 問題도 재!

때로 解決못하는 民族이기 때문에 世界나 人類의 問題를 解決하려는 것은 주체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小民族의 態度를 脫皮하고 우리는 우리 民族의 問題뿐 아니라 世界史的 難題까지도 해결하는데 크게 貢獻할 수 있다는 積極的 民族自我觀을 가져야 한다는 點을 강조해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Ⅲ-2. 人類共榮을 위한 韓國의 役割

韓民族이 人類文化를 向上시키고 人類生活를 豊富케 만드는데 크게 貢獻할 수 있다는 自信感을 가지는 것이 결코 妄想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民族의 歷史的 成就를 吟味해 보면 쉽게 納得이 갈 것이다. 여기서 우리 民族이 歷史的으로 이룩한 빛나는 業績을 일일이 들 수는 없으며, 다만 記憶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몇 개의 代表的인 成就만 들어 보기로 한다.

먼저 新羅時代의 佛敎 敎理의 發展, 藝術文化의 아름다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계속 出土되는 그 때의 遺物만 봐도 우리 民族이 이미 10數世紀 以前부터 남을 능가하는 文化를 創造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高麗時代에도 靑磁의 開發과 金屬活字의 發明이 있었다. 高麗 靑磁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지금도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1234년에 있는 金屬活字의 發明은 獨逸의 「구텐베르크」보다 200余年을 앞서고 있었던 사실을 想起해야 할 것이다.

李朝때의 한글의 發明, 性理學의 發展, 李舜臣將軍에 의한 거북선의 發明 등은 모두 世界的으로 자랑할 만한 業績인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의 歷史에서 자랑할만한 業績은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을 줄 안다. 물론 우리 歷史에 부끄러운 瞬間들이나 記錄이 있지만 그렇다고 否定的인 民族史觀을 가져야 할 程度는 아니다. 韓國史를 보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觀點은 우리 民族의 成就潛在力이 아주 크다는 사실이다.

우리 民族의 成就潛在力은 오늘의 韓國人을 보아도 알 수 있다. 現代學問的인 觀點에서 볼 때 그 基盤이 아주 弱하기 짝이 없었던 解放直後가 이제 不過 1世代 以內의 일인데 지금은 거의 모든 學問分野에서 韓國은 國際水準

에 올라선 것이다. 이것은 國際的 學術會議에 가보면 뚜렷이 나타나는 現象이다. 藝術分野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音樂分野에서 鄭京和, 韓東一, 金永旭 등 世界的으로 認定받는 演奏家가 나왔으며, 尹伊桑 등 國際的인 作曲家가 나온 것이다. 美國이나 西歐 諸國에 가서 外國 留學生들의 成就를 比較해 볼 때 韓國 留學生들이 全般的으로 가장 優秀하다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다.

弱한 經濟的 基盤에서 오늘날 韓國과 같이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해 가는 나라가 드물다. 또 政府의 科學技術 振興政策에 힘입어 이 分野에서는 머지 않아 先進隊列에 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즉, 이것은 우리 民族의 優秀性を 보여 주는 일들이며 發展의 潜在力이 比較的 크다는 것을 立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必要的인 것은 「우리도 남을 따라갈 수 있다」는 消極的 自信을 벗어나 「우리가 남보다 앞설 수 있다」는 積極的인 民族의 自信感이다. 이와 같은 自信感이 생길 때 커다란 創造力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文化, 藝術, 科學, 技術, 學問, 社會, 政治, 經濟 등 諸分野에서 人類發展과 繁榮에 크게 寄與할 수 있는 成就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強調할 것은 첫째, 우리 民族이 優秀하다는 點 둘째, 따라서 偉大한 民族이 될 수 있다는 自信感을 가져야 한다는 點 셋째, 우리 民族의 優秀性에 自信感이 添加될 때 거기서 民族의 創造力이 솟아 오르며 人類의 發展과 繁榮에 뛰어나게 이바지할 수 있는 成就가 가능하다는 點 등이다.

Ⅱ-3. 統一에 對備한 韓國의 外交의 座標

우리는 지금 하나의 時代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時代로의 歷史的인 轉換期에 處하고 있다. 2次大戰 後 오래도록 世界를 支配해 온 冷戰體制는 이제 「아시아」에서도 서서히 幕을 내리고 그 대신 強大國間의 새로운 秩序가 우리 周邊에서 形成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轉換期에서 「이데올로기」의 鈍化, 軍事的 對決方式의 自己矛盾, 平和의 共存競爭, 生存과 繁榮을 위한 實利追求, 多元化和 多邊的 相互牽制 體制에의 移行, 列強主義, 國家的 利己主義 등이

새로운 時代의 特徵으로서 浮刻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國際秩序의 變化속에서 韓國의 座標도 再定立되어야 할 때가 왔다. 즉, 先進 強大國들의 恩惠와 慈悲에의 全的인 依存狀態를 벗어나려는 自主的 努力의 一環으로서 多角 外交를 展開하여 自助·自立의 經濟發展과 自主的 國家安保體制를 이룩하는데 創意的 努力을 發揮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의 南北對話는 그와 같은 國際情勢의 變化를 背景으로 우리 앞날의 運命에 대한 透徹한 民族意識에 의해 推進되고 있다. 이 對話는 앞으로 周邊情勢와의 깊은 關聯속에서 發展될 것이오, 한편 國際情勢의 變化는 우리에게 民族意識, 主體意識의 提高를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主體意識없이 우리가 스스로의 運命을 國際情勢의 흐름에 내맡겨 버린다면 우리는 또 다시 歷史의 敗北者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72년부터 旗幟를 높이 든 10月維新은 바로 우리가 歷史의 敗北者가 아닌 勝利者가 되고 運命의 奴隸가 아닌 主人公이 되기 위한 것이다.

世界史를 통해 볼 때 主體性을 確立하여 自主的으로 努力한 民族은 隆盛하고 主體性을 喪失한 民族은 衰亡하였다. 왜냐하면 主體性이 없는 民族은 스스로 歷史를 創造할 能力을 갖지 못하고 他民族에 隸屬하여 가까스로 延命하는 歷史의 客觀에 不遇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이 內外의 試鍊이 거셀 때일수록 우리는 大國主義의 犧牲이 되거나 大國便宜主義의 祭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우리의 國家利益을 最大限으로 守護 伸張해 나가기 위해 民族主體性을 確立하여 民族的 矜持와 歷史의 使命 아래 民族의 活路를 스스로 開拓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健全한 民族主義와 健實한 自主精神이 原動力이 되어야 함은 말할 必要도 없다.

「아시아」를 舞臺로 한 이른바 列強體制는 今後 그 輪郭이 漸次 뚜렷해질 것이다. 韓半島는 美國·蘇聯·中共·日本 등 強大國들의 利害가 集中되는 곳에 位置하고 있다. 따라서 中共·蘇聯의 對決이 激化되든, 日本·中共의 關係改善이 더욱 促進되든 또는 日本·美國의 經濟的 競爭이 더욱 거칠어지든 強大國間의 關係變化는 韓半島 情勢에 곧 影響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秩序形成이 우리의 國家利益과 安全保障 그리고

南北對話에 미치는 影響에 留意하면서 더욱 主體性을 높이고 國力을 培養해야 하는 重大한 課業을 맞을 態勢를 갖추어야 한다. 過去에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던 陣營內部에서의 紐帶를 굳게 維持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安全保障을 期하고 國家利益을 保護伸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舊陣營의 體制가 이제 變質되어 가고 있고 나라마다 제나름의 利益을 追求하는데 血眼이 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時代感覺과 使命意識을 갖고 自主的으로 우리의 目標을 定立하며 이를 達成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높은 主體性을 發揮하면서 거센 國際權力政治의 挑戰에 對處하고 南北對話를 積極 推進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國力을 가져야 함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國力の 保障없는 主體性은 砂上樓閣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國力の 가장 主要한 部分은 經濟力과 國防力이다. 우리는 北韓과의 對話·交流의 過程에서 온갖 分野에 걸쳐 優劣을 比較하게 될 것인 바 그 때 우리는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優越性을 誇示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우리는 自信을 保衛할 수 있는 能力을 確保하지 못하고서는 北韓과의 對話를 自信있게 이끌어 나갈 수 없다. 그러한 意味에서 우리는 國力の 劃期的이고 加速的인 培養을 위해 總力을 傾注해야 할 것이다.

國際情勢의 變化에 對處하고 南北對話를 準備하는데 우리는 많은 時間의 餘裕를 갖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時間과 싸우며 內部態勢를 強化해야 하고 制限된 資源으로 最大限의 힘을 發揮해야 한다. 이러한 時點에서 우리가 自由를 憑藉한 放縱과 民主主義를 憑藉한 非能率을 許容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는 國際權力政治의 激浪을 헤쳐나가 우리의 利益과 安全을 圖謀하고 南北對話를 잘 推進하여 平和統一의 날을 短縮시키기 위해 1月維新의 諸課業을 短時日內에 成功的으로 達成해야 함은 물론, 平和統一外 交宣言에 立脚한 온 國民의 外交의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第 6 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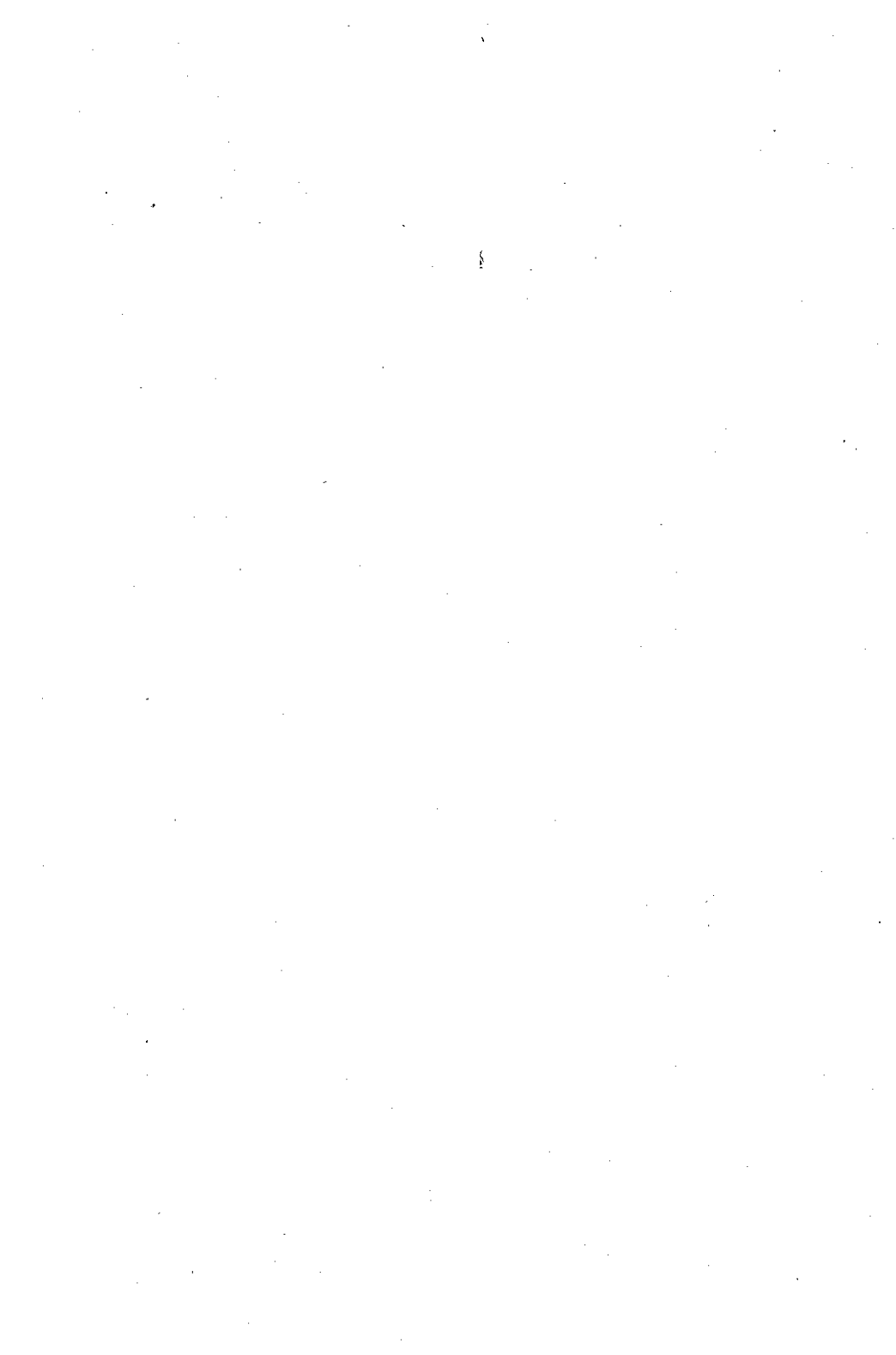
國家發展의 未來像과 國民의 使命

目 標

1. 우리의 發展의 未來像에 대한 理想과 自負心 培養
2. 統一과 發展을 위한 國家的 課業遂行에 積極的 參與 姿勢確立
3. 民族中興의 새 歷史 創造의 使命感 鼓吹

內 容 概 要

| 題 目 | 內 容 | 強 調 點 |
|--|--|--|
| I. 國家發展의 要請 1. 國家發展의 基本 方向 2. 國家發展의 要件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正統性의 繼承과 發展, 民主 理念의 具現, 自由, 平等, 正義, 福祉社會 建設, • 國力培養과 國際平和共榮 • 發展意志, 勤勞精神, 社會秩序 確立, 公益精神, 清富精神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祖國의 發展의 未來像에 對한 矜持 強調 |
| II. 國家의 當面課題 1.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制度의 基盤 2. 民族主體意識과 國家一體感 3. 統一基盤 造成과 統一成就 努力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維新의 理念 目標과 課題 • 政治思想教育의 重要性, 民族主體意識, 國家一體感의 形成, 國民總和 • 韓國 正統性의 確立, 國力培養, 統一基盤造成, 統一의 原則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維新의 意義 • 韓國의 正統性 • 統一觀 定立 |
| III. 國民의 使命 1. 韓國의 發展의 未來像 2. 統一 後의 榮光인 國家 未來像 3.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民主主義 定立, 發展 平和의 民主統一의 基盤 確立, 經濟的 安定과 繁榮, 福祉社會의 建設 • 文化民族, 平和國家, 福祉社會, 國際的 地位 向上 • 國家의 事業에의 總和的 參與,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助的 努力, 民族正統性의 繼承과 發展을 위한 새 歷史 創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祖國統一 後의 榮光인 未來像에 對한 矜持 • 國家發展과 祖國統一 成就로 새 歷史 創造의 使命感 強調 |



序 說

本部 國家發展의 未來像과 國民의 使命에서 意圖하는 政治思想教育의 目的은 韓國에 하나의 民族國家로서 尙차 建設하고자 하는 國家未來像을 부각하여 國民으로 하여금 國家未來像에 대해서 自信心을 가지게 하며 國家發展을 위한 諸課業의 完遂에 意慾적으로 그리고 生産적으로 參與케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韓國이 追求하는 國家目標에 대해서 肯定的이고 積極적인 姿勢를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같은 國家目標을 國民이 內面化하여 國家目標을 自己目的과 같이 생각케 하는 것이 效率의 일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國家目標의 內面化는 곧 使命感을 불러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國家目標에 대한 信念과 當面課題에 대한 올바른 認識이 있을 때 國民은 使命感을 가지고 民族中興의 새 歷史創造에 生産적으로 參與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共產主義의 挑戰에 대하여도 效果的으로 對處하는 길이 될 것이다. 共產主義가 내놓은 未來像에 대한 우리 未來像의 優越성을 確言시키면 共產主義 宣傳과 策動에 의한 挑戰의 克服은 효율적으로 成就될 것이기 때문이다.

本部에서 意圖하는 教育目標을 좀더 具體적으로 記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이 指向하는 國家發展의 基本方向을 提示하여 發展의 韓國의 未來像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하며 나아가서 國家發展을 위한 基本要件이 무엇인가를 理解케 하여 그 要件 充足을 위한 努力의 중요성을 認識케 한다.

둘째,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을 위해서 韓國이 解決해야 할 課題가 무엇인가를 바로 인식케 하고 그와 같은 課題의 完遂가 얼마나 重要한가를 깨닫게 한다.

셋째, 統一 後 祖國의 榮光과 未來像에 대하여 理想을 가지게 하여 그 理想具現을 위한 國家的 努力에 보람을 가져 民族中興의 새 歷史 創造者로서의 使命感을 고취한다.

이러한 教育目標의 達成을 위하여 다루어져야 할 內容과 強調點은 첫째, 國家發展의 基本方向의 定立이다. 이 基本方向에 半萬年 歷史의 後繼者로서 傳統을 發展적으로 繼承하여 새 歷史를 創造하고 韓國民主主義의 開發로 民主主義 基本理念을 具現하며 自由, 平等, 正義, 福祉가 充足되는 社會를 建設하고 나아가서 國力培養으로 國際의 地位向上을 이룩하는 內容들이 포함된다.

둘째, 이상과 같은 國家發展을 위하여 要求되는 條件이 무엇인가를 究明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수많은 國家發展의 要件을 들 수 있지만 특히 國民의 立場에서 強調되어야 할 것은 發展意志, 勤勞精神, 道德的 社會規範의 確立, 清宮思想, 公益精神 등일 것이다.

셋째, 國家發展을 위한 當面課題로서 먼저 韓國民主主義 發展의 制度的 基盤造成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維新體制 確立의 意義, 그리고 維新體制的 目標과 課題가 취급된다. 여기에 또한 民族主體意識의 高揚과 國家一體感의 形成 등의 문제들이 취급된다.

넷째, 當面課題로서 統一基盤 造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祖國統一은 쉽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基盤造成이 必要하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統一이 成就될 때까지 武力挑發의 抑制가 중요하며 對話와 接觸을 통하여 南北間 同質性的 回復이 이루어지고 또한 善意的 競爭을 통하여 韓國體制的 優越性이 과시되어야 祖國統一을 우리가 主導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國力培養을 통한 國家安保의 重要性이 취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南北力量을 比較한 다음, 國力培養을 통하여 總力安保體制를 確立하는 것이 무엇보다 急先務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歷史的 課業의 完遂를 위하여 國民의 使命이 무엇인가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國民使命感의 高취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祖國未來에 대하여 自信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發展韓國의 未來像과 統一祖國의 未來像을 提示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民主主義, 經濟發展, 福祉社會, 祖國統一의 實現으로 우리도 世界에 자랑스러운 民族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第 1 章 國家發展의 要請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本章에서 意圖하는 바는 國家發展의 基本方向을 提示하여 發展韓國의 未來象에 대한 矜持를 가지게 하고 어떠한 資質과 姿勢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를 시사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本章의 基本目標을 細分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國家發展의 基本方向을 理解하여 國家가 志向하는 發展의 未來象에 대한 矜持를 갖게 한다.

둘째, 國家發展을 위한 基本要件이 무엇인가를 理解하여 그 要件具備을 위한 努力의 중요성을 理解하게 한다.

이러한 教育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本章에서 다루어야 할 內容은 먼저 國家發展의 基本方向과 관련하여

첫째, 民族傳統을 正統的으로 繼承하여 새 歷史를 創造하는 일

둘째, 民主主義 基本理念을 具現하는 일

셋째, 自由, 平等, 正義, 福祉가 充滿한 社會를 建設하는 일

넷째, 國力培養을 통하여 韓國의 國際的 地位를 向上하는 일 등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國家發展의 基本方向을 다룸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點은

첫째, 이것을 一般的으로 또 客觀的으로 다룰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우리 發展』의 基本方向이며 이와 같이 『우리 國家』가 發展하면 『우리』가 잘 살게 된다는 主觀的 體驗感을 주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方向의 國家發展이 왜 所望스러운가를 實感있게 說明하는 것이 重要할 것이다.

둘째, 國家發展의 要件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國民的 立場에서 國家發展을 위하여 具備하여야 할 要件이라는 점을 留意해야 할 것이다. 國家發展의 要件과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內容을 좀 더 具體的으로 진술하면

첫째, 發展意志와 勤勞精神의 高揚과 道德的 社會規範의 確立

둘째, 市民經濟倫理的 側面에서 淸富思想과 公益精神의 高揚

위와 같은 國民資質의 查 뜻이 무엇이며 國家發展을 위하여 이와같은 資質을 갖추는 것이 왜 重要한가를 認識시켜야 할 것이다.

本章의 內容을 淸급함에 있어서 특히 參考가 될 것은 第1部『民族意識과 國家觀』과 第2部『民主主義 政治理念과 體制』이다. 또한 第3部『共產主義 理論과 實際』도 共產主義는 韓國이 志向하는 基本方向과 相衝된다는 의미에서 本章의 內容과 관련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I. 國家發展의 基本方向

I-1. 民族傳統의 繼承과 새 歷史의 創造

우리는 半萬年의 歷史와 傳統의 後繼者이다. 우리 歷史와 傳統에는 어둡고 부끄러운 側面도 있지만 밝고 자랑스러운 側面이 더욱 많다. 유달리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우리 祖上들은 지혜롭게 살길을 찾았으며 빛나는 文化傳統의 遺產을 後孫에게 남겨 주었다.

本節에서는 먼저 우리의 民族傳統에 대해서 健全한 態度를 가지게 하는데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第1部『民族意識과 國家觀』에서 다룬 바를 想起시키면서 우리 歷史와 文化傳統 속에서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나빴던가를 가린 다음 좋은 歷史傳統을 創造의으로 繼承 發展시키고 나쁜 歷史傳統은 止揚 克服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韓國人들의 歷史的 使命이라는 點을 強調해야 할 것이다.

〈韓國人の 價値觀〉. (韓國人の 價値觀 調査, 朝鮮日報 特別連載 李永鎬著) (1972年 1月부터 5월까지 參照)에 나타난 바와 같이 韓國사람들은 民族的 矜持가 박약하고 民族文化傳統에 대해서 지나치게 否定的이다. 새 歷史의 創造는 먼저 民族的 自信心이 先行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祖上들은 남뭇지 않게 지혜로웠으며 나아가 오늘의 우리도 남뭇지 않게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도 偉大한 民族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信念을 가지고 努力만 하면 世界人類史를 앞장 서서 이끌고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被教育者의 머리속 깊이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 民族의 슬기로움을 過去와 現在에서 例證하는 것은 아주 效果의 일 것이다. 남보다 앞선 活字印刷 發明, 한글의 創製, 性理學, 新羅藝術의 찬란함, 거북선 등 우리 歷史속에서 자랑스럽고 榮光스러웠던 일들을 例로 들고 또 現在 世界的인 讚辭를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韓東一과 「바이올리니스트」 鄭京和 등을 들어 우리 民族의 優秀性을 實感있게 說得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60年代부터 시작된 經濟建設의 記錄은 世界에서도 자랑스러운 程度라는 것을 強調하여 앞으로 보다 努力하면 머지 않아 우리도 先進國

의 隊列에 서게 될 것이라는 自信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要는 극히 어려운 國內的, 國外的 與件속에서 民族의 命脈을 維持해 왔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도 찬란한 文化遺產을 우리에게 남겨준 祖上들에 대해서 우리는 責任이 있으며, 責任을 다하는 길은 祖上들의 文化遺產을 올바로 繼承 發展시킬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는 새 歷史의 章을 20世紀 終章을 맞은 오늘에 사는 우리들이 創造하는 것이라는 점과 또한 그와 같은 빛나는 새 歷史創造의 潛在力이 우리 民族속에 있다는 점, 그리고 다만 意志와 自信을 가지고 있다면 영광스러운 새 歷史創造는 틀림없이 우리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 결들여서 共產主義者들의 길은 우리 文化傳統에 거역하는 길이며 이를 歪曲 繼承하는 길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共產主義는 우리의 人間尊嚴性 傳統과 平和愛護 傳統에 어긋날 뿐 아니라 共產社會體制는 人間の 創意性을 抹殺하기 때문에 새 歷史의 創造는 커녕 歷史의 斷絶 나아가서는 歷史의 退步를 招來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共產主義의 挑戰을 극복하고 大韓民國의 自由民主體制가 統一祖國의 政治體制의 根幹이 되어야 韓國史는 發展의 巨步를 뒀게 된다는 信念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1-2. 民主主義 基本理念의 具現

第2部『民主主義 政治理念과 體制』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韓國의 國是는 自由民主主義요 따라서 自由民主主義를 이 땅에 具現하는 것이 國家發展의 가장 基本的인 課業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은 民主主義가 人間の 尊嚴性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人間の 創意를 最大限 發揮할 수 있도록 해주는 政治體制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民主主義는 우리 歷史의 本流인 人道主義와 調和를 이룰 뿐 아니라 새 歷史의 創造를 위해서 必要不可缺한 條件이기도 하다.

그러나 民主主義의 價値는 그 本質 즉 그 基本理念에 있는 것이지 그 形態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形態를 달리하면서도 民主主義 本質에서는 같을 수 있다는 말이다. 美國의 民主主義가 그 形態에 있어서 英國의 그것

과 다르다. 또 佛蘭西, 伊太利, 獨逸, 瑞西 등 民主體制가 다 그 形態에 있어서 상당한 多樣性을 보이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또 같은 國家內에서도 民主主義는 그 形態를 변모해 오고 있음을 본다. 그렇다면 西歐 民主國家에서 찾을 수 없는 制度라 해서 民主主義가 아니라는 論理가 설 수 없다. 問題는 어떤 特定制度가 民主主義 基本理念에 立脚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애 本質에 있어서 같은 目標를 志向하는 民主主義가 多様な 形態로 表現되고 있느냐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各國의 特殊性 때문이다. 各國의 特殊한 與件이 提示하는 政治體制의 要諦이 있기 때문에 民主主義는 그 社會의 特殊性에 맞추어서 制度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融通性이 許容된다는 것이 民主主義의 特長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原理에 대한 理解不足으로 우리는 光復 後 西歐의 民主制度 形態를 그대로 이땅에 模倣하려 했다가 여러가지 混亂, 不條理, 無秩序, 非能率을 招來했다. 이와 같은 不合理를 止揚하고 制度化하려고 한 것이 10月維新의 基本趣旨인 것이다.

民主主義가 多様な 形態를 許容하고 또한 10月維新에 의해서 이룩된 維新體制가 韓國의 特殊與件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與件의 變化에 따라 앞으로 維新體制의 改造가 있을 수 있으며,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當然한 것이다. 그래서 民主主義는 發展的인 것이며 維新體制도 發展的인 것이다. 形態는 本質을 위해서 있다. 따라서 形態는 手段이요 本質이 目的이 된다. 問題는 民主主義의 本質인 基本理念을 그때 그곳의 特殊與件에 비추어서 어떻게 가장 効率的으로 具現하느냐에 있다. 이와 같은 前提에서 民主主義를 이해해야 하며 10月維新을 理解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이 무엇인가? 第2部『民主主義 政治理念과 體制』에서 이미 진술했듯이 人間의 尊嚴性, 個人的 最善我實現, 그리고 進歩와 發展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民主理念의 具現을 위해서 自由와 秩序間에, 變化와 安定間에, 平等과 卓越間에, 個人과 社會間에 적당한 調和가 必要한 것이다. 自由가 심해서 秩序가 지나치게 흔들려도 안되며, 秩序가 너무 강조되어 自由가 지나치게 抑壓되어도 안된다. 또 變化가 너무 지나쳐

서 安定이 파괴되어도 안되며 安定이 너무 지나쳐 變化를 질식시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平等이 너무 지나쳐 個人의 卓越한 成就가 障礙받아도 안되며 個人의 卓越에 置重하여 基本的 平等까지 위협받아도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個人의 權利가 너무 強調되어 社會에 대한 責任이 度外視되어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民主主義의 理想的인 實現은 이와 같이 짝을 이루는 價値間에 調和를 創造的으로 維持하는 데 있는 것이다.

韓國은 民主主義 基本理念의 即時具現에 어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與件에 의하여 制約을 받고 있다. 10月維新은 貧困, 無知, 社會的 不安, 政治文化的 未成熟(民主主義的 觀點에서), 國際環境의 不安 등 여러가지 沮害條件들을 能率的으로 除去해 가면서 人間이 人間다운 生活을 영위할 수 있고(人間의 尊嚴性), 個人이 自己潛在力을 가장 創造的으로 發揮할 수 있고(最善我的 實現), 個人과 國家가 効率的으로 進歩 發展할 수 있는 民主社會를 이땅에 하루속히 實現시키는 데 그 目的이 있다.

오늘에 사는 우리의 使命은 政治的인 觀點에서 볼 때 10月維新을 효율적으로 推進하여 民主主義 制約條件을 하루빨리 除去하고 自由, 平等, 創意가 充滿하여 人間의 尊嚴性이 높임을 받고 個人의 最善我實現이 가능한 社會가 이룩되어서 하나의 民族國家로서 不斷히 發展進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데 있다.

I-3. 自由, 平等, 正義, 福祉의 實現

韓國社會가 追求해야 할 目標價値로서 위에 든 民主主義 具現 外에 自由, 平等, 正義, 福祉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目標價値의 實現은 곧 人間의 尊嚴性을 最大化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共產主義가 本質的으로 이런 價値와 相衝한다는 事實을 第3部 「共產主義 理論과 實際」에서 다룬 內容을 想起시키면서 강조해야 할 것이다.

-1) 自由:

共產主義者들도 自由를 떠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第3部에서 이미指摘했듯이 그들의 自由란 바로 『共產黨의 獨裁를 받아들이는 自由』, 『拘束을 받아들이는 自由』, 『自己個性을 거꺼이 抹殺당하는 自由』로 自由의 本來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韓國이 追求하는 自由는 人間의 尊嚴性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人間의 尊嚴性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社會와 國家에 害를 끼치지 않는 範圍內에서 個人이 自己 人生을 自己가 希望하는 形式과 方法으로 營爲하는 것이 自由의 本뜻이라면 그런 自由없이는 人間의 尊嚴性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人間의 本質은 自由이며 自由를 根幹으로 하는 民主主義야 말로 人間의 本質에 가장 合致되는 政治理想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自由에는 責任이 따라야 하며 責任없는 自由는 곧 自由 그 自體를 無意味하게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責任이란, 같은 社會에 사는 個個人的 意思와 權利를 존중하는 責任이다. 만약 그런 責任感 없이 自由가 行使되면 「혹스」가 말하는 『萬人의 萬人에 대한 戰爭』狀態가 일어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아무런 自由도 殘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도적질은 도적질하는 사람의 自由로운 意思表示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도적질 당하는 사람의 意思를 존중하지 않는 즉 無責任한 自由意思 表示라는 점이다.

自由는 또한 自身에 대한 責任을 隨伴한다. 즉 個人이 當面하는 문제에 대해서 自主적으로 決定하고 自主적으로 對處해야 된다는 責任이다. 따라서 自由는 하나의 祝福인 동시에 무거운 負擔이 되기도 한다. Erich Fromm이 말하는 『自由로부터의 逃避』는 바로 이 理由 때문에 一部 心弱者間에 일어나는 現象인 것이다. 그러나 自由의 부담은 우리 삶의 意味를 부여해주는 보람있는 부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人類의 歷史가 自由를 위한 鬪爭이었고 또 自由를 향한 前進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韓國은 人類歷史의 創造的 原動力이 되어 온 自由를 國家發展의 基本方向으로 삼아 우리 歷史를 보다 높은 次元으로 이끌고 가려는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여기에 國民은 보람을 느끼고 國家發展을 위한 課業에 能動的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人間의 尊嚴性이란 또한 平等을 要求한다. 人間위에 人間이 있고 人間 밑에 人間이 있어서는 平等待遇를 받지 못하고 人間은 결국 『半쪽 人間』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尊嚴性을 認定받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自由와 平等은 人間尊嚴性을 위해서 必要不可缺한 要件이 되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들도 平等을 떠들고 있다. 그러나 事實上 「질라스」가 말했듯이 共產社會는 『階級없는 社會』가 되기는 커녕 『새 階級』이 支配하는 社會가 되고 만 것이다. 少數의 支配階級이 있고 多數의 被支配階級이 있어서 大多數 國民들을 두고 볼 때는 『自由없는 平等』 즉 『노예로서의 平等』밖에 없는 것이다. 社會全般的으로 볼 때는 多數위에 少數의 支配階級이 있기 때문에 共產社會를 平等社會라고 하는 것은 오직 平等의 뜻을 歪曲한 다음에야 가능한 말이다.

우리가 平等의 概念을 辭典의인 意味로 理解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待遇를 받는 것을 平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平等을 하나의 國家發展의 基本方向으로 또는 國家의 하나의 目標價値로 삼을 때는 合目的的으로 理解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우리가 하나의 國家로서 指向하는 바는 『보다 나은 삶』이 可能한 터전을 닦는 것이라고 할 때 平等도 이 큰 目的에 따라 意味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다 나은 삶』이 可能하기 위해서는 人間의 發展意慾, 創意 등을 장려해야 하며 個人의 卓越한 成就를 장려해야 한다. 그런데 平凡한 成就나 卓越한 成就나 그 結果로 있는 報酬가 같을 때 卓越을 위한 努力意慾이 沮害받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卓越과 平等의 두 價値間에 적당한 調和가 必要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卓越과의 調和속에서 平等을 追求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追求하는 平等은 無條件의 平等이 아니다. 個人努力의 質과 量에 따라 社會的 經濟的 待遇는 決定되어야 한다. 다만 모든 사람은 法 앞에서 平等해야 하며 같은 業績을 낳았을 때 平等的 報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地位의 高下나 貧富의 差異, 男女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모든 個人이 한 平等的 人間으로서의 待遇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平等이 韓國이 하나의 國家로서 追求하는 目標價値인 것이며 韓國은 國家發展을 이런 合理的 平等의 方向으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指向해야 할 平等은 物質的인 意味에서의 無條件의 平等이 아니고 人間의 尊嚴性에 있어서의 平等인 것이다. 平等을 이와 같이 規定할 때 모든 個人이 最善我實現의 意慾을 가질 것이며 社會와 國家發展을 위하여 最善의 努力을 기울일 意慾을 얻을 것이다.

-3) 正義:

여기서 말하는 正義란 社會的 意味의 正義 즉 社會正義를 意味한다. 이것은 佛敎에서 말하는 因果應報의 原則과도 相通한다. 쉽게 말해서 善한 일을 하면 그에 適當한 果報가 있고 惡한 일을 하면 그에 適當한 果報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不正이 行하면 이와 같은 正義로운 果報가 깨어지며 惡한 일을 한 사람이 善한 일을 한 사람보다, 努力하지 않는 사람이 努力한 사람보다, 不正직한 사람이 正直한 사람보다, 能力없는 사람이 能力 있는 사람보다, 破壞的인 사람이 建設的인 사람보다 더 좋은 報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社會의 不條理라고 할 때 다른 뜻도 있지만 무엇보다 社會正義의 失敗를 意味하는 것이다.

選舉不正, 情實人事, 公共事業의 不實, 賂物의 授受, 詐欺, 不正入學 등 우리는 善한 正義失敗의 證據를 우리 周邊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不正은 우리 社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社會에서나 있는 普遍的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不正이 行하는 한 誠實하고 建設的인 努力으로 잘 되겠다는 생각을 弱化시키기 때문에 不正이야 말로 社會와 國家發展을 阻害하는 一大 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不正을 除去하고 正義로운 社會를 이룩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國家發展의 課題인 것이다.

社會正義가 이루어질 때 國民은 非生產的이고 反社會, 反國家的인 일에 머리를 쓰지 않고 生產的이고 建設的인 일에 「에너지」를 傾注하게 될 것이다. 被教育者들에게 社會正義 實現의 重要性을 위와 같은 論理로 說得시키고 이 땅에 그런 正義로운 社會를 實現하기 위하여 國家는 努力하고 있고 또 이

努力은 반드시 成功하고 말 것이란 確信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4) 福 祉 :

아무리 自由競爭을 社會生活의 原則으로 한다 해도 個人的 最小限의 福祉를 保障하는 것은 社會와 國家의 責任이다.

人間은 不完全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없이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社會的, 經濟的 窮地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資本主義體制를 根幹으로 하고 있는 美國도 近來에 와서 社會福祉面에 많은 資本配當을 하고 있다. 英國이나 「스칸디나비아」諸國들이 福祉面에서 美國보다 훨씬 앞서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人間의 尊嚴性이란 立場에서 볼 때 모든 사람에게 보람있는 生活을 영위할 수 있는 最低機會의 保障이 要求된다. 그래서 國家資源이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無料教育을 國家에서 實施해야 하는 것이며, 保健을 負擔해야 하는 것이다. 또 病이나 事故 또는 기타 原因으로 失職했을 때도 적절한 生活保障을 말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老後에 經濟的 自擔能力이 없을 때도 最低限의 生活을 保障하여 人間의 尊嚴性이 존중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韓國이 오늘날 이와 같은 福祉에 있어서 充分치 못한 것은 事實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國家資源의 制約 때문에 오는 것으로 앞으로 國家資源의 增大에 따라 모든 國民에게 無知, 疾病, 失業, 老衰에 대해서 社會保障을 增大함으로써 明朗한 福祉國家를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

I-4. 國力培養과 國際의 地位 向上

國力の 要素는 여러가지이다. 政治的 統合, 指導力, 經濟力, 科學技術, 自然資源, 軍事力, 國民의 國家觀과 精神態勢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平常的인 時期에도 國力培養의 必要性은 恒常 크다. 더욱이 韓國과 같이 여러 면에서 重大한 挑戰을 받고 있는 國家로서는 國力培養이 더욱 時急하고 중요한 課題가 되는 것이다. 國力培養의 艱만이 共產主義의 挑戰을 克服하고 祖國統一을 우리가 願하는 方向으로 主導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國力培養이 소홀히 될 때 共產主義의 挑戰에 被動的으로 이끌리게 되고 自主平和統

一의 機會를 놓칠 可能性이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非常한 覺悟로 國力培養에 힘을 기울일 때이다. 科學技術의 向上, 經濟生產性的의 增大, 總力安保態勢의 強化, 政治指導體制的 能率化, 國家一體感의 增大 등은 國力培養의 立場에서 모두 時急한 國家的 課題인 것이다.

이와 같이 國力培養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國內的으로 安定을 期할 수 있고 國際的으로는 自主自立性이 強化되어 남의 나라의 壓迫을 피하게 되고 나아가서 그들의 우러러 봄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國力이 強化되어야 國家安保가 보다 튼튼한 토대위에 서게 되며 오직 安保問題가 解決되어야 國家가 生存하게 되고 또 우리가 志向하는 發展의 機會를 確保할 수 있다는 점을 強調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II. 國家發展의 要件

II-1. 發展意志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다. 물론 뜻이 있어도 길이 열리지 않을 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바꾸어 『뜻이 없는 곳에 길이 없다』고 하면 妥當性이 있는 말이 될 것이다. 잘 되려고 하지 않고 잘 되는 個人이나 民族이 없다. 물론 대수롭지 않은 成就是 成就하려는 努力이 얻어질 수 있지만 價値있는 成就是 成就하려는 意志와 努力이 先行하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될 생각도 없었는데 偉대한 科學者가 된 사람이 없고 스스로 될 생각도 없었는데 偉대한 哲學者가 된 사람도 없다. 그래서 個人에 있어서나 國家에 있어서나 잘되어 보겠다는 發展意志 (또는 成就動機)가 그 個人, 그 國家發展의 가장 중요한 必須條件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農業分野에 있어서 最近에 이르기까지 數千年동안 文字 그대로 너무 依舊했다. 農土의 改良도, 農器具의 改良도, 또 種子의 改良도 너무 없이 代代로 거의 같은 方法과 結果의 農事를 지어 왔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다른 原因을 붙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原因은 이를 改善해 보겠다는 意志의 缺如였다고 생각된다. 우리 民族의 頭腦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 民族이 分野에 따라서는 他民族을 능가하는 成就를 거둔 事實로 보아도 立證이 된다.

여기서 發展意志라고 함은 하나의 게으른 空想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 指摘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發展意志는 적어도 다음의 세 要素를 갖추어야 한다. ① 發展에 대한 慾望 ② 發展成就의 自信 ③ 必要한 努力에 대한 覺悟

近來에 와서 韓國社會에 이와 같은 發展意志가 널리 퍼지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強調해야 할 것은 보다 더한 發展意志가 있어야 前節에서 略述한 바와 같은 方向의 國家發展이 가능하여 눈부신 새 歷史의 創造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II-2. 勤勞精神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게 된다』는 西洋俗談이 있듯이 能力과 資源이 같은 경우 부지런한 個人과 民族이 보다 큰 成就를 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 能力이나 資源이 모자라더라도 남달리 부지런하면 能力과 資源의 制約을 어느 정도 克服할 수 있다는 것은 토끼와 거북의 寓話에서 잘 나타난다.

지금 우리나라는 貧弱한 資源(物的, 人的, 技術的, 文化的 등의 面에서)을 가지고 남이 100年 걸려 成就한 近代化를 10년에 成就해야 하는 立場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勤勞精神이 要望된다. 모든 國民이 맡은 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8時間 일 할 때 10時間 일을 하고, 10時間 일 할 때 12時間 일하는 姿勢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II-3. 道德的 社會規範의 確立

한 때 우리나라는 東方禮儀之國이라는 칭송을 받을 程度로 禮節 바르고 倫理的인 民族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오늘날 韓國社會는 禮儀는 커녕 法도

안지키는 예가 너무도 許多한 無規範의 社會가 되고 만 감이 없지 않다.

이것은 물론 지난 1世紀동안 우리가 歷史的으로 겪은 特殊한 경험과 오늘 韓國社會를 휩쓸고 있는 急激한 變化에 그 原因을 찾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社會規範이 再確立되어 倫理的인 社會關係가 再形成되지 않고는 國民總和가 不可能할 것이며 國家發展을 위하여 國民「에너지」가 效果的으로 動員되는 일이 어려운 것이다.

社會規範의 倫理化는 正義와 他人尊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첫째, 不正이 除去되고 正義로운 社會生活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로, 모두가 남의 意思와 福利를 尊重하는 社會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남의 利益, 便宜, 氣分을 고려치 않고 자기의 욕망을 充足하려고 해서는 國家發展이 있을 수 없고 새 歷史의 創造가 있을 수 없다. 다만 國家衰亡과 歷史의 退步만이 있을 뿐이다.

道德的 社會規範의 確立은 큰 몫을 찾을 수도 있지만 작은 일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친절, 차례지키기, 버스안에서 담배피우지 않는 일, 길에서 침 밟지 않는 일, 公共場所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는 일 등이 비록 하찮은 일같지만 道德的 社會規範의 確立을 위해서 必要하고 중요한 始發인 것이다.

II-4. 淸富思想

過去에 淸貧이 우리 文化에서 높임을 받았다. 그러나 淸貧의 그 글자중에 強調되어야 할 것은 貧이 아니라 淸이라는 것을 理解해야 할 것이다. 가난한 것이 美德이 아니고 生活이 淸廉한 것이 美德인 것이다. 거꾸로 돌려 말하면 致富하는 그 自體가 나쁜 것이 아니라 不正한 方法으로 致富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가난한 것보다 富裕한 것이 낫다면 특히 經濟成長을 통하여 國力을 早速히 培養해야 하는 이 마당에서는 오늘날 우리 社會가 勸獎할 것은 『淸貧』이 아니라 『淸富』일 것이다. 즉 깨끗하고 가난하게 남는 것보다 깨끗한 方法으로 致富하도록 모든 國民을 勸獎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淸貧思想이 過去 우리나라의 發展을 沮害한 重要 要因이 되어 왔는지 모른다. 淸貧思想은 發展意志를 抑制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淸貧思想을 우리 文化傳統에 있어서 하나의 脆弱點으로 보고 이를 淸富思想으로 代置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淸富가 淸貧보다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淸貧은 積極的인 行動없이 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淸富는 行動의 積極性을 先行條件으로 한다. 가만히 앉아서 특히 不正한 方法을 삼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正當한 方法으로 富者가 되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란 것을 강조하고 淸富思想만이 國家經濟建設의 길이라는 것을 못박아야 할 것이다.

II-5. 公益精神

「아리스토텔레스」는 『人間은 社會的 動物이다』 또는 『人間은 政治的 動物이다』라는 말을 했다. 이것은 人間生活이란 社會關係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相互依存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에서 한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比較的 單純한 社會에서도 이 말이 眞理였지만 오늘날과 같이 人間生活이 複雜해지고 또 勞動分化가 深化되었으며 距離가 短縮된 社會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그래서 相互依存性을 忘却하고 편협한 個人利益을 追求하는 行爲는 短期的으로는 目的達成이 可能할지 모르나 긴 眼目에서 볼 때 公益만 해치는 行爲가 되는 것이 아니라 私益까지 해치는 行爲가 되는 것이다.

그런 고로 個人은 自己가 살고 있는 地域共同體를, 各 地域共同體는 國家를, 各 國家는 世界를 생각하고 行動해야 한다.

損益計算을 떠나서 倫理的인 次元에서 생각해 볼 때 個人的 成就是 그것이 富든, 學識이든, 權力이든, 名譽든 또는 社會的 地位이든 社會없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自身の 成就를 可能케 한 社會의 公益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非倫理的인 姿勢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또 角度를 달리해서 모든 國民이 公益을 생각하지 않고 私益에 沒頭할 때 韓國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公益的 姿勢를 갖는 것만이 國家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國家없는 個人的 幸福追求는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오늘날 韓國은 重大한 歷史的 課業에 當面하고 있다. 이와 같은 課業을 成功的으로 遂行하고 우리 歷史를 새로운 榮光된 자리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國民이 힘과 마음을 모으는 것이 要請된다. 그와 같은 總和的 努力을 組織化하려는 것이 새마을 運動이요 10月維新이라고 할 때 모든 國民이 團結한 利益追求를 버리고 『公益속에서 私益을』 또는 『公益과 더불어 私益을』 찾는 姿勢로 이와 같은 總和的 課業遂行에 積極的으로 參與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分明히 指摘해 두어야 할 것은 私益의 追求 그 自體가 나쁘지는 않다는 點이다. 너무 편협한 方法으로 또는 公益에 相衝되는 方法으로 私益을 追求하는 것이 나쁘다는 點이다. 個人的 最善我實現은 적극 장려해야 할 일이다. 다만 最善我實現을 社會 및 國家發展과 調和시켜서 追求해야 된다는 점을 留意시켜야 할 것이다.

第2章 國家의 當面課題

우리 나라가 直面하고 있는 問題들이 수없이 많고 또한 이들 問題들을 해결하기 위한 當面한 課題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들 수많은 問題와 課題들은 크게 묶어 설명될 수 있겠다. 즉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을 촉진하는 두 課題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큰 課題의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課題 또한 슬하다. 外部的 威脅을 극복하는 問題, 北韓의 挑戰을 극복하는 問題, 우리 體制內部的 脆弱性を 除去하는 問題, 國力培養을 위한 問題, 經濟發展의 基盤조성 問題, 社會正義를 실현하는 問題, 國民의 總和를 이루는 問題 등 그 밖에 더 상세히 나누어 보면 더욱 더 많은 問題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슬한 問題와 課題들을 크게 묶어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을 촉진하는 두 課題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의미를 주는 問題라 보아 좋을 것이다. 따라서 本章에서도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을 위해 우리가 당면하는 課題의 意義와 重要性을 이해하도록 하는 問題들이 주로 취급하게 된다. 本章이 의도하는 目標을 보다 분명히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民主義 發展을 위한 制度的 基盤造成的 意義와 重要性을 인식케 한다.

둘째, 主體的 民族意識과 國家一體感을 基盤으로 하는 國民總和의 형성인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의 精神의 바탕이 되는 意義와 重要性을 인식케 한다.

셋째,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의 基盤을 조성하기 위한 現實의 課題가 무엇인지 이해한다.

네째, 國力培養과 國家安保의 意義와 重要性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國民의 努力의 必要性을 인식케 한다.

이러한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本章에서 취급될 教育內容과 그 組織은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民主義 發展을 위한 制度的 基盤으로서의 維新體制

둘째, 民族主體意識과 國家一體感과 國民總和

셋째, 統一基盤 造成과 統一을 成就하기 위한 課題

네째, 國力培養과 國家安保의 重要性 등이다.

以上에 제시한 內容의 취급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점은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을 촉진하는 制度的 措置와 社會의 經濟의 諸般 與件의 改善 등은 결국 國民의 精神의 態度 確立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精神의 態度의 確立을 위하여 그 方向과 責任을 지워주는 問題들이 內容으로 취급되고 있음에 유의하여 이들 內容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各部의 內容을 綜合하여 本章을 說明함이 效果的임을 附言해 둔다.

I.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制度的 基盤

I-1. 維新體制 確立의 意義

-1) 理 念 :

民族의 生存과 繁榮 그리고 平和의 祖國統一을 위한 民族主體性의 確立과 發展을 그 基本理念으로 한다.

-2) 意 義 :

- ① 民族主體意識 傳統의 歷史的 回復
- ② 民族主體意識의 歷史的 創造
- ③ 韓國民主主義 發展의 基盤 構築
- ④ 民主力量의 集結
- ⑤ 自主, 自助, 自立, 自衛, 自決의 精神的 姿勢 確立
- ⑥ 周邊 情勢에의 能動的 對處態勢 確立
- ⑦ 祖國의 自主的 平和的 民主統一의 成就
- ⑧ 國力培養의 加速化를 위한 國力의 組織化
- ⑨ 祖國近代化와 國家發展 促進을 위한 國民努力의 促求

I-2. 維新의 目標와 課題

-1) 基本目標 :

- ① 自主的인 民族活路를 개척하여 安定과 繁榮을 기약할 수 있는 國力培養을 加速化하고 國力의 組織化를 이룩한다.
- ② 民族主體勢力을 形成하여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成就한다.
- ③ 韓國民主主義를 定立하고 發展시킨다.
- ④ 國土와 資源의 綜合的 開發과 自助的 地域社會 開發로 祖國近代化와 福祉均霑 社會를 이룩한다.
- ⑤ 社會의 모든 不條理, 非能率, 非生產性, 無秩序를 剔抉하는 社會革新을 이룩한다.

-2) 主要課題：

- ① 國權 守護와 民族活路의 開拓을 위한 總力安保와 總和體制의 確立
- ② 韓民主主義의 定立과 發展을 위한 課業
 - ㉠ 韓民族의 主體的 創造의 課題
 - ㉡ 韓民族의 歷史的 自立을 위한 過程
 - ㉢ 民族的 主體性의 實踐理想
- ③ 平和統一을 위한 課業
 - ㉠ 南北對話의 積極的 推進
 - ㉡ 南北對話의 主導的 推進을 위한 民族主體勢力의 形成과 國力培養
 - ㉢ 周邊情勢에의 能動的 對處
- ④ 繁榮과 福祉를 위한 經濟發展의 促進
 - ㉠ 國土와 資源의 綜合的 開發
 - ㉡ 自助的 地域社會 開發：새마을 運動의 促進
 - ㉢ 重化學工業의 育成
 - ㉣ 輸出伸張과 國際協力 強化
 - ㉤ 都市와 農村間의 隔差 解消
 - ㉥ 生活環境과 生活態度의 改善
 - ㉦ 經濟秩序와 經濟倫理의 刷新
- ⑤ 福祉均霑의 社會保障制 擴充
 - ㉠ 社會間接資本의 擴充
 - ㉡ 國民生活水準 向上
- ⑥ 不條理없는 信義의 社會秩序 確立
 - ㉠ 民族意識과 國家觀의 確立으로 國家一體感의 形成
 - ㉡ 遵法精神과 維新的 生活態度의 涵養
 - ㉢ 勤勉, 自助, 協同으로 自己發展과 社會發展의 調和促求
- ⑦ 民族文化의 暢達과 教育의 刷新
 - ㉠ 民族思想의 定立과 民族主體思想의 確立
 - ㉡ 固有 民族文化의 繼承과 外來文化의 主體的 受容

- ㉔ 創造의 文化藝術의 暢達
- ㉕ 韓民族 文化의 優秀性 認識
- ㉖ 義務教育의 延長과 學制 및 教育內容의 改革

II. 民族主體意識과 國家一體感

급변하는 國際情勢에 能動的이고 主體의으로 대처하고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해진 維新體制의 意義와 目標를 달성 하기 위한 善한 課題 중 가장 중요한 教育的 課題는 民族主體意識과 國家一體感을 토대로 하는 國民總和의 形成이라 하겠다. 더욱이 維新體制 確立의 理念이 「民族의 生存과 繁榮 그리고 平和統一을 기약하기 위한 民族主體性의 確立과 發展」에 있고, 「維新의 重要 目標중의 하나인 韓國民主主義의 定立과 發展」을 위해서도 民族主體意識과 國家一體感의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I-1. 政治思想教育의 重要性

한 國家의 政治理念과 그 理念具現을 위한 統治體制 그리고 그 운영은 爲民의이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國家에서건 公同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爲民의인 것이 國民의 支持를 얻지 못하면 그 理念과 體制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새로운 理念과 體制를 수립한 維新은 國民의 大多數의 支持를 얻어 단행된 改革이기에 國民의 總和的 改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政治體制의 繼承과 發展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國民의 支持가 요청된다. 또한 國家的 課業遂行을 위해서도 國民의 總和에 의한 公同노력이 요청되기 때문에 政治思想教育은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個人의 最善我實現을 가능하게 하는 與件의 조성은 시급한 오늘, 個人의 自意에 의한 問題解決을 기대하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共同의 目標로 向하는 教育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政治思想教育의 內容과 方法的인 重要性을 결합하여 항목별로 적어보기로 한다.

-1) 國民總和의 形成을 위한 教育 :

- ① 民族主體意識의 確立을 통한 民族國家觀의 教育
- ② 民族力量의 集結
- ③ 國力의 組織化
- ④ 平和的 祖國統一의 促進을 위한 民族同質性의 回復
- ⑤ 民族主體勢力 形成을 위한 精神의 底邊 構築

-2) 民主主義의 優越性에 대한 信念 強化 :

- ① 民主主義가 現存하는 모든 理念과 體制 중 가장 最善의 것임을 理念과 理念具現을 위한 現實的 制度 및 運營面에 있어서 再確認이 必要
- ② 韓國의 民族의 正統性과 韓國民主主義에 대한 信念
- ③ 韓國의 發展의 努力에 대한 矜持

II-2. 民族主體意識과 國家一體感의 形成

-1) 民族의 團結力 :

民族의 同質意識에 바탕을 둔 民族的 團結力이 어느 民族보다 일찌기 統一國家를 형성할 수 있었던 要素였음을 再確認

-2) 民族主體性에 바탕을 둔 韓國正統性의 確立 :

- ① 主體性 : 民族의 文化史의 概念
- ② 正統性 : 民族의 國家의 概念

따라서 國家正統性의 確立은 民族主體性의 確立의 先行을 要求한다. 또한 祖國統一의 成就와 韓國民主主義 發展은 民族主體性에 바탕을 둔 韓國正統性의 기반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수십 차례에 걸친 外侵과 온갖 難關에도 불구하고 單一民族으로서의 主體的 文化와 正統的 國家를 형성 유지 발전시켜 온, 韓民族의 主體意識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와 계승발전을 위한 意志의 결속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4) 國家一體感의 形成 :

- ① 民族主體意識에 기반을 둔 民族的 國家觀 確立

② 國家榮光觀 내지 國家에 대한 自負心の 形成

II-3. 國民總和

國民의 總和는 國家安定과 繁榮을 위한 정신적 기반이며 外勢와 難關을 극복할 수 있는 團結의 기반이고, 國力の 기반이며, 祖國統一의 기반이다.

- ① 民族主體意識에 의한 總和
- ② 思想的 總和: 民主主義 理念에 바탕을 둔 思想的 總和
- ③ 共同目標 指向으로서의 總和
- ④ 統一意識에 의한 總和
- ⑤ 國家榮光觀에 의한 總和

III. 統一基盤 造成과 統一成就 努力

III-1. 祖國統一의 基本原則

- ① 民主 勝共統一
- ② 民族主體에 의한 統一
- ③ 平和的 方法에 의한 統一
- ④ 韓國의 正統性和 合法性에 의한 統一

III-2. 統一의 基盤 造成

- ① 民族主體意識과 國家一體感 形成
- ② 韓國의 正統性 確立
- ③ 社會正義의 高揚

III-3. 國力培養과 國家安保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을 이룩해야 할 우리의 當面課題를 수행함에 있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은 國家安保와 國力培養이다. 우리의 體制를 지키는 安保態勢를 튼튼히 하는 한편 內的으로 國力を 강하게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다 先行되어야 할 課題임을 알서도 여러번 되풀이하여 지적한 바 있다.

祖國統一의 基盤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도되고 있는 南北對話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지만 統一이 쉽게 이루어지리라는 期待는 현단계로 보아서는 지나친 樂觀일 것임을 理解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南北間의 競爭은 새로운 次元에서 종전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對內的으로는 建設과 國力增強의 競爭이 치열하게 계속될 것이며, 對外的으로는 國際機構에서의 競爭 등 多角的인 外交競爭이 치열하게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南北間의 競爭이 어떠한 형태가 되든 그에는 國力の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北韓이 계속적인 挑發을 통해 우리의 體制를 위협하고 있는 한, 國家安保 역시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事實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理念을 具現하고, 우리의 念願인 祖國統一을 성취하고, 國家發展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國力培養과 國家安保에 있음을 인식시키면서 더욱 구체적 事實들을 보여줌으로서 이 두 측면의 課題의 重要性을 實感케 해야 할 것이다. 이르기 위하여 南北 經濟力量을 比較하면서 國力培養의 重要性과 그 展望을 이해하게 하고 또한 南北 國防力量을 比較하면서 總力安保의 필요성을 실감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經濟成長 :

南北間의 對話를 위한 접촉은 새로운 次元의 競爭을 의미하며, 새로운 次元의 競爭이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든 國力の 優劣 여하로 판가름나게 될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南北間의 經濟力量을 비교하면 現在 水準으로도 우리가 優勢하며 앞서 계시한 우리의 經濟發展 展望으로 보면 우리가 점차 北韓보다 더욱 優勢하리라는 確信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與件이 北韓보다 유리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經濟體制의 優秀성과 우리의 人力 그리고 우리의 努力에 의하여 이루어진 結果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의 國力を 組織化하여 加速化시키는 凡國民의 努力이 계속된다면 기필코 우리의 經濟力은 北韓을 크게 능가하여 모든 側面的 對決과 競

爭에서 우리측에 有利한 方向으로 유도될 것이 확실시된다.

-2) 南北對話와 國家安保 :

北韓은 오래전부터 武力에 의한 南侵을 계획해 왔으며 모든 經濟力과 人力을 武裝化에 경주해 온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은 南北對話 以後에도 赤化統一 野慾을 포기치 않고 있으므로 우리는 近代의 軍裝備를 強化하는 한편, 北韓의 武力優勢를 꺾을 수 있도록 備쳐져야 할 것이 크게 요청된다. 이르기 위하여 政府는 다음과 같은 總力安保 體制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① 과거의 集團安保 體制에서 파생되었던 外勢依存的 國防意識을 止揚하고, 國民의 自主的 國防意識을 高揚한다.
- ② 軍裝備의 現代化를 推進한다.
- ③ 軍의 精銳化를 위한 精神的·肉體的 훈련을 強化한다.
- ④ 自主國防 態勢의 확립을 위하여 戰略的 重化學工業을 육성하고 防衛産業 技術을 육성한다.
- ⑤ 總力安保 態勢를 확립하기 위하여 國家總動員 體制를 확립하고 그 機動化를 강화한다.

第3章 國民의 使命

本章은 本部의 結論的 性格을 갖는 동시에 本 教授指針書의 結論的 性格을 아울러 갖는다. 따라서 本 教授指針書의 目標와 內容概要 및 強調點들을 간략히 정리 소개하여 國民의 使命意識을 고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상 本 教授指針書의 各部和 章의 內容에서 國民으로서 수행해야 할 課題와 使命을 고취하는 問題들이 취급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本章이 의도하려는 目標가 달성되는 內容으로 정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本章에서 本 教授指針書의 全 영역에서 취급되고 있는 요거 그대로를 다시 정리하는 중복을 피하고 강조되어야 할 요지를 중심으로 再整理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內容要素를 조직하게 된다.

結論的 性格을 띤 本章이 의도하는 目標은 우리가 指向하는 發展的 未來像을 제시하여 그 未來像에 대한 理想을 갖게하고 그 理想實現을 위한 國家의 努力에 보람과 긍지를 가져 民族中興의 새 歷史 創造者로서의 使命感을 고취하려는 것이다. 이를 좀더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이 志向하는 發展的 未來像을 이해한다.

둘째, 統一問題 解決에 있어 韓國의 主導的 役割을 인식케 하여 統一課業에 要求되는 努力의 重要성을 이해한다.

셋째, 統一 後의 榮光된 未來國家像에 대한 「비전」을 갖게하고 그 理想實現을 위한 國家의 事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확립케 한다.

넷째, 個人의 最善我實現을 위한 努力과 國家發展을 위한 努力과의 관계를 인식케 하여 스스로의 努力의 重要성을 이해한다.

다섯째, 民族中興의 새 歷史 創造者로서의 使命感을 고취한다.

이러한 目標達成을 위해 취급되는 內容과 그 組織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韓國의 發展的 未來像

둘째, 統一 後의 榮光된 國家未來像

셋째,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 등이다.

I. 韓國의 發展의 未來像

새로운 體制의 樹立과 그 效率의 運營 그리고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國家의 課業에 全 國民의 努力이 경주된다면 韓國의 發展의 未來像은 분명히 榮光스럽고 밝고 希望的인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밝은 未來像은 물론 그저 한 폭의 그림이나 꿈과 같은 理想만의 것이 아니고 實現可能한 것이어야 한다. 理想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指導者와 온 國民의 總和的 意志와 不屈의 努力이 必要할 것이다. 이러한 意志와 努力을 전제로 한 實現可能한 發展의 未來像을 제시해 본다.

I-1. 韓國民主主義의 定立과 發展

① 大統領中心의 指導體制 確立은 國政의 效率化를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爲民의 責任政治가 具現될 것이다.

② 大統領과 國會議員 등 代表의 任期를 6年으로 연장함으로써 代表選出을 위한 政治的 混亂과 浪費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③ 行政府의 爲民의 責任政治, 議會政治의 效率의 運營, 司法의 權威 向上 등 三權의 均衡있는 發展으로 民主韓國의 건설터진이 구축되어질 것이다.

④ 政治的 制度의 改革과 改善된 制度의 效率의 運營으로 爲政者들의 政治行態가 刷新되고 國民들의 政治意識이 高揚되어 政治的 安定과 發達이 촉진 될 것이다.

⑤ 超黨의으로 구성된 國民을 代表하는 統一主體 國民會議을 統治機構의 項點으로 하고 있어 國力의 組織化와 國論統一 등 總和體制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I-2. 平和的 民主統一의 確立

① 南北對話 터진의 마련으로 점차 相互不信과 武力挑發의 危險이 감소되고 信賴의 幅을 넓히며 努力하게 될 것이다.

② 內的으로는 民族的, 民主的 그리고 自主的인 精神態勢에 기반을 둔 國力培養과 外的으로는 平和統一 外交政策의 강력한 추진에 의한 韓國의 國際

社會속의 地位向上으로 民主統一의 기반이 國內外的으로 확고해질 것이다.

1-3. 經濟的 安定과 繁榮

① 1,2次 5 個年 經濟開發計劃의 결과로 工業立國과 自立經濟의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이를 基盤으로 한 3,4次 5 個年 經濟計劃이 완수되는 80年代 에는 自立段階를 넘어 自榮의 段階, 豐饒의 段階로 접어들 것이다.

② 中進上位圈에 들어설 國民總生産

國民總生産과 一人當 所得

| 區 分 | 61 | 66 | 71 | 76 | 81 |
|------------------|-------|-------|-------|--------|---------|
| 國民總生産 (100萬弗) | 2,400 | 3,800 | 8,029 | 16,163 | 33,221 |
| 成 長 率 | 4.2 | 13.4 | 9.8 | 10.0 | 10.0 |
| 一人當所得 (弗) | 94.9 | 130.8 | 252.0 | 500.0 | 1,000.0 |

③ 高度化되는 產業構造

產業構造의 發展展望

(單位: 年度)

| 產業區分 | 61 | 66 | 71 | 76 | 81 | 備 考 |
|---------------------|------|------|------|------|------|-------------------------------------|
| 農 林 水 產 業 | 43.8 | 37.9 | 26.3 | 20.8 | 16.5 | (成長率) 72-76: 4.8% 77-81: 5.0% |
| 鑛 工 業 | 14.9 | 19.9 | 23.8 | 29.8 | 38.8 | 72-76: 14.8% 77-81: 15.0% |
|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비스業 | 41.3 | 42.2 | 49.9 | 49.4 | 44.7 | 72-76: 9.6% 77-81: 7.8% |

④ 輸出과 經濟自立

① 輸出構造

| 區 分 | 61 | 66 | 71 | 76 | 81 |
|------------|------|------|------|-------|-------|
| 1次 產 品 (%) | 78.0 | 37.6 | 14.0 | 9.4 | 5.0 |
| 工 產 品 (%) | 22.0 | 62.4 | 86.0 | 90.6 | 95.0 |
| 對 象 國 數 | 25 | 74 | 108 | 125 | 140 |
| 品 目 數 | 100 | 445 | 983 | 1,120 | 1,200 |

㉔ 總輸出

(單位：百萬弗)

| 區分 \ 年度 | 61 | 66 | 71 | 76 | 81 |
|---------|-----|-----|-------|-------|--------|
| 總輸出 | 146 | 455 | 1,616 | 4,069 | 11,000 |
| 貿易 | 43 | 256 | 1,132 | 3,510 | 10,000 |
| 貿易外 | 105 | 205 | 484 | 559 | 1,000 |

⑤ 經濟安定의 基盤確立

㉕ 物價安定

物價上昇率 展望 (全國都賣物價) (單位：%)

| 年 度 | 61 | 66 | 71 | 76 | 81 |
|-------|------|------|-----|-----|-----|
| 物價上昇率 | 13.3 | 10.0 | 8.6 | 3.0 | 3.0 |

㉖ 換率安定

外貨保有高 展望

(單位：百萬弗)

| 年 度 | 61 | 66 | 71 | 76 | 81 |
|------|-----|-----|-----|-----|-------|
| 外貨保有 | 205 | 138 | 535 | 974 | 2,379 |

I-4. 福祉社會의 實現.

-1) 教 育:

① 義務教育 年限의 延長은 現在의 國民學校 6年에서 中學 3學年까지로 年限이 延長될 것이다.

② 教育機會의 擴大

③ 教育의 平準化: 量的, 質的 兩面

(單位：%)

| 區分 \ 年度 | 61 | 66 | 71 | 76 | 81 |
|---------|------|-------|-------|-------|------|
| 總就學率 | 55.1 | 60.2 | 63.9 | 64.8 | 66.3 |
| 國民學校就學率 | 98.2 | 100.2 | 106.6 | 104.8 | 99.7 |
| 中學校就學率 | 37.5 | 41.8 | 55.5 | 75.2 | 83.4 |
| 高等學校就學率 | 19.7 | 24.6 | 30.9 | 41.5 | 51.2 |
| 大學學校就學率 | 7.6 | 8.1 | 7.6 | 9.0 | 12.2 |

④ 產學協同體制 擴張으로 地域社會의 特性에 맞는 專門教育의 實現

⑤ 就學率의 上昇

-2) 文 化:

① 傳統文化의 繼承

② 民族文化의 創造

③ 文化의 生活環境

④ 文化水準 平準化 등이 이루어 질 것이다.

-3) 社 會:

① 就業人口 增加와 失業率 低下

失 業 率 展 望

| 年 度 | 66 | 71 | 81 |
|-------|------|------|------|
| 失 業 率 | 7.4% | 4.5% | 3.0% |

② 밝은 社會: 法秩序와 社會倫理意識에 대한 安定되고 明朗한 社會秩序의 確立

③ 誠實한 社會: 不正腐敗와 不條理가 없는 모두가 일하고 建設하는 誠實한 社會 建設

④ 勤勞者의 社會保障制 確立

⑤ 文化施設을 갖춘 住宅 建設

⑥ 自由의 極大化와 國民倫理의 自律化

⑦ 社會正義의 實現

II. 統一 後의 榮光된 國家未來像

우리는 韓國의 發展의 未來像을 여러 각도에서 展望해 보았다. 이러한 未來像은 꿈과같은 理想이 아닌, 努力如何로 實現可能한 未來像이며 그리고 想定된 期間도 원대한 長期間이 아닌, 80年代를 基準으로 한 눈앞에 둔 未來像이었음에 반하여 여기에서는 좀더 長期間을 展望하는 未來像이다. 어느 特定의 期間을 限定함이 없이, 그러나 統一 後라는 期間을 예상하여 우리나라

라에 있게 될 榮光된 未來像을 그려보면서 희망과 긍지, 그리고 그를 향한 努力의 價値를 인식케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未來像에 투시되는 理想없이 現在의 努力을 값지게 여겨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없다.

II-1. 文化民族

우리나라가 처한 地政學的 條件 때문에 수 많은 外勢의 侵略으로 온갖 苦難과 國權을 잃을 위기마저 당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4천여년동안 한번도 斷絶됨이 없이 이어 오게된 韓民族은 또다시 他律에 의한 祖國分斷의 고난을 당하고는 있으나 그 民族性을 회복하리라는 自信을 가지고 統一에의 努力을 계속하고 있다. 過去의 우리 民族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民族的 主體意識으로 祖國의 分斷問題를 기필코 해결할 것이다. 비단 統一에의 길이 험난하고 온갖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의 民族的 主體意識이 존속되는 한 어떠한 他律의 壓力과 拘束이 계속되더라도 祖國統一은 可能할 것이고 또 可能하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民族의 至上課業으로 이의 성취를 위한 모든 努力을 계속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分斷된 苦痛과 統一을 위한 피땀 어린 努力은 統一後의 榮光스러운 文化民族으로서의 勇態를 그리며 참고 계속하는 것이다. 統一後에 우리 民族이 가질 榮光과 보람은 三國統一後의 보람이나 日帝로 부터 解放되던 감격에 비할것이 아닐 것이다. 또한 統一後 우리 民族이 創造하게 될 文化는 찬란할 것이며 世界에 빛나게 될 것이다. 우리 民族의 슬기는 過去에도 戰爭이 없이 平和로운 時期에 크게 발휘되어 世界史에 빛나는 큰 업적들을 남긴 바 있다. 우리도 統一된 興件과 平和가 지속되면 祖上의 創業 以上の 것들을 創造할 수 있는 能力과 自信을 가진 民族임을 자부하게 된다. 이를 立證하는 事例들이 이같은 現實的 惡條件에도 불구하고 世界에 과시되고 있다.

II-2. 平和國家

수 많은 外侵을 받아 왔음에도 우리 民族은 본질적으로 平和愛護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 統一이 이루어지면 過去의 教訓으로 다시는 內部的 紛爭은 물론 外國의 어떠한 侵略의 野慾에도 굴복하지 않는 태세들이 갖추어질 것이

며 民族의 본질적 특성인 平和의 性格을 기반으로 온갖 文化와 밝고 誠實한 國家를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統一 後면 文化民族으로서의 긍지는 물론 文化的 創業에 힘을 기울이며 平和守護를 위한 온갖 努力이 경주될 것이며 온갖 文化가 꽃피고 平和로운 생활이 계속될 榮光스러운 國家像이 그려지게 된다.

II-3. 福祉社會

統一이 되면 그동안 分斷되고 北韓의 계속적 武力挑發에 의한 파괴와 고난을 가진 惡條件에도 세운 經濟建設의 기반위에 풍요의 社會는 건설될 것이며, 갖가지 종류의 社會保障制度和 福祉增進 事業들이 확장될 것이며, 國民生活의 向上은 물론 生活環境들이 개선되어 社會正義의 實現은 낙관시 될 것이다. 이러한 福祉社會의 實現을 위한 基盤은 現在의 여러 惡條件에도 불구하고 구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底力은 統一 後면 더욱 발휘되어 어느 다른 先進國의 福祉體制보다 더욱 훌륭한 理想的 福祉體制를 갖출 우리 固有의 特性들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兒童 및 靑少年 福祉와 年老者의 福祉를 위한 制度的 形態가 어떠한 것이든 年少者의 成人에 依存하는 것을 美德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傳統的 意識이나 敬老思想 같은 것이 뒷받침되고 있는 한 制度的 運營은 효과적일 可能性이 많다.

II-4. 韓國의 國際的 地位

지금도 우리는 國力伸張과 國內安定을 기반으로 國際社會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고 있지만 統一 後의 世界속의 韓國의 地位는 더욱 신장될 것이 확실시 된다. 過去에 한동안 그러했던 바와같이 國力이 微弱하게 되면 國際情勢가 어떻게 소용돌이치는 또한 南北關係가 어떠한 危機를 몰고오든, 다만 안타깝게 強大國간의 大勢의 推移에 被動的으로 휩쓸릴뿐 우리는 自主的이고 主體的으로 世界大勢의 推移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구축한 世界속의 韓國의 地位를 統一 後면 더욱 높혀 國威를 높이 선양하게 될 것은 물론, 世界平和와 共榮에 우리의 능동적인 힘으로 自律的인 공헌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 韓國 國民이 世界 어느곳을 가나 文化民族으로서

당당한 國籍있는 國民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威品있는 行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Ⅲ.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

우리가 志向하는 새 歷史 創造의 方向은 民主理念을 우리 固有의 傳統的 民族主體意識과 價値樣式 그리고 現實의 기반위에 具現하고 祖國統一을 실현하며 國家發展을 촉진하고 나아가 人類共榮의 世界를 建設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요청되는 當面한 課題들은 앞서 밝힌 바 있고 또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發展的이고 創造의 未來像과 榮光된 國家像을 그려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理想과 未來像이 하나의 꿈이 아니고 우리의 現實앞에 實現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불굴의 信念과 自信 그리고 계속적인 努力 如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理想의 實現 可能性은 한 特定の 個人이나 少數人의 集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領域의 指導者는 물론 全國民의 努力에 의하여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民族의 大課業을 完遂하고 後孫에 물려줄 榮光된 祖國을 建設할 歷史的 使命을 지고 있는 것이다. 現實의 잘못된 점을 우리는 흔히 祖上의 잘못으로 돌리는 습성을 갖는다. 우리는 이러한 습성을 버리고 도리어 祖上의 빛난 얼과 韓民族을 지켜온 그들의 투지력을 오늘에 되살려 길이 後孫에 물려줄 榮光된 祖國 앞날을 내다보며 當面한 課業遂行에 매진할 歷史的 使命을 떠고 있는 것이다.

Ⅲ-1. 民族文化史의 創造의 役割

國力を 伸張하여 安定과 繁榮을 이룩하고 國權을 守護하며 民族의 念願인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달성하여 榮光된 祖國을 건설하는 民族의 活路를 개척하는 救國的 使命을 지금 우리는 지고 있다.

수 많은 난관과 고난을 이겨 지켜온 우리의 民族國家를 조금도 손상시킬 이 없이 더욱 발전시켜야 할 歷史的 使命意識으로 現實의 當면과제를 수행

할 것이 요청된다. 이것이 民族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祖上들의 일에 보답하는 길이요, 愛國하는 길이며, 後孫에 물려줄 民族意識이다.

우리는 四千年의 유구한 民族史위에 堅持되어 온 우리 大韓民國의 民族史的 正統性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이를 더욱 신장 발전시키려는 使命感을 더 높여 가져야 한다.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사로잡혀 우리의 傳統的인 社會秩序를 파괴하고 階級鬭爭을 내세워 唯一思想體制를 住民에게 강요하는 北韓과는 달리, 우리는 協同總和로서 相扶相助하고 個人의 自由와 人權을 존중하며 나라와 民族을 위하여 融和하는 倍達民族의 正氣와 正統性을 이어받은 民族史의 主體임을 깨닫고 이를 더욱 빛내야 할 막중한 과제들이 우리에게 지워지고 있음을 자각하여 民族文化를 더욱 빛내는 創造的 使命意識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Ⅲ-2. 歷史的 使命意識

① 主體的 民族史觀의 確立

② 近代의 民族 國家觀의 確立: 西歐社會의 市民意識은 오랜 思想的 發展의 터전위에 육성된 기본정신이다. “民主主義의 成長過程”에서도 논급되어 있듯이 自然法 思想, 社會契約說, 宗教改革, 文藝復興 등 일련의 근대적인 哲學이 市民意識을 육성할 수 있었던 精神的 바탕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近代의 市民意識을 확대하기 위해서 民族意識이라는 준거기준이 필요하다. 우리의 傳統意識의 기본이 되는 民族意識을 기반으로 하여 市民意識의 방향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傳統意識을 저버리고 西歐의 市民意識을 涵養하려한 과거의 잘못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시급한 것이 主體的 民族史觀의 確立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市民意識의 涵養이 近代의 國家觀을 確立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主體的 民族史觀과 民族國家觀의 確立위에 歷史的 使命意識이 育成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새로운 民族史의 創造的 使命意識도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Ⅲ-3. 國家的 事業에의 總和의 參與

安定과 繁榮과 統一을 志向하는 課題는 수 없이 많다. 이러한 수 없이 많은 課業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自主, 自助, 自立, 自衛, 自決의 精神이며 이러한 정신의 結晶으로 民族主體性이 형성된다. 우리는 勤勉하는 努力, 自助하는 精神 그리고 協同하는 行動을 발휘하여 우리 民族의 主體의 힘과 主體의 精神을 確立하여 國民의 總和로서 國家의 事業에 參與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國家의 事業이라 하여 共產獨裁國家에서처럼 參與를 強요하지는 않는다. 國民 各者의 自律的 判斷에 의한 參與가 권장되며 따라서 自主, 自助, 自立, 自決 등의 精神의 姿勢를 강조하는 것이다. 새마을 運動도 바로 이러한 精神姿勢를 강조하는 運動이다. 개인 스스로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한 努力이 권장되며, 이러한 努力이 뭉쳐 協同하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信念으로 勤勉, 自助, 協同의 중요성을 새마을 運動의 精神의 姿勢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現在 추진중인 모든 國家의 事業은 國民 모두의 發展과 繁榮 그리고 福祉 增進을 위함이다. 그러나 소수인의 努力만으로 쉽게 완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國民 모두의 團結된 總和의 參與에 의해서만 그 成果를 極大化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部分的인 事業이 아니라 全般的인 革新이 요구되는 事業이며 따라서 國民全體의 總和의 參與가 요청되는 事業이다.

Ⅲ-4.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助의 努力

모든 活動의 主體가 되는 基本的인 單位는 個人이다. 더욱이 民主主義의 基本價値가 個人의 尊嚴성과 個人의 最善我實現에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國民 個個人의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의 能力과 努力을 民主主義는 믿는다. 만일 이러한 信念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民主主義의 값은 상실된다. 그 말은 個人이 자기의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의 努力을 게을리하거나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태도나 행동을 한다고 하면 民主主義의 값은 상실되며 民主主義 理念이 具現될 기반은 무너지게 된다. 各者 個人이 스스로가 主體가 되어 자기의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의 努力이 강하게 발휘되는 곳에 民主主義

理念의 具現은 可能할 것이며 그것이 底力이 되어 國家全體의 發展과 繁榮이 可能해질 것으로 믿는 것이다.

따라서 個人의 發展如何의 責任은 1次的으로 個人에 있고, 個人의 最善我實現을 위한 努力을 최대한으로 可能할 수 있도록 하는 與件의 改善은 政治 指導者에게도 있다. 오늘날 國民의 總和的 努力이 요청되는 것은 이러한 모두를 위한 與件의 改善에 있고 이러한 總和的 努力에 의한 與件의 改善은 결국 個人의 最善我實現을 可能케 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個人의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的 努力은 國家全體의 發展을 촉진하는 基本的 單位이며 동시에 總和的 努力에 의한 國家發展은 個人의 最善我實現을 더욱 可能케 하는 基本的 條件이 되는 것이다.

◇ 정간위 심의필 : 31-5-165

統一教育 教授 指針書

(政治思想教育)

印刷 : 1973. .

發行 : 1973. .

發行處 : 國土統一院(教育弘報室)

印刷所 : 서울新聞社

<비 매 품>

